

국립국어원 2011-01-27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49-01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3 보고서
(경북 의성 지역어)

■ 연구 책임자 : 최명옥

■ 연구 보조원 : 김아름

■ 조사 지역 : 중국 길림성 영길현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중국 길림성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경상북도 의
성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
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05일
연구책임자 : **최명옥**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경북 의성 지역 출신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구술발화(4 시간 분량), 음운, 어휘, 문법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는 2011년 7월 25일 - 8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시간은 구술발화 18시간 37분, 어휘 13시간 17분, 음운 6시간 47분, 문법 3시간 17분으로 총 41시간 58분이다.

이 자료는 1940년대 초기에 한국의 의성에서 길림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남방언 특히 경상북도 의성 지역어에 대해 알려줄 것이며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와 한국어표준어와의 언어접촉으로 인한 제 언어의 간섭현상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 내의 현대 경북 의성 지역어와의 대비방언학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 길림성, 동남방언, 의성 지역어, 언어접촉, 언어 간섭현상, 대비방언학 연구

〈영문 abstract〉

This paper is a report on Korean language data collected in Jilin province, China, from the informant born in Uyeong, Kyeongsangbuk-do in South Korea.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25th July to 9th August in 2011. The data reported here consists of four parts; 4-hour free-speaking materials, vocabulary, phonology and grammar. The total time of the record data is 41 hours and 58 minutes, which includes 18 hours 37 minutes of free-speaking data, 13 hours 17 minutes of vocabulary data, 6 hours 47 minutes of phonology data, and 3 hours 17 minutes of grammar data,

This data can give us a good understanding of South-eastern dialect, especially Uyeong dialect, which has been used by the people moved to Jilin province in early 1940s. And the data can reflect the linguistic interference phenomena by the language contact in Chinese and Standard (South) Korean. Moreover, the data can be used in contrastive dialect studies between Uyeong dialects in Korea and China.

Keywords: Jilin province, South-eastern dialect, Uyeong dialect, language contact, linguistic interference phenomena, contrastive dialect studies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3 보고서
(경북 의성 지역어)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3
3. 전사 자료	15
제 1 편 구술 발화	17
제 2 편 어휘	153
제 3 편 음운	207
제 4 편 문법	253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한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음성 파일, 작업용 16,000hz 음성 파일, 전 사 파일(.trs)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의 얼굴과 전 신, 조사 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길림성은 중국 북동부에 있는 성(省)이다. 남동쪽으로 북한·러시아와 인접하여 있다. 국경선은 1430여 km이며, 이 가운데 북한과 국경이 1100여 km, 러시아와 국경이 200여 km에 이른다. 훈춘(輝春)에서 남쪽으로 동해까지 이르는 거리가 10여 km에 불과한데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대외개방의 창구 역할을 한다.



주(周) 나라 때는 숙신(肅慎)의 영토였으며, 한(漢) 나라 때는 부여(扶余), 당(唐) 나라 때는 발해(渤海)의 영토였다. 요(辽) 나라 때는 상경(上京)·동경(东京) 등의 도(道)가 설치되었고, 원(元) 나라 때는 요양행성(遼陽行省)에 속하였다. 명(明) 나라 때는 여진(女真)의 영토였고, 청(淸) 나라 말기에 길림성(吉林省)이 설치되었다.

면적은 18만 7400km²로 국토 총면적의 2%를 차지하는 중급 성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와 창춘(長春)·길림(吉林)·사평(四平)·요원(遼源)·통화(通化)·백산(白山)·송원(松原)·백성(白城) 등 8개 지급시(地級市), 20개 현급시(縣級市),

18개 현, 3개 자치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문(圖們)·집안(集安) 등 9 곳의 국경출입구가 있으며, 전세계 130여개 국가 및 지역과 무역교류를 하고 있다.

구석기시대 말기인 약 4만 년 전에 만주족과 조선족의 선조인 유수인(榆樹人)과 안도인(安圖人)이 살았다. 청나라 초기에 유조변(柳條邊)을 설치하여 중동부 지역을 황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족(漢族)과 몽골족의 이주를 제한하였다. 여기에 만주족 인구가 남쪽인 요녕(遼寧)으로 이주함으로써 1812년까지 인구가 30여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청나라 말기에 이주 금지령이 풀리면서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들어와 개발하였고, 여기에 타관에서 생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입됨으로써 1931년 인구가 81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건국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1949년 1009만 명에서 2002년 264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인구 구성은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回族), 석백족(錫伯族) 등 4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수민족 비율은 약 9%이다. 연변(延邊) 지역에 집중 분포된 조선족은 자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

1.2. 제보자

제보자 신 할머니는 1926년에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에서 3남매 중 둘째로 출생했다. 오빠는 일찍 일본으로 돈 벌러 가서 일본에서 사망했고 남동생은 한국에 살고 있다. 신 할머니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다가 20세에,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가정으로 시집을 갔다. 거기서 5남 2녀를 낳아 모두 출가 시키고 지금은 길림성 영길현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신 할머니는 중국으로 시집 온 지 59년이 되던 79세 때에 한국의 고향을 처음 방문하여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거주하는 원래 조선족만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시작된 후 상당수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돈벌이하러 나가면서 한족(漢族)에게 농토와 집을 위탁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족 세대가 꽤 많다. 할머니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족과의 교류는 없지만 약간의 중국어 단어는 그 뜻을 이해하고 말 속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할머니가 심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식들이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주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한국 TV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표준한국어를 꽤 많이 사용한다.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이름: 신
- 성별 : 여
- 나이 : 86세(1926년 생)
- 출생지: 경북 의성군 사곡면
- 현주소: 중국 길림성 영길현

- 선대거주지: 경북 의성군
- 중국 이주: 20세에 결혼으로 중국 이주
- 직업: 농업
- 학력: 없음.
- 제보자 소개: 남경 대학의 이 교수가 소개하였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삶의 경험이 다양하며 기억력이 좋아 조사 내용에 대해 잘 답해 줌. 86세인데도 건강이 아주 좋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음성이 맑고 분명함.



<조사 마을: 왼쪽 첫집이 제보자의 집>

1.3. 조사 및 조사 내용

1.3.1. 조사

- (1) 조사자: 최명옥(연구책임자), 이금화 교수와 김춘자 교수(조사협력자)
- (2) 조사 지역: 중국 길림성 영길현
- (3) 조사 기간: 2011년 7월 25일 - 8월 9일
- (4) 조사 장소: 중국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진 동고가촌 7대(中國 吉林省 永吉縣 岔路河鎮 東高家村 7隊)

1.3.2. 조사 내용

연번	파일번호	녹음 시간	조사 내용	내용
01	CHL_YG_01	1:54	구술 발화	일생의례, 한국 갔던 추억, 가족소개

02	CHL_YG_02	2:08	구술 발화	큰 아들, 결혼식, 시대, 작은 아들 이야기
03	CHL_YG_03	1:23	구술 발화	일상 이야기, 장례 절차
04	CHL_YG_04	2:28	구술 발화	전화 통화, 식사 중 대화, 생업활동
05	CHL_YG_05	2:01	구술 발화	의 생활 및 거주 생활
06	CHL_YG_06	2:03	구술 발화	식생활
07	CHL_YG_07	2:07	구술 발화	거주 생활
08	CHL_YG_08	1:46	구술 발화	일상 이야기
09	CHL_YG_09	1:37	구술 발화	일상 이야기
10	CHL_YG_10	1:38	자연 발화	일상 이야기
11	CHL_YG_01	1:29	어휘	20101(벼)-20533(더덕)
12	CHL_YG_02	1:08	어휘	20601(쌀밥)-20842(개다리소반)
13	CHL_YG_03	1:52	어휘	20901(안방)-21265(여남은)
14	CHL_YG_04	1:48	어휘	21301(치마)-21742(도롱이)
15	CHL_YG_05	1:23	어휘	21801(이마)-22136(잠꼬대)
16	CHL_YG_06	2:15	어휘	22201(입덧)-22379(사투리)
17	CHL_YG_07	1:31	어휘	22401(물고기)-22736(올가미)
18	CHL_YG_08	1:51	어휘	22801(진달래꽃)-23441(서풍)
19	CHL_YG_01	1:55	음운	31001(테)-32064(붓-)
20	CHL_YG_02	2:02	음운	32065(옷-)-32185(얼-)
21	CHL_YG_03	1:31	음운	32186(뽕-)-32291(뜨겁-)
22	CHL_YG_04	1:19	음운	32292(미지근하-)-32362(밖)
23	CHL_YG_01	2:33	문법	40101(나)-40908(-는가보다)
24	CHL_YG_02	0:44	문법	41001(실컷)-41116(아니 뎌 굴뚝)

구술발화	18시간37분	
어휘	13시간17분	
음운	06시간47분	
문법	03시간17분	
합계	41시간58분	

● 녹음기 : 마란츠 PMD 660

● 마이크 : SURE SM11

1.4. 전사

- (1) 전사자: 이금화 교수(남경대학), 김춘자 교수(청도대학)

전사 일시: 2011년 8월 01일~2011년 10월 30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1, 구술발화6(이상 이금화 교수)
어휘, 음운, 문법(이상 김춘자 교수)

- (2) 1차 점검: 최명옥

1차 점검 일시: 2011년 11월 01일~2011년 11월 15일

- (3) 2차 점검: 최명옥

2차 점검 일시: 2011년 11월 20일~11월 30일

2. 전사 원칙

2.1. 구술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원칙적으로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구술발화는 소리나는 대로 전사하되 가능한 한 어간의 기저형을 밝혀서 어미와 구별하도록 했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중국어 단어 다음에는 (=X)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예. 쌍발햇(쌍발<중국어>-출근)다, 위해(지명, 웨이하이), 투슈(중국어-퇴직), 울산에(잘못 말습하심), 안패(중국어 발음의 영향)해라(안배해라), 중국 사람이꺼네(한족을 가리킴)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 (제보자) “@” (조사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생략된 경우 추측이 가능한 경우 (xx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의성지역어는 성조언어이므로, 상승조(上昇調)를 가진 음절은 해당 음절의 모음을 반복하여 표기했다. 예. 시이상{세상}, 모웃가고{못가소}, 조오온 소리{좋은 소리} 등. 그리고 특별한 음운과적을 보일 경우에는 해당 음절 또는 단어 뒤에 []하고 그 속에 실제 음성형을 전사했다. 예. 내 길 나[라]선 집에{내 길 나선 집에}, 둘도[또][둘도], 갈 적[쩍]에{갈 적에} 등.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문법 형태(예. -이니?)를 조사할 경우, 조사에 이용된 어간(예. 생일)이 표제 항목의 것(예. 집)과 다를지라도, 전사에는 표제항목의 어간으로 대치하였다. 예. 조사: 생이리냐, 전사: 지비냐
- ③ 표제 항목에는 없지만 표제 항목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에 대해서는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 [wi]’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 또는 “:::”으로 표시하였다.
- ⑤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2011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3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1: 연구책임자. @2: 이금화 교수, @3: 김춘자 교수)

1.1. 일생 의례

1.1.1 제보자의 태생

[구술발화 1]

10101 @1 2011년 7월 27일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진 동고가촌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2011년 7월 27일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진 동고가촌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10201 @1 출생지가 어딴니까?{출생지가 어딴니까?}

10201 # 그, 저 한국 {그, 저 한국}

10201 @1 예 예 예, 한국 출생지요? {예 예 예, 한국 출생지요?}

10201 # 예, 한국 출생지 그 땡 거기래요. {예, 한국 출생지 그 땡 거기래요.}

10201 # 으성군, 경북 으성군 사곡면, 사곡면 그 고 밑에 오상동 일구. {의성군, 경북 의성군 사곡면, 사곡면 그 그 밑에 오상동 일구.}

10201 @2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10201 # 신 {신 }

10201 @3 어릴 때 그 이름 쓰셨어요? {어릴 때 그 이름 쓰셨어요?}

10201 # 아니 어릴 적에는 애명은 또 아니라, 그 이름이 아이고. {아니 어릴 적에는 애명은 또 그 이름이 아니고.}

10201 @2 그럼 애명은요? {그럼 애명은요?}

10201 # 신 {신 }

10201 @2 그래서 복이 많으신가봅니다. { 그래서 복이 많으신가봅니다.}

10201 # 아이고, 복이 머 많노? {아이고, 복이 뭐 많나?}

10201 @2

10201 # 그래

그래

10201 # 심가도 이 여러가지라. {심가도 이 여러가지라.}

10201 @1 예. {예.}

10201 # 으에 들으면 심가라 한 사람도 있고, 신가라 나는 이 납신자[납신짜] 신가거든. {어떻게 들으면 심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신가라 나는 이 납신자 신가거든.}

10201 @1 예, 예, 그러고 저, 아버지 출생지는요? {예, 예, 그러고 저, 아버지 출생지는요?}

10201 # 땡 거기래요. {땡 거기래요.}

10201 @1 어머니는요? {어머니는요? }

10201 # 어머니도 땡 거기고. {어머니도 땡 거기고.}

10201 @1 의성입니까? {의성입니까?}

10201 # 예, 예, 으성이에요. {예, 예, 의성이에요}

10201 @1 아, 의성이고요. {아, 의성이고요.}

10201 # 어머니, 저 성, 성으는 박씨고. {어머니, 저 성, 성은 박씨고.}

10201 @1 박, 이름은 모르시고요? {박, 이름은 모르시고요?}

10201 # 박... ..박 박 이라. 박 . {박... ..박 , 박 이라. 박 .}

10201 @2 할아버지 이름은 혹시 아직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 이름은 혹시 아직 기억하십니까?}

10201 # 예, 신 . 인자 하도 오래되노이 정시이 왔다갔다 해. 신 예, . {예, 신 . 이제 너무 오래되어 정신이 왔다갔다 해. 신 예, .}

10201 @2 할머니, 거기에서 어릴 때 자랄 때 기억이 다 나세요? 몇 살 때 어떻게 놀았다는 거 다 기억나세요? {할머니, 거기에서 어릴 때 자랄 때 기억이 다 나세요? 몇 살 때 어떻게 놀았다는 거 다 기억나세요?}

10201 # 그래, 그저 머 농촌에서 이래 자라났지 머. {그래, 그저 뭐 농촌에서 이렇게 자라났지 뭐.}

10201 @1 그러면, 애릴 때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재미있는 거 이런거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어릴 때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 좀 해주시죠.}

10201 # 머 재미도 머 그저 글치요, 머 머 그저 사는 기 이렇게 저렇게 그래 살아 나온거지. {뭐 재미도 뭐 그저 그렇지요, 뭐, 뭐 그저 사는 거 이렇게 저렇게 그래 살아 나온 것이지.}

10201 # 그때는 우리 부친도 세상 떠부리고. {그때는 우리 부친도 세상 뜨고.}

1.1.2. 가족 이야기 (1): 오빠

10201 # 우리 엄마라매 우리 오빠는 일본에 가서 돈 벌에 보내께 생활하고, 우리 삼남매 라요. {우리 엄마랑 우리 오빠는 일본에 가서 돈 벌어 보내어 생활하고, 우리 삼남매 라요.}

10201 # 삼남매데, 딸을 딱 하아날 키아가지고 이커루 멀리 보냈부고. {삼남매데 딸을 딱 하나 키워서 이렇게 멀리 보내고.}

10201 # 보지도 못하고 시상 떴부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 뜨시고.}

10201 # 그래가주고 내가 한국을 갔지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갔죠.}

10201 # 한국을 가는데 우리 엄마 선물꺼정 해가 그래 가이께네 세상 다 떠부지. {한국을 갈 때 우리 엄마 선물까지 해서 가니까 세상 다 떴지.}

10201 # 그래 인제 예 우리 오빠가 노박 그저 동생을 못바가주고 그래 보고 짚어 보고 짚어 했는데. {그래 우리 오빠가 늘 그저 동생을 보지 못해서 그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했는데.}

10201 # 마춤 그날이 편지가 도착하이께네 우리 삼촌, 숙모, 마카 우리 조보 제삿날이라서 그날 모이거던요. 모이가주고. {마침 그날 편지가 도착할 때 우리 삼촌, 숙모, 모두 우리 조보 제삿날이어서 그날 모이였거던요. 모여서.}

10201 # 그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아이고, 내가 인젠 동생 한 부 만나보나겐구나. {그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아이고, 내가 이제 동생을 한 번 만나보겠구나.}

10201 # 우리 오빠가, 하도 하도 보고 싶어가. {우리 오빠가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10201 # 그때는 이리로 바리 못갔잖아요? 일본으로 들어갔다말이에요. {그때는 여기로 바로 못 갔잖아요? 일본으로 돌아갔다 말이에요.}

10201 # 일본을 도루 가이께네 모웃가고. {일본을 돌아가니까 못가고.}

10201 # 나는 일본 동경에 가고, 동생도 중국에서 일본 동경에 와가, 만나 보겠다고 이래 조오온 소리 하고 기빠가주 그랬는데. {나도 일본 동경에 가고, 동생도 중국에서 일본 동경에 와서 만나 보겠다고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하고 기빠서 그랬다는데.}

10201 # 그해 서얼 명절에, 확 집안끼리 모이가 화토놀이 하다가 쓰러져가꼬 그 길로 시상 뗏벗어요. 그래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해 설 명절에 집안끼리 모여서 화토놀이 하다가 쓰러져서 그 길로 세상을 뗏벗어요. 그래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10201 @1 예. {예.}

1.1.3 고향 방문 이야기

10201 # 그래 이분에 가가 우리 오빠 산소에 갔어요. 산소에 가가 {그래 이번에 가서 우리 오빠 산소에 갔어요. 산소에 가서}

10201 # 우리 엄마, 저 아버지 산소에 갈라계네 노오박 비가 오테요. {우리 엄마, 저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 하니까 계속 비가 오더라구요.}

10201 # 노오박 비가 와가 우리 동사댁이 '형님요, 함부로 가지 마래요. 나아만 사램이.' {계속 비가 와서 우리 동사 댁이 '형님요, 함부로 가지 말아요. 연세 많은 사람이.}'

10201 # 차는 여기다 세아놓고 산에 한짬 올라가야덴데. {차는 여기에 세워 놓고 산에 한참 올라가야덴데.}

10201 # 비 완테 미끄러언테 넘어지마 크은 일 나이께네 가지 마소. {비 왔는데 미끄러운데 넘어지면 큰 일 나니 가지 마소.}

10201 # 이담뿐에 와가주고 한부 가 바요. {이다음에 와서 한 번 가 봐요.}

10201 # 그래, 그 말도 맞다. 그카며 인제 그래 오빠 산소에 갔어요.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러면서 이제 오빠 산소에 갔어요.}

10201 # 가이 그 밑에 그 머 사가 그 갖다 놓는 그 상점이 있데요. {가니 그 밑에 그 뭐 사서 갖다 놓는 그 상점이 있더군요.}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그래, 그거 내가 사 가주고 그래가 그 채리 놓는 거 있어요? {그래 그것을 내가 사고 그 차려 놓는 것이 있어요?}

10201 @1 제상같이. {제상같이.}

10201 # 예. 그래 채리 놓는 기 있고 꽃 꽃이어 놓는 것 잇고 다 잇대. {예. 그렇게 차려 놓는 것이 있고 꽃 꽃아 놓는 것도 있고 다 있더라.}

10201 # 그래가 가가 어얼매 울어났던지 우리 막내아들은 엄마 그러면 안댄다고. {그래 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우리 막내아들은 엄마 그러면 안된다고.}

10201 # 엄마 그러면 엄마 머리 아프며 이 머언데서 어엘라꾸 자꾸 그래 우노? {엄마 그러면 엄마 머리 아프면 이 먼데서 어떻게 하려고 자꾸 그래 우는가?}

10201 # 못 울거러 하지. 그러가 시이컨 울구 보이께네 그 술을 부어 놓오라 하거던요. {울

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실컷 울고 나니 그 술을 부어 놓아라고 하더군요.}

10201 # 그래 내가 술을 붓고 '오빠, 내 술 한 잔 잡주세요' 그래, 그래 묘에다 술을 뿌렸어.
{그래 내가 술을 붓고 '오빠, 내 술 한 잔 잡주세요' 그러면서 묘에다 술을 뿌렸어.}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묘에다 술을, 술을 뿌리고 이래 보이께네 우리 질녀, 조카, 머 우리 아들 마케 앉아.
{묘에다 술을 뿌리고 이렇게 보니 우리 질녀, 조카, 뭐 우리 아들이 모두 앉아.}

10201 # 얼마, 얼마 울었던지 누이 버얼거해가 모두 기 췌어. 그래 내 고마 우꼬. {얼마나 울었는지 눈을 별정게 하고 그 췌어. 그래 내가 그만 울게.}

10201 # 우리 막내아들 상궁이가 '엄마 그래 울면 여 머리 아프며 크으일 난[란]다. 그리께
엄마 좀 더덜 울고 이제 울지 마라꼬' 그 아들 거어 서 그래. {우리 막내아들 상궁이
가 '엄마 그래 울어 머리가 아프면 큰 일 난다. 그러니 엄마 좀 덜 울고 이제 울지
말라고'그 아들이 거기 서서 그래.}

10201 # 그래 어예노? 천상 그래 우리가 사가 갖는 거는 그래 저짜 갖다 놓고 이에 모예
앉어. {그래 어찌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가 간 것은 저쪽에 갖다 놓고 이쪽에 모
여 앉아.}

10201 # 우리 그, 그 손서, 우리 그 질녀 신랑 김서방이라고 그래. {우리 그, 그 질서, 우리
그 질녀 신랑 김서방이라고 그래.}

10201 # '고모요, 여어서 술 한잔 잡숫고 마음 푸세요.' {'고모님, 여기서 술 한 잔 잡주시고
마음 푸세요.'}

10201 # 이 그케 우리 오빠가 날 왓는 줄 알겠나? {그러케 우리 오빠가 내가 왓는 줄 알겠나?}

10201 # 내가 묘오를 뿌디리면 그랬어, 묘오를 뿌디리면. {내가 묘를 두드리면서 그랬어. 묘
를 두드리면서.}

10201 # '오빠, 동생 왓는 줄 알아요?' 내가 막 그케고. {'오빠, 동생 왓는 줄 알아요?' 내가
막 그렇게 하고}

10201 # 그래고 어예노? 머 천상 집으로 와야대지. {그리고 어찌나? 뭐 천상 집으로 와야
하지.}

10201 # 갈라하이께 우리 동사댁이 말하는 기 이 생각 해보이 맞지머 예. {가려고 하니까
우리 동사 댁이 말한 것이 생각해보니 맞지 뭐.}

10201 # 비 오고 저 풀잎[잎]에 이슬이 가득한데. {비 와서 저 풀잎에 이슬이 가득한데.}

10201 # 이 늙은 사램이 땡기다 미끄러지며 어짜겠어요? {이 늙은 사램이 다니다 미끄러지
면 어짜겠어요?}

10201 # 그래, 동사 댁이 말 하는 기 그 말이 맞다 싶어 왓어요. {그래 동사 댁이 말하는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왓어요.}

10201 # 그래 와가주고 그 대구 와가 우리 동사 댁 집에서 그어서 자고 그래 인제 그 사진
을 찍어가. {그래 와서 그 대구 와서 우리 동사 댁 집에서 거기서 자고 그 사진을 찍
어서.}

10201 # 이번에 그 사진은 우리 막내 아들이 보내 돌래 해가 내가 보내 주고. {이번에 그
사진은 우리 막내 아들이 보내 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 주고.}

10201 # 그래, 그래 잇다가 내 여겨정 나온집에 고마 저기 그껴지 다부 안드가고. {그래,
그래 잇다가 내가 여기까지 나온 김에 저기 그곳까지 바로 안들어가고.}

10201 # 딸네[레] 집에 갈래, 우리 두우째 딸이 안산에 있었거던요. {딸네 집에 갈래, 우리

둘째 딸이 안산에 있었거든요.}

10201 # 그래 안산에 그 와가주고 그리 잊이이 다 쌍발했(중국어 출근)부고 내 혼자 거기 잊이이 세상 심심찮아요. {그래 안산에 그 와서 거기에 있으니 다 출근하고 나 혼자 거기 있으니 너무 심심하잖아요.}

10201 # 올라고 하이께네 그래 사우도 쌍빨햇부고 딸도 쌍빨햇부고 그 다음에. {오려고 하니까 그래 사위도 출근하고 딸도 출근하고 그 다음에.}

10201 # 그 어째노?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은 또 그날부터 쌍빨 나갓부고 그래가. {그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이, 우리 아들도 또 그날부터 출근하고 그래서.}

10201 # 그래 인제 그래서 우리 그 사우가 그래테. {그래 이제 그래서 우리 사위가 그러더라.}

10201 # 우리 그 손녀, 우리 두우째 아들레 큰 딸이 한국에 잊었어. {우리 그 손녀, 우리 둘째 아들레 큰 딸이 한국에 있었어.}

10201 # 이름이 금히라. '금히야, 니가 여 와가주고 할매 전송 해야 대지.' {이름이 금희라. '금희야, 네가 여기 와서 할머니 배웅해드려야지.}

10201 # '나는 그 그런 데 자주 안 가봤이이께 니는 한 뗏 분 가봤이이께 니 오라' 해가. {'나는 그런 곳에 자주 안 가봤으니, 너는 몇 번 가봤으니까 네가 오라' 해서.}

10201 # 그래 여기 우리 그 손네하고 우리 그 두우째 사우하고 그래 전송해가 그 고향에 와가주고 그 다음에 내 혼자 인제 와가주고. {그래 여기 우리 그 손녀하고 우리 그 둘째 사위하고 배웅해서 그 공항에 와서 그 다음에 내 혼자 와서.}

10201 # '내 길 나[라]선짐에 위해 한 부 가보자.' {내 길 나선 김에 웨이하이(중국 지명) 한 번 가보자.}

10201 # '내 집에 갔다가 갈라머 또 미잇달을 베뤄야 델란지 맞해를 베뤄야 델란지?' {내가 집에 갔다가 가려면 또 몇 달을 버뤄야 될런지 몇 해를 버뤄야 될런지?}

10201 # '그리께네 애, 내 여 나온짐[찌]에 위해로 갈란다. 위해로 비행기표로 위해로 떠이라' 그랬지. {그러니 애, 내 여기 나온 김에 위해로 가련다. 위해로, 비행기 표를 위해로 끊어라' 그랬지'}

1.1.4. 귀국 과정과 결혼 생활

10201 # 그래 인제 위해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 인제 비행길 타러 나왔지. 나왔는데. {그래 이제 위해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비행기 타러 나왔지, 나왔는데.}

10201 # 그래 그 사우람에 금히 그래 인사하고는 그래 저거는 가기로 하고 '할매, 주이해라.' {그래 그 사위하고 금희는 그렇게 인사하고는 그래 자기들은 가기로 하고 '할머니, 주의해라.}'

10201 # '그래, 내사 야야 주이하고 달고 간에 날 디더 주는 사람만 부탁 잘 해라.' {'그래, 나는 야야 주의하고 말고 간에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만 부탁 잘 해라.}'

10201 # 그래 비행기표 떨적에 그 다 쓰데요. 어떠케 어떠케 하라고 다 써가. {그래 비행기표 끊을 적에 그 다 쓰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써서.}

10201 # 그래 그 그게 원칭 너리이께네 나를 차를 태아가 그 갔다 앓히에터라쿠요 앓히에는데. {그래 그, 그게 워낙 넓으니까 나를 차를 태워서 그 갔다 앓혀 놓더라고요. 앓혀 있는데'}

10201 # 그래 웬 여자가 하나, 젊은 여자가 하나 '할머니, 어디꺼정 가는가?' 물어. {그 웬 여자가 하나, 젊은 여자 한 사람이 '할머니, 어디까지 가는가?' 물어.}

10201 # '내 위해로 가아네. '아, 댕어, 댕어요. 내도 위해꺼정 가이께네 내하고 같이 가면 대요.' 그러더라고. {내 위해로 가네. '아, 댕어. 댕어요. 저도 위해까지 가니까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

10201 # 그래가, 그래가 그래. '할머니 여기 꼭 앉아 있어요.' {그래더니 그래. '할머니, 여기 꼭 앉아 있으세요.'}

10201 # 이레 앉으있이이께네 그 공항에 일 보는 처녀들이 커어다아 꼬만 처녀들이 그 서이나 왔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공항에 일 보는 처녀들이, 키 큰 처녀들이 그 셋이나 왔어.}

10201 # 그래 와가 '할머니, 어디꺼정 가는가?' {그래 와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는가?'}

10201 # 그래 내가 어디꺼정 간다고 그래이께네 '요 꼬옥 앉아 잇이면 우리가 디리러 올체니 가만 앉아 있으라' 그래. {그래 내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요 꼭 앉아 있으면 우리가 모시러 올 테니 가만 앉아 있으라'고 그래.}

10201 # 그 신호를 세 분을 올리디마는 그 처녀 서이가 와가 날 데루고 가요 데루구 그 갖다 앓혀. {그 신호를 세 번 올리더니 그 처녀 셋 이가 와서 날 모시고 그 갖다 앓혀.}

10201 # 앓히이는데 그 내 옆에 땡 그 사람 같이 간다 한 사람 앓히이면서 그래. {앓히는데 그 내 옆에 역시 그 사람 같이 간다 하는 사람 앓히면서 그래.}

10201 # '여 사램이 와가 이 자리 비껴 달라, 이 남으 자리께네 비껴 달라 하면 비껴 주고 안 비껴 달라 하면 그저 앓어 잇어도 땡다.' {여 사램이 와서 이 자리 비껴 달라. 이 자리 남의 자리니까 비껴 달라 하면 비껴 주고 안 비껴 달라 하면 그저 앓아 잇어도 땡다.' 그래}

10201 # 그러다나이께 한국 사램이 지 자리라고 비끼 달라 하거덜. {그러다나니 한국 사램이 자기 자리라고 비껴 달라 하더라.}

10201 # 그래 그 사램이 그 안에꺼정 가고 그 한국 사램이 내 옆에 이레 앓았지머. {그래 그 사램이 그 안에까지 가고 그 한국 사램이 내 옆에 이렇게 앓았지머.}

10201 # 그래다 그러다 나이께네 또 머 정심을 주테. 비잉장에서 야? 정심을 주테. 그래 내가. {그러다나니까 또 머 점심을 주더라. 비행기에서 야? 점심을 주더라. 그래 내가.}

10201 # 그 머 씨라하두만, 씨라하는데 '내가 이거 못 씨이께네 이거 좀 씨 달라'고 그라이께네. {그 머 쓰라하던데, 쓰라하는데 '내가 이것 못 쓰니까 이것 좀 씨 달라'고 그러니까.}

10201 # '아까 그 같이 왔는 사람보고 씨라 하며 안대졌나?' 그래. {'아까 그 같이 왔는 사람보고 쓰라 하면 안되겠나?' 그래.}

10201 # '그 사램이 저어 안에 가 잇는데 내 그꺼정 찾아가는 시간이 없어서 씨 돌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씨가주고 그래 인제 앓어잇이께네. {그 사람이 저 안에 가 있어서 내가 그곳까지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씨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이 씨 줘서 그래 앓아있으니까.}

10201 # 그 사램이 같이 간다는 사램이 낭기 내릴 때 대이께니 왔어요. 와가주고. {그 사람이 같이 간다는 사람이 나중에 내릴 때 되니까 왔어요. 와서.}

10201 # '할머니, 인제 내릴 때 대이쓰께네 내려가자'고 그래. {'할머니, 이제 내릴 때 땡으니 내려가자'고 그래.}

10201 # 아, 하머 때가 댔나? 그럼 인제 그 내가 그 상을 받았이께네 내가 다 못 먹잖아요. 그거를 다. {아, 벌써 때가 났나? 그럼 이제 그 내가 그 상을 받았으니 내가 다 못 먹잖아요. 그것을 다.}

10201 # 그 씨는 사람을 내가 '나 이것만 해도 다 못 먹으께에'. {그 씨는 사람에게 내가 '나 이것만 해도 다 못 먹으니까'}

10201 # 그 사람이 젊었다말이. '이거 내 것[꺼]도 받아 잡수세요.' {그 사람이 젊었다 말이야. '이것 내 것도 받아 잡수세요.'}

10201 # 그삼 내가 갖다 놓이께네 '아이 할머니 다 잡수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갖다 놓으니까 '아니 할머니 다 잡수라'고 그래.}

10201 # '내가 그거 다 못 먹으께에 빨리 잡사요.' {'내가 그것 다 못 먹으니 빨리 잡수세요.'}

10201 # 그래, 그래 그래 앉았다가 내릴 때 대이께네 그 사램이 인사하고 그래대. {그래, 그래 그래 앉았다가 내릴 때 되니까 그 사람이 인사하고 그러더라.}

10201 # 그래 인제 그래 왔다, 오이께네. {그래 이제 그래 왔다, 오니까.}

10201 # 그래 그래 오다나이께네 그 울산에(잘못 말씀하심), 위해서 마중나왔어요. {그래 그래 오다나니 그 울산에, 위해서 마중나왔어요.}

10201 # 우리 아들해고, 손자하고, 우리 징손자하고 막 그래마중 한 차 나왔어. {우리 아들과고, 손자하고, 우리 증손자하고 막 그렇게 마중 한 차 나왔어.}

10201 # 나왔는데 꼭 꼬꾸랑한 할마이 지패이 짚고 비행장에서 내리는 거 누구도 없잖아요. 내 혼자이께 대반 알아 보지. {나왔는데 꼭 꼬부랑한 할머니 지팡이 짚고 비행장에서 내리는 사람 누구도 없잖아요. 내 혼자니까 대번에 알아 보지.}

10201 # 그 저기 한국 가서도 우리 조카도 예 꼬껴랑 할마이 내리오께 그 대반 알지머. {그 저기 한국 가서도 우리 조카도 예 꼬부랑 할머니 내려오니까 그 대번에 알지머.}

10201 # 그 상구이가 그래. 상구이가 긴다 '그으께 늙은 사램이 누구도 없대요.' 그래가 우리 조카도 그래 대반 알아보고. {그 상군이까 그래. 상군이까 그런다. '그렇게 늙은 사람이 누구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그래 대번에 알아보고.}

10201 # 그래 인제 갖다. 그래 위해서 왔는 김이 좀 오래, 오래 앉아 노오라 이카이께네. {그래 이제 갖다. 그래 위해에 왔는김에 좀 오래, 오래 노시라 이러니.}

10201 # 우리 손녀 둘이가 위해꺼정 마징 보러 왔어. 방학 때가 대가이께네 여름 방학 때 대노이. {우리 손녀 둘이가 위해까지 마중 나왔어. 방학 때가 되니까 여름 방학 때가 되니.}

10201 # 우리 셋째 아들 손녀하고 우리 막내이 아들 손녀하고 둘이가 위해꺼정 왔어. {우리 셋째 아들 손녀하고 우리 막내 아들 손녀하고 둘이가 위해까지 왔어.}

10201 # 그 왔는 거 '야, 이너머 아아들아 이커루 멀얼리 머할라고 왔노?' {그 왔는 것을 '야, 애들아 이렇게 멀리 뭘 하려고 왔나?'}

10201 # '할매 아무리도 혼자 모오잖아. 우리 마중 와야 대지.' 그래. {'할머니 아무래도 혼자 못 오시잖아. 우리 마중 와야 하지.' 그래.}

10201 # 안와도 내 여꺼정 왔는 기 못가겠나? 아아들 맥지 이레 멀리 왔다고 그랬어. {안와도 내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가겠니? 애들 괜히 이렇게 멀리 왔다고 그랬어.}

10201 # 그래 인자 만내가주고 메칠 잇다가 그래요. {그래 이제 만나서 며칠 잇다가 그래요.}

10201 # 그 서이 비행기표 살레 해 봐요. 돈이 적잖잖아요? {그 셋 모두 비행기 표 살려 해 봐요. 돈이 적지 않잖아요?}

10201 # 그래 아아들 둘 배표를 사가 둘이 미리 보내코 장춘에 고모 집에 가 잇어라 그러

카구. {그래 애들 둘은 배표를 사서 둘이 미리 보내고 장춘 고모네 집에 가 있어라 그러고.}

10201 # 그래 내는 저 처연상 멀밀 마이 하다 나이께 이제 비행길 태아가주고 그래 보냈어 보내데. {그래 나는 꼭 멀미를 많이 하니까 이제 비행기를 태워서 그래 보냈어, 보내 더라.}

10201 # 거어서도 땡 그래. 그 복무원이야 땡 나암잔데 복무원이 꼭 날 그리 잘 데에다 주 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래. 그 복무원이 역시 남자인데 복무원이 또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더라.}

10201 # 디리구 오이께 장춘에 또 마중 한 차가 왔지요. {데리고 오니까 장춘에 또 마중을 한 차가 왔지요.}

10201 # 사우, 딸 그 머 뗏이가 왔어. {사위, 딸 그 머 뗏 사람이 왔어.}

10201 # 와가 날 손목을, 마중 완 사람 쥐에 주고 머 보파리 쥐에 주고 그 사램이 그래 가 데요. {와서 나를 손목을, 마중 나온 사람에게 쥐어 주고 머 보파리 쥐어 주고 그 사람이 그리고 가더군요.}

10201 # 복무원이들이 참 잘 해요. {복무원들이 참 잘 해요.}

10201 # 그 내가 그랫어. 암만 등시이라도 땡기내겠다. {그래 내가 그랫어. 아무리 머저리라도 다닐 수 있겠다.}

10201 # 이키 잘 해주는데 와 못 땡기겠노? 내가 글케. {이렇게 잘 해주는데 왜 못 다니겠나? 내가 그렇게.}

10201 # 그래가 인제 장춘에 와가 쪼끔 잇다가. {그래 이제 장춘에 와서 조금 잇다가.}

10201 # 잇이이께네 또 전하가 자아꾸 온다. 여기 잇는 우리 셋째 아들이 전하가 자꾸 온다. {잇으니까 또 전하가 자꾸 온다. 여기 잇는 셋째 아들이 전하가 자꾸 온다.}

10201 # '엄마, 인제 무시, 배차 숨굴 때가 대엿는데, 감자를 캐우고 무실 숨구야 안대겠나?' {'엄마, 이제 무, 배추 심을 때가 됐는데 감자를 캐고 무를 심어야 안 되겠나?}

10201 # '숨구야지.' '그 배차는 얼마 숨긔고 무시는 얼마 숨긔겠노?' 그래 다 무운지. {'심어야지.' '그 배추는 얼마 심고 무는 얼마 심겠나?' 그래 또 묻지.}

10201 # 그래 어느 쪽에 그래 무시 두 고랑 숨구고[꼬] 그 나무지 배차 숨거라. {그래 어느 쪽에, 그래 무를 두 고랑 심고 그 나머지는 배추 심어라.}

10201 # 그래 다 해고 그래 인제 오이께네 또 장춘서 여겨정 온데 멀미를 얼마 해요? {그래 다 하고 그래 이제 오니까 또 장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멀미를 얼마나 해요?}

10201 # 아이고, 멀미 하두 해가주고 한국 갈 쟈 주사 맞고 갓어요. {아이고, 멀미 너무 해서 한국 갈 때 주사 맞고 갓어요.}

10201 # 그 주사는 또 판데 안 놓고야 딱 여게다 놓데요. 그 주살 맞고 그래 갓지. 맞고 갓는데. {그 주사는 또 다른데 안 놓고 꼭 여기에다 놓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고 그래 갓지. 맞고 갓는데.}

10201 # 그 장춘 가가주고 신체 검사를 해야 대잖아요? 신체검사를 해야 대는데. {그 장춘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10201 # 가야 댜다고 가야 대는데. 그럼 까정 한 부 가보자. 머이 대던가 가보자. {가야 한다고 가야 하는데 해서 그럼 그까짓 한 번 가보자. 어떻게 되던가 가보자.}

10201 # 가야지, 신체 검사 해야 대면 가야지. {가야지, 건강검진을 해야 되면 가야지.}

10201 # 그래 인제 그 장춘에서 오다가나이께네 그 운전수가 그 아는 사램이 화평(지명)에

잇는 사램이 그래. {그래 이제 그 장춘에서 오다가나니 그 기사가 그 아는 사램이 화평에 잇는 사램이 그래.}

10201 # '야, 우리 엄마보다 멀미 더 하네요.' 그래테. 그래테. {'야, 우리 엄마보다 멀미 더 하네요.' 그러더라. 그러더라.}

10201 # 그 멀미 주사 놓는 사램이 김의산테 승니(지명) 사대에 잇이께네. {그 멀미 주사 놓는 사램이 김의사라고 하는데 승니 4대에 있으니까.}

10201 # 승니 사대에 잇이께네 그 사람한테 기별해든지 그 가든지 해가 주사 맞어요. {승니 4대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별하든지 거기에 가든지 해서 주사 맞아요.}

10201 # 갈 책[제]에는 그렐라 하이 하면 시간이 대엿지 해가 말 모했데. {갈 적에는 그러려고 하니 벌써 시간이 됐지 해서 말 못했데.}

10201 # 올 책에는 내 생각이 나가 말 하이께네 그 가가 한 분 말해보래. {올 적에는 내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하니까 그 가서 한 번 말해보래.}

10201 # 그래 오덤째루 우리 셋째 아들 내가 창문을 여얼면서 그래. {그래 오자마자 우리 셋째 아들에게 내가 창문을 열면서 그랬어.}

10201 # "야,야, 니 오두바이 오도바이 타고 그 승니 4대 김의사.' {'야, 야, 너 오토바이 타고 그 승니 4대 김의사.'}

10201 # '그 시고자(지명)에 잇던 김대장 동상 김의사 그 사램이 멀미 주사 놓는단다. 빨리 가 바라.' 이카йка. {'그 시고자에 잇던 김대장의 동생 김의사 그 사램이 멀미 주사 놓는단다. 빨리 가 바라.' 이러니까.}

10201 # 가아가 얼른 내가 독과는 그 봉지르 강에 갔다 집어 던지고는 그래 갔어. {개가 얼른 내가 토했 그 봉지를 강에 갔다 집어 던지고는 그리로 갔어.}

10201 # 가이께네 잇더라고. '그래 와서, 널 여덜시 전에 와가 주살 나[라]줄래 우리가 오까' 이까니. {가니까 잇더라. '그래 와서, 내일 여덟시 전에 와서 주사를 놓아줄래 아니면 우리가 올까' 이러니까.}

10201 # '내가 갈 책에 그 기다리고 잇어라' 이케. {'내가 갈 테니 그 기다리고 잇어라' 그래.}

10201 # 그날 저녁에 저기 야아들 상구이 아버지가 제에사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기 애들 상군이 아버지 제사라고요.}

10201 # 그래 제에사라서 우리 머언 길 떠나는데 밥을 떠놓고 가야지. {그래 제사라서 우리 머언 길 떠나는데 밥을 떠놓고 가야지.}

10201 # 그카머 그날 저녁 또 제에사 지낼라머 그날 저녁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또 제사 지내려면 그날 저녁 잠도 못 자잖아요?}

10201 # 그래가 제에사 지내고 그래 아침 먹고 이래 기다리이께 그 김의사가 왔어.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래 아침 먹고 이렇게 기다리니까 그 김의사가 왔어.}

10201 # 왔는데 저 주사통이 딱 요고마끔한게 세 통이데요. {왔는데 저 주사약이 딱 요만한게 세 통 이더군요.}

10201 @1 예. {예.}

10201 # 세 통인데 한 개씩 내애가주고 고래 씹어서 그래 한 대 여기다 나주요. {세 통인데 한 개씩 내서 고루 씹어서 그렇게 한 대 여기다 놓아 주요.}

10201 # 이거 놓으면 오늘 하루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 그카테. 그러가 주살 남고[라코] 장춘에 가았지. {이것 놓으면 오늘 하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군. 그래서 주사를 놓고 장춘에 갔지.}

10201 # 그래 내일이가 인제 비행기 탈 날[랄]인데 그래 또 장춘이 의사한테 가 이 주살 맞이라 그래. {그리고 내일이 이제 비행기 탈 날이니 그래 또 장춘의 의사한테 가서 이 주사를 맞아라 그래.}

10201 @1 예. {예.}

10201 # 그래 인제 가주가가 그 주살 또 맞았어. {그래 이제 가져가서 그 주사를 또 맞았어.}

10201 # 그 사람들도 주사를 어데 놓은 주를 모르데. {그 사람들도 주사를 어디에 놓는 줄을 모르더라고.}

10201 # 그래가 내가 여기다 놓더라고 그래이까네 주살 나[라]줏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놓더라고 그러니 주사를 놓아 주었어.}

10201 # 그래 주살 나[라]주고 그래 와가주고 가이께네. {그래 주사를 놓아 주고 그래 와서 가니.}

10201 # 그 비행기에 앉어도 일없고 차에 앉어도 일없고 무사이 자알 갓어요. 무사이 잘 가. {그 비행기에 앉아도 괜찮고 차에 앉아도 괜찮고 무사히 잘 갓어요.}

10201 # 아이고, 한국 가가 저,저 전할 하이 당췌 여기 전하가 안 통하네요. (아이고, 한국 가서 저, 저 전화를 하니 도저히 여기 전하가 안 통하네요.}

10201 # 그 집에서 어얼매나 기다리겠노 싶어가 전할 땀번 해도 전하가 안 통해. {그 집에서 얼마나 기다리겠나 싶어서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하가 안 통해.}

10201 #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리 그 있는 아아들한테 전할 해가 '집이 전하 빨리 해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리 그 있는 아이들한테 전화 해서 '집으로 전화 빨리 해 줘라.}'

10201 # '잘 도착했다고 해주라' 그케 했더니 그래 이편으로 전할 받았어. {'잘 도착했다고 해 줘라.' 그렇게 했더니 그래 이편으로 전화를 받았어.}

10201 # 아이고, 그래 그래 고생시리 가가 어얼매 잊지도 못하고 그래 온 뒤에 내가 그랬지. {아이고, 그래 그래 고생스레 가서 얼마 잊지도 못하고 그래 온 뒤에 내가 그랬지.}

10201 # 아무래도 첫 친정에다가 칠십 아홉에 첫 친정에다가 마지막 친정이다. 내가 그 생각 했지. {아무래도 첫 친정에다가, 칠십 아홉에 첫 친정에다가 마지막 친정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 했지.}

10201 # 그래 우리 질녀들도 그래. '고모, 또 한 번 와내겠나?' '아이고야 모르겠다 내가 그 또 와내겠나?' {그래 우리 질녀들도 그래. '고모, 또 한 번 와내겠나?'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그 또 와내겠나?}'

10201 # 그카구 그래 내가 하직하고 왔더니 명절 때마정 우리 질녀[려]가 맨날 전하가 와요. 안부 전하가 맨날 오지. {그렇게 말하고 내가 떠나왔더니 명절 때마다 우리 질녀가 계속 전하가 와요. 안부 전화가 계속 오지.}

10201 # 오더이 인저 어째 오래 대노이 인제 작년 설부터는 그래 안오데. {오더니 이제 오래 되니 이제 작년 설부터는 그렇게 안 오더라.}

10201 # 야아들이 노오박 그 큰일이고 며 명절이고 맨날 그 멩기지요. {아이들이 언제나 그 큰일이고 며 명절이고 계속 그 다니지요.}

10201 # 그래가 '고모, 오래오래 살아. 우리 중국 구경 한 번 하거렁.' 그카데. '오라.' {그래서 '고모, 오래오래 살아. 우리가 중국 구경 한 번 하게' 그러더라. '오라.'}

10201 # '고모, 우리 가만 다 만낼 수 있지?' '고모, 우리 가면 다 만낼 수 있지?'

10201 # '다 만낼 수 있지.' {'다 만낼 수 있지.'}

10201 # '그래, 그래 멀리 자식네들 멀리 잇다면 우리 만나내나?' {'그래, 그래 멀리 자식들이 멀리 잇다면서 우리 만나내나?'}

10201 # '아암만 멀어도 만나지 머. 한국에서 중국 오는데 왜 못 만나겟노? 만나야지.' {'아무리 멀어도 만나지 머, 한국에서 중국 오는데 왜 못 만나겟나? 만나야지.'}

10201 #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는 데 그게 마음대로 안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는 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10201 # '사람이여, 천날만날 버리도 돈 모지랜다 았카나요?' {'사람이여, 매일 벌어도 돈이 모자란다 안 그러나요?'}

10201 @1 그렇지요. {그렇지요.}

10201 # '사람마정 그건 다 그런게라.' {'사람마다 그것은 다 그런 것이라.'}

10201 # 그래께 '그래, 머 너 재간대로 너 올라머 오라. 오머 다 만낼 수 잇다.' 이케도 그기 안대요. 안대. {그러니까 '그래, 머 너 재간대로 너 오려면 오라. 오면 다 만낼 수 잇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안돼요. 안되.}

10201 # 그래, 그래 이리 지내는 파이래요. {그래, 그래 이렇게 지내는 판이래요.}

1.1.5. 가족 이야기 (2): 아들, 딸

10213 # 그 다음에는 그래지 아아들이야 '엄마, 저게 그 보모 하나 들랴라.'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아이들이. '엄마, 저게 그 가정부 하나 구해라.' 그래.}

10213 # '걱정마라. 보모는 무슨 보모? 내 혼자 끼러 먹는기야 밥 그거 왜 못해먹노?' {'걱정마라. 가정부는 무슨 가정부? 내 혼자 끓여 먹는거야 밥 그것 왜 못해 먹나?'}

10213 # '걱정 마라. 너 힘 딜이 버어린 돈 안써도 델 도는 내가 안쓰고 살란다.' 이래. {'걱정마라. 너희들 힘 들여 벌인 돈 안 써도 될 돈은 내가 안 쓰고 살란다.' 이래.}

10213 # 그래 우리 질녀[려]가 또 전하 왔지. {그래 우리 질녀가 또 전화 왔지.}

10213 # '고모, 혼자 밥 어떻게 해 먹는데?' {'고모, 혼자 밥 어떻게 해 먹는데?'}

10213 # '그래도 아아들이 보우무(중국어-가정부) 들리우라고 그카는 거 내가 안 들리쿠 이래 잇다' 카이. {'그래도 아이들이 가정부를 찾아라는 것을 내가 찾지 았고 이렇게 잇다.' 그러니까.}

10213 # '우리 질녀가 하는 말이 '자식 댄 도리라서 그을치 예 고모 손수레 해 잡사내마 그래 그 고모 생각도 맞다' 그래. {'우리 질녀가 하는 말이 '자식 된 도리로서 그렇지, 고모 손으로 직접 해 잡수실 수 있으면은 그래 그 고모 생각도 맞다' 그래.}

10213 # 그래, 내가 그 생각한다. 아아들이 그 힘딜고 애먹고 버어린 돈 내도 좀 애끼 주는 기 안 맞나? {그래,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 아이들이 그 힘들고 애먹고 벌인 돈 나도 좀 아껴 주는 것이 안 맞나?}

10213 # 그카미서 내가 보우무를 안대애구 잇엇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정부를 찾지 았고 잇어요.}

10213 # 잇엇는데 그래 저 장춘에 우리 큰 딸이 한국 갔다 왔지 머요. {잇엇는데 그래 저 장춘에 우리 큰 딸이 한국에 갔다 왔지 뒬요.}

10213 # 갔다가 저 메늘 본다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키아가 {갔다가 저 며느리를 본다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키워서}

10213 # 딸은 상해대학교 일어선생이고 그래 아들은 여 장춘에 머 하나 채리 놓고 잊어요. {딸은 상해대학교의 일본어선생이고 그리고 아들은 여기 장춘에 뭐 하나 차려 놓고 잊어요.}

10213 # 그래. 그래데. 그래 그 그래 잊는데 이제 또 한국 갈라 하는데 내가 못 가게 했어. {그래. 그러더라, 그래 그 그래 잊는데 이제 또 한국 갈려고 하는걸 내가 못 가게 했어.}

10213 # '가지마. 나이 이래 댕기 한국 가가 머 할래?' {'가지마. 나이 이렇게 되어서 한국 가서 뭘 하려고?'}

10213 # '내가 쯔뽀 더 버러와야 대겻는데.' {'내가 조금 더 벌어 와야 되겠는데.'}

10213 # '아이고 고마 댕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 {'아이고 그만 댕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어.}

10213 # 지도 생각 해보이 안가는기 맞다 싶어 그래 안가고 있다가. {자기도 생각해보니 안가는 것이 맞다 싶어 그래 안가고 있다가.}

10213 # 저 동생들이 마아카 그래지머. '누야가 제일 게잡게 잊이이께 엄마 자주 도올바라.' {저 동생들이 모두 그러지 뭐. '누나가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엄마 자주 돌봐라.'}

10213 # 그래 인제 돌보래캐가 그래 여 노오바 와 있다가 머 갓다가 왔다가 한 달 치 와가 한 반달은 저거 집에가 잊쵸 머. {그래 이제 돌봐라 해서 그래 여 계속 와 있다가 뭐 갓다가 왔다가 한 달 와서 한 반달은 자기네 집에 가 잊지요 뭐.}

10213 # 왔다 갓다 하다 나이께 그래 그래 있다가 이분에 그 여,여,여 그 저어 그 구정(지명)가는 그 길 옆에요.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그래 여 있다가 이번에 그 여,여,여 그 저기 그 구전가는 그 길옆에요.}

10213 # 양쪽에 그 산수, 산수들 다 치우라 그래. {양쪽에 그 산소, 산소들을 다 치우라 그래.}

10213 @1 예. {예.}

10213 # 치우라고 그래 그런 지실, 지시가 내레가 우리 시어머니 묘가 그 길 옆에 잊어요. {치우라고 그래 그런 지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시어머니 묘가 그 길옆에 잊어요.}

10213 @1 예. {예.}

10213 # 그래 이분에 다 몰았어요. 또 머 한국에 그 기별하고 사우 둘도[또] 오고, 하나는 한국에 잊이께네. {그래 이번에 다 모았어요. 또 뭐 한국에 그 기별하고 사위 둘도 오고, 하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10213 # 큰 사우, 두우쨌 사우, 위해서 또 손자, 아들 해가주고 마이 왔어요. {큰 사위, 둘쨌 사위, 위해에서 또 손자, 아들 해서 많이 왔어요.}

10213 # 마이 와가주고 그래 묘를 치우고 그래 그을 때 갈 켜[쨌]에 지도 같이 떠나는데. {많이 와서 그래 묘를 치우고 그래 그때 갈 적에 자기도 같이 떠났는데.}

10213 # 가가 병원에 검사하이 목 수술해야 댕다케. 그래 가가주고 모 왔어요. {가서 병원에 검사하니 목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가서는 못 왔어요.}

10213 # 그래, 내가 가게 대마 일 힘든 거 하게 대머 안대는데 또 저 동생이 또 같은 날 수술했지. 또 저, 저 위해서. {그래, 내가 가게 되면 일 힘든 것 하게 되면 안 되는데 또 저 동생도 또 같은 날 수술했지. 또 저, 저 위해에서.}

10213 # 수술헨데 물어보이께 일 하마 안댄다. {수술했는데 물어보니까 일 하면 안 된다 그래.}

10213 # '엄마, 그동안에 좀 극복해야지 누나가 다 나았거든 그리 가기로 하이고 엄마 극복하라.' {'엄마, 그동안에 좀 극복해야지 누나가 다 나았거든 그리 가기로 하고 엄마 극복하라.'}

10213 # '내 걱정하지 말고 목이나 잘 나누래 해.' {'내 걱정하지 말고 목이나 잘 나아라 해.'}

10213 # 그래 전하 댕번 왔는거 '그래 대엿어, 나는 이래저래 요새 출지도 않지 머 이래저래 사마대이께네.' {그래 전화 몇 번 왔는거 '그래 댕어, 나는 이래저래 요즘 출지도 않지 뭐 이래저래 살면 되니까.'}

10213 # '니 목 다 낫은[슨] 답에 오라.' 내 그켓어, 그래 그랫더이. {네 목 다 나은 다음에 오라.' 내 그랫어, 그래 그랫더니.}

10213 # 그러다나이 우리 손녀가 인제 필업반이잖아. 우리 손녀가 대학 필업반인데 여 왔대요. {그러다보니 우리 손녀가 이제 졸업반이잖아. 우리 손녀가 대학 졸업반인데 여기 왔더라구요.}

10213 # 여 와가 슬습스간인데 그 때 좀 묘 그래 치우고 할 적에 와머 슬습스간인데. {여기 와서 실습시간인데 그 때 좀 묘 그래 치우고 할 적에 와서 실습시간인데.}

10213 # 그래 우리 두우째 아들이 구전(지명) 중심학교 선생질 했어요. {그래 우리 둘째 아들이 구전 중심학교 선생 했어요.}

10213 # 선생질하고 인제 투슈(중국어-퇴직)하고 한국 갔지. {선생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한국 갔지.}

10213 # 투슈하고 한국 갔는데 가가 또 지 질녀[려] 걱정을 하지. {퇴직하고 한국 갔는데 그 아들이 또 자기 질녀 걱정을 하지.}

10213 # '야, 지 동생보고 상문아, 춘자 어데 저게 마땅한 자리 없으며 니이가 저게 디루어 가가 안패(중국어 발음의 영향)해라.' {'야, 자기 동생보고 상운아, 춘자 어디 저기 마땅한 자리 없으면 네가 저기 데리고 가서 안배하라.'}

10213 # 그래 또 전하 왔다 손자한테. {그래 또 전화가 왔다 손자한테서.}

10213 # '춘자 어데 니 마땅한 자리 없으며 여기 오라. 여기 오게 대면 내가 안배할게.' {'춘자 어디 너 마땅한 자리 없으면 여기 오라. 여기 오게 되면 내가 안배해 줄게.'}

10213 # 그러 가가 한 서너달 잇다가 왔어요. {그렇게 가서 한 서너 달 잇다가 왔어요.}

10213 # 잇다가 와가 그래 또 저기 한국에서 저 엄마가 오래 해가주고. {잇다가 와서 그래 또 저기 한국에서 저 엄마가 오라고 해서.}

10213 # 두우리서 토론도 안 하고 마 저 어마이가 오래했지. {둘이서 토론도 안하고 저 엄마가 오라고 했지.}

10213 # 오래해가주고 저 엄마한테 갈라머 외할매한테 가가 정황을 바야 얘기를 해주지. {오라 해서 저 엄마한테 갈려면 외할머니한테 가서 만나봐야 또 소식을 알지.}

10213 # 그리 또 그거 필업장도 가져오고 그래 또 갔어. 가가 그거 메칠 잇다. {그래 또 그거 졸업장도 가져오고 그러려고 또 갔어. 가서 거기에서 며칠 잇다가.}

10213 # 그래 그 비자가 내레 온담에 왔어. 한 달 비자이께네 퍼떡 와야대자네? {그래 그 비자가 내려 온 다음에 왔어. 한 달 비자니까 인차 와야 되잖니?}

10213 @1 그렇지요. {그렇지요.}

10213 # 예, 퍼떡 와요. {예, 인차 와요.}

10213 # 그래, 그래 아래끼, 아래 이십사일날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그래테. {그래, 그래 그제, 그제 24일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

10213 # '니 어데 가머 어데 잇다고 전하 내한테 꼭꼭 해주야 대.' {'너 어디 가면 어디 있

다고 전화 나한테 꼭꼭 해줘야 돼.} }

10213 # '그 아이 해주면 할매가 쓸데 없는 걱정한다.' 그래. {'그 안 해주면 할머니가 쓸데 없는 걱정한다.' 그래.}

10213 #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내가 꾸짖어. '아이유, 내가 맥지, 맥지 걱정한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내가 꾸짖었어. '아이고, 내가 괜히, 괜히 걱정한다.'}

10213 # 조선말을 할 줄을 모리나? 중국말을 할 줄 모리나? 그으를 모리나? {조선말을 할 줄 모르나, 중국말을 할 줄 모르나? 글을 모르나?}

10213 # 내보다 몇 배 똑똑한데 내가 맥지로 와 걱정해? {나보다 몇 배 똑똑한데 내가 괜히 왜 걱정해?}

10213 # 내 마음을 내가 그래 꾸지고 그래. {내 마음을 내가 그래 꾸짓고 그래.}

10213 # 그래 그래 기다리이께 그 갈 쟁[쟁]에는 그랬다 '니 어데 가며 어데 잇다는 전할 꼭꼭 해줘야 댜다.' {그래 그래 기다리니까 그 갈 적에는 그랬다. '너 어디 가면 어디 잇다는 전화를 꼭꼭 해줘야 댜다.'}

10213 # '아, 그랄께.' 그래 장춘에 가가 또 전하 왔대. {'아, 그럴 게.'하더니 그래 장춘에 가서 또 전화 왔더라.}

10213 # 전하 왔더이 또 그래데, '내 내애리 저게 한국, 내애리는 내가 저 대련을 가가, 자는데 그 어데더라? {전화 왔는데 또 그러더라, '나 내일 저기 한국, 내일에는 내가 저 대련을 가서 자는데 그 어디더라?}

10213 # 이름이? 뽕과이(중국어 빈관-호텔)라는거 그거 머던가? 뽕과이인데 그 말이 또 다르대? 이름이. {이름이? 호텔이라는데 그 말이 뭇던가? 호텔인데 그 말이 또 다르더라? 이름이.}

10213 @2 지어우땡?(중국어 주점-호텔) {지어우땡?}

10213 # 주땡도 아이야. {주점도 아니야.}

10213 @1 호텔? {호텔?}

10213 # 호텔이야. 호텔에 잔다 이케. {호텔이야. 호텔에 잔다 그래.}

10213 # '오, 그래. 그래 자며 주이해라.' {'오, 그래. 그래 자면 주의해라.'}

10213 # '할매는 보래, 내 걱정 하나도 안해도 대는데 자꾸 저런 걱정한다.' {'할머니는 보래, 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저런 걱정한다.'}

10213 # '호텔에 자고 내일 여덟씨에 여덟씨 비행기 탄다.' 그래. {'호텔에 자고 내일 여덟시 비행기 탄다.' 그래.}

10213 # '오, 그래 알았어. 그래 한국 그 저게 도착하거던 또 전하해.' {'오, 그래 알았어. 그래 한국 그 저기 도착하면 또 전화해.'}

10213 # '아안다.' 그래 쪼끔 기다리이께네 두 시간 쪼끔 넘어께 전하 왔어. {'알았어.' 그래 쪼끔 기다리니까 두 시간 쪼끔 넘어서 전화 왔어.}

10213 # 그래 이제 내가 마음을 놓고. {그래 이제 내가 마음을 놓고.}

10213 # 내가 그래지 내 속으로. '야, 내보다 몇배 똑똑은 놈을 썰땔어엄는 걱정을 내가 하고 잇네.' {내가 그러지 내 속으로. '야, 나보다 몇 배 똑똑한 놈을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하고 잇네.'}

10213 # 내 마음을 내가 그래 꾸짖어요. {내 마음을 내가 꾸짖었어요.}

10213 # 안그래요? 내보다 몇배 똑똑지. {안 그래요? 나보다 몇 배 똑똑하지.}

10213 @1 그래도 어른들은 또 생각이 다르지요? {그래도 어른들은 또 생각이 다르지요?}

10213 # 안 그래요? 예, 모발이 허어연 자석이 어데 나갔다 제때 안 오며 노인들 앉어가 걱정하듯이. {안 그래요? 예, 모발이 허어연 자석이 어디에 나갔다 제때에 안 오면 노인들이 앉아서 걱정하듯이.}

10213 # 늙으노이 매액지 썰때 없는 걱정을 자꾸 그래 하고 이제. {늙으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그래 하고 이제.}

10213 # 아이고, 그래, 그래 지 지내는 기 하도 가짱애가 아이고 이놈 자식들. {아이고, 그래, 그래 자기 지내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이놈 자식들.}

10213 # '니느 와 갈 책에 일찍해가 강내이 못 꺾으먹고 오면 늦어가 여몰어 못 먹고 니느 아무 것도 못 먹겠네?' {'너는 왜 일찍이 가서 옥수수를 꺾어 먹지 못하고 오면 늦어서 여몰어 못 먹고 너는 아무 것도 못 먹겠네?'}

10213 # '할매 보래, 해마당 먹는거 한해 안먹으며 어떠나?' 그래지. {'할머니 보래, 해마다 먹는 것 한 해 안 먹으면 어떠나?' 그러지.}

10213 # '그래도 나는 니 준다고 이러커루 각가저 숨가난는데.' 내가 그케 윗엇구만. {'그래도 나는 너 준다고 이렇게 갖가지 다 심었는데.' 내가 그렇게 윗엇구만.}

10213 # 안그래요? 썰때 없는 걱정을 자꾸 그래 하나? {안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그래 하나?}

10213 @1 그래도 한 평생을 부모로 이렇게 지내 왔으니까 늘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도 한 평생을 부모로 이렇게 지내 왔으니까 늘 그런 생각이지요?}

10213 # 맞아요. 그케 그래 그 우리 저 여, 여 한국 갔다 여 와가 집수리 했는 사램이. {맞아요. 그케 그래 그 우리 저 여, 여 한국 갔다 여기 와서 집수리 하는 사람이.}

10213 # 그 우리 맨 그 집안 사위지. 그래 맨날 내한테 와가 그래. {그 우리 역시 집안 사위지. 그래 매일 나한테 와서 그래.}

10213 # 아무 걱정하지 마래요. 머 걱정할 기[끼] 잇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걱정할 것이 잇어요?}

10213 #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 몸 건강이나 챙기요.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 몸 건강이나 챙겨요.}

10213 # 그러 그 혈압기를 가주 와가 사흘 또래 와가 재 주고 재고 이 재바야 쓸 때 없는 데 어예든지 그 먹는 걸 먹는 걸 잘 그래야대. {그래 그 혈압기를 가지고 와서 사흘도록 와서 재주고. 이 재봐야 쓸데없는데 어떻게든지 그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해요.}

10201 @1 심심하게, 싱겁게. {심심하게, 싱겁게.}

10201 # 예, 먹는 걸 그저 머 먹으면 머 조용고 하이 그런걸 챙기가주고 먹고. {예, 먹는 것을 그저 머 먹으면 좋고 하면 그런 것을 챙겨 먹고.}

10201 # 약도 다 머 혈압약이라는 기 예, 장춘에 가가도 사가와지요. 차알로(지명) 가가 그 약 없으면 또 탄 약 사고 오쵸. {약도 다 뭐 혈압약이라는 것. 장춘에 가서도 사오지요. 찰로 가서 그 약 없으면 또 다른 약 사서 오쵸.}

10201 # 그래 어제는 그래데. 약이 이거 머 혈압약 및 가지 대이 이거, 이거 조절 해낼 수가 없으이게네. {그래 어제는 그러더라. 약이 이거 뭐 혈압약이 몇 가지 되니까 이것을 조절해낼 수 없으니까.}

10201 # 예, 이 혈압 어는 약 중에 저 한 가지 딱 그래 가주고. {예, 이 혈압 약 중에서 저 한 가지 딱 선택해서.}

10201 @1 그러게 한 종류로 하세요. {그러게 한 종류로 하세요.}

10201 # 예, 그래 그래가 이 조절을 딱 해야 댄다고, 그래도 어제도 와가 시이컨 얘기하고 그래 갔어. {예, 그래서 이 조절을 딱 해야 된다고, 그래 어제도 와서 실컷 이야기하고 갔어.}

10201 # 그래 이어 이 늙은 약 먹는 기야 이 약이 이 저역은 돈이 아이래요. {그래 이거 이 늙은 사람 약 먹는 것이 이 약이 적은 돈이 아니래요.}

10201 @1 그러게요. {그러게요.}

10201 # 지금 혈압약도 어얼매 비싼지요. 참 비싸요. {지금 혈압약도 얼마나 비싼지요. 참 비싸요.}

10201 @1 비쌌니까? {비쌌니까?}

10201 # 야, 비싸요. 그 한국에서느요 약을 아무나 안 주잖아요? {야, 비싸요. 그 한국에서는 약을 아무나 안 주잖아요?}

10201 @1 예,예, 그 병원에서 진단서 갖고 와야 돼요. {예, 예, 그 병원에서 진단서 갖고 와야 돼요.}

10201 # 딱 그, 그사람들 책임성 있게 약을 딱 또 그코레 주는데. {딱 그, 그 사람들 책임성 있게 약을 딱 또 그렇게 주는데.}

10201 # 여기는 마이 팔면 마이 주고, 저역기 삼축 지수 주구 이란다말이. {여기는 많이 사면 많이 주고, 적게 삼축 지어 주고 이렇게 한다 말이야.}

10201 # 약을 이거 어는거 먹어 보고 딱 효가[까] 있는 그 약을 써야 댄다고. {약을 이거 어는 것을 먹어 보고 딱 효과 있는 그 약을 써야 된다고.}

10201 # 자꾸 그래지. 근 내가 '이 저기 이레 사머 머 해노? 아무 재미도 어업고 이레 사머 머 하노?' 이카йка. {자꾸 그러지. 그래 내가 '이 저기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아무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이렇게 말하니까.}

10201 # '그럼 그 저게 안 살라머 그 약 그거 저기 그 저기 그 나쁜 약 한번 잡사 바요. 죽 거렁.' {'그럼 그 저기 안 살려면 그 약 저기 그 나쁜 약 한번 잡사 바요. 죽게.}'

10201 # 그캐, 그캐가 그래 내가 하안참 윗고 '그 참말 죽기가 싫은 모이네 그 약 안 먹겠다.' 내 그캐 바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한참 웃고 '그 참말 죽기가 싫은 모양이네 그 약 안 먹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10201 # '바야요 죽으러 카마 다 죽기 시웁이해요.' 그래멘서 그 소래를 해놓고 윗었다. {'봐요 죽으라고 하면 다 죽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해놓고 웃었다.}

10201 # 참말로 그래애야. 죽으라고 정작 죽구 싶다 죽구 싶다 이케도 죽는 약 갖다 줘바요. 안 먹지. {참말로 그래요. 죽으라고 정작 죽고 싶다 이래도 죽는 약 갖다 줘 봐요 안 먹지.}

10201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0213 @2 할머니 손녀중 그 춘자가 제일 고와요? {할머니 손녀 중 그 춘자가 제일 고와요?}

10213 # 그걸 내가 내가 쪼매엔날 적부터 내가 그 디리구 키우게 안글라? 그래. {그 애를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데리고 키웠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래.}

10213 # 우리 손네들 못난 거 없어. 못난 게 없어. 다 갠찰에. {우리 손녀들 못난 것 없어. 못난 것 없어. 다 갠찰아.}

10213 # 그래 저, 저 요 요 세앤찌네 상일이 딸아 그는 북경 가가 대학 필업해고 {그래 저, 저 여기 셋째 상일이 딸, 그애는 북경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10213 # 그서 일자리 찾아 하다가 대상꺼징 찾엇지. {거기에서 일자리 찾아 하다가 대상까지 찾았지.}

10213 # 대상꺼징 찾언데 그 사램이 인제 또 그 사램이 특수한 사램인가바. {대상까지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특수한 사람인가 봐.}

10213 # 그 또 한국을 여어로 말하게 대면 한국이 참관 가는 택이지머. {그 또 한국을 여기로 말로 하게 되면 한국에 참관 가는 택이지.}

10213 # 그래 가가 저 엄마라매, 저 오빠라매 다 봤거던. {그래 가서 저 엄마랑 오빠랑 다 봤거던.}

10213 # 보고는 지 동생만 모하다는기라. 야, 내 동생만 모해다고 그 주기 아깝다고 이칸다 말이야. {보고는 자기 동생보다 못하다는거야. 야, 내 동생만 못하다고 거기에 주기 아깝다고 이렇게 말한다 말이야.}

10213 # 그 저 어마이도 보이께네 사람요 그 첫눈에 쏙 드는 사람 참 드물어요, 키도 현출 받고 위얼급도 많대. {그 저 엄마도 보니까 사람이 첫눈에 쏙 드는 사람 참 드물어요, 키도 흰칠하고 월급도 많다고 해.}

10213 # 월급도 마이 받고 이 현출하다기래. 그래 저 내한테 전하 왔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키도 흰칠하다 그래. 그래 나한테 전화 왔는데.}

10213 # '내 마알 해보고 들으마 거게 아안할래.' 이케. {'내 말 해보고 들으면 거기 안할래.' 이렇게 말해.}

10213 # 그래 내가 그랬어. '말리지마, 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하거렁 가만 나아도.' {그래 내가 그랬어. '말리지마, 자기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하계끔 가만히 나뉘.'}

10213 # '나양제 너 억찌로 말리가주고 안하게 대면 나양제 그런 사람 안나서 바라 너거 원망 어얼매 듣노?' {'나중에 너 억지로 말려서 안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면 너 그 원망 얼마나 듣나?'}
 10213 # '지 할라카거던 가만 나아도라.' 내가 그러 전하로 그래 말했어. {'자기가 하려고 하거든 가만 나뉘라.' 내가 그래 전화로 그래 말했어.}

10213 # '예, 알았어요.'그카테. {'예,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

10213 # '안 글타. 내 말이 딱 옳다. 지 마음에 드는 거 하지 마라고 말려 나앗다가' {'그렇지 않다. 내 말이 딱 맞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하지 말라고 말렸다가}

10213 # '나양제 그만한 사람 안 나서바라 너 원망, 막 누이 빠지도록 원망 듣는다.' {'나중에 그만한 사람 나서지 않으면 너 원망, 막 눈이 빠지도록 원망 듣는다.}'

10213 # '그렇게 말리지 마라. 그저 조용게 이야기 해보고 들으면 듣고 야야, 첫 분에는 다 아 지 새끼가 더 낫다.' {'그렇게 말리지 마라. 그저 좋게 이야기해서 들으면 듣고, 첫 번에는 다 자기 자식이 더 낫다.}'

10213 @1 그렇지요. {그렇지요.}

10213 # '메느르를 바도 메늘보다 내 아들이 더 낫고, 사우를 바도 사우보다 내 딸이 더 낫고 사람마정 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 {'며느리를 봐도 며느리보다 내 아들이 더 낫고, 사위를 봐도 사위보다 내 딸이 더 낫고 사람마다 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

10213 # 그리이께 내가 그리 말렸어. 그래 우리 그 두우째네, 두우째네 딸이 맹 대학 필업 해고 그 대학교 같이 한반에 땡기는 사램이지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렸어. 그래 우리 그 둘째, 둘째네 딸이 역시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교 같이 한반 다니는 사람이 지 뭐.}

10213 # 그래 내가 그 '야야, 이름이 연희라. 연희야, 니 학교서 대상을 하나 찾아라.' {그래 내가 그 '야야, 이름이 연희라. 연희야, 너 학교에서 대상을 하나 찾아라.}'

10213 # '필업하기 전에 찾아라. 학교서 나오기 대면 찾기 힘들다.' 그라이께네. {'졸업하기 전에 찾아라.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찾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니까.}

10213 # 아아들이 그러지. '할매는 베엘소릴 다 하네. 머 사람천지인데.' {'아아들이 그러지. '할머니는 별소리를 다 하네. 머 사람천지인데.'}

10213 # '사람천지라도 안 그을타.' {'사람천지라도 그렇지 않다.'}

10213 # '할매, 걱정하지 마라. 막 내 디에 줄을, 줄을 섰다. 내 디에 줄을 섰다.' 이케.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내 뒤에 줄을, 줄을 섰다. 내 뒤에 줄을 섰다.' 이렇게 말해.}

10213 # 그래가 인제 우리 집에 한 몇 번 왔거던요. 왔는데, 기양 저거 어마이, 저거 아바이는 한국에서 기이양 말리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한 몇 번 왔거던요. 왔는데, 그냥 그 애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냥 말리지.}

10213 # '중국사람이께네(한족을 가르킴) 하지 마라. 하지 마고 조선 사람 찾아라.' 또 전화로 또 그카지. {'한족사람이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조선족 사람 찾아라.' 또 전화로 그렇게 말하지.}

10213 # 그래 또 내가 머라 했지. {그래 또 내가 뭐라 했지.}

10213 # '사아람 보이겐 사렘이 부드럽고 인물체격 조웁고 사람 여영 좋더라. 맺어, 가만 나아도. 저 하거러 나아도.'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부드럽고 인물체격 좋고 사람 아주 좋더라. 됐어, 가만 나뉘. 저 하계끔 나뉘.'}

10213 # '나는 보이께 사람 그만하면 저만한 사람 찾기도 힘들다.' 그 생각 드더라. '그래이까 가만 나아도라.' 내가 그랬지. {'나는 보니까 사람 그만하면 저만한 사람 찾기도 힘들다.'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가만 나뉘라.' 내가 그랬지.}

10213 # 그래, 그래 나아도가 결혼했어요. {그래, 그래 나뉘서 결혼했어요.}

10213 # 결혼해가 여 지이가 지일 자주 오지. 지일 자주 오고 그래. {결혼해서 여기 그 애가 제일 자주 오지. 제일 자주 오고 그래.}

10213 # 그래 인제 작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 이제 작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10213 #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 장춘 치즈창(중-자동차 회사)에 두우다 그 쌍빨(중-출근)하고 있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 장춘 자동차 회사에 둘 다 그 출근하고 있어요.}

10213 # 그래 그 두우째 아들도 아들 어업꼬 딸 둘이고, 우리 네엿째 아들도 아들 어업꼬 딸 둘이고. {그래 그 둘째 아들도 아들 없고 딸 둘이고, 우리 넷째 아들도 아들 없고 딸 둘이고.}

10213 # 그 아들이 잇다케야 우리 그 맏아들이 아들 하나 잇고, 우리 세엿째가 아들 하나 잇고 전부 딸이라요. {그 아들이 있다고 해야 우리 그 맏아들이 아들 하나 잇고, 우리 셋째가 아들 하나 잇고 전부 딸이라요.}

10213 # 손자는 저기 서이고 우리 맏아들은 아들 두이께네 손자가 서이고, 셋째 그하고 서이고, 손자 서이뿌이고. {손자는 저기 셋이고 우리 맏아들은 아들 둘이니까 손자가 셋이고, 셋째하고 셋이고 손자는 셋뿐이고.}

10213 # 손네는 여섯이라요. 아이고, 손네는 그리 많아. {손녀는 여섯이라요. 아이고, 손녀는 그렇게 많아.}

10213 @1 그 앞으로 다 손녀가 더 나올 거예요. {그 앞으로 다 손녀가 더 나올 거예요.}

10213 # 예, 맞어요. 내가 그래도 그랬다. '야, 그 너 사회에 적갑하게 낳았다.' {예, 맞아요. 내가 안그래도 그랬다. '야, 그 너 사회에 알맞게 낳았다.'}

10213 @1 예. {예.}

10213 # 지금 딸 키운기 키우는데도 인정도 더 있고, 나가 돈을 버어리도 정을 더 써요. 부모들한테. {지금 딸 키우는 것이 인정도 더 있고, 나가 돈을 벌어도 정을 더 써요. 부모들한테.}

10213 # 정을 더 써고. 그래 딸이 더 낫다 내가 그래도 글칸다. {정을 더 쓰고. 그래 딸이 더 낫다 내가 그래도 그렇게 말해요.}

10213 # 딸이 키아보마야 이 이 옛날 그 내가 키울 켜[쨌]마 해도 이 옛날 아이가요? {딸을 키워보면 이 옛날 내가 키울 적만 해도 이 옛날 아닌가요?}

10213 # 아들들[뜰]보다 딸네[레]들이 정을 더 썬다고. {아들들보다 딸들이 정을 더 쓴다고.}

10213 @1 그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요.}

10213 # 그래, 그래 내가 나는 자꾸 아아들 머 어떻게 하게 대면 못 말리게 해. 말리지 마라 가만 나아도. {그래, 그래 내가 나는 자꾸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게 되면 못 말리게 해. 말리지 말고 가만 나뉘.}

10213 @1 그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10213 # 가만 나아도. 그 머어시라도 지 마음이 드는 기 제일이 일등이야. {가만 나뉘. 그 무엇이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일등이야.}

10213 # 너 억지로 마차바라. 사다 쪼끔 틀리며 애에 내가 갈라할때는 못까거로 해고 마차준다더니 잘 마차준다 내사 이거 못살겠다. {너 억지로 맞춰봐라. 살다 조금 틀리면 내가 가려고 할 때는 못 가게 하고 맞춰준다더니 잘 맞춰줬다 내야 이거 못살겠다.}

10213 # 이카닌기 많아요. 예, 그래가주고 내가 '저 할라카거덩 가마 나아도.' 내 자꾸 그래 말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저 하려고 하면 가만 나뉘.' 내가 자꾸 그렇게 말하지.}

10213 # 그래 아아들이 말 하기를 그래. '할매는 예전 사람이 대가 마안날 말 저레한다'고 그래. {그래 아이들이 말을 그렇게 해. '할머니는 예전 사람이 되서 자꾸 말을 저렇게 한다'고 그래.}

10213 @1 아이고,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10213 # 그 예전 사람이 대가 말 마안날 저레 한다 그래. {그 예전 사람이 되서 말 자꾸 저렇게 한다고 그래.}

10213 # '야, 예전 사람이고 아이고 나는 여적껏 꺾어 나온 기 마안찰아.' {'야, 예전 사람이고 아니고 나는 여태껏 꺾어 나온 것이 많잖아.'}

10213 # '나이가 이만하도록 꺾어나왔는데 너 암만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나았다. 그리잉께 내 말 들어라.' 그카머 말리지. {'나이가 이만하도록 꺾어 나왔는데 너 아무리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말리지.}

10213 # 그래 이래저래 사는데도요 아아들이 자꾸 '머 위해 온나, 한국에 온나, 머 장춘에 온나' 야다이라. {그래 이래저래 사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뭐 위해 오라, 한국에 오라, 뭐 장춘에 오라.' 야단이라.}

10213 # 그래 내가 나는 누우 말도 안들어요. 누우 말도 안 듣고 내 요랑 내가 하지. {그래 내가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고 내 요령 내가 하지.}

10213 # 내가 '야야, 그 집 떠날 땐에는 그 여 말로는 징노이웬(중-양로원) 경노원에 가겠다. {내가 '야야, 그 집 떠날 때에는 그 여 말로는 양로원, 양로원에 가겠다.}

10213 # '경노원에 가며 지설 더 뿔다.' 내가 그케노머. {'양로원에 가면 시설이 더 편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10213 # 우리 일본 잇는 손자가 그래지머. '할매는 딴 사람 듣는 데 그 소리 하지 마.' {우

리 일본에 있는 손자가 그러지. '할머니는 다른 사람 듣는 데 그 소리 하지 마.'}

10213 # '팔남[람]매나 키아노코 경노원이 다 머야 경노원이? 그런 소리 다른 사람 듣는 데 하지 마.' {'팔남매나 키워놓고 양로원이 다 뭐야 양로원이? 그런 소리 다른 사람 듣는 데 하지 마.'}

10213 # '야야, 세월 따라 살아야 댄다. 세월 따라 살아야 대지.' {'야야, 세월 따라 살아야 된다. 세월 따라 살아야 되지.'}

10213 # '내 펜안대로 살란다. 내 펜안 기 제일이야. 내 맘 펜안 기 제일이라.' {'내 편안한 대로 살란다. 내 편안한 것이 제일이야. 내 마음 편안한 것이 제일이라.'}

10213 # 그케노머 '할매, 아무 소리 마고 저게 어데 오라카머 어데 가가 잇고 그래.' {그러면 '할머니, 아무 소리 말고 저기 어디 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잇고 그래.'}

10213 # '야야, 걱정마라. 니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우리 그 저 두우째 손자가요 그랬어요. {'야야, 걱정마라. 너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우리 그 저 둘째 손자가 그랬어요.}

10213 # 저 대학 필업해고 결혼을 했지. 결혼을 해가 이 놈 살아 보지도 않고 쪼끔 살고는 이혼 했붓지. {저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했지. 결혼을 해서 이 놈 살아 보지도 않고 조금 살고는 이혼을 했지.}

10213 # 그래 내가 그랬지. '야아들아 살어보지도 않고 와 이혼하노?' {그래 내가 그랬지. '야들아, 살아 보지도 않고 왜 이혼하나?'}
 10213 # 그래 그러 이혼하고 인차 고마 일본을 가기 댕어요. {그래 그렇게 이혼하고 바로 그만 일본에 가게 댕어요.}

10213 # 일본을 가게 대 그때 일본 간데 도이 마이 들어요. 십뿔만을 들이야대지. {일본을 가게 되어 그때 일본 가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십뿔 만 원을 들어야 되지.}

10213 # 그래 일본을 가는데 그 여자가 와 보로 올라 하대. {그래 일본을 가는데 그 여자와 와 보러 오려고 하더라.}

10213 # 와 보로 오겟다고 올라 하이께네 야가 모오라지, 올 필요 없다고 오지 마라 그래. {와 보러 오겟다고 오려고 하니까 야가 못 오게 하지, 올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 그래.}

10213 # 그래 저어가 장춘 학교 댕길 적에 저어끼리 누이 맞어가 결혼했는데. {그래 자기들이 장춘 학교 다닐 적에 자기들끼리 누이 맞아서 결혼했는데.}

10213 # 그 결혼도 안죽 일찍다고 안 할라 하는 거 저어 부모들이 와가 기이꾸 세와가주고 그 결혼을 했어. {그 결혼도 아직 이르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 부모들이 와서 기어코 우겨서 그 결혼을 했어.}

10213 # 결혼하는데 그 딱 우리 가아는 우리 할매한테 와가 한다고 기래. 그래 여 와가 했어요. {결혼하는데 그 딱 우리 그 애는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한다고 그래. 그래 여기 와서 했어요.}

10213 # 어얼매, 결혼해고 그 저 상해 그 잇다가 길림에 와가 어얼매 안 잇었을기라. {얼마, 결혼하고 그 저 상해 그 잇다가 길림에 와서 얼마 안 있었을 거라.}

10213 # 어얼매 안 잇다가 머 어째대가 고마 이혼을 했붓지. {얼마 안 잇다가 뭐 어찌다가 그만 이혼을 했지.}

10213 # 그러가 이 우리 손자가 일본 갈라 하이께네 그 여자가 와 보로 온다고 올라하이 모오그로 하대. {그래서 이 우리 손자가 일본 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와 보러 온다고 오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더라.}

10213 # 모오그로 해가 그 남자 일본에 잇는데 여자가 이혼 제출하거던요. {못 오게 해서

그 남자가 일본에 있는데 여자가 이혼을 제출 했거던요.}

10213 # 이혼 제출을 하이께 딱 우리 그 손자를 오라기래. 와 가주고 이혼해자 해자고 그 래. {이혼 제출을 하니까 우리 그 손자를 오라는 거야. 와서 이혼하자고 그래.}

10213 # 그래 이제 우리 손자는 길림 고향에 와 내리고 우리 손부메늘도 길림 고향에 와 내리고 이래가. {그래 이제 우리 손자는 길림 공항에 와 내리고 우리 손부 며느리도 길림 공항에 와 내리고 이렇게 해서.}

10213 # 우리 두우째가 따라갔어요. 둘째 아들이 따라갔는데. {우리 둘째가 따라 갔어요. 둘째 아들이 따라 갔는데.}

10213 # 여자가 기이쿠 사아자 하네, 기이쿠 사아자 하이께 손자가 하는 말이 {여자가 기어코 살자 하네, 기어코 살자 하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10213 # '이왕지 시작한 짐에 이혼했부고 시원스레 했부고 치우자.' 그카머 기이쿠 말을 안 듣고 이혼을 했지요. {'이미 시작한 짐에 이혼하고 시원스레 끝내고 치우자.' 그렇게 말하며 기어코 말을 안 듣고 이혼을 했지요.}

10213 # 그래 그랬는데 나양제 또 이 여자가 같이 살겠다고 또 자꾸 그카는네.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이 여자가 같이 살겠다고 또 자꾸 그러는네.}

10213 # 기이쿠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고 지금 박사 공부 하고 잊거덩 잇는데. {기어코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고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잇는데.}

10213 # 그래 전하가 어찌다 내한테 한 분씩 오고 내가 걱정을 하지. {그래 전화가 어찌다 나한테 한 번씩 오면 내가 걱정을 하지.}

10213 # '야야, 살림도 채리야 대고, 여자도 하나 찾아야 대고 자식도 키와야 댄다. 자식도 키우는 시간이 있지.' {'야야, 살림도 차려야 되고, 여자도 하나 찾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된다. 자식도 키우는 시간이 있지.}'

10213 # '머 천날만날 젊는 기 아이다. 그리께 키와야 대고 그러머.' {'뭐 계속 젊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키워야 되고 그러면.}'

10213 # '할매는 벨 걱정도 한다. 그럴 꺼 다 잇이면 걱정꺼리라고?' 그래 말 하지머. 그래 말해, 할매 걱정 하지마라고. {'할머니는 벨 걱정도 한다. 그런 것이 다 있으면 걱정꺼리라고?' 그래 말 하지. 그래 말해,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10213 # '왜 내가 니 걱정을 안하노?' 저어 엄마가 또 죽었어요. 그래가 참, 우리 메느리 아깍 사람 죽었어요. {'왜 내가 너 걱정을 안하나?' 저 엄마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며느리 아까운 사람 죽었어요.}

10213 # 그래 우리 손자, 큰 손자가 돈 빠러가 효자질 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 큰 손자가 돈 벌어서 효자노릇 했어요.}

10213 # 좋다 하는데 다 데리고 댕기고. {좋다 하는데 다 모시고 다니고.}

10213 # 저어 아버지도 병 걸리가 그래 다 데리고 댕기지. {저 아버지도 병 걸려서 그래 다 모시고 다니지.}

10213 # 저어 아버지는 갠찮으짓는데 저 엄마는 천상 고마 안대가 죽었거던요. {저 아버지는 갠찮아졌는데 저 엄마는 어찌도 그만 안돼서 죽었거던요.}

10213 @2 큰 아들의 아들이예요? {큰 아들의 아들이예요?}

10213 # 그래, 큰 아들에 두우째 아들이다 지금 일본에 잇는 거. {그래, 큰 아들에 둘째 아들이다 지금 일본에 잇는 것.}

10213 @2 큰 아들네[레] 큰 아들은 지금 위해에 잇고요? {큰 아들네 큰 아들은 지금 위해에

있고요?}

10213 # 그래, 위해에 있다. {그래, 위해에 있다.}

10213 # 그래 위해 가 있고. 저 아버지 데엘구[꾸] 그래 있어. {그래 위해에 가 있고, 저 아버지 모시고 그래 있어.}

10213 # 근데 그 징손자, 징손네가 올 설에 저 식구 다 왔더라. 여게. {그런데 그 증손자, 증손녀가 올 설에 저 식구 다 왔더라. 여기에.}

10213 # 시물 땃땃이 왔지 머, 시물 땃땃이 다 왔지. 와 가주고. {스물 몇 명이 왔지 뭐, 스물 몇 명이 다 왔지. 와서.}

10213 # 이 방, 저 방 해도 안대고 우리 세엿째네 집 빼아난는 거. {이 방, 저 방까지 해도 모자라 우리 셋째네 집 비워 났는 것.}

10213 # 그 우리 막내이가 가가 한부레 그 사람 어엄는데 물 푸다가 퍼나 돛다가 하기대머 얼어 터준는다고 물을 안 나오게 해나아서. {그 우리 막내가 가서 애당초 그 사람 없는데 물 푸다가 퍼두었다가 하게 되면 얼어 터진다고 물을 안 나오게 해 놓아서.}

10213 # 여어서 물 한 박에 들고 가가 술에 붓고[코] 재 쳐내고 불 넣[령]고 전문으로. {여기서 물 한통 들고 가서 술에 붓고 재 쳐내고 불 넣고 전문으로.}

10213 # 그래가 그 하안 방 자고 여기, 여기 갓득[간뜩] 자고. {그래서 그 한 방 자고 여기, 여기 가득 자고.}

10213 # 시물 둘이던가 그래. 그래 다 와가 우리 큰 딸이 그때 와가 밥 한다고 애 머었어요. {스물 둘이던가 그래. 그래 다 와서 우리 큰 딸이 그때 와서 밥 한다고 애 먹었어요.}

10213 # 저 손네들이 거더이 그까지 것들이 머 할 줄 아노? 그래 해고. {저 손네들이 거들어도 그까지 것들이 뭐 할 줄 아노? 그래 하고.}

10213 #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 그래.}

10213 @2 그래 많이 모여서 할머니 좋으셨겠습니다. {그래 많이 모여서 할머니 좋으셨겠습니다.}

10213 # 그래, 좋았지. 그래. {그래, 좋았지. 그래.}

10213 @2 오래 있었습니까? {오래 있었습니까?}

10213 # 그래가 머 메칠 잇다가 다 가았어. {그래서 뭐 며칠 잇다가 다 갔어.}

10213 # 그래, 그래 우리 두우째 딸, 아들 저 청도에 잇지 머, 청도에 잇는데. {그래, 그래 우리 둘째 딸, 아들 저 청도에 잇지 뭐, 청도에 잇는데.}

10213 # 그 녀 내가 낳는데 내가 바라지 해 주었다 말이야. {그 애 내가 낳을 때 내가 바라지 해 주었다 말이야.}

10213 # 야, 참 내가 오래 살긴 사안다. {야, 참 내가 오래 살긴 산다.}

10213 # 저 녀 날 적에 내 저 녀를 내가 받으는데 저녀이 저러커루 커가 대상꺼징 다 있고, 돈도 잘 벌이고요. {저 애 날 적에 내 저 애를 내가 받았는데 저 애가 저렇게 커서 대상까지 다 있고, 돈도 잘 벌이고요.}

10213 # 그래 저 우리 사위가 와가 그래. {그래 저 우리 사위가 와서 그래.}

10213 # 광호[오]가, 그 아 이름이 광호[오]래요. {광호가, 그 애 이름이 광호라요.}

10213 # 광호[오]가 집 산다고 날 돈 좀 대, 좀 보태달라 하대. {광호가 집 산다고 나더러 좀 보태 달라고 하더군.}

10213 # 그 내 말 떨어지기 전에 '어 얼릉 보태주. 돈 있나 없나? 잇이면[이시면] 보태주라. 말도[또] 하지 마고 보태라.' {그 내 말 떨어지기 전에 '어 얼른 보태주라. 돈 있나 없

나? 있으면 보태주라. 말도 하지 말고 보태라.」}

10213 # '그 나이에 돈 벌어가 집 살라 칸 사람 여 뗏대노?' {'그 나이에 돈 벌어서 집 사려고 하는 사람 여 뗏 되나?'} }

10213 # '그래, 돈 얼마를 보태 달래?' {'그래, 돈 얼마를 보태 달래?'} }

10213 # '십만원만 대 달라 하대.' {'십만 원만 대 달라 하더군.'}

10213 # 저 자이니 또 돈 잘 번다고 자이니 또 돈 대고 그래 그렇다고 십만 원 대 달라 해. {'저 장인이 또 돈 잘 번다고 장인이 또 돈 대고 그래 그렇다고 십만 원 대 달라 해.'}

10213 # '그래, 십만원 대 주고 너거 집 살 돈 있어?' {'그래, 십만 원 대 주고 너희들 집 살 돈 있어?'} }

10213 # '있어요.' '그래 얼릉 대 주.' {'있어요.' '그래 얼른 대 주.'}

10213 # 그 그래 왔는데 하도 이념이 잘, 잘 저게 잘 번졌게에 '아, 우리 광호가 저러커리 인물이 조오코 칠칠 반나?' {'그 그래 왔는데 너무나도 이 애가 잘, 잘 번졌기에 '아, 우리 광호가 저렇게 인물이 좋고 흰칠하나?'} }

10213 # 내 그케이, 그 카이께 지이도 갓잖은[간짜는] 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어의가 없는지 웃어.}

10213 # 쪼맨 할 제[째]는 머 알긋디마는 머 커노이 그커루 이념이 조웅데. {어릴 적에는 뭐 알긋었는데 뭐 커니까 그렇게 이 애가 좋데.}

10213 # 아, 이념이 커이께레 저러커리 인물도 조웅고 인물체격이 저리 좋구나. {아, 이 애가 커니까 저렇게 인물도 좋고 인물체격도 저렇게 좋구나.}

10213 # 그카이 그 옆에 잇던 사램이 '사우 자앙개 올때보담 더 좋오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잇던 사램이 '사위 장가 올 때보다 더 좋나?'} }

10213 # '아이 더 조웅다.' {'아니 더 좋다.'}

10213 # '저 아바이보다 더 조웅다.' 내가 그께고. {'저 아버지보다 더 좋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10213 # 그래, 그래 그래 설에 그래 모이가 그 우리 그 넷째 아들레도 식구들 다 올레 해능 거. {그래, 그래 그래 설에 그래 모여서 그 우리 그 넷째 아들도 식구들 다 오려고 하는 거.}

10213 # 내 가아만 생각해보이께네 잘자리[잘짜리] 안패가 안 댈 거 겐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 자리를 안배하지 못 할 것 같아.}

10213 # 집이 사램이 너무 많애가. {집에 사램이 너무 많아서.}

10213 # 그러가 그 우리 네엿째 아들이 이름이 상무이래요. {그래서 그 우리 넷째 아들이 이름이 상문이래요.}

10213 # 상무이 니 혼자 왔다 가라. {상문이 너 혼자 왔다 가라.}

10213 # 너 식구 너이 다 오면 이 잘자리[잘짜리] 안패가 안댄다. {너희 식구 네 명이 다 오게 되면 이 잠자리를 안배하지 못한다.}

10213 # 너 여 와가 앉아가 밤을 새올라머 오고. {너희들 여기 와서 앉아서 밤을 새우려면 오고.}

10213 # 어 편안이 그래 자고 그래 할라면 니 혼자 왔다 가라 그래 씨이고. {어 편안히 그래 자고 그래 하려면 너 혼자 왔다 가라 그랬어.}

10213 # 그래 이제 그 우리 그 네엿째 아들이 지 차 모올고 저 형네 식구 다섯 싣고 한 차가 그래 그래 왔지요. {그래 이제 그 우리 넷째 아들이 자기 차 몰고 저 형네 식구

다섯을 신고 한 차가 그래 왔지요.}

10213 @2 장춘에 있어요? 넷째 아들은요? {장춘에 있어요? 넷째 아들은요?}

10213 # 위해 잇다고. {위해 잇다고.}

10213 @2 아, 넷째 아들도 거기 있어요? {아, 넷째 아들도 거기 있어요?}

10213 # 그래, 그래 위해 잇고. {그래, 그래 위해 잇고.}

10213 @2 위해서 차로 왔어요? {위해서 차로 왔어요?}

10213 # 그래, 차 저 차 가주고 왔대. {그래, 차 저 차 가지고 왔더라.}

10213 # 그래 그 다음에 또 장춘에 그거 손자, 손부, 사위, 딸 다 왔지아나. {그래 그 다음에 또 장춘에서 그 손자, 손부, 사위, 딸 다 왔잖아.}

10213 # 하며 그리끼 열이 아이가? 하며 두 집 식구매도 여얼이 아니가? {그러니까 벌써 열 명이 아니니? 두 집 식구도 열 명이 아니니?}

10213 # 그래 머 저 청도에 있는 위손자꺼정 해가주고 저 두우째 사우꺼정 해가주고 머 다 왔다 말이야. {그래 머 저 청도에 있는 외손자까지 해서 저 둘째 사위까지 해서 뭐 다 왔다 말이야.}

10213 # 다 와노니 사램이 어얼매야? {다 왔으니 사람이 얼마야?}

10213 # 한국에 잇던 우리 막내 아들꺼정 해가주고 다 왔으께에 그게 시물들이더라 하이께네. {한국에 잇던 우리 막내아들까지 해서 다 왔으니까 그게 스물들이더라 하니까.}

10213 # 그래가 어얼매 왔었노? {그래서 얼마나 웃었나?}

10213 # 인자 그 우리 그 장춘에 손부는 말이야. {이제 그 우리 그 장춘에 있는 손부는 말이야.}

10213 # 학교 땡길 때부터 여저곤 해주는 밥 먹고 쌍발(중국어-출근)하이께네 머 할 줄 아노?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해주는 밥 먹고 출근했으니까 뭐 할 줄 아나?}

10213 # 그래도 씨어마이라매 머 나가가 손은 마않지 하이께네. {그래도 시어머니랑 뭐 나가서 손은 많지 하니까.}

10213 # 그 나가가 머 할 끼 잇노? 불을 때에거덩 불을 때. {그 나가서 뭐 할 것이 있나? 불을 때면 불을 때.}

10213 # 우리 춘자가 보고 그랬대. '부지깨이만 태우지, 불도 땔 줄 모른다.' 그카는기야. {우리 춘자가 보고 그랬대. '부젓가락만 태우지, 불도 땔 줄 모른다.'}

10213 # 머 할 줄을 알어? 불을 때 반나? 천지 머 할 줄 아나? {뭐 할 줄을 알겠어? 불을 때 봤나? 도대체 뭐 할 줄 아나?}

10213 # 그래가 또 막 살이 찌가 똥끼만하지. {그리고 또 살이 찌서 독만 하지.}

10213 # 아이고 정지가 비이잡다. 정지가 비이잡고[비이작꼬] 부지깨이만 태운다. 불도 땔 줄 모리고. {아이고 정주간이 비좁다. 정주간이 비좁고 부젓가락만 태운다. 불도 땔 줄 모르고.}

10213 # 여럿이 모이끼 히안하게 말 하던 사람도 잇고[익꼬] 웃어븐 일도 마않고, 그래 아이고 참 웃기지. {여럿이 모이니까 희한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웃어운 일도 많고, 그래 아이고 참 웃기지.}

10213 @2 올해 제일 많이 모였어요? {올해 제일 많이 모였어요?}

10213 # 올해 상으로 모었지. 그 전에 그 마이 안 모었지. {올해 제일 많이 모었지. 그 전에 그 많이 안 모었지.}

10213 # 그 전에 그 머언데 잇는, 청도에 잇는 위손자꺼정 한국에 잇는 아아꺼정. {그 전에

는 그 먼데 있는, 청도에 있는 외손자까지 한국에 있는 아들까지.}

10213 # 저기 야아들 저게 어떤 켜 디로 올 적에 위손자나 올 적도 잇고[익꼬] 그랬지. {저기 이 애들 저게 어떤 때 데리고 올 적에 외손자도 올 적도 잇고 그랬지.}

10213 # 다 식구대로 다 안 왔다말이. {다 식구대로 다 안 왔다 말이야.}

10213 # 그런데 그게 큰일이라. {그런데 그게 큰일이라.}

10213 # 쌍발한테 월급도 마얏고 손부가 그런데 어얼라가 어없어. {출근하는데 월급도 많고 손부가 그런데 애기가 없어.} 10213 # 아아가 어없어 큰일이야. {아이가 없어서 큰일이야.}

10213 # 하머 저캉 같이[가치] 결혼했는 아들 그 사람들은 아아를 낳아가 유치원에 댕기는 데, 예 유치원에 댕기요. {벌써 자기랑 같이 결혼한 애들은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에 다니는데, 예 유치원에 다녀요.}

10213 # 어, 한 사연 댕어요. 오연켜 드는가 오래 그래. {어, 한 4년 댕어요. 오년 켜 들어가는가 올해 그래.}

10213 # 아아가 없어가 아무 그걸 해바아도 안대네. {아이가 없어서 아무 것을 해봐도 안되네.}

10213 # 저 일로 어떻게요? {저 일을 어떻게 해요?}

10213 @1 몸이 똥똥함미까? {몸이 똥똥함니까?}

10213 # 예, 살 마이 젓어요. {예, 살 많이 젓어요.}

10213 # 손자도 살 찢지, 손부도 살 찢지. {손자도 살 찢지, 손부도 살 찢지.}

10213 # 둘이 살, 살이 똥똥하이 젓어요. {둘이 살, 살이 똥똥하게 찢어요.}

10213 # 살을 빼애탄다고요? {살을 뺐다고요?}

10213 @1 예, 그 한국에서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결혼한지 뭐 칠팔년이 되는데 애를 못 낳는데 이렇게 똥똥했어요. {예, 그 한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결혼한지 뭐 칠팔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는데 이렇게 똥똥했어요.}

10213 # 음, 맞어요. {음, 맞아요.}

10213 @1 그래서 저 다이어트 하는 거 혼련을 삼십일 했는데 몸 훌쩍 해졌어요. {그래서 저 다이어트 하는 거 혼련을 30일 했는데 몸이 훌쩍 해졌어요.}

10213 @1 그거 끝나기 전에 임신 했어요. {그거 끝나기 전에 임신 했어요.}

10213 # 아이고야, 그런 한 거를. {아이고야, 그런 한 것을.}

10213 @1 의사가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의사가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10213 @1 체중이 너무 불고 이러면 또 어렵담미다. {체중이 너무 불고 이러면 또 어렵답니다.}

10213 # 두울 다 살이 그러 젓어. {둘 다 살이 그렇게 찢어.}

10213 @2 다 장춘에 있어요? {다 장춘에 있어요?}

10213 # 장춘에 있어. {장춘에 있어.}

10213 # 장춘에서 땡 장개 갔어. 결혼을 했어. {역시 장춘에서 장가 갔어. 결혼을 했어.}

10213 @2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10213 # 아니라, 그 저 하나는 머 어데 쌍발이라? {아니라, 그 저 하나는 뭐 어디 출근이라?}

10213 # 쌍발이고 야아는 위손자는 그 머 채리 노옹고. {출근이고 야 외손자는 그 뭐 차려 놓고.}

10213 @2 외손자는 혹시 식당 같은거 차려 놓았어요? {외손자는 혹시 식당 같은 거 차려 놓았어요?}

10213 # 아이라, 식당 아이라. {아니라, 식당 아니라.}

10213 # 자동차 머? {자동차 뭐?}

10213 @1 정비? 뭐 고치고 하는 거 말이에요? {정비? 뭐 고치고 하는 것 말이에요?}

10213 # 예예, 그런 거 하는갑이예요 그거하고. {예예, 그런 것 하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10213 # 그래, 그래 해고 내 그저 가아들 아아무 땀 걱정 아무도 없는데. {그래, 그래 하고 내 그저 그 애들은 아무 땀 걱정 아무 것도 없는데.}

10213 @1 그러네요. {그러네요.}

10213 # 딱 그저 아아 하나가 못 낳아가주고. {딱 그저 아이 하나를 못 낳아가지고.}

10213 # 그래가 내가 자꾸 그래지. '너 아아 키우는 것도 젊을 적 키아야 대이께네.'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지. '너 아이 키우는 것도 젊을 적 키워야 되니까.'}

10213 # '아무 방법을 써어도 아아가 없으면 남 아들 하나 갖다 키아라.' {'아무 방법을 써도 아이가 없으면 다른 사람 아이를 하나 갖다 키워라.'}

10213 # 남 아아도 키우면 정 들면 다 한가지께네. {다른 사람 아이도 키우면 정 들면 다 한가지니까.}

10213 @1 그럼요, 침은 좀 어색해도요. {그럼요, 처음은 좀 어색해도요.}

10213 # 정들면 대이께네. {정들면 되니까.}

10213 # 그러구 손부 메느리는 그래 그래 키울 생각 한데. {그리고 손부 며느리는 그렇게라도 키울 생각을 하던데.}

10213 # 우리 손자는 안 그카 하재. '안 키울래, 남의[나무] 아아 머할라 키아?' 안키울라 하지. {우리 손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 '안 키울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뭐하러 키워?' 안 키우려고 하지.}

10213 # '너, 그런 소리 안한다. 너어는 아무것도 안주 모른 소리다. 젊어어서 아아를 키아야 대지.' {'너 그런 소리 안한다. 너는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소리다. 젊어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

10213 # '남이 아아 키우며 아아 키아야 대고, 남이 살림 살며 살림 살애야 대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키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살림 살면 살림 살아야 되고.'}

10213 # '학교 땡길 때는 남이 학교 땡기면 학교 땡기야 대고.'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사람이 학교 다니면 학교 다녀야 되고.'}

10213 # '다 그걸 하는 대로 다 해야 대. 그러께네 키아라' 하이께네. {'다 그것을 하는 대로 다 해야 되. 그러니까 키워라.' 하니까.}

10213 # '그거 키우다 말 안들어면 쪼까내지도 모하고 때리 패지도 모하고 그 어째 어째노?' 이카테. {그거 키우다 말 안 들으면 쫓아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 어째 어째나?' 이렇게 말하더라.}

10213 # '사렘이 어지간한 사람은 그래 마알 안듣는 사람이 어없다.' {'사렘이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

10213 # '그리께에네 갖다 키우면 정 들면 다 한가지께네 하나 갖다 키와라.' {그러니까 갖다 키우면 정 들면 다 한가지니까 하나 갖다 키워라.}

10213 # 내가 자꾸 키우래 해요. {내가 자꾸 키워라 해요.}

10213 @1 예. {예.}

10213 # 키우라 한데도 말 안 들어. {키워라 해도 말 안 들어.}

10213 @1 그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요. 나이 좀 들며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요. 나이 좀 들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10213 # 달라지잖으며. {달라지지 않으면.}

10213 # 그 키아노오마 아무러도 그 안 키아난캄 낫잖아요? {그 키워 놓으면 아무래도 그 안 키웠는 것보다 낫잖아요?}

10213 # 여, 여 우리 있는데 그 옥매 어마이라고 그 어마이가 둘이 다 아아도 모웃나고 평상을 그러 살거덩요. {여, 여 우리 있는데 그 옥매 엄마라고 그 엄마가 둘이 다 아이를 못 낳고 평생을 그렇게 살거던요.}

10213 @1 예. {예.}

10213 # 남 아아를 하나 치라내 갖다 키웠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하나 칠일 안에 갖다 키웠어요.}

10213 # 딸을 치라내 갖다 키웠는데. {딸을 칠일 안에 갖다 키웠는데.}

10213 # 거기 인자 학교 다 땡기고 한국 가가 돈 버어리가, 돈 버어리가 단동에 집을 하나 사 놓고. {거기 이제 학교 다 다니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단동에 집을 하나 사 놓고.}

10213 # 저, 엄마, 아버지 단동에, 여게 잇이면 내도 자주 볼 수 있고 하이꺼네 단동에 와 살아라요. {저, 엄마, 아버지 단동에, 여기에 있으면 나도 자주 볼 수 있고 하니까 단동에 와 살라요.}

10213 # 안 키아 나아바요 나암의[나아무] 새끼가 누가 그래 주겟나요? {안 키우면 다른 사람의 아이가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10213 @1 그렇지요. {그렇지요.}

10213 # 세상이 머, 딸이 여기 살 적에도 딸이 어디 갖다 오면 막 좋아좋아가 만날 그너머 앞서고 땡기고. {세상이 뭐, 딸이 여기 살 적에도 딸이 어디 갖다 오면 막 좋아서 만날 그 애 앞세우고 다니고.}

10213 # 세상 내 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싶어요. {세상 내 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싶어서.}

10213 # 나무 새끼도 정 들어노오며 맹 한가지요. {다른 사람의 아이도 정 들면 역시 한가지요.}

10213 @1 그 우리 사촌 형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애가 없거던요. {그 우리 사촌 형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거던요.}

10213 @1 그 하나 데리고 키우자고 하니까 형수가 절대로 안된다고. {그 하나 데리고 키우자고 하니까 형수가 절대로 안 된다고.}

10213 @1 남의[나머이]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더니 나중에 데려 왔어요. {남의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더니 나중에 데려 왔어요.}

10213 @1 한 일주일 되니까 막 아아한테 홀랑 빠졌어요. {한 일주일 되니까 막 아이한테 홀랑 빠졌어요.}

10213 @1 처음에는 예 그런 게 있다가 애가 옆에 있고 방긋방긋 웃고 이러며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예 그런 게 있다가 아이가 옆에 있고 방긋방긋 웃고 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10213 # 그럼요. {그럼요.}

10213 # 없어져요. 저 정만 드을마 다아 같애요. {없어져요. 저 정만 들면 다 같아요.}

10213 # 일없어요. {괜찮아요.}

10213 # 그 저기 우리 그 두우째 딸레 집에 내가 인자 그 저기 위손자 낳는 거 받어러 갔거던요[각꺼덩요]. {그 저기 우리 그 둘째 딸네 집에 내가 이제 그 저기 외손자 낳는 것 받으러 갔거던요.}

10213 # 가이께네 그 뒤 집에[찌베] 사램이 땡 또 아아를 못낳거덩요. 못낳는데. {가니까 그 뒤 집에 사람이 역시 또 아이를 못낳거던요.}

10213 # 씨어마이가 어데 가가 아아를 하나 아안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아이를 하나 안고 왔어요.}

10213 # 아안고 와가 너 이거 키우고 이원하지 마고 키우고 살어라. {아이를 안고 와서 너 키우고 이혼하지 말고 키우고 살아라.}

10213 # 그레이께네 그 아아를 받으다 눕혀놓고 그 메느리가 어얼매나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받아서 눕혀놓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울었어요.}

10213 @1 처음예요? {처음예요?}

10213 # 예, 그래 마이 울디만 그 아아 키우다가예 또 자기가 아아 하나 잇어가 같이[가치] 나아가 또 키았어요. {예, 그래 많이 울더니 그 아이를 키우다가 또 자기 아이가 하나 생겨서 같이 낳아서 또 키웠어요.}

10213 @1 그 애 놓고 저 사촌 형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애 데려오고 얼마 안 있어서 애가 들어섰어요. {그 애 놓고 저 사촌 형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애기 데려오고 얼마 안 있어서 역시 애가 들어섰어요.}

10213 # 그 집두 그랬다고요. {그 집도 그랬다고요.}

10213 @1 그 고민하다가 애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니까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10213 # 그렇기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10213 # 야, 그래 맞아요. {야, 그래 맞아요.}

10213 @1 애가 없고 이러며는 나이 드니까 싸움이 잦더라고요. {아이가 없고 이러면 나이 드니까 싸움이 잦더라고요.}

10213 # 그쵸. 맞어요. {그렇쵸. 맞아요.}

10213 # 아이고, 저거, 자아들이 그래 머 한국을 보내볼까? 머 어예 볼까 하대요. {아이고, 저거, 저 부모들이 그래 뭐 한국을 보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하대요.}

10213 # 어데 좋다하며 어데 다 보내 볼라고[볼라꼬] 그래. {어디 좋다고 하면 어디다 보내 보려고 그래.}

10213 @2 나이가 얼마쯤 됐어요? {나이가 얼마 됐어요?}

10213 # 나이가? 어이구 나이가 이제 으법 땃기다. {나이가? 어이구 나이가 이제 꽤 됐을 것이다.}

10213 # 내가 나이 어얼맨지 모르겄다 나는. {나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겄다 나는.}

10213 # 아이구 둘이 다 살이 땡땅하이 져어. {아이고 둘 다 살이 똥똥하게 켜어.}

10213 # 아, 그럼 살이 찌가 그러나? {아, 그럼 살이 찌서 그러나?}

10213 @2 큰 딸의 아들이예요? {큰 딸의 아들이예요?}

10213 # 그래, 큰 딸 아들이 아아가 어없다. {그래, 큰 딸의 아들이 아이가 없다.}

10213 # 저 딸 하나는 저기 상해 가가 잇는 기이 그는 아들 하나 낳아가 키우지. {저 딸 하나는 저기 상해에 가서 있는데 그 애는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지.}

10213 # 상해 그 대학교 일어 선생이라 그래. {상해 그 대학교의 일어 선생이라 그래.}

10213 # 그래 이만하야면 내가 늦복이 터어졌다. {그래 이만하면 내가 늦복이 터졌다.}

10213 @1 예. {예.}

10213 # 젊어서는 키운다 고생해도 젊어서도 씨어마이 잇이며 아아들 키우는 거 큰 고생

없어. {젊어서는 키운다고 고생하여도 젊어서도 시어머니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 것 큰 고생 없어.}

10213 # 그저 젓만 먹이놓고 며 그 일 하러 나가고 그을치. {그저 젓만 먹여놓고 뭐 그 일 하러 나가고 그렇지.}

10213 # 다른 사람매리로 그 우리 옆집에, 한 집에 아아를 칠남매를 낳아가 키우이께네. {다른 사람들처럼 그 우리 옆집에, 한 집에 아이를 칠남매를 낳아서 키우니까.}

10213 # 그 노인, 저 할매 어렸고 아아를 키우이 그 어얼매나 고생이라요? {그 노인, 저 할머니 없고 아이를 키우니 그 얼마나 고생이라요?}

10213 # 밥 해 먹여야 대지, 아아들 키아야 대지. {밥 해 먹여야 되지, 아이들 키워야 되지.}

10213 # 들에 나가 일 안하마 안대지. {들에 나가서 일 안하면 안 되지.}

10213 # 그래가 그 한 사램이 그 그 집 바깥양반이 그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집 바깥 양반이 그래.}

10213 # 아, 어데 가 할매 하나 구해와야대겟다. {아, 어디 가서 할머니 하나 구해 와야겠다.}

10213 # 할매가 저어도 모지래는데 나암 줄 할매가 어디 잇노? {할머니가 자기들도 모자라는데 남 줄 할머니가 어디 있나?}

10213 # 우리 그 소리 듣고 그래지. {우리 그 소리 듣고 그러지.}

10213 # 할매 구하러 간다고 가가 술만 그으떡 취해 가 와. {할머니 구하러 간다고 가서 술만 잔뜩 취해서 와.}

10213 # 할매로 어데가 얻어? 저어도 모지래는데 어디가 구한데? {할머니를 어디서 얻어? 자기들도 모자라는데 어디서 구한데?}

10213 # 할매만 잇이만 아아들 키운데 큰 고생 어없어. {할머니만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 데 큰 고생 없어.}

10213 @1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요?}

10213 # 힘 덜 들지. {힘이 덜 들지.}

10213 # 그래도 한 집은 또 그카지. {그리고 한 집은 또 그렇게 말하지.}

10213 # 그 사람 내보다 한 살 더 먹었어. 그 사람 이름이 최대장이라고 그 사람. {그 사람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 그 사람 이름이 최대장이라고 그 사람.}

10213 # 그집 대장 부인이 그래지 '그 조웅은 할매 구하러 간다' 그 사램이 그 말 듣고[득꼬] 그래. {그집 대장 부인이 그러지. 그 사람이 '그 좋은 할머니 구하러 간다.'는 그 말 듣고 그래.}

10213 # 할매 구하러 가? {할머니 구하러 가?}

10213 # 저어따끼 할매 거느리내기는 거느리내고? 노인 하나 거느린게 그리 쭈운긴지 아나? {저런 사람이 할머니 거느리기는 거느려내는가? 노인 한 분 거느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10213 # 노인 거느린 사람은 그래 말 해지머. {노인 거느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 하지머.}

10213 @1 예 예. {예 예.}

10213 # 안 거느래 본 안 거느래 본 사람은 막 어얼라만 자알 바 주는가 그 생각이지. {거느려보지 못한, 거느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아이만 잘 봐 주는가 하는 그 생각이지.}

10213 @1 한 쪽만 생각하는 거지요. {한 쪽만 생각하는 거지요.}

10213 # 예.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1.1.6. 집 이야기

- 10213 # 그래, 우리 그 쌍가자(지명)서 살 적에 한 사십호 넘게 사아는데 사램 박씩 다정하게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래, 우리 그 쌍가자에서 살때에 한 사십호 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정하게 재미나게 살았어요.}
- 10213 # 그래 가주고 한 군데로 다 모으 갈러가주고 절반 갈러가주고 고전자로 {그런데 한 군데로 다 못 갈라서 절반 갈라서 고전자로}
- 10213 # 쓰태자(지명)라 하는데 그래 한 절반 가고 이리로 한 절반 나오고. {쓰태자라고 하는데 그 곳으로 한 절반 가고 여기로 한 절반 나오고.}
- 10213 @1 그래 여기 올 때는 그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여기 올 때는 그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10213 # 그 싱싱소 수이쿠(중-저수지) 막는다고. {그 싱싱소라는 저수지를 막는다고.}
- 10213 # 여 싱싱소 수이쿠, 여 머자네요. {여 싱싱소 저수지, 여기서 멀지 않아요.}
- 10213 # 여기 그 우리 그게 막았어요. {여기 그 우리 거기 막았어요.}
- 10213 # 막고 그래 국가에서 전부 다 실어 다 이사해 주고 그래. {막고 그래서 국가에서 전부 다 실어서 다 이사해 주고 그래.}
- 10213 @1 그래도 저 한 집에 터를 많이, 충분히 많이 켜던 모양이지요? 집이 상당히 늘어요. {그래도 저 한 집에 터를 많이, 충분히 많이 켜던 모양이지요? 집이 상당히 넓네요.}
- 10213 # 우리가 첫분에 이사를 그 금가(지명)라 하는데, 그리로 가이께네. {우리가 첫 번에 이사를 그 금가라 하는데, 거기서 가니까.}
- 10213 # 이사를 시일고[꼬] 오는데 차에 앉아 보이께네 자꾸 산골로 드어가. {이삿짐을 싣고 오는데 차에 앉아 보니까 자꾸 산골로 들어가.}
- 10213 # 이 어데 또 산골로 자꾸 들어가노 그래싶어데이. {이 어디 또 산골로 자꾸 들어가나 그래싶더니.}
- 10213 # 그 살아 보이께네 안 대겠어. {그 살아 보니까 안 되겠어.}
- 10213 # 그까이짓 것 우리 좋은 자리 하나 찾아보고 싶어. {그까짓 것 우리 좋은 자리 하나 찾아보고 싶어.}
- 10213 # 여기에, 이리로 새로 웅겻어. {여기에, 여기로 새로 옮겼어.}
- 10213 @1 예. {예.}
- 10213 # 우리 그때 식구가 많다나이 집 쪼매내앵기 지이가 대나요? {우리 그때 식구가 많다 보니 집 작게 지어서 되나요?}
- 10213 # 그래 가주고 인제 요 와가 우리 집을 이거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집을 이거 지었어요.}
- 10213 @2 이 집은 아드님들이 지어 주신 거예요? {이 집은 아드님들이 지어 주신 거예요?}
- 10213 # 그 이 집이, 그래, 아아들 다 잇을 때 지었으께네. {그 이 집이, 그래, 아이들 다 있을 때 지었으니까.}
- 10213 @1 그렇네. {그렇네.}
- 10213 # 그래, 그 저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카아지. {그래, 그 저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지.}

10213 # 그때도 순 더엉시아. {그때도 순 등신이야.}

10213 # 사람이 오래 오래 살수록 경험이 있고야, 생각이 많아요. {사람이 오래 오래 살수록 경험이 있고, 생각이 많아요.}

10213 # '그래, 이집으는 우리 상기한테로 넘구우코[녕구] 저 소는 저기 우리 손자한테로 넘가라. {'그래, 이 집은 우리 상기한테로 넘기고 저 소는 저기 우리 손자한테로 넘기라.}

10213 # 큰 소가 잇엇다 말어요. {큰 소가 잇었다 말어요.}

10213 # 넘가라 그케 그케 했거덩.{넘기라 그렇게, 그렇게 했거던.}

10213 # 그런데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하알배가 소를 날 넘가죽는데 소 팔어가 저기 막내이 삼촌 자양개 보내.' {그랬는데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소를 나를 넘겨줬는데 소 팔아서 저기 막내 삼촌 장가를 보내.'}

10213 # 야야, 자양가 안 보낸 아들 나아두고 손자 주라 머에라 그기 마았나? {야야, 장가 안 보낸 아들 놔두고 손자 주라 뭐 어떻게 해라 그것이 맞나?}

10213 # 그리 자양개 보내, 소 팔어가 자양개 보내야지 맞지. {그렇게 장가보내, 소 팔아서 장가를 보내야지 맞지.}

10213 # 내가 그으케 했구만. {내가 그렇게 했구만.}

10213 # 그래 집도 또 머 저게 아부지 집이라 해 놓고. {그래 집도 또 뭐 저기 아버지 집이라 해 놓고.}

10213 # 아버지 집이며 내한테 들어오긴데 또 저 아재 넘가주자. {아버지 집이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또 저 삼촌한테 넘겨주자.}

10213 # 그래 저어, 저어가 내가 넘가[녕가] 도올라 소리도 안해엔데 저어가 넘가[녕가] 준다 해고 하먼 그으케고 멧해 대엇어요. {그래 저, 저 내가 넘겨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저네가 넘겨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멧 해 됐어요.}

10213 # 예, 그 다음에 그 상구이카 그러데. {예, 그 다음에 그 상군이카 그러더라.}

10213 # 그머, 그래시먼 이름을 얼롱 내한터로 넘가야[녕가야] 안대나? {그럼, 그랬으면 이름을 얼른 나한테로 넘겨야 안 되나?}

10213 # 그카능 거 나는, 나는 또 그때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나는 또 그때 생각으로.}

10213 # 형제간인데 머 넘구머 어뎃고[어떡꼬] 안 넘구머 어떻나? 살면 대지 이켓더니. {형제간인데 뭐 넘기면 어뎃고 안 넘기면 어떠나? 살면 되지 이렇게 말했더니.}

10213 # 그으기 아이라요. {그것이 아니라요.}

10213 # 그래 올래 오기 대면 지 아들 이름으로 넘가야대. {그래 올해 오게 되면 저의 아들 이름으로 넘겨야 돼.}

10213 # 근 내가 그했어. {그것은 내가 그랬어.}

10213 # 내 죽기 전에는 얼롱 와가주고 이 문서 다 바까라. 그랬어. {내 죽기 전에는 얼른 와서 이 문서 다 바꿔라. 그랬어.}

10213 # 그래 저 또 올거라요. 어야만 우리 춘자 올 적에 같이 오거나? 그래, 그래. {그래 저 또 올 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춘자가 올 적에 같이 오거나? 그래, 그래.}

10213 @2 막내아들한테로 주는 거예요? {막내아들한테로 주는 거예요?}

10213 # 그래, 가아들이 그랬어. {그래, 그 애들이 그랬어.}

10213 # 늙은 부모 디리구 잇기때문에 내동생한테로 넘가준다고 그감는가. {늙은 부모 모시

고 있기 때문에 동생한테로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했는가봐.}

10213 # 마알로는 그랬어. {말로는 그랬어.}

10213 @2 춘자 아버지예요? {춘자 아버지예요?}

10213 # 그래, 춘자 아버지지. 상구이가. {그래, 춘자 아버지지. 상군이가.}

10213 # 춘자 아버지 이름으로 넘겨 준다고 그랬어. {춘자 아버지 이름으로 넘겨 준다고 그랬어.}

10213 # 그 지금은 안죽까지 상기 이름으루 그래가 있어. {그 지금은 아직까지 상기 이름으로 그래가 있어.}

10213 @2 상기가 큰 아드님인가요? {상기가 큰 아드님인가요?}

10213 # 큰 아들 {큰 아들}

10213 # 상기, 상철이, 상일이, 상무이, 상구이. {상기, 상철이, 상일이, 상문이, 상군이.}

10213 # 이 돌림자[짜]야 상자[짜]는. {이 돌림자야 상자는.}

10213 # 너어 동생 이름 머라? {너 동생 이름 뭐라?}

10213 @2 오빠예요. {오빠예요.}

10213 # 오빠가? 머? 상국이? {오빠가? 뭐? 상국이?}

10213 @2 예. {예.}

10213 # 그래, 이 항열자[짜]가 돌림자[짜]란 말이야. {그래, 이 항열의 돌림자란 말이야.}

10213 @1 예, 예. {예, 예.}

10213 # '우'자[우짜]가 야아들 아버지라면, 저 우에 '우'자가 돌림자고. {'우'자가 야들 아버지라면, 저 우에 '우'자가 돌림자고.}

10213 # 그 우에 자는 '중'자[중짜]가 돌림자야. {그 우에 자는 '중'자가 돌림자야.}

10213 @1 환하시네요. {환하시네요.}

10213 # 요 밑에 또 또 '희'자[희짜]라, 또 '희'잔데, 그 자는 어데가 붙나며 그 '희'자 거기 그 끝애가 붙을기라 아마 인자. {요 밑에 또 '희'자라, 또 '희'잔데, 그 자는 어디에 붙나면 그 '희'자가 거기 그 끝애가 붙을 거라 아마 이제는.}

10213 @1 아, 예, 예. 삼성. {아, 예, 예. 삼성.}

10213 @2 그것도 '상'자[상짜]가 중간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상'자가 중간에 붙어야 되는 거죠?}

10213 # 그래, 우에 붙는 자가 있고, 중간에 붙는 자가 있고. 끝에 붙는 자가 있고 그래. {그래, 우에 붙는 자가 있고, 중간에 붙는 자가 있고. 끝에 붙는 자가 있고 그래.}

10213 # 그래 그게 그거 아는 사람은 지 친척은 어데 가 찾아도 찾아내. {그래 그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친척은 어디 가 찾아도 찾아내.}

10213 @1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10213 # 그 저 빠이 알아도 이 돌림자 안 영는 사램이 있어. {그 저 뻘히 알아도 이 돌림자 안 넣는 사램이 있어.}

10213 # 그 여, 여 그 일 처언는 가아들 집이는 보래. {그 여, 여 그 일을 저지른 그 애들 집은 보라.}

10213 # 홍일이, 홍구이 그리 지이났어. 돌림자를 안 영고 그래 지이났어. {홍일이, 홍군이 그렇게 지어났어. 돌림자를 안 넣고 그렇게 지었어.}

10213 @1 어떤 돌림자는 그 영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 하며는 위에 분들하고 같은 경우가 있거덩요. {어떤 돌림자는 그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왜냐 하면은 위에 분들

하고 같은 경우가 있거던요.}

10213 # 그런 ‘자’ 가 있어요. {그런 ‘자’ 있어요.}

10213 # 그래 가주고는 그거 지금 그 한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 요 우리 야아들 하고 돌림자 한자야. {그래서 그거 지금 그 한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돌림자 한자야.}

10213 @1 예. {예.}

10213 # 그래 이명박이, 그 사람이 돌림자 안 넣고 지어서 그저 이명박이라. {그래 이명박이, 그 사람이 돌림자 안 넣고 지어서 그저 이명박이라.}

10213 @2 그럼 원래는 뭐예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10213 # ‘상’자지. {‘상’자지.}

10213 @1 ‘상’자 돌림이지. {‘상’자 돌림이지.}

10213 @2 한국 대통령 이름에 돌림자 넣지 않으신 것도 할머니 다 아시네요? {한국 대통령 이름에 돌림자 넣지 않으신 것도 할머니 다 아시네요?}

10213 # 그 우리 경희가 이 세엿째, 경희가 그 한국을 이 사람들이 요청해가 갔거던. {그 우리 경희가 이 셋째, 경희가 그 한국을 이 사람들이 요청해서 갔거던.}

10213 # 갔는데 어예 했나 하면 야아가 그 물건을 사 가주고 한국으로 부쳐주고. {갔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 야가 그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부쳐주고.}

10213 # 그래 전하 받고, 무슨 물건 사 부치라며 부치고 이래 잊었거던. {그래 전화 받고, 무슨 물건 사 부치라면 부치고 이래 있었거던.}

10213 # 저, 거게 어데라? {저, 거기 어디라?}

10213 # 어데가 이실 책에 그랬거던. {어디에 가 있을 적에 그랬거던.}

10213 # 상해 우시이(무석-지명)끼라. {상해 무석일거라.}

10213 # 그래 잊었는데 한국에 갈 일이 잊어가 가이께네 이명박 그 집이라고 그래. {그래 있었는데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이명박이 그 살던 집이라고 그래.}

10213 # 그래, 그 어어른들이 그카더래. {그래, 그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해.}

10213 # 야아드들아, 너 저 사람한테, 우리 가아는 아직 어얼매 안 댕지. {야들아, 너 저 사람한테, 우리 그 애는 아직 얼마 안 댕지.}

10213 # 저 사람한테 말 아무따나 하이며 안댄다. {저 사람한테 말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10213 # 너어보다 하안에 우이께네. {너보다 한 항렬 위니까.}

10213 # 돌림자가 하안에 우에 돌림자이께네. {돌림자가 한 항렬 위의 돌림자이니까.}

10213 # 그리께 하안에 우에 돌림자이께네 명박이 그 사람이 ‘상’자가 아이다. {그러니까 한 항렬 위의 돌림자니까 명박이 그 사람이 ‘상’자가 아니다.}

10213 # 그래 그 사람은 다 돌림자 여었는데 이명박이란 그 사람 돌림자 안 여어었어. {그래 그 사람은 다 돌림자 넣었는데 이명박이란 그 사람은 돌림자 안 넣었어.}

10213 # 안 영구 지었어. {안 넣고 지었어.}

10213 # 그래 가주고 그 어른들이 하머 그 돌림자의 아이께네. {그래서 그 어른들은 벌써 그 돌림자를 아니까.}

10213 # ‘저 사람한테 말 아무따나 하면 안댄다.’고 말 주의해라고 그래 시키더라고. {‘저 사람한테 말 아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 주의하라고 그래 시키더라고.}

10213 # 그래 가아가 그어 가 좀 잇다 왔어. {그래 그 애가 거기에 좀 있다 왔어.}

10213 # 이름이 경희. {이름이 경희.}

10213 # 그래 지금 가가 저거마이한테 가가 일 잘 하고 있어. {그래 지금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일 잘 하고 있어.}

10213 # 무슨 일 하나 하며? {무슨 일 하나 하면?}

10213 # 여어서 갈 책에 내가 그래 마이 부탁해지. {여기서 갈 적에 내가 그래 많이 부탁했지.}

10213 # 이념들이 마알 잘 안들어. {애들이 말 잘 안 들어.}

10213 # 손네들은 마알 잘 듣자내요? {손녀들은 말 잘 듣잖아요?}

10213 @1 예. {예.}

10213 # 이거, 이거 손자들이 이념들은 마알 잘 안들어요. {이거, 이 손자들이 애들은 말 잘 안 들어요.}

10213 # 딱 밥을 해가 먹으면서 똑 전하를 내가 꼭 친다. '이리 밥 먹으러 온나?' {밥을 해서 먹으면서 꼭 전화를 내가 꼭 한다. '여기 밥 먹으러 온나?'}
 10213 # 그래도 아이 누우 자고 있지, 그래. {그래도 아직 누워 자고 있지, 그래.}

10213 # 그래, 그 내가 그랬지. {그래, 그 내가 그랬지.}

10213 # '너 가가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대.' {너 가서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10213 # '너 엄마 말 안 듣고 그래 애 먹이면 너 엄마 병나며 너거 집 큰일 난[란]다.' {너 엄마 말 안 듣고 그래 애 먹이면 너 엄마 병나면 너희 집 큰일 난다.}

10213 # '그래께네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댄다'고 내가 뭇 분을 부탁해 보낸데. {'그러니까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부탁해 보냈더니}

10213 # 그래 한국 가가 저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한국에 가서 저 엄마 말 잘 듣고.}

10213 # 저 어마이가 또 일자리 또 수월한 거 찾아주거. {저 엄마가 또 일자리 또 수월한 거 찾아줘서.}

10213 # 계속 그래 쌍빨 한대요. {계속 그래 출근 한다네요.}

10213 # 야, 그 그래 내가 그리 없기카마 안났나? {아, 그 그래 내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10213 @1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10213 # 없기카마 안났나?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10213 # 그 우리 세엿째가 와가 일년을 휴아하는데도. {그 우리 셋째가 와서 일 년을 휴식하는데도.}

10213 # 여어서 저 딸이 밥 끼린거 머억지 말고 여 와가 먹어라. {여기서 저 딸이 밥 끓인 것 먹지 말고 여 와서 먹어라.}

10213 # 내가 쪼끔 더 괴롭어도 이 밥을 올케 해 먹어야 안 대나? {내가 조금 더 괴로워도 이 밥을 올케 해 먹어야 안 되나?}

10213 # 그러케서 여어서 사마 같이 먹었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살면서 같이 먹었어.}

10213 @1 예. {예.}

10213 # 이이키 늑어 늑어도 이키 늑어도 부모는 자식을, 부모는 자식을 그래 마이 생각해. {이렇게 늑어도 이렇게 늑어도 부모는 자식을, 부모는 자식을 그래 많이 생각해.}

10213 # 자식은 부모만큼은 안 댄다 그래. {자식은 부모만큼은 안 된다 그래.}

10213 @1 아, 안 되지요. 그래서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또 자기 자식 생각하고. {아, 안 되지요. 그래서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또 자

기 자식 생각하고.}

10213 # 맞아요. 참 치사랑이 어없어. {맞아요. 참 치사랑이 없어.}

10213 @1 예. {예.}

10213 # 그래, 이래저래 이래 살다나이께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 이래저래 이래 살다나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10213 @1 이제는 머 좋은 일 많겠지요? {이제는 뭐 좋은 일 많겠지요?}

10213 # 그래도 한 분에 춘자가 책을 예맨한걸 여리 피놓고. {그래도 한 번 춘자가 책을 요만한 것을 이렇게 퍼놓고.}

10213 # '할매, 나이가 어얼매고 생일이 어얼매고 대도'고 그래. {'할머니, 나이가 얼마고 생일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그래.}

10213 # 대주이께네 '할매 사아면 살수록 좋은 일이 더 많에.' {알려주니까 '할머니 살면 살수록 좋은 일이 더 많아.'}

10213 # '나쁜 일은 저억고 좋은 일이 더 많에.' {'나쁜 일은 적고 좋은 일이 더 많아.'}

10213 # '그래, 그래, 그래야대지.' {'그래, 그래, 그래야지.'}

10213 # 그래 좋은 일도 많거치마는 '춘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앗노?' {그래 좋은 일도 많겠지만은 '춘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나?}'

10213 # '나 니 버어른는 돈 내 좀 써보고 죽을란다.' 이카이니까. {'나 네가 벌은 돈 좀 쓰보고 죽으려나.' 이렇게 말하니까.}

10213 # '할매 오래만 살아라.' {'할머니 오래만 살아라.'}

10213 @1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뭐 합니까?}

10213 # 지금 인제 필업해고 실습 갔다 와가. {지금 이제 졸업하고 실습 갔다 와서.}

10213 # 그래 인제 저거마이 한 분 왔다 가래 해가 그래 갔어요. {그래 이제 저거 엄마 한 번 왔다 가라고 해서 그래 갔어요.}

10213 # 자악년 여름에도 갔다 방학때 갔다 왔는데. {작년 여름에도 갔다, 방학 때 갔다 왔는데.}

10213 # 그래 저 아바이 머라해지. {그래 저 아버지 뭐라 하지.}

10213 # 이래 애 먹고 버어린 돈 이넘어 아아들 천지도 모르고 돈만 써로 땡긴다고. {이렇게 애 먹고 벌인 돈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쓰러 다닌다고.}

10213 # 작년에 왔다 가도 여 머 여 비가 와가 물도 마얏고 골라이 많은데 머 온다고? {작년에 왔다 가도 여 뭐 여 비가 와서 물도 많고 곤란이 많은데 뭐 온다고?}

10213 @1 그럼 부부가 같이 나가 있습니까? {그럼 부부가 같이 나가 있습니까?}

10213 # 같이 나가 잇는게 아이래요. {같이 나가 잇는 것이 아니라요.}

10213 # 그 이혼했어요. {그 이혼했어요.}

10213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3 # 예, 저거마이하고 이혼했어요. {예, 저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10213 # 저거마이 이혼해애도 이거 한국 가는 거 우리 친정 조카가 초청해가 갔거덩요. {저 엄마 이혼하여도 이거 한국 가는 것은 우리 친정 조카가 초청해서 갔거덩요.}

10213 # 그래 세 분 만에 뗏어요. {그래 세 번 만에 뗏어요.}

10213 # 세 분 만에 그래 뗏는데 그 가가주고 사알라고 그래 이케 갔잖아요. {세 번 만에 그래 뗏는데 그 가서 살려고 그래 이렇게 갔잖아요.}

10213 @1 예. {예.}

10213 # 잦는데 머어서 좀 맞잖애가 갈라졌지. {잦는데 무엇이 좀 맞지 않아서 갈라졌지.}

10213 # 갈라졌는데 그래도 돈 버어리가 꼭꼭 저 따아라 돈 대요 어마이가. {갈라졌는데 그래도 돈 벌어서 꼭꼭 저 딸 돈 대요 엄마가.}

10213 # 저 어마이 한 달 대고 저 아바이 한 달 대고 이래가 공부 딱 써기고 그래. {저 엄마 한 달 대고 저 아버지 한 달 대고 이래서 공부 딱 시키고 그래.}

10213 @1 그 같이 살면 좋았겠는데? {그 같이 살면 좋았겠는데?}

10213 # 그으케 말이라요. {그러니까 말이라요.}

10213 # 그래 여자도 지금 같이 사알고 싶어 그래요. {그래 여자도 지금 같이 살고 싶어 그래요.}

10213 # 그랬는데 야아가 치우라고 아야 치왓이먼 치와라 그래.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만 두라고 아예 그만뒀으면 그만되라 그래.}

10213 @1 예. {예.}

10213 # 새끼 바아서 같이 살머 좋은데. {자식을 봐서 같이 살면 좋은데.}

10213 @1 그러게요. {그러게요.}

10213 # 그런데 이카먼 이말 듣나? 저카먼 저 말 듣나? 저어 신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 듣나? 저렇게 하면 말 듣나?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10213 @1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1.1.7. 할머니의 결혼 과정과 결혼 생활

10201 @1 그럼 할머니는 중국, 스무살 때 중국 오셨으면 장성했을텐데요? {그럼 할머니는 중국에, 스무 살 때 중국에 오셨으면 장성했을텐데요.}

10201 # 그럼요. {그럼요.}

10201 @1 그쪽 의성에서 있을 때 생각들은 잘 안 납니까? {그쪽 의성에서 있을 때 생각들은 잘 안 납니까?}

10201 # 와 안나요? 나지. {왜 안나요? 나지.}

10201 @1 그런 쪽에서 기억나는 것들 좀 얘기해 보시지요. {그 쪽에서 기억나는 것들 좀 이야기해 보시지요.}

10201 # 으성에서 살 때? {의성에서 살 때?}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그저 머 사는 기 그을치 머요. {그저 뭐 사는 것이 그렇지 뭐요.}

10201 # 그 말이 낫이야 하는 말이지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거 겠으며 날 중국 보내지도 안 해요. {그 말이 낫으니 하는 말이지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것 같으면 날 중국 보내지도 안 해요.}

10201 @1 아. {아.}

10201 #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0201 @1 예. {예.}

10201 # 사는 기 다 한국이 요새때로 그래 다 못살았다 말이요. {사는 것이 다 한국이 지금 처럼 그래 다 못살았다 말이에요.}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지금은 우리 친정의 가보이 다 잘 살아요. {지금은 우리 친정에 가보니 다 잘 살아요.}

10201 @1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10201 # 그 그때는 저, 그저 그렇게 살고 그랬지. {그 그때는 저, 그저 그렇게 살고 그랬지.}

10201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 # 야, 그 그때는 우리 부친은 세상 떴고, 우리 오빠가 일본 가 잇었다 말이야. {야, 그 그때는 우리 부친은 세상 뜨고, 우리 오빠가 일본 가 있었다 말이야.}

10201 @1 예. {예.}

10201 # 세상 떴고 그랬는데. {세상 뜨고 그랬는데.}

10203 # 그, 일본으로 그 소개가 들어와도 우리 엄마가 머물라고 안 보낼래 했어요. {그, 일본으로 그 소개가 들어와도 우리 엄마가 멀다고 안 보내려고 했어요.}

10203 @1 예. {예.}

10203 # 안 보낼래 해가. {안 보내려고 해서.}

10203 # 그래, 그 때는 일본으로 갔으면 더 나았을텐데. {그래, 그 때는 일본으로 갔으면 더 나았을텐데.}

10203 # 일본으로 안 보낼라하이. {일본으로 안 보내려고 하니.}

10203 # 그래 이거 우에 가주고 그저 막 딸 어디 줄라 하면 결정 지을라면 또 족지.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서 그저 막 딸 어디에 주려고 하면, 결정 지으면 또 속지.}

10203 # 족으며 어야겠나 하나 키아가 그래 싶어 결정 못하지. {속으면 어떻게 하겠나 하나 키워서 그래 싶어 결정 못하지.}

10203 # 우리 엄마가 결정을 못해. {우리 엄마가 결정을 못해.}

10203 # 우리 백부가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 가아가 십구연만에 왔어요. {우리 백부가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 가서 19년 만에 왔어요.}

10203 @1 예. {예.}

10203 # 십구연만에 와가 우리 큰아버지가 결정을 해가주고 이래 했어요. {19년 만에 와서 우리 큰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10203 @1 아, 그 일본 아니고 중국으로요? {아, 그 일본 아니고 중국으로요?}

10203 # 예, 일본서 십구연만에 와가 나를 우리 엄마가 결정을 못해이께네 우리 큰아버지 결정을 해가 여 중국으로 보냈어요. {예, 일본에서 19년 만에 와서 나를 우리 엄마가 결정을 못하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여기 중국으로 보냈어요.}

10203 @1 요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요? {요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요?}

10203 # 그 저 야아들 할배가 그 우리 있는 그 동네서 어얼매 안 가요. {그 저 애들 할아버지가 그 우리 있는 그 동네에서 얼마 안 가요.}

10203 # 여어서 차알로 가기보다 더 개잡근데[개작근데] 외가집이 잇어요. {여기서 찰로 가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외갓집이 있어요.}

10203 @1 예, 예. {예, 예.}

10203 # 외가집이 잇는데, 그 외가집에서 소꺼 했지. {외갓집이 잇는데, 그 외갓집에서 소개를 했지.}

10203 # 여게, 저게, 온데 그래 소개 하이께 그 우리 조보 대에멘서 그 집 손네라하이께. {여기, 저기, 온데 그래 소개하니까 그 우리 조보님을 말하면서 그 집 손자라하니까.}

10203 # '아, 그 집 손녀거등 말도 하지 말고 해라고.' 이래 댕다 말이야. {'아, 그 집 손녀라면 말도 하지 말고 하라고.' 이래 댕다 말이야.}

10203 @1 예. {예.}

10203 # 이래 댕는데 그 결정 할라이 우리 엄마는 저 머언데 보내는데 내가 안 쪽겐나 그 래싫어 가암히 결정을 못했때. {이래 댕는데 그 결정 하려니 우리 엄마는 저 먼데 보내는데 내가 안 속겐나 그래 싫어 감히 결정을 못했대.}

10203 # 우리 큰아버지가 그래 헛붓지머. {우리 큰아버지가 그래 결정했지 뭐.}

10203 # 그래 헛부고 우리 큰아버지가 일꾸이 아이라요. {그래 하고 우리 큰아버지가 일꾼 이 아니라요.}

10203 # 선배라. 일꾸이 아이고 그랜데 {선비라. 일꾼이 아니고 그랬는데}

10203 # 그래 그랜다. 칠월달에, 정월달에 와가주고 칠월달에 첫친정 오라고 날 받고. {그래 그랜다. 칠월달에, 정월달에 와서 칠월달에 첫 친정 오라고 날 받고.}

10203 # 편지를 마안지장사로 써가주고 날꺼정 받아가, 오는 날짜꺼정 받아가주고 여 보냈 어요. {편지를 만지장사로 써서 날까지 받고, 오는 날까지 받아서 여기로 보냈어요.}

10203 # 중국에 보냈는데. {중국에 보냈는데.}

10203 # 그래 그 야아들 할배가 젊을 적에 그 따깡자(지명) 공사에 그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래 그 애들 할아버지가 젊을 적에 그 따깡자 공사에 그 훈련 받으러 갔어요.}

10203 # 훈련 받으러 가이께네 훈련 받으러 보내 놓고 집에 눅웃다이께. {훈련 받으러 가니 까 훈련 받으러 보내 놓고 집에 누워있다 보니까.}

10203 # 그 장춘쪽에 야, 마악 불평거리 이인기 짜악 팡 그머 널찌데요. {그 장춘 쪽에, 야 막 불덩이 인 것이 팡 그 뭐 떨어지더라구요.}

10203 # 그 때야, 일본놈 너머 갈 적에 짜양꼬양 그머 널찌데요. {그 때야, 일본 놈 넘어 갈 적에 팡팡 그 뭐 떨어지더라구요.}

10203 # 너머, 널찐 소리가 나테요. {넘어, 떨어지는 소리가 나테요.}

10203 # 그래 인제 친정 보낸다고요. {그래 이제 친정 보낸다고요.}

10203 # 훈련 받고 올 적에 그 한국 친정 가는 거 그거 해가 온다고 그래 갔는데. {훈련 받 고 올 적에 그 한국 친정 가는 것 그거 해서 온다고 그래 갔는데.}

10203 # 그 훈련 끝나기 전에 일본 사람이 넘어간대네. {그 훈련 끝나기 전에 일본 사람이 넘어간다네.}

10203 # 불평거리가 통 머 막 맞는게 짜양, 짜양 널찌는 소리 여꺼징 듣기고 그러 큰 불평 거리 널찌. {불덩이가 통 뭐 막 맞는데 팡, 팡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듣기고 그렇 게 큰 불덩이가 떨어져.}

10203 @1 예. {예.}

10203 # 그래, 그래가 훈련 끝나기 전에 왔어. {그래, 그래가 훈련 끝나기 전에 왔어.}

10203 # 그래, 그래뿌는데 가네요? 못[목] 가지. {그래, 그랬는데 갈 수 있는가요? 못 가지.}

10203 # 가앗이며 갈러졌어요. {갔으면 갈라졌어요.}

10203 @1 예. {예.}

10203 # 중국, 중국 사람 중국에 사알고 조선 사람은 조선에서 사알지. 못사알지. {중국, 중 국 사람 중국에서 살고 조선 사람은 조선에서 살지. 같이 못 살지.}

10203 # 아이고, 그래, 그래 살다 나이께 여지껏 이래 살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살다 보

니까 여태껏 이렇게 살아요.}

10203 # 우리 그 한국에서 잘 사아는 사람 걸으면 중국에 시집 보내치도 안 한다. {우리 그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중국에 시집 보내지도 안 한다.}

10203 @1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10203 #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10203 # 일본에 보내라 하는 것도 그 개명한테 그으 보내라는 것도 머다고 안보내는데 여 중국에 보내요? 안 보내지. {일본에 보내라 하는 것도 그 개명한테 그곳에 보내라는 것도 멀다고 안 보냈는데 여기 중국에 보내요? 안 보내지.}

10203 # 그랬긴데도 그래 고마 폭 속아가 완는데요. {그랬는데도 그래 그만 폭 속아서 왔는데요.}

10202 @ 그럼 그 무렵에 여기 오셔서 고생을 좀 하셨겠네요? {그럼 그 무렵에 여기 오셔서 고생을 좀 하셨겠네요?}

10202 # 기 차조 고생이. {기차게 고생을 많이 했죠.}

10202 # 그래 가주고 머 그래도 이 집에 오이께네 그래 곤란하게 사알지는 안테요. {그래 가지고 뭐 그래도 이 집에 오니까 그래 곤란하게 살지는 않테요.}

10202 @ 아, 그랜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10202 # 곤란하게 사알지는 안해. {곤란하게 살지는 않아.}

10202 # 그래 딱 형제라. {그래 딱 형제라.}

10202 # 삼남매라, 여기도 삼남매라. {삼남매라, 여기도 삼남매라.}

10202 # 그러가 저, 저 머 그 우리 시누우는 그 저, 저 등사학교에 선생이고 등사학교에 선생질을 하는 사램이고. {그래서 저, 저 머 그 우리 시누이는 그 저, 저 등사학교에 선생이고 등사학교에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고.}

10202 # 강개여이라고야 사람이 잘 잘났[랴]더랴요. {강개연이라고야 사람이 잘 잘 생겼더라구요.}

10202 # 잘나[라]고 현출받고[박꼬] {예쁘고 흰칠하고}

10202 # 여 일본 정치때부터 선생질 해고, 그래 시누우들은 잘 사알고 잇데. {여기 일본 정치때부터 선생님 하고, 그래 시누이들은 잘 살고 있더군.}

10202 # 형제간에 사암모오자가 여 여기 살데. {형제간에 삼모자가 여기 살더군.}

10202 # 그래 이전에 우리 씨어른도 그때 머 구장질 했다던가? {그래 이전에 우리 시어른도 그때 뭐 구장직(한국의 면장직과 비슷함)을 했다던가?}

10202 @1 예. {예.}

10202 # 그랬는데, 그래 머 그때는 그 우를 이래 막어 놓고 잇이며. {그랬는데, 그래 뭐 그때는 그 위를 이렇게 막아 놓고 있으면.}

10202 # 마악 문 잠가놓고 잇이며 마악 와가주고 문 안 열어 준다고 뚜드리요. {막 문 잠가놓고 있으면 막 와서 문 안 열어 달라고 두드려요.}

10202 # 문 열어 주러 나가며 빨잡히며 마악 두디리 맞기[막끼]도 하고 그랬는모야. {문 열어 주러 나가면 붙잡히면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10202 @1 어허. {어허.}

10202 # 그래 장춘에서 시이상 떴지. {그래 장춘에서 세상 떴지.}

10202 @1 예.

10202 # 시이상 뜨고 그래 인제 야아들 할배가 열일곱살부터 여 식구울 믱에 살릿대요. {세

상 뜨고 그래 애 할아버지가 열일곱 살부터 식구들을 먹여 살렸대요.}

10202 @1 예. {예.}

10202 # 예, 식구들은 장춘에 나아두고. {예, 식구들은 장춘에 놔두고.}

10202 # 그 구이쭈(지명)라 하는데 가가 농사 지어가주고 밭에 살리고 그랬다 하죠. {그 구이쭈라 하는데 가서 농사 지어서 먹여 살리고 그랬다 하죠.}

10202 # 그래 그 전에 야아들, 이제 야아들 왔던 그 두우째 큰아버지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네 도이 나오는 게 잊잖아요. {그래 그 전에 이 애들, 이제 이 애들 왔던 그 둘째 큰아버지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돈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10202 # 그래 거기 불분가바. {그래 그것이 부러운 가봐.}

10202 # 내도 그때 가정 부담만 아이랬으면 나도 저런 돈 타 써줬다고. {나도 그때 가정 부담만 이렇지 않았으면 나도 저런 돈 타 써줬다고.}

10202 # 그 때는 외애라 야아들 큰아버지보다가 여 있던 가아들 큰아버지보다 지식이 나이께네. {그 때는 오히려 이 애들 큰아버지보다, 여 있던 그 애들 큰아버지보다 지식이 나왔으니까.}

10202 @1 예. {예.}

10202 # 더, 더 낫지. {더, 더 낫지.}

10202 # 그래 받으씨께네 나는 가정부담이 쎄에가주가 저런 돈 못 타 쓴다고 그래. {그래 받아쓰니까 나는 가정 부담이 컸기에 저런 돈 못 타 쓴다고 그래.}

10202 @1 예. {예.}

10202 # 헌출받았어요. {헌칠했었어요.}

10202 @1 예. {예.}

10202 # 헌출받고 그래. 그래 오이께 그커루 곤란하지 그래 곤란하지는 않아요. {헌칠하고 그래. 그래 오니까 그렇게 곤란하지, 그래 곤란하지는 않아요.}

10202 @1 그 어느 정도 바탕이 좀 돼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어느 정도 바탕이 좀 돼 있었던 모양이네요?}

10202 # 그랬어요. {그랬어요?}

10202 # 그 장춘에서 시이상 뜯는데 그 나양게 묘오를 찾아러 가이께네 다 머 그래가 집을 지인대로. {그 장춘에서 세상 뒀는데 그 나중예 묘를 찾으러 가니까 다 뭐 거기에 집을 지은대로여서.}

10202 @1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10202 # 못 찾지요. {못 찾지요.}

10202 @1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02 # 그래, 그래께 그 아아들 삼남매를 데리구 키우느라 이거 고생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삼남매를 데리고 키우느라 이거 고생도 하고.}

10202 # 이 아아들 안 키아보며 모르지만 키아 본 사람들은 그 아아들 데리구 농사 질라면 참 속도 마이 상코 고상도 마이 하지. {이 아이들 안 키워보면 모르지만 키워 본 사람들은 그 아이들 데리고 농사 지으려면 참 속도 많이 상하고 고생도 많이 하지.}

10202 @1 아, 예. {아, 예.}

10202 # 그래 그 그 친정이, 우리 씨어머이 친정이 그 우린데서 어얼때 안 대이끼네. {그래 그 그 친정이, 우리 시어머니 친정이 그 우리 있는데서 얼마 안 되니까.}

10202 # 그어서 소개를 해가 그래 이 맺는거라요. {거기서 소개를 해서 그래 이 됐는 것이라요.}

10202 @1 예, 예. {예, 예.}

10208 # 아이구, 참 말도[또] 마소. {아이구, 참 말도 말아요.}

10208 # 와노이 열매 어슬픈지? {와 보니까 얼마나 어슬픈지?}

10208 # 바로 그 우리 집 옆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우리 집 옆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10208 @1 예. {예.}

10208 # 학교건데 저녁 먹고 이래 나가마 학교마다 나가마 시일컨 우울고. {학교인데 저녁 먹고 이렇게 나가면 학교마당에 나가서 실컷 울고.}

10208 # 엄마 생각이 나가 시일컨 울고. {엄마 생각이 나서 실컷 울고.}

10208 # 딱 조 산넘에 우리 친정이 잇는 거 겠고. {딱 저기 산 넘어 우리 친정이 잇는 것 같고.}

10208 # 그래가 울기도, 울기도 마이 울고. {그래서 울기도, 울기도 많이 울고.}

10208 # 추석 명절, 단오 명절 다 오마 저녁으로 달밤[빠]에 앉아 그릇 딱잡아요 그전에 녹 그릇에[노끄르세]. {추석 명절, 단오 명절 다 오면 저녁으로 달밤에 앉아 그릇 뒹잡아요 그전에 늦그릇에.}

10208 # 그으넌 그릇 다 땡을다[따]나 우울고. {그 그릇을 다 땡을 때까지 울고.}

10208 # 아이구, 울기도 울기도 열매 울었는지? {아이고, 울기도 울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10208 # 그래, 그 오이께네 그 사전집인데요. {그래, 그 오니까 그 네 칸 집인데요.}

10208 # 그작 집에 또 노인 하나 잇는데 내가 울머 그 노인도 와가 같이 따러 울고. {거기 집에 또 노인 한분이 있었는데 내가 울면 그 노인도 와서 같이 따라 울고.}

10208 # 어얼때 우렸는지 말도[또] 못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10208 # 그래 지금 걸으면야 지금 걸으면 머 훌 달라 안 뻘뻘겟나? {그래 지금 걸으면, 지금 걸으면 뭐 훌쩍 안 달아나겟나?}

10208 @1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10208 # 그때는 내한테 돈이 잇나? {그때는 나한테 돈이 있나?}

10208 # 중국마알을 할 줄 아나? {중국말을 할 줄 아나?}

10208 # 어예 가요? 안디다 주머 못가지[목까지]. {어떻게 가요?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가지.}

10208 # 그래, 그래 사다 나이께네 이 새끼들 키우다나이 어테도 못가고[목까지] 그래 살았지요. {그래, 그래 살다 나니까 이 새끼들 키우다나니 어디에도 못가고 그래 살았지요.}

10208 @1 예, 여기 와서 살 때에 옆에 함경도 사람들이 좀 같이 잇었습니까? {예, 여기 와서 살 때에 옆에 함경도 사람들이 좀 같이 있었습니까?}

10208 # 몰라요, 함경도 사람인지 하이튼 사람들이 마이 모었어요. {몰라요, 함경도 사람인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10208 # 마이 모이가 살았어요.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10208 # 함경도 고향이라요? {함경도가 고향이라요?}

10208 @1 아니요. 저 함경도는 저 이북 북쪽 아십니까? {아니요. 저 함경도는 저 이북 북쪽 아십니까?}

10208 @1 그 말이 어쩐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말이 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10208 # 여기 머 오이께네 경상도 말도[또] 아이고 머 여러가지 말 그래 하대요. {여기 뭐 오

니까 경상도 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그래 하대요.}

10208 @1 예,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10208 # 그래가주고 이래 와노이께네 다 막 내가 울고 하게 대며 막 그 사람들이 다 막 따라 우울고.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다 막 내가 울고 하게 되면 막 그 사람들이 다 막 따라 울고.}

10208 # 아이구 얼마나 꼭 가고 싶어가 저래 울겟노카고 그랬대요. {아이고 얼마나 꼭 가고 싶어서 저렇게 울겠는가고 그랬대요.}

10208 # 그랬대예. 젊을 때는 그때 갬창은 모양이야. {그랬대요. 젊을 때는 그때 갬창은 모양이야.}

10208 # 메들 보면 만날 날 표절 삼지 동네사람들이. {며느리 보면 계속 나를 기준으로 삼지 동네사람들이.}

10208 @1 예. {예.}

10208 # 그, 우리 그 최선생 그 사람이 상체해뿌고 그 길림 가 새액씨를 한 때 더리고 온다 하이께네. {그, 우리 그 최선생님 그 사람이 상처하고 그 길림 가 색시를 한 때 데리고 온다하니까.}

10208 # 그 어마이람에 형수람에 그 앓해가주고. {그 어머니랑 형수랑 그 앓아서.}

10208 # 저짜이 그 한국에서 왔는 그 새액씨만 하나? {저쪽(=다른 곳 색씨)이 그 한국에서 온 그 새색시만 하나?}

10208 @1 예. {예.}

10208 # 날 표절 삼엇던거라 그래데. {나를 기준으로 삼았던거라고 그러더라.}

10208 # 하도 늙어노이 이 꼬라지지. {많이 늙었으니 지금 이 모양이지.}

10208 # 그래도 클 적에는 입성겔은거 채리 입으마, 입성 입어노어머 땡시 잇고[익꼬] 절테 해엿는데. {그래도 젊을 때에는 옷 같은 것 차려 입으면, 옷 입으면 땡시 잇고 그렇다고 했는데.}

10208 # 이래가주고 늙어노이 이 꼬라지야. {이래서 늙으니까 이 모양이지.}

10208 @1 아, 지금도 아주 곱습니다. {아, 지금도 아주 곱습니다.}

10208 # 곱긴카이도 예이고, 세에상에 늙어가주고. {곱기는 무슨 아이고, 세상에 늙어가지고.}

10208 # 그전에 누가 아이고, 민경 불라이 속상 못 보겟다칸다 그래더니 내가 그칸다이. {그전에 누가 아이고, 거울을 보려고 하니까 속상해서 못 보겟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말한다.}

10208 # 에이구야, 참 늙으노이 사람 늙으노이 참 볼꼴 없구나[억꾸나]. {아이고, 참 늙으니까 사람 늙으니까 참 볼꼴 없구나.}

10208 # 그래텐서 내 그래지.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10208 # 그 우리 집에 그 아아들이 딸 서이도 시집 보내고 {그 우리 집에 그 아이들 딸 셋도 시집 보내고}

10208 # 마알없이 잘 살고, 서이 다 잘 살고 다 갬차이 살아. {말없이 잘 살고, 셋이 다 잘 살고 다 갬창게 살아.}

10208 @1 그게 복이지요? {그게 복이지요?}

10208 # 그 가만 생각하면 딴 사람한테 비하게 대면 갬창은 셈이야. {그 가만 생각하면 딴 사람한테 비기면 갬창은 셈이야.}

10208 @1 예, 예. {예, 예.}

10208 # 다, 다 자식네들 다 그대로 풀렸어. {다, 다 자식들이 다 그래도 풀렸어.}
 10208 @1 워낙 그 저 쪽 살아오신 그 마음가짐이 자식들한테도 다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워낙 그 저 쪽 살아오신 그 마음가짐이 자식들한테도 다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10208 # 예, 그래요. {예, 그래요.}
 10208 # 나 이래 머 잘 살지는 못 해도요 그랬어요. {나 이래 뭐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랬어요.}

1.1.8.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웃 이야기

10201 # 아까도 여 날 돈 갖다 주잖아요. {방금 전에도 여기 나에게 돈을 갖다 주잖아요.}
 10201 # 그 사람은 그거 차사고 죽은는 거 그 집 딸이라. {그 사람은 그 차사고로 죽은 그 집 딸이라.}
 10201 # 그, 그 사람 곤란하마 곤란해가 내한테 와 이야기 하마 내 꼭 꼭 그래. {그, 그 사람 곤란해서 나한테 와 이야기 하면 내가 꼭 꼭 그래.}
 10201 # '아, 바쁘머 갖다 쓰라'고 내가 주고. {'아, 바쁘면 갖다 쓰라'고 내가 주고.}
 10201 @1 예. {예.}
 10201 # 나는 그커로 못살지, 여 와가 우리 영감, 할마이 못 만네가주고 못살고 그래지는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살지, 여 와서 우리 영감, 할머니 못 만나서 못살고 그렇지 않는 안 했어요.}
 10201 @1 예. {예.}
 10201 # 그 적에 쌀 꾸러 오머 쌀 꿔주고. {그때 쌀 꾸러 오면 쌀 꿔주고.}
 10201 # 한 양재기 가주오머 쌀 한 양재기 꿔주고. {한 양재기 가지고 오면 쌀 한 양재기 꿔주고.}
 10201 # 콩기름 어없다고 오머 한비(빙) 버어 주고. {콩기름 없다고 오면 한 병 부어 주고.}
 10201 # 돈 어없다 하머 자아들 아버지 모올리두 채 주기도 하고. {돈 없다 하면 아이들 아버지 모르게 꿔주기도 하고.}
 10201 @1 예. {예.}
 10201 # 내 그랬는 사램이래요. {나는 그런 사램이라요.}
 10201 @1 그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10201 # 예, 그래 내 막 바질시리 못대게 그러지는 아이 했어요. {예, 그래 내 막 인색하게 못되게 그러지는 안 했어요.}
 10201 # 그래, 그래 저 금가 살다가 인제 우리가 이사 왔지요. {그래, 그래 저 금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사 왔지요.}
 10201 # 잔치 한다고 기벨 왔지머. {잔치 한다고 기별 왔지 뭐.}
 10201 # 그래 가이께네 내보고 '아이고, 신동무 며할라 이사 갔나?' {그래 가니까 나보고 '아이고, 신동무 뭐 하러 이사 갔나?}
 10201 # 내 이키 곤란할 때 여 잇었으면 날 좀 도와줬지. {내가 이렇게 곤란할 때 여기에 있었으면 날 좀 도와줬지.}
 10201 # 예, 저 저 산에 그 올라가가 다리 빠치 놓고 두 부이나 올었다. {예, 저 저 산에 그 올라가서 다리 뻗쳐놓고 두 번이나 올었다.}

10201 # '신동무가 이사를 왜 잣겻나? 안 잣이면 날 이커리 돈 없어 이 칼 적에 날 좀 도와 좃우긴데.' 그카머 울엇다고 그레. {'신동무가 이사를 왜 잣겻나? 안 잣으면 내가 이렇게 돈 없어서 이렇게 할 적에 나를 좀 도와 주엇을 것인데.' 그러면서 울엇다고 그레.}

10201 # 그리고 오지 와? '갈라가이 똥꼬지아?(지명)가 어디 붙은지를 몰래가 못 잣다.' {그럼 오지 왜 그레, 가려고 하니까 똥꼬지아가 어디에 붙엇는지 몰라서 못 잣다.}

10201 @1 예. {예.}

10201 # 그 사램이 영 못 살지머. {그 사람이 영 못 살지 뭐.}

10201 # 쌀 꾸로 오머 내가 꼭꼭 쌀 퍼주고. {쌀을 꾸러 오면 내가 꼭꼭 쌀 퍼주고.}

10201 # 기름 꾸러 오면 기름 퍼주고. {기름 꾸러 오면 기름 퍼주고.}

10201 # 돈 꾸러 오면 돈 주고. {돈 꾸러 오면 돈 주고.}

10201 # 내는 맨날 그레 살지. {나는 매일 그레 살지.}

10201 # 내가 돈 꾸로 땡기고 못 살고 그러지는 안 했어요. {내가 돈 꾸러 다니고 못 살고 그러지는 안 했어요.}

10201 @1 예. {예.}

10201 # 그레 지났는데 아까 가아 돈[둥] 가왓는 것도 그레. {그레 지났는데 방금 전에 그 애 돈 가지고 온 것도 그레.}

10201 # 저 아버지가 머하러 갈라하이 돈 어없다고 또 왓대. {저 아버지가 뭐 하러 가려고 하니까 돈 없다고 또 왓더라.}

10201 # 밋해를 맨날 내가 꾸어주요. {멏 해를 계속 내가 꾸렸어요.}

10201 @1 아, 예. {아, 예.}

10201 # 그레 이 돈 가주간 지 얼마 대지도 앓은데 그레 땃어요. {그레 이 돈을 가지고 간 지 얼마 되지도 앓은데 그레 땃어요.}

10201 # 그레 머 여 삼직거리[삼쩍거리] 앓어가 이얘기 해는데 그 사램이 돈 내꺼 얼마 꾸어 잣는데 머 어째고 이러는데. {그레 뭐 여 사램문 앞에 앓아서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이 돈 내꺼 얼마 꾸 잣는데 뭐 어땡고 이러는데.}

10201 # 내도 돈 백원 띠엿다 이켓디 그게 귀에 드잣는가바? 가 왓네. {나도 돈 백원 띠웠다 이렇게 말하니 그것이 귀에 들어 잣는가봐? 가지고 왓네.}

10201 @1 예. {예.}

10201 # 그레 내가 가주 가거라. {그레 내가 가지고 가거라.}

10201 # 니 차비 보태가 해라. {너 차비를 보태서 하라.}

10201 # 그케도 기이꾸 주고 가네. {그래도 기어코 주고 가네.}

10201 @1 그 쪽은 울산 쪽인 모양이쥬? {그 쪽은 울산 쪽인 모양이쥬?}

10201 # 거기요? {거기요?}

10201 @1 예, 아까 저 아침에 나이 쪼끔 육십대나 되는 부인이 하나 앓었는데 여기 산다고 그러던데요? 울산이라고. {예, 아까 저 아침에 나이 쪼금 육십대나 되는 부인이 하나 앓었는데 여기 산다고 그러던데요? 울산이라고.}

10201 # 그 사램이요? {그 사람이요?}

10201 @1 예. {예.}

10201 # 몰래요. 어데 사램인지? {몰라요. 어디 사램인지?}

10201 # 그래 여 엇지넹 여게 여 와 시이컨 앓이 노오다 갓어요. 그 사램이. {그래 여 엇지
 녀크 여기 여 와 실컷 앓아 놀다가 갓어요. 그 사램이.}

10201 @1 아, 그 그 분 말고요. {아, 그 그 분 말고요.}

10201 # 야아들 엄마가 들어올 책에 디리구 온 동생이라. {애들 엄마가 들어올 적에 데리고
 온 동생이라.}

10201 # 디리구 온 동생인데 그 씨어마이라. {데리고 온 동생인데 그 시어머니라.}

10201 @3 새 엄마 딸에 시어머니. {새 엄마 딸의 시어머니.}

10201 # 그래, 그래 동생, 친동생이 아이고 저 엄마가 디리구 왔는 동생 딸이라. {그래, 그래
 동생, 친동생이 아니고 저 엄마가 데리고 왔는 동생 딸이라.}

10201 @1 예, 예, 예. {예, 예, 예.}

10201 # 그서 그집 씨어마이야. {그 집 시어머니야.}

10201 @1 예, 예. {예, 예.}

1.2. 밭농사와 가족 이야기

1.2.1. 밭농사와 병아리 키우기

10306 @3 이 마을 사람들은 밭농사 지어요, 아니면 논농사 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밭농
 사 지어요, 아니면 논농사 지어요?}

10306 # 밭농사[반농사]도 잇고[익꼬] 논농사도 잇고 그래. {밭농사도 잇고 논농사도 잇고
 그래.}

10306 # 강내이가 비싸노이께 논을 가주고 막 논에 강내이 마이 숨구[숨구]. {옥수수가 비싸
 니까 논을 가지고 막 논에다 옥수수를 많이 심지.}

10306 @1 밭을 그냥. {밭을 그냥.}

10306 # 예, 그래도 하고 막 그래요. 강내이가 영 비싸요. {예,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래요. 옥
 수수가 많이 비싸요.}

10306 @1 강내이가 어떻게? 아, 한국으로 수출해서 그런가요? {옥수수가 어떻게? 아, 한국으
 로 수출해서 그런가요?}

10306 # 몰래, 어예가 그런지? 강내이가 그리 비싸. {몰라, 어째서 그런지? 옥수수가 그렇게
 비싸.}

10306 # 그래 내가 여게 채소길은 거 다 숨구타가 뽕아리 키운다고 미강내이를 저레 숨갓
 어. 이태째. {그래 내가 여기에 채소 같은 것 다 심다가 병아리 키운다고 메옥수수를
 저렇게 심었어. 이년째.}

10306 # 저보다 나지익한 코오을 숨가노오며 이 안 답답한데. {저것보다 낮은 콩을 심으면
 이 답답하지 않은데.}

10306 @1 그렇지요. 예, 키가 커서. {그렇지요. 예, 키가 커서.}

10306 # 강낭 그걸 사가주고요 뽕아리 좀 키아볼라께네 강내이 이백근 사도 모지래요.
 {옥수수 그것을 사가지고 병아리 좀 키워보려고 하니까 옥수수 이백 근을 사도 모
 자라요.}

10306 @1 예. {예.}

10306 # 그래 가주고 내가 저기다 강내이를 좀 숨구코[송구코]. {그래서 내가 저기에다 옥수수를 좀 심고.}

10306 @1 요즘은 저기 강내가 저 가루가 사용되는 게 많아져 가지고 벨벨 때 그 다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기 옥수수 저 가루가 사용되는 게 많아져서 벨벨 때 그 다 쓰지 않습니까?}

10209 # 그러가 예 이리 살아보며 세월이 어떻게 변동 대가 지금 그 전에는 임심 대가 그 검사해가. {그래서 예 이렇게 살아보면 세월이 어떻게 변해서 지금 그 전에는 임신 돼서 그 검사해서.}

10209 # 이거 안 빠졌죠? {이거 안 빠졌죠?}

10209 @1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10209 # 임신 대가 저기 검사하며 딸애라카며 끌어넷부고 아들이카며 나고 안그랬어요? {임신돼서 저기 검사하여 딸이라면 끌어내고 아들이라면 낳고 안 그랬어요?}

10209 @1 예. {예.}

10209 # 지금 그거 인제 안 갈쳐주더라. 끌어 내서. {지금 그거 이제 안 가르쳐주더라. 끌어내서(=유산을 시켜서).}

10209 @1 그래 여기도 안 가르쳐 주지요? {그래 여기도 안 가르쳐 주지요?}

10209 # 안 갈쳐 주고, 갈쳐 주어도 인제 썬 딸이라고 안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 줘도 이제 썬 딸이라고 안 그래요.}

10209 @1 예예,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지요. {예예,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지요.}

10209 # 디배뎃벗어, 히뎃 디비뎃는데. {바뀌졌어, 완전히 바뀌졌어.}

10209 # 그전엔 막 아들이캄 좋아가주고 그래, 지금 또 딸 키아보이 딸 키운 재미가 더 커. {그전에는 막 아들이라면 좋아서 그래, 지금은 또 딸 키워보면 딸 키운 재미가 더 커.}

10209 @1 지금은 아들은 다 커도 다 처갓집 저 쪽으로 기울지 자기 집으로는 안 기울어요. {지금은 아들은 다 커도 다 처갓집 저 쪽으로 기울지 자기 집으로는 안 기울어요.}

10209 # 키아보며 딸들이 부모 정도 더 나고 부모 생각하는 것도 더 많고. {키워보면 딸들이 부모 정도 더 낫고 부모 생각하는 것도 더 많고.}

10209 @1 그래, 나이 들어서도 부모 생각하는 마음도 더 낫지요. {그래 나이 들어서도 부모 생각하는 마음도 더 낫지요.}

10101 @2 할머니, 이 마을을 왜 똥꼬우짜(중-지명)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 마을을 왜 똥꼬우짜라고 했어요?}

10101 # 모올래. 이거 중국 사램이 지이난 거야. {몰라, 이거 중국 사람이 지어 놓은거야.}

10101 @2 저게 또 씨꼬우짜(중-지명)도 있죠? {저기 또 씨꼬우짜도 있죠?}

10101 # 시고자 요 건네 있어. {시고자 요 건네에 있어.}

10101 @2 그래요? {그래요?}

10101 # 시고자 할마이들 내한테 놀러 와. {시고자 할머니들 나한테 놀러 와.}

10201 @2 할매들 많아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10201 # 그으도 다 죽고, 머 한국 갓부고 머 그치. {거기도 다 죽고, 뭐 한국 가고 뭐 그렇지.}

10201 # 아래께도 차 가지고 날 디리러 올라 하는 거. {그저께도 차 가지고 날 데리러 올라 하는 것.}

10201 # 내 오지 마랬다. {내가 오지 말랬다.}

10201 # 내 뽕아리도 잇고[익꼬] 그래. {나는 병아리도 있고 그래.}

10201 # '아, 뽕아리는 머할라고 키우게?' {'아, 병아리는 뭐할려고 키우게?' }

10201 # '심심해가 키웠더니 멍넌부터 내 뽕아리 안 키울란다.' 내가 그랬다. {'심심해서 키웠더니 내넌부터 내 병아리를 안 키우려고 한다.' 내가 그랬다.}

10201 @3 몇 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10201 @1 열 마리. {열 마리.}

10201 # 열 마리. 뽕아리 열 마리, 내가 그 갓다 키우고. {열 마리. 병아리 열 마리, 내가 그 갓다 키우고.}

10201 @1 그 큰 닭이 칸 거 아니지요? {그 큰 닭이 칸 거 아니지요?}

10201 # 예, 아니래요. {예, 아니래요.}

10201 # 사다 키우지요. {사다 키우지요.}

10201 # 한 마레 오원씩, 요매 난 거 한 마리에 오원씩 주고 그래 사다 키우지머. {한 마리에 오원씩, 요만 한 것 한 마리에 오원씩 주고 그래 사다 키우지 뭐.}

10201 # 그보다 큰 거 이마만 거는 한 마리에 칠원씩이래요. {그보다 큰 것 이만한 것은 한 마리에 칠원씩이래요.}

10201 @1 예. {예.}

10201 # 그러지요, 뽕아리 믱에는 사료 사야 대지요, 약 사야 대지요. {그러지요, 병아리 먹이는 사료 사야 되지요, 약 사야 되지요.}

10201 @1 늘 붙어 있어야지요? {늘 붙어 있어야지요?}

10201 # 그 뽕아리 값이 그 글키 마왕지. {그 병아리 값이 그 그렇게 많지.}

10201 # 이리께 어떤 사람들은 안 믱일레 해지.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먹이려고 하지.}

10201 @1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0201 # 건 내또 심심해가 그래 샳더니. {그런데 나는 또 심심해서 그래 샳더니.}

10201 # 강낭까리 뽕알라이께 내 힘에 못가이께[목가이께] 거기. 아, 그건 내가 생각도 안하고 뽕아릴 사다 놓았다. {옥수수 가루 뽕으려고 하니까 내 힘에 못가니까 거기. 아, 그건 내 생각도 안하고 병아리를 사다 놓았다.}

10201 @2 가기 전에 한 번 뽕아 드릴게요. 어디에 가서 뽕아요? {가기 전에 한 번 뽕아 드릴게요.}

10201 # 그러가주고 요 요게 앞에 잇는 사램이 어직께 뽕아 왓어. {그래서 요 여기 앞에 잇는 사램이 어제 뽕아 왓어.}

10201 # 강낭 한 코우대(중-자루) 뽕아 왓어. {옥수수 한 자루 뽕아 왓어.}

10201 # 그래 뽕아다 주고 해. {그래 뽕아다 주고 해.}

10201 # 그래 이제 멍넌부터 내 그 저거 안 사다놀래 이제는. {그래 이제 멍넌부터는 내 그 저거 안사다 놓으려고 이제는.}

10201 @1 그래요. {그래요.}

10213 @2,3 저거 사서 키우는 것은 또 아들, 손주 오면 잡아줄라고 그러시죠? {저거 사서 키우는 것은 또 아들, 손자 오면 잡아주려고 그러시죠?}

10213 # 그래, 그래다. {그래, 그래다.}

10213 # 이번에 장넨에 세엿째가 와가 일년 잇엇잖아. {이번에 작넨에 셋째가 와서 일 년 잇엇잖아.}

10213 # 그 녀 내가 또 한바리 해 먹이고 싶어가. {그 애 내가 한 마리 해 먹이고 싶어서.}

10213 # '야, 야, 니가 삼 한 뿌레기 사가온나.' {'야, 야, 네가 삼 한 뿌리 사 오나.}'

10213 # '황기하고 대추하고 찹쌀은 내가 잇이이께네.' {'황기하고 대추하고 찹쌀은 내가 잇으니까.}'

10213 # '삼 한 뿌레기 사가 온나, 내 저 닭 한 마리 파아 줄께.' {'삼 한 뿌리 사 오나, 내 저 닭 한 마리 고아 줄께.}

10213 # 두 부 시우케도 안 사가와. {두 번 시켜도 안사와.}

10213 # 그래, 그러다나이께 저 위해, 지 동생이 삼을 마이 사보넛더라고요. {그래, 그러다나 니까 저 위해, 동생이 삼을 많이 사 보넛더라고요.}

10213 # 그래가 그 내가 한 마리 여어가 파아 먹이고. {그래서 그 내가 한 마리에 넣어서 고아 먹이고.}

10213 # 두우째가 왓는 거 또 그랬다. '야, 니 저 닭 한 마리 파아 먹거리 삼, 땅근 다 잇는 데 삼이 없다.' 그래. {둘째가 왓는 거 또 그랬다. '야, 너 저 닭 한 마리 고아 먹게끔 삼, 다른 것은 다 잇는데 삼이 없다.' 그러니.}

10213 # 한국에 닭고기 제일 헐타. {한국에 닭고기 제일 싸다고 그래.}

10213 # 하지만 그 또 '상구나, 니 닭 한 마리 파아 먹고 가거라. 그 삼 한 뿌리 사오나.' {하지만 그 또 '상군아, 너 닭 한 마리 고아 먹고 가거라. 그 삼 한 뿌리 사오나.}

10213 # '하이고, 한국에 닭고기 제일 헐은데 꼬지마, 그 닭 한 마리 나도마 아알 안 낳는다.' 그카메 안 머물래지. {'아이고, 한국에 닭고기 제일 싼데 고어지 마, 그 닭 한 마리 놔두면 알 안 낳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지.}

10213 # 그래가, 그 세에 마리가 잇엇거등. 세에마리 잇을 때는 알 낳디면. {그래서, 그 세 마리가 잇엇거던. 세 마리 잇을 때는 알 낳디만.}

10213 # 두우 마리가 나가가 저 탄 사렘이 저지리한다고 닭 저지리한다고 약을 나앗붓다말 이. {두 마리가 나가서 저 다른 사람이 닭이 저지리한다고 약을 놓았다 말이야.}

10213 # 약을 조아 먹으뿌리가 두 마리 죽엇봇지. {그 약을 먹고 두 마리 죽엇어.}

10213 # 한 마리 나도오니 아알 아안나. {한 마리 놔두니 알을 안 낳아.},

10213 # 한 마리 나두니 아알 안는다고 못 잡거라 하더니 그 말 맞아야. 아알 아안나. {한 마리 놔두니 알 안 낳는다고 못 잡게 하더니 그 말 맞아요. 알 안 낳아.}

10213 # 그래가 지금 저거 한 마리 잇는 거 그것도 지금 전주코 잇어. {그래서 지금 저기 한 마리 잇는 것 그것도 지금 견주코 잇어.}

10213 # 장춘에 큰 딸이 목 수술 해고 오며 내가 잡어 먹인다고 저래 하지. {장춘에 큰 딸 이 목 수술하고 오면 내가 잡아 먹이려고 생각하고 있지.}

10213 @2 할머니 또 보세요. 할머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할머니 자식들 좀 적게 생각하시고 혼자 해드세요. {할머니 또 보세요. 할머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할머니 자식들 좀 적게 생각하시고 혼자 해드세요.}

10213 # 아이구, 내 고기겘은거 마이 머으며 조옹지도 안한데 그 며할라고 내 혼자 그래 해 먹어. {아이고, 내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좋지도 않은데 그 뭐 하려고 나 혼자 그래 해 먹어.}

- 10213 # 혼자 그 한 마리 잡어노으며 내 다 먹으내지도 모해. {혼자 그 한 마리 잡아 놓으면 내 다 먹지도 못해.}
- 10213 # 딸 오거덩 잡어 먹에고 내도 먹고 그라머 대지. {딸 오거덩 잡아 먹이고 나도 먹고 그러면 되지.}
- 10213 @2 이제부터는 저 병아리 고생스레 키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 병아리 고생스럽게 키우지 마세요.}
- 10213 # 그래. 인젠 내 내년부터 안 키울께. {그래. 이제는 내년부터 안 키울게.}

1.2.2. 친구 집 방문과 어지럼증

- 10201 @2 씨꼬우자(중-지명)에 계신다는 그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씨꼬우자에 계신다는 그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 10201 # 나이가 내보다 한살 더 먹은 노친네도 있고, 그 하나는 칠십 안대는 노친네도 있고. {나이가 나보다 한살 더 먹은 노친도 있고, 그 하나는 칠십 안 되는 노친도 있고.}
- 10201 # 작년에도 날 그 건너오라해. {작년에도 나를 거기에 건너오라 해.}
- 10201 # 건너 오라하는 거 이 차를 물어보이 이 사람이 차가 안갈래 그래. {건너 오라하는 거 이 차를 물어보니 이 사람 차가 안 가려고 그래.}
- 10201 # 그래 전화했어, 이 사람이 차가 바쁘다고 날 못실고 가겠다 한다하이. {그래 전화했어, 이 사람이 차가 바쁘다고 날 못 실고 가겠다 한다고 하니까.}
- 10201 # 또 그어서 차를 하나 구해가 왔대. {또 거기서 차를 하나 구해서 왔더라.}
- 10201 # 와가 천상 가야 대지 머. {와서 할 수 없이 가야 되지 뭐.}
- 10201 # 오늘 갔다 오후에 온다고 내가 약을 먹던거를 안가아갔지. 혈압 약을 안가 갔지. {오늘 갔다가 오후에 온다고 내가 약 먹던 것을 안가지고 갔지. 혈압 약을 가지고 가지 않았지.}
- 10201 # 그 머 이 사람 밥 한다고 뿔들어 앓후지[안추지], 저 사람 밥 한다고 뿔들어 앓후지[안추지]. {그 뭐 이 사람 밥 한다고 붙들어 앓히고, 저 사람 밥 한다고 붙들어 앓히지.}
- 10201 # 옷을 땀기가 뻘서 치우지 이러가 사흘 잇다 왔다, 사흘 잇다 와노니. {옷을 벗겨서 치우지 이래서 사흘 잇다 왔다, 사흘 잇다 오니.}
- 10201 # 그 혈압 약을 사흘 안 먹었디 고마 거기 또 야 어질한게 그래테. {그 혈압 약을 사흘 안 먹었더니 그만 거기 또 야 어지러운게 그렇더라.}
- 10201 # 그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내가 밥 쌀 썬어 안چه 노웅고 채 할 걸 찾는다고 창고 [꼬]안에 어리어리 해다나니. {그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내가 밥 쌀 썬어 앓혀 놓고 반찬 할 것을 찾는다고 창고 안에 이리저리 하다보니.}
- 10201 # 어얼때 어지럽은[븐]지 막 곧 넘어지렐케가 그래 막 문을 포오끔 뿔들어까 콰악 안 넘어질라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막 곧 넘어지려고 그래서 막 문을 꼭 붙들어 꼭 안 넘어지려고.}
- 10201 # 문을 포옥 뿔들고 이이끼 앓엇지. {문을 꼭 붙들고 이렇게 앓았지.}
- 10201 # 앓었다가 어지럽어가 쯤 잇다나니. {앓았다가 어지러워 쯤 있다보니.}

10201 #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세엿째는 여 어제 왔던 그 노친네 그 집에 농사 지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셋째는 여 어제 왔던 그 노친 집에서 농사일 하는데.}

10201 # 모, 모판 치우는데 거들어 주루 잣어. 아침에 그리 가고. {모, 모판 치우는데 거들어 주러 잣어. 아침에 그리로 가고.}

10201 # 우리 손자가 와 보이께 내가 이래가 눕엇거덩. {우리 손자가 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웠 있거던.}

10201 # '할매 왜 이래가 눕엇어.' {'할머니 왜 이래 누웠어.'}

10201 # '내가 어지럽어가주고 그래서.' {'내가 어지러워 가지고 그래서.'}

10201 # '그머 어예노? 병원에 가까?' {'그럼 어떻게 해? 병원에 갈까?'}

10201 # '병원에는 무슨 병원 조금 잇이면 일없지.' 그카머 그래 잇엇더니 {'병원에는 무슨 병원 조금 있으면 일없지.' 그렇게 말하며 그래 잇엇더니}

10201 # 그래 조금 잇다 일라가 밥먹고 그래 누워 잇엇던거야. {그래 조금 있다가 일어나 밥 먹고 그래 누워 잇엇던거야.}

10201 # 약 그걸 먹다 고마 안 먹으니 그래 대더라. {약 그걸 먹다 그만 안 먹으니 그래 되더라.}

10201 @2 예, 이제는 조심하세요. {예, 이제는 조심하세요.}

10201 #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10201 # 그래 가주고 그래 그 작년[장연] 그 이때 넘엇어. {그래 가지고 그래 그 작년 그 이때 넘엇어.}

10201 # 내가 저녁을 먹고나이 좀 일찍길래 마당 머 이리저리 해 땡기다보이 넘어졌지, 콧악 넘어졌지. {내가 저녁을 먹고 나니 좀 일찍 하기에 마당에 뭐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넘어졌지, 콧 넘어졌지.}

10201 # 어얼매나 미더 첫부는 것대. {얼마나 밀어 쳐버렸는지.}

10201 # 그 이상하다 그 머 양꾸도 걸릴 것도 없는데 와 이래 지 몸 못쓰노? {그 이상하다 그 뭐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는데 왜 이래 자기 몸 못 쓰나?}

10201 # 내가 일라기마 하마 얼른 쫘 나가볼라고 기래.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얼른 쫘 나가보려고 그래.}

10201 # 그 어얼매나 미어쳐 나앗던지. {그 얼마나 밀어쳐놓앗던지.}

10201 # 무루콧이 고마 막 절단났는[절판난는] 곁애. {무릎이 그만 막 절단 났는 것 같아.}

10201 # 그래 우리 세엿째는 여 바아 잇었는데 내가 머 자꾸 쥐끼께네 누가 와가 이야기 하는가 그래 생각했대. {그래 그 우리 셋째는 여기 방에 있었는데 내가 뭐 자꾸 말하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 하는가 그래 생각했대.}

10201 # 낭제에 과암을 질렀지, 과암을 지리기 그래 나와가 '와 이랬노?' {나중에 고함을 질렀지, 고함을 지르니까 그래 나와서 '왜 이랬나?' 그래.}

10201 # '아이고야, 이 나 좀 일바들 보자.' {'아이고야, 이 나 좀 일으켜 달라.}

10201 # 지 혼자 일바들 내나? 안대지. {자기 혼자 일으켜 내나? 안 되지.}

10201 # 어억찌로, 어억찌로 이래가주고 어억찌로 끄으들랏지. {억지로, 억지로 이래 가지고 억지로 끌어 들였지.}

10201 # 끄으들랏아가 이래 앓어가 잇다가 그래지. '저 장춘 누야한테 전하 칠까?' {끌어 들여서 이래 앓아 있다가 그러지. '저 장춘의 누나한테 전화할까?'}.

10201 # '전하 치지 말라, 어제 보내놓고 오늘 또 전하 치면 머야?' 그레가. {'전화하지 말라, 어제 보내놓고 오늘 또 전화 하면 뭐야?' 그래서.}

10201 # '그래도 어야노? 전하 쳐야 대지.' {'그래도 어떻게 하나? 전화해야 되지.}

10201 # 그레 전하 찢지. {그레 전화했지.}

10201 # 전하 치가 '엄마가 넘어지가 움쩍도 못하고 있다' 이까. {전화해서 '엄마가 넘어져서 움쩍도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10201 # 그 저 질녀한테 우리 그 손녀딸아한테 전할 컷다. 전할 치이께 {그 저 질녀한테, 그 손녀딸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니까}

10201 # 가아들 저거 차 가주고 그 둘이가 저거 고무 집에 왔지. {그 애들 자기네 차 가지고 그 둘이가 고무 집에 왔지.}

10201 # 와가주고 서이가 다 왔어. {와서 셋이 다 왔어.}

10201 # 다 왔는데 그 까아닐라 하나 있어. {다 왔는데 그 아기 하나 있어.}

10201 # '여기 야, 야 까아닐라 나아두고 너 두올 다 여 와가 어째나?' {'여기 야, 야 아기 놔두고 너희 둘 다 여기 와서 어떻게 하나?'}
 10201 # '일없다구 일없다구.' {'괜찮다고 괜찮다고.'}

10201 # '아이 가거라, 가거라.' 그카이 {'아니,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말하니.}

10201 # 상일이가 '그 사람들을 보냈부터 엄마 병원에 모으가[모옥까].' 그레. {상일이가 '그 사람들을 보내면 엄마 병원에도 못가.' 그레.}

10201 # '그래도야 그 까아닐라 그레가 그 어야나?' {'그래도 그 아기 그레가 그 어떻게 하나?'}
 10201 # 그레 전하 치데, 전하 치고 그레 '오쩌낙 모으간다[모옥간다]'고 그레 전하 치고. {그레 전화 하데, 전화하고 그레 '오늘 저녁 못 간다'고 그레 전화하고.}

10201 # 그레 그 이튼날에 그 일라시(중-지명) 병원에 갔다고. 차를 저 차 가주 와서. {그레 그 이튼날에 그 일라시 병원에 갔다고. 차를 자기 차 가지고 와서.}

10201 # 나를 업고[억꼬] 나갔지. 업고 나가가. {나를 업고 나갔지. 업고 나가서.}

10201 # 야아. 사램이 맥놓고 잇이 디이기 무겁어 어? {야, 사램이 맥 놓고 있으니까 아주 무거워 어?}

10201 # 머 다리 드는 사람, 팔 드는 사람, 머 이래가주고 그 장저이가 모 일라선다말이야. {뭐 다리 드는 사람, 팔 드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그 장정이 못 일어선다 말이야.}

10201 # 그레 차에다 시일꼬 일라시 병원에 갔어, 가이 검사하이께네 {그레 차에다 싣고 일라시 병원에 갔어, 가서 검사하니까}

10201 @2 이라씨병원보다 차로하 병원이 더 좋은 거 아니예요? {일라시 병원보다 차로하 병원이 더 좋은 것 아니예요?}

10201 # 아니라, 일라씨(중국어 지명) 병원에 빼 곤치는 그거 기술이 있어. {아니라, 일라씨 병원에 빼 고치는 그 기술이 있어.}

10201 # 그레 가주고 내가 하머 그 상일이가 일바들 적에 야, 내 무르팍 절판나는 걸애. {그레 가지고 내가 벌써 그 상일이가 일으킬 적에 야, 내 무릎 절단났는 것 같아. }

10201 # 무르팍 마이 박엇구나. {무릎 많이 박았구나.}

10201 # 무르팍 절판나서 이리가 어째겠노? {무릎 절단 나서 이래서 어떻게 하나?}

10201 # 그러가주고 머 병원에 가이 이 무르팍 이것도 금 낫지, 야 갈빋대 두우 개 금 낫지. {그레가지고 뭐 병원에 가니 이 무릎 이것도 금났지, 야 갈빋대 두 개도 금났지.}

10201 # 꼬음짜도 모오해지. {꼼짜도 못하지.}

10201 # 업고 나가가 또 업고 병원에 드가가 병원에서 또 업고 나와가 실꼬 약은 이마이
이만한 뽀따리끼이라 가주와가. {업고 나가가 또 업고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또
업고 나와서 싣고 약은 이만큼 큰 이만한 봉지를 가져와서.}

10201 # 그래, 그 집에 가가 이래 먹어야지 이저는 메칠 그거 그래가도 안댄다고 그래가 왓
지. {그래, 그 집에 가서 이것을 먹어야지 여기서는 며칠 그래가도 안된다고 그래서
왔지.}

10201 # 그래 먹고 모지래거덩 또 오라하지머. {그래 먹고 모자라면 또 오라하지 뭐.}

10201 # 마약 약도 하도 역해가 아아들 또 가자 하는 거 내 안간다. {막 약도 너무 역해서
아이들이 또 가자하는 것을 내가 안 간다.}

10201 @2 그럼 약만 드시고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럼 약만 드시고 다 나오신 거예요?}

10201 # 그래, 그 약 먹고 그래저래 나왔대. 나왔고 그래. {그래, 그 약 먹고 그래저래 나왔
대. 나왔고 그래.}

10201 # 그 우리 그 손네, 치츠창(자동차회사)에 잇다는 거. {그 우리 그 손녀, 자동차회사에
잇다는 것.}

10201 # 가아들 시아바이가 무신 또 약 걸은 거 그런 거 머 쪼마아난 거 약을 또 해가 이
래 보냈더라. {그 애들 시아버지가 무슨 또 약 같은 것, 그런 것을 뭐 자그마한 약을
또 해서 이렇게 보냈더라.}

10201 # 보냈는데 그래 약 먹고 어예 그저 잇노? 말을 해도 해야대지. {보냈는데 그래 약
먹고 어떻게 그저 있나? 말을 해도 해야 되지.}

10201 # 그래 그 약 먹고 마이 나왔다고 내가 그래 말하니 {그래 그 약 먹고 많이 나왔다고
내가 그래 말하니}

10201 # 아아들이 '그래, 그래 말하면 또 약 또 더 해보내라고?' {아이들이 '그래, 그래 말하
면 또 약을 또 더 해 보내라고?'}
10201 # '야, 그래도 말을, 말이라도 해야지. 고맙운 일에' 그면서 그래 말했어. {'야, 그래도
말을, 말이라도 해야지. 고마운 일에'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

10201 # 그래, 그래 머억고는 그저 뼈한테 좋은 약 그걸 사다 먹어. {그래, 그래 먹고는 그
저 뼈한테 좋은 약 그것을 사서 먹어.}

10201 # 그래가 내 이 키 더 꼬부래지고 그커루 걸음 못 걷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꼬부라지고 그렇게 걸음을 못 걷는다.}

10201 # 그래 지금도 이바, 무르팍 이짜하고 여영 따지? {그래 지금도 이바, 무릎 이 쪽하고
많이 다르지?}

10201 # 안주 여영 달려. 이 무팍은 쪼맨하고 이견 원청 더 커다나이? {아직도 많이 달라.
이 무릎은 작고 이것은 많이 더 커다나니?}

10201 # 이거 아이 더얼 낫는 썸이야. {이것은 아직 낫지 않은 썸이야.}

10201 @2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0201 # 그 어옌데? 그래두 움적거리대지 안 움적이마 더 안낫는다더라. {그 어떻게 하나?
그래도 움적여야지 안 움적이면 더 안 낫는다고 하더라.}

10201 # 그래 요짜하고 요거 달려. {그래 이쪽하고 이쪽이 달라.}

1.2.3. 가족 이야기 (3): 손녀와 손자

- 10105 @2 할머니 저 씨꼬우짜(중-지명)에 있는 그 어제 말씀하신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경상도예요? {할머니 저 씨꼬우짜에 있는 그 어제 말씀하신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경상도예요?}
- 10105 # 경상도가 아닌거 같더라 말하는 기. 내보다 말 조금 다른 걸애. {경상도가 아닌 것 같더라 말하는 것이 나하고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
- 10105 @2 말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하세요? {말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하세요?}
- 10105 # 건강해. 저 자식들 영주권[영주권] 해줄라고 갔다가 왔어. {건강해. 저 자식들 영주권 해주려고 갔다가 왔어.}
- 10105 # 갔다가 와가 또 파루올 말에 또 간다는 거 걸애. {갔다가 와서 또 8월 말에 또 간다는 것 같아.}
- 10105 @2 그럼 한국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럼 한국에 몇 번 갔다 왔어요?}
- 10105 # 한 부 갔다 왔지. 갔다 왔는데 또 파루올말이며 또 간다 해. {한 번 갔다 왔지. 갔다 왔는데 또 8월 말이면 또 간다고 해.}
- 10105 @2 할머니랑 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랑 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 10105 # 그래, 같은 말 해. {그래, 같은 말 해.}
- 10105 @2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 10105 # 그래. {그래.}
- 10213 @2 셋째 아드님이 작년에 여기 오셔서 일 년 있었어요? {셋째 아드님이 작년에 여기 오셔서 일 년 있었어요?}
- 10213 # 휴우식 아이가? {휴식 아니니?}
- 10213 # 한국 갔다가 휴식 시가이라대. {한국 갔다가 휴식 시간이라더라.}
- 10213 @2, 3 그래 여기 오셔서 일 년이나 잇었어요? {그래 여기 오셔서 일 년이나 있었어요?}
- 10213 # 그래. {그래.}
- 10213 @3 할머니, 아들하고 같이 잇어서 좋았겠어요. {할머니, 아들하고 같이 있어서 좋았겠어요.}
- 10213 @2 아들 오면 좋지요. 지금은 누구 오면 제일 좋아요? 손자, 손녀 오면 제일 좋아요? 누구 제일 보고 싶어요? {아들 오면 좋지요. 지금은 누가 오면 제일 좋아요? 손자, 손녀 오면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 10213 # 내가 크게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억꼬] 그저 그을타. {나는 크게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저 그렇다.}
- 10213 # 오마 오는 대로 사알고 그래. {오면 오는 대로 살고 그래.}
- 10213 @1 손자, 손녀보다 그래도 아들, 딸이 오면 좋은 거 아니예요? 한 다리가 천린데요? {손자, 손녀보다 그래도 아들, 딸이 오면 좋은 거 아니예요? 한 다리가 천린데요?}
- 10213 # 기 나양제 키아보래요. {그 나중에 키워보래요.}
- 10213 # 지 새끼 키울 때는 곱우할 시가이 없었어. {자기 아이 키울 때는 고와할 시간이 없었어.}
- 10213 @1 예. {예.}

10213 # 지 손자, 손녀 이거 키아보며 재미가 나요. 괜찮아요. {자기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 재미가 나요. 괜찮아요.}

10213 @2 할머니 이 많은 손꾼중에 춘자가 제일 고와요? {할머니 이 많은 손자, 손녀들 중에 춘자가 제일 고와요?}

10213 # 그 그래, 춘자 그거 쪼맨할 적부터 내가 키웠다. {그 그래, 춘자 그 애는 어릴 적부터 내가 키웠다.}

10213 # 쪼맨할 적부터 저거는 자양사, 우씨(중-지명)에 가 장사했어. {어릴 적부터 춘자 엄마, 아빠는 장사, 무석에 가 장사했어.}

10213 # 저 두우리 가가 장사 해고 그래 왔지. {저 둘은 가서 장사하고 그래 왔지.}

10213 # 그래, 그 다음 또 찰로서 또 좀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인제 춘자 학교 땡기고 내가 밥 해주고 그래 바아라. {그래, 그 다음 또 찰로에서 또 좀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인제 춘자 학교 다니고 내가 밥 해주고 그래 봐라.}

10213 # 시이겔 바아야 안대나? 아침 하며. {시계를 봐야 안 되나? 아침 하면.}

10213 # 그 내가 그 펜빵(중-손전지) 손전기 그념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그 내가 그 손전지, 손전지 그 것을 머리맡에 놔두고.}

10213 # 그 딱 고 시간을 안 어게야 안대나? {그 딱 그 시간을 어기지 않아야 안 되나?}

10213 # 그 소학교 보낼 적에 전기를 가주고 이리 빠차 보고 시간이 쪼끔 일찌머 쪼름 늦었다가 그래 또 쪼름 일나[라]가. {그 초등학교 보낼 적에 손전지를 가지고 이리 비춰보고 시간이 쪼름 일찍 하면 쪼름 누웠다가 그래 또 쪼름 일어나가.}

10213 # 그래 밥을 새로 해서 먹에코 싸고 그래가 보내고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 밥을 새로 해서 먹이고 싸고 그래서 보내고 그래 내가 그랬어.}

10213 @2 소학교부터 키워주셨어요? {초등학교부터 키워주셨어요?}

10213 # 그래, 그래. {그래, 그래.}

10213 # '너 어마이가 디리구 잇어도 내애만큼 이레 모하안다.' {'너네 엄마가 데리고 잇어도 나만큼 이렇게 못한다.'}

10213 # '너 어마이가 디리구 잇어도 씩은[씨근] 밥을 더러 머엇있게다 말이야.' {'너 엄마가 데리고 잇어도 찬밥을 좀 먹었을 것이다 말이야.'}

10213 # '내가 디리구 잇이끼이 이러커레 정성껏 이레 키웠다.' 내가 그으켰다. {'내가 데리고 있으니가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키웠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10213 @2 키 얼마 커요? {키 얼마나 커요?}

10213 # 키가 마이 크다. 키가 크지. {키가 많이 크다. 키가 크지.}

10213 @2 저보다 더 커쵸? {저보다 더 커쵸?}

10213 # 더 크지. 더 크고 그 버얼쑤해다. {더 크지. 더 크고 그 환하고 예쁘다.}

10213 @2 그래 손녀들 가운데 제일 예뻐요? {그래 손녀들 가운데 제일 예뻐요?}

10213 # 그래, 내가 사무케 하지. {그래, 내가 예뻐해 하지.}

10213 # 그 지 이 동네 사람도 그래. {그 이 동네 사람도 그래.}

10213 # '춘자 너 엄마 딸이 아이고, 니 너 엄마 아아가 아이다. 할매 아아다.' 내가 다 키웠다. {'춘자 너 엄마 딸이 아니고, 너는 너 엄마 아이가 아니다. 할머니 아이다.' 내가 다 키웠다.}

10213 @2 그 일본에 가 있는 손자는 나이가 얼마 됐어요? {그 일본에 가 있는 손자는 나이가 얼마 됐어요?}

10213 # 지금 사십이 다 대가끼이다. {지금 사십이 다 돼 갈 것이다.}

10213 @1 학교 다닌다고 그랬습니까? {학교 다닌다고 그랬습니까?}

10213 # 야, 야, 야. {야, 야, 야.}

10213 @2 박사 공부 하는거예요? {박사 공부 하는 거예요?}

10213 # 박사 공부 해. 그어서 선생질 해. {박사 공부 해. 거기서 선생님 하고.}

10213 # 선생질 해가 월급 타가 지 공부하고 안그나? {선생님 해서 월급 타고 자기 공부하고 안 그러나?}

10213 @2 할머니, 혹시 박사가 뭐예요? {할머니, 혹시 박사가 뭐예요?}

니10213 # 박사가 머 저게 잘못 댄 일 그 판결 한 사람 아이가? {박사가 뭐 저기 잘못 된 일 그 판결하는 사람 아니?}

10213 @2, 3 판사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판사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0213 # 그런가봐. 나는 그래 생각한다 말이야. {그런가봐. 나는 그래 생각한다 말이야.}

10213 # 그 전에는 박사 공부하며 사각모자 써이고 그래잖아 이? {그 전에는 박사 공부하면서 사각모자 쓰고 그랬잖아?}

10213 @1 예. {예.}

10213 # 지금은 필업하는 날에나 그 모자 써이지 안 쓰는가봐. {지금은 졸업하는 날에나 그 모자 쓰지 안 쓰는가봐.}

10213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0213 @2 그 명희손자는 할머니가 안 키우셨어요? {그 명희손자는 할머니가 안 키우셨어요?}

10213 # 왜 내가 안 키워? {왜 내가 안 키웠어?}

10213 # 키워도 춘자만큼 저 어마이 저 아바이라매 머 저 할배라매 다아 잇일직 키얏이 이게네. {키워도 춘자만큼 저 엄마 저 아버지랑 저 할아버지가 다 있을 적에 키웠으니까.}

10213 # 애 춘자만큼 내가 그렇거 정성껏 안 키얏지. {애 춘자만큼 내가 그렇게 정성껏 안 키웠지.}

10213 # 그래, 가아 심덕도 좋아. 일본에 잇는 가아. {그래, 그 애는 심덕도 좋아. 일본에 잇는 그 애.}

10213 # 그래 어디 좋은데 잇거던 소개애해라. {그래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라.}

10213 # 그래, 소개가 들어왔지. {그래, 소개가 들어왔지.}

10213 # 내가 저어 잔채 집에 가이게네 그 집 그 질녀가 '석사 공부하고 그래 일자리 찾어가 일 한다 그래.' 그래가. {내가 저 잔채 집에 가니까 그 집 그 질녀가 '석사 공부하고 그래 일자리 찾아서 일 한다 그래.' 그래서.}

10213 # 그래, 그래 이야기 하다나이 내 손자 이야기 나오고 이레게네. {그래, 그 이야기 하다나니 내 손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10213 # 고마 머 사돈하라는 기야. 막 사돈 하라고 바아짝 그래대던다. {그만 뭐 사돈하라는 거야. 막 사돈 하라고 바짝 그래더라.}

10213 # 우리 질녀도 매앤날 클 적에 동네 사람한테 인사 받고[박꼬] 그래서 컷는 사램이라고. {우리 질녀도 계속 클 적에 동네 사람한테 인사 받고 그렇게 컷는 사람이라고.}

10213 # 인물도 갠참고 좋다고 그래. {인물도 갠참고 좋다고 그래.}

10213 # 그래머, 그래머 조웅지, 그카고 왓더니. {그러면, 그러면 좋지, 그렇게 말하고 왓더니.}

10213 # 그으 가가 인제 친정, 자기네 집에 가가 동세한테 이애길 했지머. {거기 가서 이제 친정, 자기네 집에 가서 동세한테 이야기를 했지 뒤.}

10213 # 이애길하이 그 지금 처자들 스물 여섯일곱 대면 시집 보내기가 바빠 생각 안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금 처녀들 스물 여섯, 일곱 되면 시집 보내기를 바빠 생각 안 하나?}

10213 # 그래 인제 사람 하나 나섰다고 좋아가주고 막 내한테 대반, 그 집 어마이 내한테 대반 전하가 왔더라. {그래 이제 사람 하나 나섰다고 좋아가지고 막 나한테 바로, 그 집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10213 # 전하가 왔는데 그래 '그래면 좋지' 이카면 이제 넷다 좋은 소리 했다. 했더이만. {전화가 왔는데 그래 '그러면 좋지' 이러면서 이제 좋은 소리를 많이 했다. 했더니.}

10213 # 또 전하가 또 저기 우리 가아들 아바이한테 '내한테 전하 한 분 해 달라고.' 그라 네. {또 전화 와서 또 저기 우리 그 애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전화 한 번 해 달라고.' 그러네.}

10213 # 그래, '그래할 게 아이라 내가 손자한테 전하 한 분 해보고 내 해주우께.' 그꼰디. {그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자한테 전화 한 번 해보고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했지.}

10213 # 야아가 나아 많다고 안 할라하거던. {그 애가 나이가 많다고 안 하려고 하거던.}

10213 # '야, 니 나아 많은 거는 안 치고 남 나아 많은 거는 와 말하노?' 이까이니까. {'야, 너 나이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나이 많은 것은 왜 말하나?' 이렇게 말 하니까.}

10213 # 일본엔 나 쪼끔 많으머 썩바알 안 시킨다 그래. {일본에는 나이 조금 많으면 출근 안 시킨다 그래.}

10213 # 그래 그카테. 그래 그 카는데 내가 억지로 하라 소리 못 하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10213 @2 손자 나이가 사십대가 다 됐는데 스물 몇이가 뭐 많나요? 안 많잖아요? {손자 나이가 사십대가 다 됐는데 스물 몇이가 뭐 많나요? 안 많잖아요?}

10213 @1 스무몇살은 작지, 보통은 서른 다섯, 여섯 되거던. {스물 몇살은 작지, 보통은 서른다섯, 여섯 되거던.}

10213 @2 그 여자 스물 몇 살 아니예요? 여자가 나이 몇 살이에요? {그 여자가 스물 몇 살 아니예요? 여자가 나이 몇 살이에요?}

10213 # 아이라, 그 사람도 삼십 다 대가지. {아니라, 그 사람도 삼십 다 돼가지.}

10213 # 그런데 일본에 나 쪼끔 많으면 썩바알 못 씨킨다 그래. {그런데 일본에 나이 조금 많으면 출근 시키지 못한다고 그래.}

10213 # 그래가 또 쪼매 잇다나이께 그 우리 시누네 두우째 아들이 그 길림 화공창(중-화학 공업 회사)원장이지. {그래서 또 조금 잇다나니까 그 우리 시누이 둘째 아들이 그 길림 화학공업 회사 원장이지.}

10213 # 그래, 가아가 또 그래. '외숙모, 명희 호구 내한테 갖다 올리놓고 대상은 찾었나 안 찾었나? 그래.' {그래, 그 애가 또 그래. '외숙모, 명희 호구 나한테 갖다 올리놓고 대상은 찾았나 안 찾았나? 그래.}'}

10213 # '대상은 안주 안 찾았다.' 그래. {'대상은 아직 안 찾았다.' 그래.}

10213 # '내한테 여 석사 공부하고 여 내 옆에 쌍바알(중-출근) 한다' 이케. {'나한테 여기서 석사 공부하고 여기 내 옆에서 출근한다' 이렇게 말해.}

10213 # '나아가 얼마고?' 그카이 그 사람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 저 분에 말 한 사람보다. {'나이가 얼마고?'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 저번에 말한 사람보다.}

10213 # '그래 나아 많다고 그 사람들보다 나아가 한 살 적은데도 나아 많다고 안 할라 하더라.' {'그래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데도 나이 많다고 안 하려고 하더라.'}

10213 # '함부로 말도 하지 마라.' {'애당초 말도 하지 마라.'}

10213 # '거기 무신 나아 많노?' {'그것이 무슨 나이가 많은가?'}

10213 # '야, 일본에 그 나아가 쪼끔 많으며 쌍바알 못하게 한단다. 그래가 그 칸단다.' 그 카이께네. {'야, 일본에 그 나이가 조금 많으면 출근 못하게 한단다. 그래가 그렇단다.' 그러니까.}

10213 # 그래 또 치아뻗지머. {그래 또 그만뒀지 뭐.}

10213 # 치아 뻗는데 또 인제 그 우리 큰 딸 동무가 이람이 옥또이라. 가아가 한국 갔다 와 가지고 이제 또 날 보러 왔어. {'그만뒀는데 또 이제 그 우리 큰 딸 동무가 이람이 옥동이라. 그 애가 한국 갔다 와서 이제 또 날 보러 왔어.'}

10213 # 왔는데 저 형네 딸이 북경에 쌍바알 하는데 집도 하나 사 놓고, 그 쌍바알 하는데 그 저 형네 딸 하고 또 하라.' 그카고 {왔는데 저 형네 딸이 북경에서 출근하는데 집도 하나 사놓고, 그 출근하는데 그 저 형네 딸하고 또 하라.' 그렇게 말해서}

10213 # 또 전할 첫지. 명희한테 전할 치이께네 나아 많다고 안 할라 그래. {또 전화를 했지. 명희한테 전화를 하니까 나이 많다고 안 하려고 그래.}

10213 @2 명희가 그 일본에 있는 손자예요? {명희가 그 일본에 있는 손자예요?}

10213 # 그래, 명희가 맞아. 광희, 명희 그래 이람이, 그래. 그래가. {그래, 명희가 맞아. 광희, 명희 그래 이람이, 그래. 그래서.}

10213 @3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따로 있나 봅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따로 있나 봅니다.}

10213 # 모올래, 내 생각에 일본 사램이 아이겿나 그래 싶어. {몰라, 내 생각에 일본 사램이 아니겿나 그래 싶어.}

10213 # 그래 내 이분에 걱정하이 '할매, 내가 아무래도 일본사램이 대고 말꺼 것다.' 이케. {그래 내 이번에 걱정하니 '할머니, 내가 아무래도 일본사램이 되고 말 것 같다.' 이렇게 말해.}

10213 @1 그래요. {그래요.}

10213 # '미국 놈이따나 마음에 들거던 해애라.' 내가 그케 했어. {'미국사람이라도 마음에 들면 하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

10213 @1 예. 요즘은 뭐 괜찮아요. {예. 요즘은 뭐 괜찮아요.}

10213 # '일본 사램이 아이라 미국놈이라도 니 마음에 들거던 해애라.' 내가 그랬어. {'일본 사램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도 너 마음에 들면 하라.' 내가 그랬어.}

10213 # 안그라? 지 마음이 드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지.}

10213 @2 할머니 생각이 아주 앞섰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아주 앞섰습니다.}

10213 # '어이고 야, 내가 언제부텨이라도 내가 말 하는 기 남 듣기[득끼] 나쁘게 안 한다.'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남 듣기 나쁘게 안 한다.}

10213 # '무슨 말도 내는 남 듣기 나쁘게 안 해.' {'무슨 말도 나는 남 듣기 나쁘게 안 해.}

10213 # '저 좋은 대로 해, 그래 좋은 대로 해라.' 내 자꾸 그래 말하지. {'저 좋은 대로 해, 그래 좋은 대로 하라.' 내가 자꾸 그렇게 말하지.}

10213 @2 손녀도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키우셨어요? {손녀도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키우셨어요?}

10213 # 한 찰, 아아들, 자식들 한 찰 쥐박고 때리고 아이 해밧어. {한 번, 아이들, 자식들 한 번 때리고 하지 않았어.}

10213 # 아아들이 마알도 잘 들으이께 그래 안 맞엇겠지. {아이들이 말도 잘 들으니까 그래 안 맞았겠지.}

10213 @2 아니예요. 저 앞에 큰 어머니는 손군들을 좀 때렸잖아요? {아니예요. 저 앞에 큰 어머니는 손군들을 좀 때렸잖아요?}

10213 # 그래 여기 잇던 큰 엄마? 그 사람 썩질은 썩 그렇잖아? {그래 여기 잇던 큰 엄마? 그 사람 성질은 썩 그렇잖아?}

10201 @2 그런데 할매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시네요? {그런데 할머니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시네요?}

10201 # 그래. 내가 좋게 하거던. {그래. 내가 좋게 하거던.}

10201 # 내가 언제나 좋게 한다 말이야. {내가 언제나 좋게 한다 말이야.}

10201 # 난 남하고도 나쁘게 지내는 사램이 어없다. 다 좋도록 말하고 그래. {나는 다른 사 람하고 나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다 좋도록 말하고 그래.}

10201 @2 그래서 어제 돌아가신 따님이 돈을 갚으러 왔네요? {그래서 어제 돌아가신 따님이 돈을 갚으러 왔네요?}

10201 # 그래, 저게 그 내가 그 상덕이 어마이보고도 그칸다. {그래, 저기 그 내가 그 상덕 이 엄마보고도 그런다.}

10201 # 이 분에 이사 갈 적도 내 그래 말 했어. {이번에 이사 갈 적에도 내가 그렇게 말했 어.}

10201 # '가지 마고 여 살자, 내가 여, 여 사느기 괜찮다.'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내가 여 기, 여기 사는 것이 괜찮다.}

10201 # '자식놈들이야 동서남북을 떠돌기며 돈을 버어리 버어리더라도 늙으이는 안 갈거채 이게 여 가아만 잇자.' {'자식들이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돈을 벌이더라도 늙은 사 람 은 방해가 되지 않게 가만 잇자.}

10201 # 내가 그렇게 그래 몇 분을 권했어. 권해께네. {내가 그렇게 그래 몇 번을 권했어. 권하니까.}

10201 # 그랬지, 그때 아지뺨 그 다리 다치가 병원에 잇엇잖아. {그랬지, 그때 아주버님 그 다리 다쳐서 병원에 잇엇잖아.}

10201 # '상덕이 아버지 오거던 여기 같이 살자고 하지 마래요.' 그래. {'상덕이 아버지 오면 여기같이 살자고 하지 말아요.' 그래.}

10201 # 집 떠이지(중-기초) 파 떠이지를 다 판 해놓고, 모래 실이다 놓고 이팻잖아. {집 기

초를 파고 기초를 다 해놓고 모래 실어다 놓고 이랬잖아.}

10201 # 근데 그래 안 갈라 하지. {근데 그래 안 가려고 하지.}

10201 # 그래 그 아지뱀 기이코 안갈라 해, 안갈라 하는데 억지로, 억지로 디리구 간판이야.
{그래 그 아주버님 기어코 안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억지로 데리고
간판이야.}

10201 # 그카더라, 그칸테 내가 어예? '그래 내 말 안 할께,'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하
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 내 말을 하지 않을게.'}

10201 # 내가 그카고 말 안 했다. 가기 싫은거 억지로 잤어. {내가 그렇게 하고 말 안 했다.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잤어.}

10201 # 아이고, 어얼매나 가자고 씨와대는지? {아이고, 얼마나 가자고 싸우는지?}

10201 # 여기에 집 잇고 땅 잇이마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마이 잇어야 댜다. {여기에 집 있
고 땅 있으면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댜다.}

10201 @1 그래요? {그래요?}

10201 # 야, 그래요. 그거 사람 궁디 개잡게 자꾸 이리 가자카며 이리 가구 저리 가자카며
저리 가구 그랄끼 아이고. {야, 그래요. 그거 사람 엉덩이 가볍게 자꾸 여기로 옮기
자고 하면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자고 하면 저기로 옮기고 그렇게 할 것이 아
니고.}

10201 # 자식한테 따르 댜기며 아아들 고생 씨기고 저 고생 하는 거야. {자식한테 따라 다
니면 아이들 고생 시키고 저 자신도 고생하는 거야.}

10201 # 가마이 여기 잇이마 자식들 돈 벌이이며 저 부모 생각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잇노?
{가만히 여기 있으면 자식들 돈 벌이면 자기 부모 생각 안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10201 # 돈 마이 벌이며 갖다 주고, 작기 못 벌이며 부모꺼 갖다 씨이고 그거이 사는 거지
며. {돈 많이 벌면 갖다 주고, 적게 못 벌면 부모의 것을 갖다 쓰고 그것이 사는 것이
지 뭐.}

10201 # 그거 어데 머 딱 부모 자식간에 니꺼, 내꺼 찾구 딱 그래야 대나? {그것 어디 뉘
부모 자식간에 네 것, 내 것 찾고 그래야 되나?}

10201 # 여어게 부모가 대머 저 자식들한테 애 줌 덜 미익엘 그런 궁리하고.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들한테 애 줌 적게 먹일 그런 궁리하고.}

10201 # 안 갈거치이게 가아만 한쪽에 가아만 잇어야대. {방해되지 않게 가만히 한 쪽에 가
만히 있어야 돼.}

10201 # 가만 잇이면 다 저것도 생각이 잇어.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네들도 생각이 잇어.}

10201 # 그래 나는 머 어느 녀들이, 어느 녀들이 오라케도 내 안가. 안가고 잇어. {그래 나
는 뭐 어느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이 오라고 해도 나는 안가. 안가고 잇어.}

10201 # 안 글라? 생각 해 보래, 거기 제일 펜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봐라, 그것이 제일
편안하다.}

10201 @2 할매가 편찮으시면 제일 걱정이지요? {할머님이 편찮으시면 제일 걱정이지요?}

10201 # 펜찬으며 동네 사람 사람 아이가? {편찮으면 동네 사람은 사람이 아니가?}

10201 # 동네 사람 기벨 해주겠지 머. {동네 사람 소식 전하겠지 뭐.}

10201 @2 좀 전에 여기 앞에서 애기 봤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좀 있나요? {좀 전에 여기 앞
에서 애기 봤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좀 있나요?}

10201 # 그 전부 중국(한족) 아아라. {그 모두 한족 아이라.}
 10201 @2 조선족 애들도 있었는데요? {조선족 애들도 있었는데요?}
 10201 # 조선 애더나? {조선족 아이더나?}
 10201 # 조선 애라 캐 바야 그 영추이 아들 그. {조선족 아이라 해봐야 그 영춘이 아들 그.}
 10201 @2 아니래요. {아니라요.}
 10201 # 그 가아 마알고, 조선 아아 잇더나? {그 애 말고, 조선족 아이 있나?}
 10201 @2 예 조선족 아아 아니였어요. {예 조선족 아이 아니였어요.}
 10201 # 중국 아아들이야. {한족 아이들이야.}

1.2.4. 가족 이야기 (4): 딸과 아들

10213 @2 딸들은 어느 딸이 제일? 큰 딸이 제일 친하게 지내셨어요? {딸은 어느 딸이 제일? 큰 딸이 제일 친하게 지내셨어요?}
 10213 #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잇노? {친하지 안 친하고 어디 있나?}
 10213 @2 제일 가깝게 지내셨나말입니다. {제일 가깝게 지내셨나 말입니다.}
 10213 # 매 다 글코 글치 머. {모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10213 @1 큰 딸이 제일, 부모 생각 제일 많이 하지요? {큰 딸이 제일, 부모 생각 제일 많이 하지요?}
 10213 @2 만이라 그런가 봐요. {만이라 그런가 봐요.}
 10213 @2 둘째 딸은 어디에 있다고요? {둘째 딸은 어디에 있다고요?}
 10213 # 한국 가가 있다. {한국 가서 있다.}
 10213 @ 셋째는요? {셋째는요?}
 10213 # 셋째, 셋째는 인제 팔월 한 십일께 올 거야. {셋째, 셋째는 이제 팔월 한 십일 쯤 올 거야.}
 10213 @2 할머니, 아들이 셋, 넷이에요? {할머니, 아들이 셋, 넷이에요?}
 10213 # 넷째는 저 위해에 있다. {넷째는 저 위해에 있다.}
 10213 @3 아들 다섯이라 했어요. {아들 다섯이라 했어요.}
 10213 @2 아들은 지금 여기 셋째 아들 혼자 이 마을에 있어요? {아들은 지금 여기 셋째 아들 혼자 이 마을에 있어요?}
 10213 # 여기 있다 맹 한국 가구 어없어. {여기 있다 역시 한국 가고 없어.}
 10213 @2 셋째 며느리는요? {셋째 며느리는요?}
 10213 # 다 잤어. 가아들 식구 너이 지금 한국 가 있어. {다 잤어. 그 애들 식구 네 명 다 지금 한국에 가 있어.}
 10213 @2 집을 비워난 거예요? {집을 비워난 거예요?}
 10213 # 집을 떠난 사람 주었지, 머 중국 사람 주었더니. {집을 다른 사람 주었지, 뭐 한족 사람에게 주었더니.}
 10213 # 하아수도를 파악 막아가주고, 맥헤가 와가주고 돈 주고, 그놈의 또 소지 다 해고. {하수도를 꼭 막아가지고, 막혀서 와서 돈 주고, 그 또 청소 다 하고.}
 10213 # 그래 애애라 까짓것 그만 인제 남주지 말고 나두자. 나뒀어. {그래 까짓것 그만 이

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놔두자 하고 나뒀어.}

10213 @2 그래서 할머니 드문드문 가보세요? {그래서 할머니 드문드문 가보세요?}

10213 # 드문드문이 아니라 내 날로 가아본다. {드문드문이 아니라 나 매일 가본다.}

10213 # 가보며 머 어떤데? 문 장가난 거, 어없어. {가보면 뭐 어떠니? 문 잠가 놓은 것, 없어.}

10213 # 그래 보고, 앞밭 그어도 머 좀 조아 숨구코 디에도 머 숨가고 그래. {그래 보고, 앞밭 거기에도 뭐 좀 쪼아 심고 뒤에도 뭐 심고 그래.}

1.2.5. 아들 집 밭농사

10306 @2 할머니 또 그 땅도 부치셨어요? {할머니 또 그 땅도 부치셨어요?}

10306 # 그래 오을개는 가아 장춘에 가아가 '엄마, 이케 개잡근데[개작근데] 머 먼데 잇이며 가보기도 힘드지만 여기 개잡고[개작꼬] 코밑에 있는 거 머 우리 숨쿠자.' 그래. {그래 올해는 그 딸, 장춘에 그 딸이 '엄마, 이렇게 가까운데 뭐 먼데 있으면 가보기도 힘들지만 여기 가깝고 코밑에 있는 거 뭐 우리 심자.' 그래.}

10306 #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

10306 # 그래 콩 마이 숨가가 엄마도 장콩하고 내도 장콩하고 그래. 그래 숨갔다. {그래 콩 많이 심어서 엄마도 장콩하고 나도 장콩하고 그래. 그래 심었다.}

10306 # 그래더이, 가더이 오지도 가지도 안는다. {그래더니, 가더니 오지도 가지도 안는다.}

10306 # 콩 씨 흘여놓고 간기 이저견 안 와. {콩 씨 흘여놓고 간 것이 지금까지 안 와.}

10306 @2 큰 딸 말이에요? {큰 딸 말이에요?}

10306 # 그래. {그래.}

10306 @2 콩씨 흘여놓고는 뒷일은[된니른] 다 할매가 하셨어요? {콩씨 흘여놓고는 뒷일은 다 할머니가 하셨어요?}

10306 # 내가 해엿지. 씨 두 분 슈우 주고, 풀 뽑어 주고 {내가 했지. 씨 두 번 슈아주고, 풀 뽑아주고}

10306 @2 몇 번 뽑았어요? {몇 번 뽑았어요?}

10306 # 풀머 잇이며이 가가 눈에 띄이는대로 뽑지머. {풀 뭐 있으면 가서 눈에 띄이는대로 뽑지 뭐.}

10306 @2 정말 많이 고생하셨네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네요?}

10306 # 에이, 고생 아이여. 그게 내 운동이라 괜찮아. {에이, 고생 아니야. 그게 내 운동이라 괜찮아.}

10306 @2 그 어떤 집은 풀도 다 뽑지 않고 그대로 있던데 할매 집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집은 풀도 다 뽑지 않고 그래도 있던데 할머니 집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10306 # 깨끗기는 머 깨끗어? 풀은 내가 부지러이 뽐, 뽑어. {깨끗하기는 뭐가 깨끗해? 풀은 내가 부지런히 뽑아.}

10306 @2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뽑는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뽑는가요?}

10306 # 그으 아침 해애먹고 시이원할 때 가 뽐웁고[뽐웁꼬]. {그 아침 해먹고 시원할 때 가 뽑고.}

10306 @2 오늘 그 혈압 약 드셨어요? {오늘 그 혈압 약 드셨어요?}
 10306 # 먹어, 먹었어. {먹어, 먹었어.}
 10306 @1, 2, 3 할때 물 드릴까요? {할머니 물 드릴까요?}
 10306 # 내 요고 쫘 빨래. 빨다가 변소 쫘 갔다 올래. {나 이것 쫘 빨래, 빨 후에 화장실 쫘 갔다 올래.}
 10306 @2 예, 예. {예, 예.}

1.2.6. 가족 이야기 (5): 손녀들, 이름, 점 보기, 출생

[구술발화 6]

10105 # 너 아버지 여 잇을 책에는 내한테 자주 오구 영 으지하고 좋티만 막 다 갓부고 머 죽엇부고 갓부고 머. {너 아버지 여기 있을 때는 나한테 자주 오고 의지하고 좋더니만 다 가버리고 머 죽고 머.}
 10105 # 한국에 가가 왔다고 전하해 놓이께네 대분 쫘우 왔더라. 너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왔다고 전화하니까 대번에 쫘아 왔더라. 너 아버지가.}
 10105 # 땡 너어 아버지도 땡 울산이거덩. {역시 너 아버지도 울산이거든.}
 10105 # 그 울산에 그 큰 씨내 아니고 우리 친저는 울산 씨내 잇는데, {그 울산에 그 큰 시내에 아니고 우리 친정은 울산 시내에 잇는데,}
 10105 # 전할 했디만은 너 누이 시아바이하고 둘이서 월른 왔대. {전화를 했더니 너 누이 시아버지하고 둘이서 얼른 왔더라.}
 10105 # 왔는데 그때 너 누이가 니한테 갓다고 오는 길인데, {왔는데 그때 너 누이가 너한테 갓다 오는 길인데,}
 10105 # 그래 그 정거자 와가 전하를 했다말이야. {그래 정거장에 와서 전화를 했다 말이야.}
 10105 # 그 시아부질 찾아, 찾아까이 그 시아버지가 메늘을 열매이 고바하는지. {그 시아버지를 찾아, 찾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얼마 고와하는지.}
 10105 # 그래 대답이 그래, '아가야, 어데 가지 마고 그 가만 잇어라, 내가 차가주고 가게.' {그래 대답이 그래, '아가야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잇어라. 내가 차가지고 갈게.}'
 10105 # 그러다내이 얘기도 하다가 모해고 그래 또 머 너 아버지도 같이 고마 갓부고, {그러다나니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 또 머 너 아버지도 같이 그만 가고.}
 10105 # 그래 너 아버지는 또 날 찾아 올라고 그래 또 전하가 왔지머, 왔는거 메칠 잇다가 전하 왔는거. {그래 너 아버지는 또 날 찾아오려고 전화가 왔지 머, 왔는 것 머칠 잇다가 전화 왔는데.}
 10105 # '찾아 오지마라, 내가 멀리 왔다.' {'찾아 오지마라, 내가 멀리 왔다.}'
 10105 # '어데 갓게요?' {'어디에 갔어요?'}
 10105 # '내 안산에 와 왔다. 안산에 와 잇이께네 오지마라.' {'내 안산에 와 있다. 안산에 와 잇으니까 오지마라.}'
 10105 # 그케가 내가 모오거루 했지. '아이구, 내가 돈을 갇주매에 여가 가가 {그래서 내가 오지 못하게 했지. '아이고, 내가 돈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서}'
 10105 # 아 잇엇부고 내가 고모 돈을 안 올리고 와가 내 그래 갈라 그래.' {잇어버리고 내가

고모께 돈을 안올리고 와서 내가 가려고 그래.}

10105 # '아이다 내 돈 다 있다. 다 잇이께네 아아무소리, 아무 걱정도 하지 마고 부지러이 별이가 와가 우리 같이 좀 살자.' {'아니다 내 돈 다 있다. 다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부지러히 벌어 와서 우리 같이 좀 살자.'}

10105 # 그레이께, '응, 그래자.' 그래가 내가 올라하는거 모오거루 말렸다. {그러니까, '응, 그러자.' 그래서 내가 오려고 하는 것을 오지 못하게 말렸다.}

10105 # 그래 너 아버지가 오더이 그래. 그래 우리 그 친정이 여영 잘 살거등. {그래 너 아버지가 오더니 그래. 우리 그 친정이 아주 잘 살거든.}

10105 # 하이튼 고모가 이상하다 해. {하이튼 고모가 이상하다고 해.}

10105 # 그 중국에 잇어도 우리 고모가 갠찮이 살지. {그 중국에 잇어도 우리 고모가 갠찮게 살지.}

10105 # 여 한국에 와보이 또 이 사람들 또 잘 사네. {여기 한국에 와보니 또 이 사람들 잘 사네.}

10105 # 그러면서 너 아버지가 고모가 이상하다 그랬던거야. {그러면서 너 아버지가 고모가 이상하다 그랬던거야.}

10213 @2 '이 시계 옆의 그림 춘자가요?' {'이 시계 옆의 그림이 춘자예요?}

10213 # '어, 이쪽이 그 춘자야.' {'어, 이쪽이 춘자야.'}

10213 @2 흰하다. 키 내보다 더 크쥬? {흰하다. 키가 나보다 더 크쥬?}

10213 # '니보다 커.' {'너보다 커.'}

10213 @2 쪼마할 땐 키 좀 컷는데 이젠 쥔 작아. {어릴 적에는 키 좀 컷는데 이제는 제일 작아.}

10213 # 키는 어데 갓다나아도 작다 소리 아한다. {키는 어디 갓다 놓아도 작다는 소리는 안한다.}

10213 # 그래도 위해에 잇는 저 네엿째 큰아버지가 와가 '니 키가 요마치만 더 컷이마 내가 딱 어데 필요한데.' 그래 {그래도 위해에 잇는 저 넷째 큰아버지가 와서 '너 키가 요만큼만 더 컷으면 내가 딱 어데 필요한데.' 그래}

10213 # '어이구야, 여자 키가 그만하며 대지 또 그마이 더 커가 머할래.' {'아이고, 여자 키가 그만하면 되지 또 그만큼 더 커서 머 하려고.'}

10213 # 그레이, 저어 딸을 그 고향에 열라고 씨험을 보이께 키가 썩거등 저 딸이. {그러니, 자기 딸을 그 고향에 넣으려고 시험을 보니까 키가 작아서 자기 딸이.}

10213 # 저 딸이 춘자만 모하다 인물이 으잉? 연홍이가 아 그래. {자기 딸이 춘자만 못하다 인물이, 연홍이가 그래.}

10213 @2 아이, 못하쥬. {아니, 못하쥬.}

그래 못해. '춘자 키가 요마이만 더 컷이마 딱 내가 어데 열 때가 잇는데' 그래. {그래 못해. '춘자 키가 요만큼만 더 컷으면 딱 내가 어디에 넣을 때가 잇는데' 그래.}

10213 # '아이구야, 키가 그만하며 대지, 그보다 더 커가 머할래?' {'아이고, 키가 그만하면 되지, 그보다 더 커면 머 할래?'}
 10213 @2 저거 아버지 키 따라 가라고? {춘자 아버지 키 따라 가라고?}

10213 # '거기 딱 내가 썩 때가 잇는데 딱 키가 요마이 모지랜다'구 그카데. {'거기 딱 내가 썩 때가 잇는데 딱 키가 요만큼 모자란다.'고 그러더라.}

10213 @2 이번에 안 왔나요? {이번에 안 왔나요?}

10213 # 와가 한국에 한국 한 달 비자 받고 한국 갔다. {와서 한국에 한 달 비자 받고 한국 갔다.}

10213 # 엿저녁에 그 전하가 다섯이 전하가 왔더라. {엿저녁에 그 전하가 다섯 명이 전하가 왔더라.}

10213 # 경희아바이, 경희어마이, 니니, 경희, 춘자. {경희아버지, 경희엄마, 니니, 경희, 춘자.}

10213 @2 아, 니니도 갔어요? {아, 니니도 갔어요?}

10213 # 니니도 한국 갔어. 북경에 그어서 쌍발해다가. {니니도 한국 갔어. 북경에서 출근하 다가.}

10213 # 석 달 비자가 내레 와가 가가 인제 또 쪼끔 있으면 석달 전에 올기라. {석 달 비자 가 내려와서 갔는데 또 조금 있으면 석 달 전에 올거라.}

10213 # 그래 내 엿저녁에도 그랬어. 너 경희보고 그랬어 응. {그래 내 엿저녁에도 그랬어. 너 경희보고 그랬어.}

10213 # '너 아들 둘 다 힘든 일 씨기지 마고 여 중국으로 보내라.' 그라이. '알았어.' 그래. 그카더라. {'너 아들 둘 다 힘든 일 시키지 말고 여기 중국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알 았어.' 그래. 그렇게 말하더라.}

10213 @2 아이, 그 왜 젊었을 때 고생 썩어 빠지게 해야지요. {아이, 그 왜 젊었을 때 고생 을 죽도록 해야지요.}

10213 # 고생 썩어 빠지게, 그래 니말도 맞기는 맞다. 고생도 아아들 고생도 쫘 해보고 머 그래 해야 대는데, {고생 죽도록 하는 것, 그래 네 말도 맞기는 맞다. 아이들 고생도 쫘 해보고 머 그래 해야 되는데.}

10213 # 그 고생을 씨기기가 싫어가. '그래, 경희야, 니 너 엄마 말 잘 듣나?' 그라이. {그 고생을 시키기가 싫어서. '그래 경희야, 너 엄마 말 잘 듣나?' 그러니까.}

10213 # '할매 걱정하지마, 내 인제 말 잘 들어.' {'할머니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말 잘 들어.}

10213 # 거기 여 잇을 때 말 안들어가 내 어언매나 애 먹었노? 그래데, 저 엄마 나양주 전 하와가. {그 애가 여기에 있을 때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나? 그러더 라 저 엄마가 나중에 전화 와서.}

10213 @2 그 빨리 색시를 찾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빨리 색시를 찾고 장가를 가야 되 는데.}

10213 # '경희가, 할매한테 잘못했다는 거 지가 지금 말한다'고 그래. {'경희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한다'고 그래.}

10213 # '머 잘못하기는 머 잘못해. 클 적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라이게. {머 잘못하기 는 머 잘못해. 클 적에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러니까.}

10213 # '요새는 경희가 할매한테 잘못했다는 거 생각한다'고 그래데. {'지금은 경희가 할머 니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 한다'고 그러더라.}

10213 # 그 자식이 막 눈깔이가 높어가 여기도 안한다, 저기도 안한다 노오박 그래지머. {그 자식이 막 눈이 높아서 여기도 안 한다 저기도 안 한다 계속 그러지 머.}

10213 # 또 한분은 사람 데리구 와노이께네, 저 아버지가 또 막 맘에 안든다고 막 그래가. {또 한 번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저 아버지가 똑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10213 # 할 수없이 저 아버지가 맘에 안든다 하이께네 그래가 또 안해고. {할 수없이 저 아 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안 하고.}

10213 # 또 하나 그래 했던기 또 그래 또 지가 또 안할래해가 안해고. {또 하나 그래 했던

것은 자기가 또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하고.}

10213 # 한국 가가도 한 몇군데지. 여 잇을 적도 몇군데 했잖아. {한국 가서도 몇 군데지. 여기 잇을 때도 몇 군데 했잖아.}

10213 # 그래, 그때 내가 또 소개해가 그언 여자답게 생기고 똑똑하던데. {그래, 그때 내가 또 소개해서 그 여자애는 여자답게 생기고 똑똑하던데.}

10213 # 설알[서랄] 내애에 쫓아 댕기디만은 치아뿌릿어. '니 와 그랫게?' {설 내내 쫓아다니 더니 그만 끝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

10213 # '아이구, 할매는 사람 꺾디기 보구 모린다. 사람 적어바야 안다.' 그카디. {'아이고, 할머니는 사람 길만 보고 모른다. 사람은 꺾어봐야 안다.' 그렇게 말하더라.}

10213 # 그리 얘기하디, 우리 니니가 와가 그래. '아, 경희는 그만하면 사람 대는데 왜 안할 라 했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우리 니니가 와서 그래. '아, 경희는 그만하면 사람 되는데 왜 하지 않으려고 했나?}

10213 # '할매, 그런 사람 우리 집이 들어 오며 안대.' 와? {'할머니,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왜?}

10213 # 우리 이이래 많은데 여자가 훌륭한 여자가 들어 와가 훌륭하게 놀아야 대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훌륭한 여자가 들어 와서 훌륭하게 놀아야 되지.}

10213 # '그 사램이 우리 오빠가 설알 내애 댕김 사먹엿으마아 지도 한분은 내야 안대나?' 니니가 그카데. {'그 사람이 우리 오빠가 설 내내 다니면서 사먹었으면 자기도 한번은 내야 안되나?' 니니가 그렇게 말하더라.}

10213 # 그 나양주에 힘들머 다 그런거 할 줄 알아, '아이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들어오며 안대.' {그 나중에 철이 들면 다 그런 것 할 줄 알아, '아니야,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10213 # 우리 니니도 그카데, 그런 사람 들어오며 안댄다는 기야. {우리 니니도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사람 들어오면 안된다는 거야.}

10213 # '우리 이이 많은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대지 여자 잘못 들어오면 안댄다고.' 우리 니니도 그카더라. {'우리 이렇게 많은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지,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안된다고.' 우리 니니도 그렇게 말하더라.}

10213 @2 니니 저 대상도 신랑도 머 한국에 갔던거라 걸데요? {니니 남자친구도 머 한국에 갔던 거라 그렇게 말하데요?}

10213 # 한국에 지금 갔어. 그 사램이 아주 특수한 사램인가봐. {한국에 지금 갔어.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램인가 봐.}

10213 # 그 회사에서 뽑히가 그래 한국에 그거 하러 갔어. {그 회사에서 뽑혀서 한국에 그거 하러 갔어.}

10213 # 월급도 많고 키도 커단해. 그래 가 저 엄마가 밋다 말이야 잉, 저 엄마가 보고 {월급도 많고 키도 크고, 그래 저 엄마가 봤는데 저 엄마가 보고}

10213 # 어 쪼매 또 쪼매 더 나잇이마 그 생각이데. {어 조금만 더 나았으면 하고 그 생각이더라.}

10213 @2 예, 할배, 아 알았어요. 예. {예, 할아버지, 아 알았어요.}

10213 # 할배? {할아버지?}

10213 @2 아 작은 외할배. 외할배 동생, 쌍아진에, 저 신체 약하시고. {아 작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동생, 쌍아진에 계시는 신체 약하시고.}

10213 # 저 안이 있나? {저 아직 여기에 있나?}

10213 @2 예, 인제 오늘 다 갈거요. 가고 인제 소식 기다려야죠. {예, 오늘 다 갈 거예요. 가고 이제 소식 기다려야죠.}

10213 # 다 가면 흥매하고, {다 가면 흥매하고,}

10213 @2 흥매하고 내하고 이제 구전에 가서 소식 기다려야죠. 아이구, 오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또 올게요. {흥매하고 저하고 이제 구전에 가서 소식 기다려야죠. 아이고, 오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또 올게요.}

10213 @1 자, 예, 자 그러면 잘 나갑시다. {자, 예. 자 그러면 잘 나갑시다.}

10213 # 그래 내 이거 이래가주고 안나간다. {그래 나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는다.}

10213 @2 아이, 대요 대요. 앉아 잊어요. {아니, 돼요, 돼요. 앉아 있으세요.}

10213 # 그래 또 놀로 온나. {그래 또 놀러 오나.}

10213 @2 예, 가볼게요. 올 때 또 와 볼게요. 수고하세요. {예, 가볼게요. 올 때 또 와 볼게요. 수고하세요.}

10213 # 그래 그 나양주에 가기 전에 놀로 한번 와. {그래 그 나중에 가기 전에 놀러 한번 와.}

10213 @2 예. {예.}

10201 @1 이제 많이 식었습니다. 드시소. {이제 많이 식었습니다. 드시소.}

10201 # 잡사요. {잡사요.}

10201 @1 어, 다 먹었습니다. {어, 다 먹었습니다.}

10201 # 이진 다 좋아하네. 가아도. {이진 다 좋아하네. 그 애도.}

10201 @1 예, 예. 머 하루에 한두 잔씩 먹는 건 좋습니다. {예, 예. 머 하루에 한두 잔씩 먹는 것은 좋습니다.}

10201 # 왜? 마이 머으면 안대고? {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10201 @1 마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10201 # 나 이거 먹으이 나쁜 그 정사는 없어요. 속이 편안한게. {나 이것을 먹으니까 나쁜 정사는 없어요. 속이 편안한게.}

10201 @1 예, 편안하지요. 그니까 하루에 두잔 정도, 많으면 석잔. {예,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잔 정도, 많으면 석잔.}

10201 # 혼자 잊이끼 이것도 어 그대로 안대요. 물도[또] 끓이기 귀찮고 잊엇부기도 해고 {혼자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안 돼요. 물도 끓이는 것이 귀찮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10201 # 사람이 이마이마 생기면 대요. {사람이 이만큼만 생기면 돼요.}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그래 내가 '마음씨 좋고 부지런하며 댜다'카이. {그래 내가 '마음씨 좋고 부지런하면 댜다' 그러니까.}

10201 # '못나도 대?' '못나면 안대지. 새끼 낳아노면 또 못나.' 내가 그케이께. {'못나도 돼?' '못나면 안 되지. 자식 낳으면 또 못나.' 내가 그러니까.}

10201 # 할매매로 자꾸 그런 생각하면 어데 그래 맞은 사람이 어데 잇노? {할머니처럼 자꾸 그런 생각하면 어디 그래 맞는 사람이 있나?}

10201 #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0201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201 # 부모 안 닮는 새끼가 없어요. 부모 다 그래 다 부모를 마이 닮게 생기지. {부모 닮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 다 부모를 많이 닮게 생겼지.}

10201 @1 그러니까 옛날 할 때는 옛날 결혼할 때는 부모를 다 보잖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결혼할 때는 부모를 다 보잖습니까?}

10201 # 그럼요. 사램이 이마이만 생기면 대. 멀썃한 사램이 잘 못 생겼다 싶은 데가 없다. {그럼요. 사람이 이만큼만 생기면 돼. 흰칠한 사람이 잘 못 생겼다 싶은 데가 없다.} (사진첩을 보면서 이야기 하는 중임.)

10201 # 이상중[조이] {이상중}

10201 # 이 모습 간쑹하이 생긴거 한 인물 나요. 이런 사람들 이가 잘못 생겼잖아요. {이 모습이 가지런하게 생긴 것이 한 인물 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가 잘못 생겼잖아요.}

10201 @1 예, 그렇습니다. 이 이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10201 # 좀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야.}

10201 @1 예. {예.}

10201 # 그 콧구멍이 소온 사람을 안할라데. {그 콧구멍이 좁은 사람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10201 @1 안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10201 # 예, 콧구멍 아주 소온 사람이 잇잖아요. {예, 콧구멍 아주 좁은 사람이 잇잖아요.}

10201 @1 있지. {있지.}

10201 # 예, 그런 사람 안 할라 하데. {예, 그런 사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10201 @1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10201 # 그 몰라요. {그 몰라요.}

10201 @1 아, 이유는 잘 모르시는군요. {아, 이유는 잘 모르시는군요.}

10201 # 예, 몰라요. 콧구멍이 널찍해야 댄다카아멘서 콧구멍이 소온 사람은 안할라 그래. {예, 몰라요. 콧구멍이 널찍해야 된다 그러면서 콧구멍이 좁은 사람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더라.}

10201 # 그 우리 잇는데 그 상 보러 왔는 사램이 하나 아주 아주 잘사는 노인이야. {그 우리 잇는데 그 상 보러 온 사람이 하나 아주 잘 사는 노인이야.}

10201 @1 예. {예.}

10201 # 회색 세로 두루매기에다가 게와작기를 짚고 저 상 보러 왔어요. 왔는데. {회색 세로 두루매기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저 상 보러 왔어요. 왔는데.}

10201 # 그 사램이 상 보는데 아이 그 마치, 마치 그 우린데 청년 하나가. {그 사람이 상 보는데 아니 그 마침, 그 우리 잇는데 청년 하나가.}

10201 # 으성읍에 가가 사진관을 채리놓고 사진도 찍고 이빨도 해는 사램인데 그래 좋은 말을 하데, 상 보고는. {의성읍에 가서 사진관을 차려놓고 사진도 찍고 이도 하는 사램인데 그렇게 좋은 말을 하더라, 상 보고는.}

10201 # 땡년 3, 4월이면 여자가 돈을 잔뜩 두가왕을 들고 들어올채니 그 사람을 꼭 빨들어야 댄다 하지머. {내년 3, 4월이면 여자가 돈을 가득 두 가방을 들고 들어올 것이니 그 사람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지 머.}

10201 # 그 사람을 꼭 빨들어야 대지, 그 사램 놓치면 안댄다고 {그 사람을 꼭 붙들어야 되지, 그 사람 놓치면 안 된다고}

10201 @1 예. {예.}

10201 #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을 좋은 말을 그래하지머. 그래이께네 이 사람 상 보고.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을 좋은 말을 그렇게 하지 머. 그러니까 이 사람 상 보고.}

10201 # 돈 두 가방 들고 들어오는 사람 빨들어라 그 좋잖아요. {돈 두 가방 들고 들어오는 사람 붙들어라 하니까 좋잖아요.}

10201 @1 예. {예.}

10201 # 그래 좋아가 그랬더이 그 이듬해 3월 달에 죽었어요. 그 사램이. {그래 좋아서 그랬더니 그 이듬해 3월 달에 죽었어요. 그 사램이.}

10201 @1 죽었어요? {죽었어요?}

10201 # 예, 그 죽는다 소리를 안하고 그래 좋은 말을 하데. 상 보는 사램이. {예, 그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래 좋은 말을 하더라. 상 보는 사램이.}

10201 # 그래, 그 사램이 그 인제 내 하는 말이야 저렇게 보면 사람 콧구멍. {그래, 이제 내가 하는 말이야 저렇게 보면 사람 콧구멍.}

10201 @1 줍았어요? {줍았어요?}

10201 # 예, 술았어요. 그래, 그 사램이 상 보는 사램이 나양주 그래 말해. {예, 줍았어요. 그래, 그 상보는 사램이 나중에 그렇게 말해.}

10201 # '사램이 콧구멍이 널적널적하이 생기야지, 콧구멍이 너무 소울면 안좋다고' 예, 그래요. {'사람이 콧구멍이 널적널적하게 생겨야지, 콧구멍이 너무 좁으면 좋지 않다고' 예, 그래요.}

10201 # 거기 무슨 거기 이미가 있어도 있겠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도 있겠쥬?}

10201 @1 그런 모양이지요. {그런 모양이지요.}

10201 # 콧구멍이 널적널적해 해야 댄다고 그래. {콧구멍이 널적널적 해야 된다고 그래.}

10201 # 그래 좋은 말을 해 보냈는다 말이야. {그렇게 좋은 말을 해서 보낸다 말이야.}

10201 # 그 니 이거 죽는다 주의해라 그 소리 안하고. {그 너 이거 죽는다고 주의해라 그 말은 하지 않고.}

10201 @1 그렇쥬. 막 희망이 있다. {그렇쥬. 막 희망이 있다.}

10201 # 돈을 여자가 돈을 두 가방 잔뜩 들고 들어오거등 그 사람 놓치지 마고 꼭 빨들어라. {돈을 여자가 두 가방 가득 들고 들어오면 그 사람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10201 # 그래 그 사람, 놓치며 죽는다 그거 아이겠어요? 그래 꼭 빨들어라 하지요. {그래 그 사람, 놓치면 죽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꼭 붙들어라 하지요.}

10201 # 그리 이 사람 상 보고 종와가주고 예. {그래서 이 사람 상 보고 좋아서 예.}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돈 그 잔뜩 두 가방 여자가 들고 들어올 챔이 빨들어라 그케이 종와가 {돈 그 가득 두 가방 여자가 들고 들어올 챔에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좋아서.}

10201 # 그 방에 한방 앉았던 사램이 '야, 저 사램 냉년에 재수있겠구나. {그 방에 한방 앉았던 사램이 '야, 저 사람 냉년에 재수있겠구나.}

10201 # 돈을 그커루 들고 온다이께네.' {돈을 그렇게 들고 온다니까.}

10201 @1 예. {예.}

10201 # 그랬디, 그 이듬해 죽었어요. 그래 죽어이께네 빨들어 그 소리 아이가. {그랬는데 그 이듬해 죽었어요. 그래 죽으니까 붙들어라 그 말이 아니니.}

10201 @1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10201 # 상 보는 사람들도 그래, 수단있게 말 잘해요. {상 보는 사람들도 그래 수단 있게 말을 잘해요.}

10201 @1 예. {예.}

10201 # 그래야 남우[나무] 돈을 벌이먹지. {그래야 다른 사람 돈을 벌어먹지.}

10201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201 # 그래가, 그 상 보는 노이이 보이께네 한불에 머얼쫌하이 잘 생겼어. {그래서 그 상 보는 노인이 보니까 아주 흰칠하게 잘 생겼어.}

10201 # 잘 생긴데 세로 두루마기에다가 넝지바이 저고리에다가 구두에다 기와작지를 툇 짚고 이래 오는 거 보이 하마, {잘 생겼는데 세로 두루마기에다가 비단 저고리에다가 구두에다 지팡이를 툇 짚고 이래 오는 것 보면 벌써,}

10201 # 하마,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램이라는게 하마 알리지머요. {벌써,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램이라는 것이 알리쥬 머.}

10201 @1 예. {예.}

10201 # 그래가 상 보러 왔다 하이께이 다 보러 왔어. {그래서 상 보러 왔다 하니까 다 보러 왔어.}

10201 @1 예. {예.}

10201 # 다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은 상을 보고 그래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가 아이구, 죽는다 했으면 어예가. {다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은 상을 보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죽는다 했으면 어떻게든.}

10201 # 무슨 방법을 대가 약을 쓰던지 해가 방법을 대가 어예 쫌 뽐들어 볼긴데, {무슨 방법을 쓰서 약을 쓰던지 해서 방법을 쓰서 어떻게 쫌 붙들어 볼 것인데,}

10201 # 그 사램이 좋은 소리를 해가 맘을 탁 나았다고 부모들이 {그 사램이 좋은 소리를 해서 마음을 탁 놓았다고 부모들이}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이빨도 해엿고 사진도 찍고 그라이 돈도 잘 벌었어. 그 사램이. {이도 해 주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벌었어. 그 사램이.}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고랬는데 딱 고만 고래. 빨래 걸은거 저 저거 요렇게 요렇게 쫌 밀야놓고 {그랬는데 딱 그만 그래. 빨래 같은 것 저 저것 요렇게, 요렇게 쫌 밀어놓고}(빨랫줄에 넣어 놓은 젖은 빨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임.)

10201 # 덜 말렁거 갖다 바짝 말라. {마르지 않은 것은 가져다가 바짝 말리워.}

10201 @3 예, 해놓았어요. {예, 해놓았어요.}

10201 # 그래가 한사람은 또 청녀이 상을 보러 가이, 대반에 눈부터 들써보데. {그리고 한사람, 또 다른 청년이 상을 보러 가니, 대반에 눈부터 들춰보더라.}

10201 @1 눈을 들써봐요? {눈을 들춰봐요?}

10201 # 예, 눈을 이렇게 들써보데. 들써보더니 이 사람, '야 두 방[두빠] 갓 걸었다.' 그래. 두 방에 갓을 걸었다 그래. {예, 눈을 이렇게 들춰보더라, 들춰보더니 이 사람, '야 두 방에 갓 걸었다.' 그래. 두 방에 갓을 걸었다 그래.}

10201 # 그래 장개도 안 간 총각을 '두빠 갓 걸었다.' 그래. {그래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을 '두 방 갓 걸었다.' 그래.}

10201 # 그래가, 그게 무슨 소린고 했더이, 하마 여자가 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벌써 여자가 둘이라는 거야.}

10201 @1 예. {예.}

10201 # 아이, 결혼도 안했는데 둘이라. 그래 아이라고 '아이 나를 못 죽인다고.' {아니, 결

혼도 하지 않았는데 둘이라. 그래 아니라고 하니 '아니 나를 속이지 못한다고.'

10201 # 그래, 여자를 두군데 좋아했지. 그래 그것도 다 나와요. 그 또 팔자에 잇는가바?
{그래 여자를 두 명 좋아했지. 그래 그것도 다 나와요. 그것도 팔자에 잇는가바?}

10201 @1 팔자에 있다고요. {팔자에 있다고요.}

10201 # 팔자에 잇는가바, 그래 그래고 그래. 그래 앞으로 좋게 잘 산다 하면서 '걱정마라'
고 그래데. {팔자에 잇는가바, 그래 그리고는 그래. 앞으로 좋게 잘 산다 하면서 '걱정
마라'고 그러더라.}

10201 @1 예. {예.}

10201 # 그래 그 사람이 일본 가가 돈 벌이가 또 좋은데 장개 가고 그래데. {그래 그 사람
이 일본에 가서 돈 벌어서 또 좋은데 장가 가고 그러더군.}

10201 @1 두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습니까?}

10201 # 그 그리게, 첫 분에 두 저기 상 보는 사람이 하마 두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둘, 저기 상보는 사람이 벌써 두 사람이라 했잖아요.}

10201 # 그래 또 또 장개 갔으이께네. 저 세분 만에는 옳기 갓쥬. {그래 또 장가갔으니까 저
세 번만에는 옳게 갓쥬.}

10201 # 그렇거루 그걸 어예 알겠노야?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10201 @1 그러게. {그러게.}

10201 # 예, 다 열에 열 사람이 다 맞히는거 아이라, 고 두 사람은 고래 딱 맞히네, 예, 맞
히네요. {예, 다 열에 열 사람이 다 맞히는 것은 아니라, 그 두 사람은 그래 딱 맞히
네, 예, 맞히네요.}

10201 # 그래께네, 그기 여영 남 모리는 사람 남우 돈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돈은 못 먹어요.}

10201 @1 예. {예.}

10201 # 좀 아이께네 그래 쥐끼고 돈도 벌이고 하지. {좀 아니까 그래 말하고 돈도 벌고 하지.}

10201 # 이 사람이 몸이 개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몸이 가벼운 사람이에요.}(동행한
조사자를 보면서 하신 말씀.)

10201 @1 누구요? {누구요?}

10201 # 여 빨래 너는 사람. {여기 빨래 너는 사람.}

10201 @1 아, 예, 예. 부지런하고 {아, 예, 예. 부지런하고}

10201 # 몸이 개가운 사람이야. 앉어가 막 느끈하이 막 일라서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아
이라요. {몸이 가벼운 사람이야, 앉아서 막 느슨하게 막 일어서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
이 아니라요.}

10201 @1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에 나
와서 공부를 했어요.}

10201 # 김가라구요? {김가라고요?}

10201 @1 예, 김춘자. {예, 김춘자.}

10213 # 나는 와 첫분에 머 춘자 머 어짜고? 우리 춘자 얘기 하나 그랫더니, 나양주에 알고
보니 이름이 다 같애. {나는 왜 첫 번에 머 춘자 머 어찌고? 우리 춘자 이야기 하나
그랫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다 같애.}

10213 # 우리 춘자는 그 학교 가이께네 숙사 밥하는 사람이 춘자거등. {우리 춘자는 그 학
교 가니까 숙사 밥하는 사람이 춘자거든.}

10213 # 아, 내 이름이 아주 옛날 이름이구나 싫어가 '할매 내 이름 하나 갈래.' {아, 내 이름이 아주 옛날 이름이구나 싫어서 '할머니 나 이름 하나 바꿀래.'}

10213 # '응, 니 이름 한번 선택해바라.' 지 선택 해바도 벨란 사람이 없다 말이야. {'응, 너 이름 한번 선택해봐라.' 자기가 선택해 보아도 특별한 것이 없다 말이야.}

10213 # 그래가, '아, 그래. 할매 이름 짓는거 거 그래 해께, 그냥 잊을게.' 그래. {그래서, '아, 그래. 할머니 이름 짓는 것 그래 할 게, 그냥 잊을게.' 그래.}

10213 # 그래, 니 이름 내도 아주 좋다고,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해다고 그래 짓는데, {그래, 네 이름 나도 아주 좋다고,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다고 그래 지었는데,}

10213 # '그 니 더 좋은 이름 있으면 해라.' 하이께 '더 좋은 거 찾지도 모하겠어' 그러지. {'그 니 더 좋은 이름 있으면 하라.' 하니까 '더 좋은 것 찾지도 못 하겠어' 그러지.}

10213 # 그래 내가 저 우리 막내이 보고 내가 전하에 한번 그랬어. {그래 내가 저 우리 막내보고 내가 전화에 한번 그랬어.}

10213 # '상군아, 니 이름 한번 알아볼래?' '와? 이름을 왜 알아? 내 이름 여영 좋은데.' {'상군아, 너 이름 한번 바꿔 볼래?' '왜? 이름을 왜 바꿔? 내 이름 아주 좋은데.'}

10213 # '와 엄마 생각에 이름이 나빠?' '니 돈이 하도 안 붙어가, 그래 내 갈아보라 했다.' 그카이. {'왜 엄마 생각에 이름이 나빠?' '너 돈이 너무 안 붙어서, 그래 내가 바꿔보라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10213 # '걱정하지마, 이제 돈 붙을거야.' 그래. '니 돈 붙을거 어예 아는데?' {'걱정하지 마, 이제 돈 붙을 거야.' 그래. '네가 돈 붙을 것을 어떻게 아는데?'}

10213 # 아이, 내 그때 한번 점을 쳐보이께 내 인지부턴 돈 붙을 거야. {아니, 내 그때 한번 점을 쳐보니까 나 이제부터 돈 붙을 거래.}

10213 # '니 '상'자 영지 마고, 돌림자 영지 마고 한번 하나 지볼래?' 카이. {'너 '상'자 넣지 말고, 돌림자 넣지 말고 한번 하나 지어볼래?' 그렇게 말하니.}

10213 # '돌림자 빼뿌머 대나?' '니만 알고 잊으면 대는거야.' {'돌림자 빼버리면 되나?'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10213 # '그리께 하나 어 택해바라.' 내가 그라이께네. {'그러니까 하나 택해봐라.' 내가 그러니까.}

10213 # '일없어, 인자 돈 붙을 거야.' 그래. {'괜찮아, 이제 돈 붙을 거야.' 그래.}

10213 # 내가 하도 그기 도이 안 붙길래, 내가 그래 해, 그래 한번 지어라케이. {내가 너무 돈이 안 붙길래, 내가 그래 한번 지어라하니까.}

10213 # 그 이명박 그 사람이요, 그 돌림자가 상자, 상자 돌림인데 그 사람 돌림자 안 영었어. {그 이명박 그 사람, 돌림자가 '상'자 돌림인데 돌림자를 안 넣었어.}

10213 @1 저 형님은 '상'자잖아요. {저 형님은 '상'자잖아요.}

10213 # 다 영거등, 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돌림자도 안 영었어. {다 넣거든, 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돌림자도 안 넣었어.}

10213 # 안 영고, 우리 그 한, 저 북조선 시동상이 이병운데, 군대 나가가 이름을 어떻게 갈았나 하마. {안 넣고 우리 그 북조선 시동생이 이병우인데, 군대 나가서 이름을 어떻게 갈았나 하면.}

10213 # 이승무라고 했어. 승무라 승무라고 그래, 예 돌림자 '우'자 돌림 빼고 승무라고 지가 불려. {이승무라고 했어, 승무라고 그래, 예 돌림자 '우'자 돌림 빼고 승무라고 자기가 불려.}

10213 # 지마 그 돌림자 알면 대는거라요. 그래, 내가 갈어보라 하이께네, '인제 돈 붙을거라고, 걱정마라.' {자기만 그 돌림자 알면 되는 거라요. 그래 내가 바꿔보라 하니까, '이제 돈 붙을 거라고, 걱정마라.' 그래.}

10213 # 그래 우리 그 일본 갖는 우리 손자가 '할매, 그 저기 삼촌들 중에 이름 우리 막낭 삼촌 이름 지일 잘 짓네.' {그래 우리 그 일본 간 우리 손자가 '할머니, 그 저기 삼촌들 중에서 우리 막내 삼촌 이름을 제일 잘 지었네.'}

10213 # 그래지예. 그으까, '머보고 그래?' '듣기도 좋지, 부리기도 좋지, 이름 얼마 자알 짓어.' 그래. {그러지요. 그니까, '머보고 그래?' '듣기도 좋지, 부르기도 좋지, 이름 얼마나 잘 지었어.' 그래.}

10213 # '이름이 잘 짓고 못 짓고 간에 왜 너저 삼초이 도이 안 붙어?' {'이름을 잘 짓고 못 짓고 간에 왜 너희 삼촌이 돈이 안 붙나?'}

10213 # '돈 한평상 잘 버는 사램이 어디 잇노? 아, 한분 안 붙었이며 나양에 또 붙을 켜이 잇지.' {'돈 한평생 잘 버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 한번 안 붙었으면 나중에 또 붙을 적이 잇지.'}

10213 # 우리 그 손자가 그래 말해. 그래 어질게 말한다구요. {우리 그 손자가 그렇게 말해. 그래 어질게 말한다고요.}

10213 # '그래, 할매 만날 이래 혼자 어떻게 사나?' 이카메 어 그 저기 그래 전하 왔지. {'그래, 할머니 계속 이렇게 혼자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말하면서 저기 그렇게 전화 왔지.}

10213 # '할매, 만날 혼자 어떻게 그래 사나?' '내 혼자 사는 대로 사다가 내 나양에 그 노양원에 갈란다.' 이카이끼. {'할머니, 계속 혼자 어떻게 그래 사나?' '나 혼자 사는 대로 살다가 나 나중에 그 양로원에 갈란다.' 이렇게 말하니까.}

10213 # '할매, 딴 사람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마. 팔남매나 키아놓고 노양원에 간다 말이 그 말도[또] 아이다. {'할머니, 다른 사람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마. 팔남매나 키워놓고 양로원에 간다는 말이 그 말도 아니다.}

10213 # 딴 사람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이.' {다른 사람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10213 # '야야, 내 펜안대로 사는게 안 좋나?' {'야야, 내 편안한대로 사는 것이 안 좋나?'}

10213 # '아이다. 그래도 자식들 낫도 바야 대.' 우리 가가 말을 그리 어질게 한다구요. {'아니다. 그래도 자식들 낫도 봐야 돼.' 우리 그 애가 말을 그렇게 어질게 한다고요.}

10213 # 그카더라. '응, 그래. 니 말도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내 힘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자.' {그렇게 말하더라. '응, 그래. 너 말도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내 힘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자.'}

10213 # '어, 할매 어데 오한테가, 소리 없어가 안 가고 그래 잇나?' {'어, 할머니 어디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가지 았고 그래 있어?}

10213 # '아이다. 오라한 사람 다 오라 한다. 다 오라 하는데 내가 가기 싫어 글타 하이께.' {'아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 다 오라 한다. 다 오라 하는데 내가 가기 싫어 그렇다 하니까.'}

10213 # '할매,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이 너무 세. 어데 오라하게 대면 가가 같이 잇으라고' 지가 그래. {'할머니,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이 너무 세. 어디에 오라고 하게 되면 가서 같이 잇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10213 # '할매, 나아양제 내 저기 집 잡으며 할매 내한테 올래?' 그래 {'할머니, 나중에 내가

집 잡으면 할머니 나한테 올래?’ 그래}

10213 # ‘야, 니 멀리도 생각하네. 내 니한테꺼정 가가 살다 죽어라 말인가?’ {‘야, 너 멀리도 생각하네. 나 너한테까지 가서 살다 죽어라 말인가?’}

10213 # ‘아이다, 할매 오래 살아야 대. 할매 공로가 얼마 많다고, 오래 살아야 대.’ 그 아 말을 그래 어질게 해. {‘아니다, 할머니 오래 살아야 돼. 할머니 공로가 얼마나 많다고, 오래 살아야 돼.’ 그 애가 말을 그렇게 어질게 해.}

10213 @2 명희? {명희?}

10213 # 명희, 그전에 어 ‘희’자, ‘희’자는 돌림잔테 그래 광희를 짓잖아. {명희, 그전에 ‘희’자, ‘희’자는 돌림자인데 그래 광희를 지었잖아.}

10213 # 광희를 그래 우리 집안 어른들 모아놓고 동희[동이]하까 머했고 머 이름이 나왔는데, {광희를 그래 우리 집안 어른들 모아놓고 동희라고 할까 머라고 할까하고 이름들이 나왔는데,}

10213 # 동희라 하게 대며 중국말로 쯔 듣기 싫어. 동희라 해노머야 똥씨라 말이야. {동희라 하게 되면 중국말로 쯔 듣기 싫어. 동희라 해놓으면 ‘똥씨’(중국어-물건)라 말이야.}

10213 # 예, 그래가 듣기 싫어가 그래 광희라고 짓는데 그래. {예, 그래서 듣기 싫어서 그래 광희라고 지었는데 그래.}

10213 # 어른들이 여럿이 앉어가 이름 이거는 중국말로 듣기 좋고 좋다고 그래 짓거등. {어른들이 여럿이 앉아서 이름 이것은 중국말로 듣기 좋고 좋다고 여 그래 지었 거든.}

10213 # 그 다음에 저 외할배가 아주 똑똑한 선생이래요. {그 다음에 저 외할아버지가 아주 똑똑한 선생이래요.}

10213 @1 네. {네.}

10213 # 이름난 예 김일태 선생이라고 이름난 선생이, {이름난 예 김일태 선생이라고 이름난 선생,}

10213 # 그래 인제 우리 둘째 그거 낳아가주고 아 둘 데리고 저 친정가고 처가가고 갔어. 가이께. {그래 이제 우리 둘째 그 애를 낳아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저 친정가고 처가가고 갔어. 가니까.}

10213 # ‘야는 이름 왜 명희라고 지났노? 똑 여자 이름걸이[거치] 그래 지났노?’ {‘야는 이름을 왜 명희라고 지어 냈나? 꼭 여자 이름같이 그래 지어 냈나?’}

10213 # 광명이라고 그래 광희, 명희 했다이, ‘아, 그래 붙이면 좋다.’ {광명이라고 그래 광희, 명희 했다니까 ‘아, 그래 붙이면 좋다.’}

10213 # 그래가 딸을 하나 못 낳아 키웠어. 그래가 딸을 하나 더 낳았이며 싶어가 그래가 우리가 {그래서 딸을 하나 못 낳아 키웠어. 그래서 딸을 하나 더 낳았으면 싶어서 우리가}

10213 # 그래 더 놓구로 나뉘지. 나두이께 저 외할배가 ‘쓸 때 없는 일이야. {그래 더 낳게 꿈 봐뉘지. 봐두니까 저 외할아버지가 ‘쓸 때 없는 일이야.}

10213 # 둘만 대면 실컨 대이께 이제 고만 나도 댄다고.’ {둘만 되면 실컷 되니까 이제 그만 낳아도 된다고.}

10213 # 그래가주 그래 얘기하매 그래. 참말로 나양제 생각하이 그 여럿 낳아가 키야바야 수고마 했지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며 그래. 참말로 나중에 생각하니 그 여럿 낳아서 키워봐야 수고만 했지.}

10213 # 참 쓸데없다 그 말이 맞아. 그래가 머 걷어차뿌고 둘만 캬어. {참 쓸데없다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머 그만두고 둘만 키웠어.}

10213 # 그래 우리 명희가 날 책에 그 우리 근가가 새집 짓고 대목이 저쪽 칸에서 문 짜고. {그래 우리 명희가 태어날 때 그 우리 근가에 새집 짓고 대목이 저쪽 칸에서 문 짜고.}

10213 # 이럴 책에 난 정심해고 일한데 여 방에 방에서 몸 푸는데 이. {이럴 때 나는 점심 하고 일하는데 방에서 몸 푸는데.}

10213 # 그래, 그때 그땸해도 지금보다 철이 덜 들었어. 내가 {그래,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철이 덜 들었어. 내가}

10213 # 우리 명희가 낳는데 청보를 쓰고 낳았어. 청보, {우리 명희가 낳는데 청보를 쓰고 낳았어. 청보,}

10213 @1 예. {예.}

10213 # 시퍼런 보를 써고 낳지머. 그걸 빼끼가 내가 잘 건사해야 대는 걸 그걸 몰랐다 말 이야. {시퍼런 보를 쓰고 낳았지 머. 그것을 벗겨서 내가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을 몰랐다 말이야.}

10213 # 그때 그걸 청보, 홍보 쓰고 낳는 아가 있어. {그때 그것을 청보, 홍보 쓰고 낳는 아이가 있어.}

10213 @1 네. {네.}

10213 # 그래 낳는데 청보를 쓰고 낳는 그걸 모르고 썩 닭아가 캬다 말이야. {그래 낳는데 청보를 쓰고 낳는 그것을 모르고 썩 닭아서 치웠다 말이야.}

10213 # 그 그래 내 가마 생각하이 야가 야 책을 공부할라고 저카고 공부하는데 머리가 좋고 이래. {그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 애가 책을 공부하려고 저렇게 공부하는데 머리가 좋고 이래.}

10213 # 자가 저 큰 사램이 될걸 내가 이걸 잘못해가 안 그랬나? {저 애가 큰 사램이 될 것을 내가 이것을 잘 못해서 안 그랬나?}

10213 @1 그거 괜찮을 겁니다. {그거 괜찮을 겁니다.}

10213 # 괜찮을까? {괜찮을까?}

10213 @2 예. {예.}

10213 # 그 얼굴에 덜 쓰고 낳다 말이야. {그 얼굴에 무엇을 쓰고 낳았다 말이야.}

10213 @2 얼굴에 머 썩워야 되는가요? {얼굴에 머 썩워야 되는가요?}

10213 # 태여날 때 {태어날 때}

10213 @1, 3 태여날 때, 태여날 때만 꼭 그렇게 나와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만 꼭 그렇게 나와요?}

10213 # 그래. 그래 청보를 쓰고 난 그런 사램이 잇다 말이야. {그래 청보를 쓰고 낳는 그런 사람이 있다 말이야.}

10213 # 야는 홍보가 아이고, 청보라 파랑 보라. 그걸 쓰고 나왔어. {이 애는 홍보가 아니고, 청보라 파란 보라. 그것을 쓰고 나왔어.}

10213 # 어, 덜 먹었나? {어 덜 먹었나?}

10213 @1 덜 먹었구나. {덜 먹었구나.}

10213 # 홍추이가 덜 마셨는가부다. {홍춘이가 덜 마셨는가보다.}

10213 @1 예, 예. {예, 예.}

10213 @3 닭으게요. {닭을게요.}

10213 # 가 기양 여 없어 나요. 기양 없어 나. 그냥 동게나. {그냥 여기 없어 놓아요. 그냥 없어 놓아요. 그냥 위에 올려놓아요.}

10213 @1 그냥 넣이소 여쪽에. {그냥 너이소 여기에.}

10213 # 나두요, 여 기양 없어 나요. 일단. {놔두세요, 여 그냥 없어 놓아요. 일단.}

10213 # 그래가주고 그래 내가 자가 참 큰 사람이 될걸 내가 잘못해가 안 저래 땃나. {그래 가지고 그래 내가 저 애가 참 큰 사람이 될 것을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안땃나 싶어.}

10213 @2, 3 그럼 그 청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청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213 # 그걸 빼끼가주고 그 옷 걸었는데다가, 그 남 안 보는데다가 말라. {그것을 벗겨가지고 그 옷 거는데다가, 그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려.}

10213 @3 예. {예.}

10213 # 그거 말라가주고 그걸 나양주에 지 무슨 그 큰일 할 적에 그 옷속에 시쳐주. {그거 말려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할 적에 그 옷 속에 기워 줘.}

10213 @3 시쳐준다구요? {기워준다고요?}

10213 # 응 옷속에 이렇게 붙여 붙여가 여주. 여주는데 그걸 모르고 썰어 찢어. {응 옷속에 이렇게 붙여서 넣어 줘. 넣어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닭아 치웠어.}

10213 # 그래 요새 내가 자꾸 거기 생각나, 내가 잘못해가 안 이러나, 그 생각하다 생각이. {그래 요즘 내가 자꾸 그것이 생각나, 내가 잘못해서 안 이러나, 그 생각하다 생각하니.}

10213 @2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10213 # 첨 들어? {처음 들어?}

10213 @2, 3 예. {예.}

10213 # 그래 내도 이런 애길 못 듣고 그땐 그랬겠지머. 그래가 {그래 나도 이런 이야기를 못 듣고 그때는 그랬겠지 머. 그래서}

10213 @2 다른 애들은 그런 것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런 것 없었어요?}

10213 # 없지. {없지.}

10213 @2 그 애만 딱 정보가 나왔어요? {그 애만 딱 정보가 나왔어요?}

10213 # 그래 가가 딱 고래 청보를 쓰고 {그래 그 애가 딱 그래 청보를 쓰고}

10213 @3 그럼 다른 애들은 홍보, 빨간 거로 {그럼 다른 애들은 홍보, 빨간 거로}

10213 # 아이, 그런 거 없어. 기양 나지. 기양 나지. 딱 {아니, 그런 것 없어. 그냥 낱지. 그냥 낱지. 딱}

10213 # 가는 머 얼굴에 이렇게 딱 덮어 써고 그래 나완는 거야. 그래 이렇게 보고. {그 애는 머 얼굴에 이렇게 딱 덮어 쓰고 그래 나왔는 거야. 그래 이렇게 보고.}

10213 @3 그니까 액체겠쥬? 그것이. {그러니까 액체겠쥬? 그것이.}

10213 @2, 3 액체가 아니고 그거겠쥬? 우리 그거 머야? 애기 타이판(중국말 태반), 타이판같은 건가? {액체가 아니고 그거겠쥬? 우리 그거 머야? 애기 태반, 태반 같은 것인가?}

10213 # 그래, 얼굴에 머 이런거 머 안 보예. 그래 딱 써고 나왔지머. {그래, 얼굴에 머 이런 것 머 안 보여. 그래 딱 쓰고 나왔지 머.}

10213 @2 그런 사람 적어요? {그런 사람 적어요?}

10213 # 없지, 어째다 잊지. 어째다 잊지, 옛날부터 그런 사람 큰 사람이라, 큰 사람 댄다

그래. {없지, 어쩌다 있지. 어쩌다 있지, 옛날부터 그런 사람 큰 사람이라, 큰 사람 된다고 그래.}

10213 @2 정말 그런 게 적었나 봐요. {정말 그런 게 적었나 봐요.}

10213 # 그러구 우리 명희도 공부 저마이 하며 나양주에는 무슨 큰 사람 안대겠나? {그리고 우리 명희도 공부 저만큼 하면 나중에는 무슨 큰 사람 안 되겠나?}

10213 @3 그럼요. {그럼요.}

10213 # 그래 내가 그걸 내가 잘 모오해가 여저껏 안절나 그 생각을 해. {그래 내가 그것을 내가 잘 못해서 여태껏 저렇지 않나 그 생각을 해.}

10213 # 여 소학교 공부할 적도 언제나 아주 모범생이고 상장 타고 그랬어. {여기 초등학교 공부할 적도 언제나 아주 모범생이고 상을 타고 그랬어.}

10213 # 머리가 그래 좋았어. 그랬는데 나양주에 중도에 가가 중학교 땡길 때 쯤 난해졌 붓지. {머리가 그렇게 좋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중도에 가서 중학교 다닐 때 조금 게으름 피웠지.}

10213 # 금희 이 사람 만날 살이 너무 젖어 잉, 만날 살이 저래 저가. {금희 이 사람 계속 살이 너무 찼어, 계속 살이 저렇게 찌서.}(KBS'아침마당'프로그램을 보면서 하신 말씀)

10213 @3 살 빠졌다가 다시 또 다시 찌는가 봐요. {살 빠졌다가 다시 또 다시 찌는가 봐요.}

10213 @2 앎튼 좀 빠지더니 또 찌는 것 같더라. {앎튼 좀 빠지더니 또 찌는 것 같더라.}

10213 # 살이 좀 살이 쯤 빠져야 대. {살이 좀 살이 조금 빠져야 돼.}

10213 @2 지난번에는 좀 빠졌는데. {지난번에는 좀 빠졌는데.}

10213 # 저 시집 안가고 만날 저래 살끼가? {저 시집 안가고 계속 저렇게 살 것인가?}

10213 @3 안 좋조? {안 좋조?}

10213 # 여자하고 남자하고 때 대면 다 남하는 대로 다 해야 대. {여자하고 남자하고 때 되면 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10213 # 그 시집갈 때 대면 시집가고 장개갈 때 대면 장개가고. {그 시집갈 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갈 때 되면 장가가고.}

10213 # 자식도 낳아 키울 짝에 그 시긴데 한 시긴데 나가 키아야 대고. {자식도 낳아 키울 때가 그 시기인데 한 시기인데 낳아서 키워야 되고.}

10213 # 젊어서 돈도 벌이야 대고, 젊을 때 다 해야 대. 나 많애 보래 안댄다. {젊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젊을 때 다 해야 돼. 나이 많아 보라 안 된다.}

10213 # 만날 젊을 때 걸으마아 형제간도 없어도 대고, 친구도 없어도 대고, {만날 젊을 때 같으면 형제도 없어도 되고, 친구도 없어도 되고.}

10213 # 젊을 때 걸으마 아무도 없어도 살아내. 늙으면 다 잇어야 댄다. {젊을 때 같으면 아무도 없어도 살아내. 늙으면 다 있어야 된다.}

10203 @3 늙으면 영감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늙으면 영감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10203 # 영감이 만날 그래 건강하게 살면 대지만 거기, 거기 {영감이 만날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되지만 거기, 거기}

10203 # 만날 좋은 생각만 하며 대지만 거기 좋은 생각이 만날 안대거등. {만날 좋은 생각만 하면 되지만 거기 좋은 생각처럼 계속 안 되거든.}

10203 @2 좋은 영감 또 얻고 그러면 되지요. {좋은 영감 또 얻고 그러면 되지요.}

10203 # 그거이 습자않다. 처녀 때 천군데 만군데 골라도 맘에 안들어가 그러는데 거기 그

래 쉽나? 거기 쉽잖지. {그것이 쉽지 않다. 처녀 때 천군데 만군데 골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나? 그것이 쉽지 않지.}

10203 @2 할머니 계속 요구가 높아서 그러지요. 할머니도 요구 높았지요? {할머니 계속 요구가 높아서 그러지요. 할머니도 요구 높았지요?}

10203 # 높으다, 내가 난도[또] 생각해도 요구가 높으다. {높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요구가 높다.}

10203 @3 좀 잡수세요. {좀 잡수세요.}

10213 # 그케 큰 딸이 지금도[또] 오며 원망한다이께네. 내 우리 대에는 아주 좋은데 잘 골라 시집 보냈는데. {그래서 큰 딸이 지금도 오면 원망한다니까. 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좋은데 잘 골라 시집 보냈는데.}

10213 # 그때 대학생이랑은 그 잘 골랐잖아. 대학생이다가 시내 시집 보내가. {그때 대학생이라면 그 잘 골랐잖아. 대학생인데다가 시내로 시집 보내서.}

10213 @3 그래도 본인이 맘에 안 드나 봐요. {그래도 본인이 맘에 안 드나 봐요.}

10213 # 그래도 어 저기 지 맘에 {그래도 어 저기 자기 마음에}

10213 @3 안드는데 보냈습니까? {안 드는데 보냈습니까?}

10213 # 그래이 그랬다 말이야. 그리께, 사람이 욕심이 항정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 그랬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항정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10213 # 우리는 그때 아주 자알 보낸다고 보냈어. {우리는 그때 아주 잘 보낸다고 보냈어.}

10213 # 옛날 그 대학생들이 어찌다 잊지, 요새 때로 이래 혼나? {옛날 그 대학생들이 어찌다 잊지, 지금처럼 이렇게 혼하나?}

10213 # 대학생에다가, 시내 사람에다가 이래가 자알 보낸다고 보냈는데. {대학생에다가 시내 사람에다가 이렇게 해서 잘 보낸다고 보냈는데.}

10213 @2, 3 시내 사람, 예전에 시내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그 호구 때문에. {시내 사람, 예전에 시내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그 호구 때문에.}

10213 # 그럼, 시내 호구 붙일라고 어얼때나 애멋다고. {그럼, 시내 호구 붙이려고 얼마나 애먹었다고.}

10213 # 호구 안 붙잇으며 서로 나온 걸, 지 땅도 타고 {호구 붙이지 않았으면 서로 나온 것을, 자기 땅도 타고}

10213 @3 맞아요. {맞아요.}

10213 # 그래가주고 미잇 해를 농사 지가 차로 썰어다 주고 실어다 주고 그래. {그래서 몇 해를 농사 지어서 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다 주고 그래.}

10213 @2 왜 실어다 쫘어요? {왜 실어다 쫘어요?}

10213 # 실어다 주고 그래면 그 실고[또] 그 실고 가면 또 저거는 석탄 한 차씩 실고 오고, {실어다 주고 그러면 그 실고 그 실고 가면 또 자기네들은 석탄 한 차씩 실고 오고,}

10213 @2 지금은 뭐해요? 사위가 집에 그저 있어요? {지금은 뭐해요? 사위가 집에 그저 있어요?}

10213 # 집에 투우썬(중-퇴직)하고 집에 잇잖아. {집에 퇴직하고 집에 있잖아.}

10213 @2 그럼 신체가 약하셔서 한국 가서 돈도 못 벌고 그렇겠네요. {그럼 신체가 약하셔서 한국 가서 돈도 못 벌고 그렇겠네요.}

10213 # 그렇지, 도이 일이라, 일이라고는 근본 할 줄 몰라. {그렇지, 도무지 일이라, 일이라}

고는 전혀 할 줄 몰라.}

10213 # 한 분은 그게 저 머 하러 와가 찰떡을 치는데. {한 번은 그것 저 머 하러 와서 찰떡을 치는데.}

10213 #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는데 '자네 한분 쳐바라.' 이카이.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는데 '자네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하니.}

10213 # 칠 줄 모린다 소리는 안하고 '내 나양주에 칠게요.' 그래. {칠 줄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내 나중에 칠게요.' 그래.}

10213 @3 몇째 사위가 일을 제일 잘 해요? {몇째 사위가 일을 제일 잘 해요?}

10213 # 둘째 사위가 재간도 있고 경제 머리도 썩고 온갖 것 다 할 줄 알아. {둘째 사위가 재간도 있고 경제 머리도 있고 온갖 것 다 할 줄 알아.}

10213 @2 막낭 사우는요? {막내 사위는요?}

10213 # 막낭 사우도 그만하면 대, 그저 그 돈 벌이가 남만치 살라는 그런 애쌍이 있어. {막내 사위도 그만하면 돼, 그저 그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10213 @2 그럼 됐네요. {그럼 됐네요.}

10213 @3 할머니, 어느 딸이 할머니한테 제일 잘해요? {할머니, 어느 딸이 할머니한테 제일 잘해요?}

10213 @2 큰 딸이 좋조? {큰 딸이 좋조.}

10213 # 맹 글코 글치머 벨로 더 잘하는기 어디 있노. 맹 그래. {맨 그렇고 그렇지 머 별로 더 잘하는 것이 어디 있나. 맨 그래.}

10213 @3 그래두요. {그래도요.}

10213 # 아암패도 이 개잡게 잇는 놈이 수고 더하게 생겼지. {아무래도 여기 가깝게 잇는 아이가 수고 더하게 생겼지.}

10213 @3 그렇조? {그렇조?}

10213 @2 그 큰 딸이었어요, 작은 딸이었어요? {그 큰딸이었어요, 작은 딸이었어요?}

10213 # 그래, 개잡게 잇는 놈이 아무래도 수고 더하게 생겼지. {그래 가깝게 잇는 아이가 아무래도 수고 더하게 생겼지.}

10213 @3 이것은 철분제, 지금 임신했을 때 계속 먹어야 해요. {이것은 철분제, 지금 임신했을 때 계속 먹어야 해요.}

10201 # 내 이레가 약 머어 대지? {나 이렇게 약 먹어도 되지?}

10201 @3 예, 돼요. {예, 돼요.}

10201 # 어떤 적에는 이레가 시이컨 잇앗부고 약도 못 먹고 잇앗부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실컷 잇어버리고 약도 못 먹고 잇어버리고,}

10201 @2 약은 제때에 잡수셔야 해요. 약을 계속 잇어 드시면 어찌쥬? {약은 제때에 잡수셔야 해요. 약을 계속 잇어 드시면 어찌쥬?}

10201 # 땃어, 이레가 먹으면 대. {땃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10201 @2 한국에는 뒤처리 잘 하잖아 아니야? {한국에는 뒤처리 잘 하잖아 아니야?}(한국뉴스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10201 @3 한국 배수시설이 잘 안돼요. 해마다 저렇게 홍수가 생기잖아요. {한국 배수시설이 잘 안돼요. 해마다 저렇게 홍수가 생기잖아요.}

10201 @2 근데 한국은 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도 뒤처리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한국은

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도 뒤처리 잘 하는 것 같아.}

10201 @3 한번만 잘 해놓으면 되는데 {한번만 잘 해놓으면 되는데}

10201 # 이진 탠마(중-천마), 내가 소이 저리가, 이진 탠마야. {이것은 천마, 내가 손이 저려서 이것은 천마야.}

10201 @2 소염제예요? {소염제예요?}

10201 @3 손 저리는데 드시는 약. {손 저리는데 드시는 약.}

10201 # 소이 저리가, 탠마라, 탠마 약. {손이 저려서 천마라, 천마 약.}

10201 @3 관절은 안 아파요? 할머니. {관절은 안 아파요? 할머니.}

10201 # 왜 안 아파? 관절도 아프지. 관절 안 아픈데 걸음을 그래 걷나? {왜 안 아파? 관절도 아프지. 관절이 아프지 않는데 걸음을 그렇게 걷나?}

10201 # 그리구 관절 아프다구 홍상요(약명)꺼정 먹어. {그리고 관절 아프다고 홍상요까지 먹어.}

10201 @2 홍삼? {홍삼}

10201 # 홍상요, 홍상요. {홍상요, 홍상요.}

10213 @2 약은 누가 사주세요? 계속 떨어지면 누가 사주세요? {약은 누가 사 주세요? 계속 떨어지면 누가 사 주세요?}

10213 # 저 장춘에 피파잔(중-약품 도매시장)에 가가 마이 사올 적도 잇고 {저 장춘에 약품도매시장에 가서 많이 사올 적도 있고}

10213 # 춘자가 오게 대머 또 무슨 약 없으면 다 사다 주고 가. {춘자가 오게 되면 또 무슨 약이 없으면 다 사다 주고 가.}

10213 @3 춘자 좋구나. {춘자 좋구나.}

10213 @2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한 정성에 비하면 그리 잘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한 정성에 비하면 그렇게 잘할까요?}

10213 # 내가 그카는데 머 '춘자야, 내 니 벌은 돈 좀 써보고 죽을란다.' 이카며.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머 '춘자야, 나 네가 벌인 돈 좀 써보고 죽으려다.' 이렇게 말하면.}

10213 # '할매 오래만 살아라.' 그래 그랜다. '그래, 오래 사마 그래 해줄래?' {'할머니 오래만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 오래 살면 그렇게 해줄래?'}
 10213 # '어, 할매 오래만 살머 대.' {'어, 할머니 오래만 살면 돼.'}

10213 @1 이제 커피 한잔 하지? {이제 커피 한잔 하지?}

10213 @2 예, 그럴려구요. {예, 그러려고요.}

10213 @2 선생님, 커피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커피 하시겠습니까?}

10213 @1 나 했어. 보리차 줘. {나 했어. 보리차 줘.}

10213 @2 예, 예. {예, 예.}

10213 @1 저 그거 하나 더 아직 덜 했는데 {저 그거 하나 더 아직 덜 했는데}

10213 @2 예, 예. {예, 예.}

10213 @2 지금 어휘 시작할 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어휘 시작할까 싶은데요. {지금 어휘 시작할 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어휘 시작할 까 싶은데요.}

10213 @1 응. {응.}

10213 @2 이거 한 시간 쯤 채우겠습니까? 지금 한 40분인데요. {이거 한 시간 쯤 채우겠습니까? 지금 한 40분인데요.}

10213 @3 선생님, 지금 어휘할거예요 아님 자연발화할거예요? {선생님, 지금 어휘할거예요 아님 자연발화할거예요?}

10213 @2 자연발화 한 시간 채우고 하겠습니다. {자연발화 한 시간 채우고 하겠습니다.}
(조사자간 대화 생략)

1.3. 의생활

10413 @3 할머니 옷 잘 만들죠? {할머니 옷 잘 만들죠?}

10413 # 옷? 머 잘 만들지도 못해, 그저 글치 머. {옷? 머 잘 만들지도 못해. 그저 그렇지 머.}

10413 @3 저쪽 한국 있을 때 옷 많이 만들었다면서요, 남의 옷도 다 만들어 쫘다면서요.
{저쪽 한국 있을 때 옷 많이 만들었다면서요, 남의 옷도 다 만들어 쫘다면서요.}

10413 # 인자는 안대지. {이제는 안 되지.}

10413 @2 원래 말이에요. 지금 아니구요. {원래 말이에요. 지금 아니구요.}

10413 # 그, 그래 이제 쌍가자 살 켜만 해도 그 동네 시집가는 옷 내 다 해쫘다. {그, 그래 이제 쌍가자 살 적만 해도 그 동네 시집가는 옷 내가 다 해쫘다.}

10413 @2 그랬었어요? 지명을 자꾸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어떡하죠? 다 못 적었어요. {그랬었어요? 지명을 자꾸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어떡하죠? 다 못 적었어요.}

10413 @1 아니, 그 아침마당 안 끝났는데? {아니, 그 아침마당 안 끝났는데?}

10413 @2 끝이 없이 계속 켜놓을 것 같은데요. {끝이 없이 계속 켜놓을 것 같은데요.}

10413 @3 할머니, 옷은 무슨 천 갖고 만들었어요? {할머니, 옷은 무슨 천을 갖고 만들었어요?}

10413 @1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0413 @2 그 다했어. {그 다했어.}

10413 @3 다했어요? {다했어요?}

10413 @2 그 그만큼은 다 했어. {그만큼은 다 했어.}

10413 @3 식생활은 다했어요? {식생활은 다했어요?}

10413 # 이기 지절로 띠이 넘었다. {이것이 자기절로 뛰어 넘었다.}

10413 @2 뛰어 넘었어요. 저거 전기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뛰어 넘었어요. 저거 전기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10413 # 그래가 그전에 비단으로 가 옷저구리 해주고 치마하고 그랫어. {그래서 그전에 비단으로 윗저고리 하고 치마하고 그랫어.}

10413 # 그래가주고 얼라아들은 마이 키우지, 그거 할 켜에 막 언제나 얼라아를 시어머이가 업고 나가야 대거등. {그래서 아기들은 많이 키우지, 그것을 할 적에 막 언제나 아기를 시어머이가 업고 나가야 되거든.}

10413 # 안 그래마 모오한다 말이 그 아이들 옷, 그리 인제 모해주게 해지 머.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말이 그 아이들 옷,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지 머.}

10413 # 모해주게 해도 그 친구들이 가아 오는데 어째? 해주야지. {못하게 해도 그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10413 # 그전에 그거 할라머 화로에 불 담어 놓고 인도 쪼어 놓고 그래 해야 대거등. {그전

에 그것을 하려면 화로에 불 담아 놓고 인두 쪼아 놓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10413 # 그래게, 아아들이 그 절에 노다 오줌이나 싸바라 그 시집 갈 옷. {그러니까 아이들
이 그 절에 놔두면 오줌이나 싸면 그 시집 갈 옷.}

10413 # 얼룩 저 노머 그 머가 대노, 그리 만날 알랄 데리구 나가 귀찮애가 '인제 해주지
마라.' {얼룩지면 그 무엇이 되나, 그래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귀찮아서 '이제
는 해주지 말라.'}

10201 @2 할머니, 그 물이 더 맛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 물 사오니까 할머니 많이 마시네요.
{할머니, 그 물이 더 맛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 물 사오니까 할머니 많이 마시네요.}

10201 # 그래. 인제 내 이 가리약 먹는 그거는. {그래. 이제 내가 먹는 이 가루약 그것은.}

10201 @2, 3 예, 예. {예, 예.}

10201 # 까이(중-칼슘)가 부족해가 까이, 까이펠 텍으로 먹어.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약 셈
으로 먹어.}

10201 # 그 저 저 그게. {그 저 저 그게.}

10201 @2 까이가 한국말로 뭐예요? {까이가 한국말로 뭐예요?}

10201 # 머, 그 쥐도 나고 빼 여몰어 진다메, 이 약을. {머, 그 쥐도 나고 빼 여몰어 진다면
서, 이 약을.}

10201 @3 누가 사왔어요? 할머니, 그 춘자가 사왔어요? {누가 사왔어요? 할머니, 그 춘자가
사왔어요?}

10201 # 어, 춘자가 사왔어. {어, 춘자가 사왔어.}

10201 @1 칼슘인가? {칼슘인가?}

10201 @3 예. {예.}

10201 # 저기, 한국에서 이걸 마이 사와, 한국이 이 약이 없는가 바. {저기, 한국에서 이것을
많이 사가, 한국에는 이 약이 없는가 봐.}

10201 # 그래가 이걸 마이 사가 갓어. 그래 인제 사가 가면서 할때도 하나 먹으라면서 그래
한 봉지 내놓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사가 갓어. 그래 이제 사가 가면서 할머니도 하
나 먹으라면서 그래 한 봉지 내놓고}

10201 @3 오이 많이 먹으면 한가지겠네요. {오이 많이 먹으면 한가지겠네요.}

10201 # 이거 오이 여러 가지 섞었지? 이거 가리가 맛없고 그렇지도 아 해. {이것은 오이
여러 가지를 섞었지? 이것은 가루가 맛없고 그렇지도 안 해.}

10201 # 꼬소하기도 하고 까소하기도 하고 그치, 머 씹고 그 씹고 그렇지도 아 해. {고소하
기도 하고 그렇지, 머 쓰고 그 쓰고 그렇지도 안 해.}

1.4. 식생활

1.4.1. 산나물 채취: 전 거주지에서

10504 @3 할머니, 여기 산나물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할머니, 여기 산나물은 어떤 것이 있어요?}

10504 # 산이 이 난 여 와가 산에 못 갓어. {산에 이 나는 여기에 와서 산에 못 갓어.}

10504 @3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산나물 뭐 가서 뜯고 안 그래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산나물 뭐 가서 뜯고 안 그래요?}

10504 # 산나물 하러 멀리 가야 대지 머. 그래, 여는 산이 멀어가. {산나물 하러 멀리 가야 되지 머. 그래, 여는 산이 멀어서.}

10504 # 그 이전에 그 우리가 살던 그 산을 찾아 가면은 쪼매 해오지. {그 이전에 그 우리가 살던 그 산을 찾아 가면은 조금 해오지.}

10504 @1, 3 아, 어디 산이요? {아, 어디 산이요?}

10504 # 그 쌍가자, 쌍가자. 글치, 그 여 근방 산에는 나물 없어. {그 쌍가자, 쌍가자. 그렇지, 그 여기 주위 산에는 나물이 없어.}

10504 @3 삼가자가 여기서 멀어요? {삼가자가 여기서 멀어요?}

10504 @2 주로 무슨 나물을 뜯습니까? {주로 무슨 나물을 뜯습니까?}

10504 @3 삼가자에 있을 때. {삼가자에 있을 때.}

10504 # 그, 그 초봄에는 그 헛잎이라고 나무에 요래 달리가 잇는거 훑어 그 머고[꼬] 그. {그, 그 초봄에는 그 헛잎이라고 나무에 요렇게 달려서 잇는 것을 훑어 그 먹고 그.}

10504 # 그 또 그기 무신 나물이더라? 그거 또 요래 도도 올라. {그 또 그것이 무슨 나물이더라? 그것 또 요렇게 도독이 올라.}

10504 # 보드랍고 고사리 말고 고고 도도 올라오는 그거 해다 썰아 먹고. {보드랍고 고사리 말고 그거 도독이 올라오는 그거 해다 썰아 먹고.}

10504 # 그다음에 또 고사리도 올라오지 머. 고사리 올라오며 고사리 뜯거다 또 말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고사리도 올라오지 머. 고사리 올라오면 고사리 뜯어다 또 말려서 먹고.}

10504 # 산 산취라고 여여 내가 서너 포기 숨가낫디 살았네. {산 산취라고 여기 내가 서너 포기 심어놔는데 살았네.}

10504 @2, 3 취나물? 취를요? {취나물? 취를요?}

10504 # 취나물, 그래가주고 나는 나물하러 가며 막 사람 마이 디리구 가. {취나물, 그래서 나는 나물하러 가면 막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

10504 # 나는 산속에 막 그런데 여 집에서 사는데는 간 굶다 소리 듣는데에 {나는 산속에 막 그런데 여기 집에서 살 때는 간 굶다 소리 듣는데}

10504 # 산에 가서는 내 혼자 못 땡겨. 겁나. 그래가 나물할 때 사람 마이 디리구 땡기지. {산에 가서는 나 혼자 못 다녀. 겁나서. 그래서 나물할 때 사람 많이 데리고 다니지.}

10504 @2 왜 할머니 간 크시잖아요? {왜 할머니 간 크시잖아요?}

10504 # 내가 여 이 이 동네에서 사는데는 간 크다 소리 듣는데. {내가 여기 이 동네에서 살 때는 간 크다 소리 듣는데.}

10504 @1 예. {예.}

10504 # 산에 가가주고 혼자 못 땡겨. {산에 가서 혼자 못 다녀.}

10504 @1, 2 예, 동네 장군이시네요. 예? {예, 동네 장군이시네요. 예?}

10504 # 그래 동네 장군이야. 인도, 저 통에 여. 땀다 내 인도 여. {그래 동네 장군이야. 여기 쥐, 저 통에 넣어. 땀다 내 여기 쥐.}

10504 @2 취나물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취나물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10504 # 머? {머?}

10504 @2 연변에 있는데 그 짹짹이라 그래요? {연변에 있는데 그 딱지떡이라고 그래요?}

10504 # 딱주떡? {딱지떡(모싯대의 떡)?}

10504 @2 딱딱삭이라 그래요? {닥지삭이라 그래요?}

10504 # 아, 있어. 그런 나물 있어. 그래 여기 시고자 정씨라고, {아, 있어. 그런 나물 있어. 그래 여기 시고자 정씨라고,}

10504 # 그 노토리(중-영감)가 칠십 다 대간 노토리 산에 나물하러 땡기거등. {그 영감이 칠십 다 되가는 영감이 산에 나물하거 다니거든.}

10504 @2 예. {예.}

10504 # 저거 내가 산나물을 하도 좋아하이께네, 저걸 땡 포기 캐다 주더라고. {저 것 내가 산나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 것을 땡 포기 캐다 주더라고.}

10504 @2 예. {예.}

10504 # 캐다 준거, 주는 거 숨가 낫더이 죽엇부고 한 서너 포기 살아가 잇대. 저게. {캐다 준거, 주는 것을 심어 놓았더니 죽고 한 서너 포기 살아서 있더라. 저기.}

10504 # 그 살아가 잇이머 해마다 올라오는데에. {그 살아서 있으면 해마다 올라오는데.}

10504 @1 예, 예. {예, 예.}

10504 # 그래, 서너 포기 뻥에 안 살았어. {그래, 서너 포기 밖에 못 살았어.}

10504 @3 할머니, 민들레도 드셨어요? {할머니, 민들레도 드셨어요?}

10504 # 민들레? {민들레?}

10504 @3 예. {예.}

10504 # 민들레 잇지, 있어. {민들레 잇지, 있어.}

10504 @1 그 나물 잘 안 해 먹습니까? {그 나물 잘 안 해 먹습니까?}

10504 # 그 어찌나, 그거 나 산나물 해면지도 어찌 오래 대노이 이름도 다 잇어. {그 어찌나, 그거 내가 산나물을 해먹은지도 어찌 오래 됐는지 이름도 다 잇었어.}

10504 @1 저쪽에 의성에 있을 때 {저쪽에 의성에 있을 때}

10504 # 예, 으성에 있을 때 그도 산나물 많아. {예, 의성에 있을 때 거기에도 산나물 많아.}

10504 @1 그리게 그 그게 어떤 산나물들이 있습니까? {그리게 그 그곳에 어떤 산나물들이 있습니까?}

10504 # 머 거야, 두릅도 잇고, 산에 두릅도 잇고, 돌개도 잇고 머. {머 거기야, 두릅도 잇고, 산에 두릅도 잇고, 도라지도 잇고 머.}

10504 # 그 취나물도 잇고 머, 그 산나물 많아요. {그 취나물도 잇고 머, 그 산나물 많아요.}

10504 @1 그렇죠? 의성에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의성에는 산이 많으니까.}

10504 # 그, 그래가주고 수우타게 해다 먹고 막 밭에다 어얼매네 해 널어 말류코. {그, 그래서 많이 해다 먹고 막 밭에다 많이 해 널어 말리고.}

10504 # 어, 거 살기 좋았어. {어, 거기 살기 좋았어.}

10504 @1 예. {예.}

10504 # 그 농민들 살기 영 좋아. {거기 농민들이 살기 아주 좋아.}

10504 @1 예. {예.}

10101 # 그래 살았더이. 그래, 그 수이쿠에 그 걸 막을라고 땡 여기 집 짓는거매로 계획을 오래 오래 잡았지. {그래 살았더니. 그래, 그 저수지 그것을 막으려고 역시 여기 집 짓는 것처럼 계획을 오래 오래 잡았지.}

10101 # 그래 노이께네,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잖아야. {그렇게 하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랬잖아.}

10101 @1 예. {예.}

10101 # 그래가 전기 그 안 들어오고 호롱불 가주고 살고 이랬더니. {그래서 전기 그 들어 오지 않고 호롱불 가지고 살고 이랬더니.}

10101 # 결국은 그 수이쿠 그걸 막았다 말이야. 막는데 우리가 그 구경했지. {결국은 그 저 수지 그것을 막았다 말이야. 막는데 우리가 그 구경했지.}

10101 # 오라해요. 구경하러 오라고 모퉁을 마이 막어놓고 이렇게 남과[남과] 낫대요. {오라고 해요. 구경하러 오라고 못을 많이 막아놓고 이렇게 남겨 놓았더라고.}

10101 @1 예. {예.}

10101 # 이렇게 이렇게 남과 놓고 그 날에 그 날은 그 구멍을 막으니까네 다 놀로 오래 해요. {이렇게 이렇게 남겨 놓고 그 날은 그 날은 그 구멍을 막으니까 다 보러 오라고 해요.}

10101 # 그리구 우리 사원들이 다 왔어. 다 와가 보이니까네 그거 참말로 사람이 무슨 구경도 할 만해. {그래서 우리 사원들이 다 갔어. 다 가서 보니까 그거 참말로 사람이 무슨 구경도 할 만해.}

10101 # 그 이쪽저쪽에서 사램이 막 그 일하는 사램이 이쪽저쪽 뚜부래서 이리 남과 낫는 그거 나누고는, {그 이쪽저쪽에서 사람이 막 그 일하는 사람이 이쪽저쪽 독에서 이렇게 남겨 놓은 것 그거 놔두고는,}

10101 # 사램이 파악 섰어야, 파악 서가 그전에 그 가마이. {사람이 팍 섰어야, 팍 서서 그 전에 그 가마니.}

10101 @1 예. {예.}

10101 # 가마이 그걸 그런 거 그걸 요렇게 해가주고 사람마중 여 어깨에다 올리미고, {가마니 그것을 그런 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어깨에다 매고,}

10101 # 잣다가 인제 그 돌 그걸 저다가 놀런는데, {잣다가 이제 그 돌 그것을 지다가 놀렸는데,}

10101 # 그거 하나 저다 놓고 시컨 잇임 떠내리 잣부잖아요. {그거 하나 지다 놓고 실컷 있으면 떠내려 가버렸잖아요.}

10101 @1 예, 예, 예. {예, 예, 예.}

10101 # 한 사램이 요 요렇게 요렇게 섰다 한 사램이 그걸 붓테, 부우이께 퍼뜩 또 뒤에 사램이 {한 사람씩 요렇게 요렇게 섰다가 한 사람씩 그것을 부어, 부으니까 바로 또 뒤에 사램이}

10101 # 여 한 사램이 붓고 나오이 퍼뜩 이 사램이 또 더가가 붓고, 붓고. {여기 한 사람이 붓고 나오면 바로 이 사람이 또 들어가서 붓고, 붓고.}

10101 # 또 미리 나간 사람이 짹어 오고 해가 그래. {또 먼저 나간 사람이 짹어 오고 그래.}

10101 # 그렇게 다악 안패하고 해가주고 하는 거, 그거 참말로 볼만하데요. {그렇게 딱 배치하고 해서 하는 것, 그거 참말로 볼만하데요.}

10101 @1 예. {예.}

10101 # 그래 막고는 국가에서 이사를 왕기라 해가 국가에서 이사를 왕기주가 그래 나왔는 게야. {그래 막고 국가에서 이사를 옮겨라 해서 국가에서 이사를 옮겨줘서 그래 나온 것이야.}

10101 @1 예. {예.}

10101 # 아, 쌍가자 그 저거 가보며야, 수이쿠 그 가보며 흡사 그래 그렇게 생겼지. {아, 쌍가자 그 저기 가보면, 저수지 거기에 가보면 흡사 그래 그렇게 생겼지.}

10101 # 옛날 그 목, 목 이렇게 길고 이런 병 잇잖아야. {옛날 그 목, 목 이렇게 길고 이런 병 잇잖아.}

10101 @1 예, 예. {예, 예.}

10101 # 딱 그으 곳이 그렇게 생겼어. {딱 그곳이 그렇게 생겼어.}

10101 @1 음, 음. {음, 음.}

10101 # 고리께 또 고고 고 머 목안지를 딱 막아뿌이께 그리키 큰 수이쿠가 뗏지. {그러니까 또 그그 그 머 목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큰 저수지가 났지.}

10101 # 그 안에요, 그 그 우리 큰 강 건너 그 노린자(지명)라 하는데 그 산에 건너가게 대마. {그 안에요, 그 그 우리 큰 강 건너면 그 노린자라고 하는데 그 산에 건너가게 되면.}

10101 # 뽕 나물이 다 잇고, 온갖 거 다 잇어요. {뽕 나물이 다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10101 # 그래 우리 그 큰 강 거언네 막 여러 사람이 막 그날은 점심 싸가주고 산나물 하러 가지 머. {그래 우리 그 큰 강 건너서 막 여러 사람이 막 그날은 점심 싸서 산나물 하러 가지 머.}

10101 # 산나물 하러 가머 점도록 해 놓으며 막 지 힘으로 못다 지고 오두록 해가 온다 말이야. {산나물 하러 가면 저물도록 해 놓으면 막 자기 힘으로 못다 지고 오도록 해서 온다 말이야.}

10101 @1 예. {예.}

10101 # 그 영 살기 좋은 데라, 그래 또 여 디로 산이 잇이께. {그곳은 아주 살기 좋은 데라, 그리고 또 여기 뒤로 산이 있으니까.}

10101 # 그 또 그 또 뗏이서 가가주고 또 해오고. {그 또 그 또 뗏이서 가서 또 해오고.}

10101 # 그래 살기 좋은 곳을 차를 타고 나오며 내가 그랬어. {그래 살기 좋은 곳을 차를 타고 나오면서 내가 그랬어.}

10101 # '아앗다, 이 골짜기에 참 땡기기도 산에 땡기기도 마이 땡겔더니 인자는 이 산하고 이별하네.' 그카멘서 그래 나왔어. {'아이고, 이 골짜기에 참 다니기도 산에 다니기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이 산하고 이별하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나왔어.}

10101 @1 그리고 요쪽으로 오셨나요? {그리고 요쪽으로 오셨나요?}

10101 # 고 요 근가라 한테 내려와 앓았어요. {그 여기 근가라 하는데 내려와 앓았어요.}

10101 @1 갔다왔군요. {갔다왔군요.}

10101 # 그래 또 고게 잇다가 요래 요래 땡겼어요. {그래 또 거기 있다가 요래 요래 옮겼어요.}

10101 # 그 그 그때는 그 살기가 참 좋았어. 살기가 좋았는데, {그 그 그때는 그 살기가 참 좋았어. 살기가 좋았는데,}

1.4.2. 들나물 채취: 민들레, 냉이

10504 @2 할머니, 여 할머니네 집 앞에 그런 것 있던데요, 민들레가 할머니 뭐가 하면요,

퍼퍼땡(중-민들레)이에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네 집 앞에 그런 것 있던데요, 민들레가 할머니 뭔가 하면요, 퍼퍼땡이에요.}

10504 # 응, 퍼퍼땡 있어. 여 퍼퍼땡 많아. {응, 퍼퍼땡 있어. 여 퍼퍼땡 많아.}

10504 @2 퍼퍼땡이라 글쎄? {퍼퍼땡이라 그러죠?}

10504 # 그 중국말로 퍼퍼땡이제. {그 중국말로 퍼퍼땡이지.}

10504 @2, 3 조선말로는? {조선말로는?}

10504 # 민들레. {민들레.}

10504 @2 민들레. {민들레.}

10504 # 노란 꽃 피는 거? {노란 꽃 피는 것?}

10504 @1 예, 예. {예, 예.}

10504 # 맞아, 그래. 그거 많아. 그거는 있어. {맞아, 그래. 그거 많아. 그 것은 있어.}

10504 @2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먹는 것.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먹는 것.}

10504 # 제일 처음에 먹는 거 머야? {제일 처음에 먹는 것이 머야?}

10504 @2 달래가 나오기 전에 {달래가 나오기 전에}

10504 # 달리? {달래?}

10504 @2 달래, 달리라고 그래요? {달래, 달래라고 그래요?}

10504 # 그래, 달리. {그래, 달래.}

10504 @2 달리 나오기 전에 또 있죠? 그 국 끓여 먹는 것 된장국에 넣어 먹는 것 말이에요. {달래 나오기 전에 또 있죠? 그 국 끓여 먹는 것인데 된장국에 넣어 먹는 것 말이에요.}

10504 # 댕장국 해먹는다고? {된장국 해먹는다고?}

10504 @2 냉이? {냉이?}

10504 # 내이? {냉이?}

10504 @1 냉이라 그럼니까? 나세이라 그럼니까? {냉이라 그럼니까? 나세이라 그럼니까?}

10504 # 나세이. {나세이.}

10504 @2 나세이? {나세이?}

10504 @1 나세이. {나세이.}

10504 @2 나세이 많습니까? {나세이 많습니까?}

10504 # 안 많애, 여게는. {많지 않아, 여기는.}

10504 @2 여기 안 많아요? 밭에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많아요? 밭에는 많은 거 아니에요?}

10504 # 없어, 달 달리가 그것도 여기는 잘 없어. {없어, 달 달래 그것도 여기는 잘 없어.}

10504 @2 달래도 잘 없어요? {달래도 잘 없어요?}

10504 # 그 근가 그 살 때는 달리가 이 밭 곁애, 툇 보리밭곁이 막 많았어. {그 근가 그 살 때는 달래가 이 밭 곁애, 툇 보리밭곁이 막 많았어.}

10504 @1 오. {오.}

10504 # 그런데는요 그키 많데요, 근데 여는 오이께 달리도 없어. {그런 곳은요 그렇게 많데요, 근데 여기는 오니까 달래도 없어.}

10504 @1, 2 예, 그래요? {예, 그래요?}

10504 # 개성에 가 사먹으며 요매만 사도 돈이 적잖애. { 시내에 가서 사먹으면 요만큼만 사도 돈이 적잖아. }

10504 @1 그 아까 그거 민들레는 여기 많습니까? { 그 아까 그거 민들레는 여기 많습니까? }

10504 # 예, 민들리 많아요. { 예, 민들레 많아요. }

10504 @1 민들레 뿌리가 참 좋습니다. { 민들레 뿌리가 참 좋습니다. }

10504 # 그가요? { 그것이요? }

10504 @1 예. 그거 봄 되면 많이 안 남니까? { 예. 그거 봄 되면 많이 안 남니까? }

10504 # 나요. { 나요. }

10504 @1 고 뿌리 캐가지고 잡수시소. { 그 뿌리 캐서 잡수시소. }

10504 # 그를 어떻게 해 머거요? { 그것을 어떻게 해 먹어요? }

10504 @1 머, 저 나물 해먹어도 좋고. { 머, 저 나물 해먹어도 좋고. }

10504 # 그걸요? { 그것을요? }

10504 @1 예. { 예. }

10504 # 그 마이 씹을 거라. { 그것 많이 씹 거라. }

10504 @1 우려내야쥬. { 우려내야쥬. }

10504 # 우려내가주고 { 우려내서 }

10504 @1, 2 우려내면 약 효과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우려내면 약 효과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

10504 # 그래도 너무 씹으며 울카내야지. { 그래도 너무 쓰면 우려내야지. }

10504 @1 한번 살짝 우려내고 { 한번 살짝 우려내고 }

10504 # 그 민들레는 많애요. { 그 민들레는 많아요. }

10504 @1 한국에서는 뭐 그거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 한국에서는 뭐 그거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

10504 # 그걸요? { 그것을요? }

10504 @1 예. 옛날에는 안 먹었거든요. { 예. 옛날에는 안 먹었거든요. }

10504 # 그때 그때 그거 우리 그 우리 그 시어머님 묘 그 없앨 적에, { 그때 그때 그거 우리 그 우리 시어머님 묘 그 없앨 적에, }

10504 # 손님이 여 많았어요. 손님이 많았는데, 요 앞에 그 사램이 양, 양을 키앗거든. { 손님이 여기 많았어요. 손님이 많았는데, 여기 앞에 그 사람이 양, 양을 키우거든. }

10504 # 양 먹이래 나가가 그거 민들레를 우리 집에 사무 해땃어, 그 사램이 { 양 먹이러 나가서 그거 민들레를 우리 집에 계속 해땃어. }

10504 @1 야아. { 야아. }

10504 # 여영 좋은 걸로, '우리는 일부러 해로 가도 이케 좋은 거 모하는데 만날 이래 해다 주노?' 그라이게. {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는 일부러 하러 가도 이렇게 좋은 것을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다 조는가?' 그러니까. }

10504 # '아, 내 양 먹이래 나가며 좋은 거 내가 해다 준다고.' 그걸 마이 해다 좇어, 우리를. { '아, 내 양 먹이러 나가면 좋은 것을 내가 해다 준다고.' 그것을 많이 해다 좇어, 우리를. }

10504 @1 예. { 예. }

10504 # 그래 그거 또 해노이께야 그거 또 좋아하데, 손님들도 야. { 그래 그거 또 해 놓으니까 그거 또 좋아하더라, 손님들도 야. }

10504 # 이거 불나물이 이거 맛있다고 그래. {이 것 불나물이 이것이 맛있다고 그래.}

10504 # 그래가주고 수우타기 해다 주고 그래 해가, 마이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해다 주고 그래 해서, 많이 먹었어요.}

10504 @1 된장에도 넣고 먹잖습니까? {된장에도 넣고 먹잖습니까?}

10504 # 댜장예요? {된장예요?}

10504 @1 저 그거같이 냉이같이 {저 그거같이 냉이같이}

10504 # 냉이겘이? {냉이겘이?}

10504 @1 국 끓이는 것. {국 끓이는 것.}

10504 # 그 국 끓이며 씹을 기라. 그으기 씹을 끼. 냉이 겘잖애. {그 국 끓이면 쓸 거라. 그 거가 쓸 거야. 냉이 겘지 았아.}

10504 # 그리가 그거 우린 자꾸 절이 먹었어. {그래서 그거우리는 자꾸 절여서 먹었어.}

10504 @1 예, 예. {예, 예.}

10504 # 절어치 저 썬어가 해머, 그 사램이 마이 해줏어. 아래께 강낭까리 빠다 좇는 그 사램이. {절여서 저 썬어서 하면, 그 사람이 많이 해줬어. 그저께 옥수수가루 빵아 준 그 사람이.}

10504 # 그래가 내가 그랏어. '여 참, 일부러 캐러 나가도 이래 모캐는데 참 고맙다'고 그라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기 참, 일부러 캐러 나가도 이렇게 캐지 못하는데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10504 # '아이구, 나는 어머이 수고 안 시키요?' '내가 머 늑어노이 내가 머 수고, 수고한 일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어머니 수고 시키지 았나요?' '나는 머 늑으노니 내가 머 수고, 수고한 일도 없는데.'}

10504 # 그래 그때 우리 큰 딸이 잇었다 말이야, 큰 딸이 잇어가. {그래 그때 우리 큰 딸이 잇었다 말이야, 큰 딸이 잇어서.}

10504 # 그걸 해다 주머 우리 둘이서 따뜸어가 때마중 그걸 절이 주고, 이 상에서도 그걸 잘 잡사 모도. {그것을 해다 주면 우리 둘이서 다듬어서 끼니마다 그것을 절여 주고, 이 상에서도 그것을 잘 잡쉬 모두.}

10504 @1 예, 예. {예, 예.}

10504 # 그거이 사램에게 좋다 하데. {그것이 사램에게 좋다 하더라.}

10504 @1 그 아주 좋습니다. {그 아주 좋습니다.}

10504 # 아, 그 뿌리꺼정 먹어요? {아, 그 뿌리까지 먹어요?}

10504 @1 예, 뿌리가 좋지요. {예, 뿌리가 좋지요.}

10504 # 예. {예.}

10504 @1 달, 달 저 뭇니까. 나세이도 뿌리 먹잖아요. {달, 달 저 뭇니까. 나세이도 뿌리 먹잖아요.}

10504 # 예, 예. {예, 예.}

10504 @1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10504 # 그 어테 사램이 나세이 그걸 겨울에 안 얼어 죽는다 삼동초라 해. {그 어느 곳 사램은 나세이 그것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았는다고 삼동초라 해.}

10504 @1 예. {예.}

10504 # 삼동초라 글지 머. {삼동초라 그러지 머.}

10504 @1 요즘은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냥 밭에다 키웁니다. {요즘은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냥 밭에다 키웁니다.}

10504 # 그걸요? {그것을요?}

10504 @1 예. 채소 가꾸듯이. {예, 채소 가꾸듯이.}

10504 # 아이구야, 그놈 뿌리가 길게 내려가고. {아이고, 그 것 뿌리가 길게 내려가고.}

10504 @1 예. {예.}

10504 # 그거는 국 끓이노머 들큰하이 그리 괜찮애. {그것은 국 끓여놓으면 들큰한 것이 그렇게 괜찮아.}

10504 @1 봄맛이 딱 나지요. {봄맛이 딱 나지요.}

10504 # 맛있어. {맛있어.}

10504 @2 혹시 그런 거는 없어요? 비름 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비름 같은 것?}

10504 # 비름? {비름?}

10504 @2 예. {예.}

10504 # 여 천지가 우리 밭에 그 비름 아이가? 빨진 거. {여 천지가 우리 밭에 그 비름 아 니가? 빨진 것.}

10504 @2 그거 사람 먹어요? {그거 사람 먹어요?}

10504 # 안 먹는다, 그 거 그런 거. {안 먹는다, 그거 그런 것.}

10504 @2 돼지 먹죠? 돼지를 먹이죠? {돼지 먹죠? 돼지를 먹이죠?}

10504 # 돼지 먹지. {돼지 먹지.}

10504 @1 비름 저 머 잎이 좀 있는 거죠? {비름 저 머 잎이 좀 있는 거죠?}

10504 # 예, 잎이 조금씩 고래 잇고 줄거리가 빨징고, {예, 잎이 조금씩 그렇게 잇고 줄거리 가 빨징고,}

10504 @1 그 개비름인가? {그 개비름인가?}

10504 # 소비름이라 하대. 소비름, 그거 당노 잇는 사램이 그리 좋다네. 그 비름이. {소비름 이라 하더라. 소비름, 그것은 당노 잇는 사램이 그렇게 좋다더라. 그 비름이.}

10504 # 어제도 내가 그 가아들 밭에 저 오나칙이도 내 가아들 마당에 뜯어내빼리고, {어제 도 내가 그 애들 밭에 저 오늘 아침에도 내 그 애들 마당에서 뜯어내고,}

10504 @1 여 잎이 작고 저 빨간 줄기 잇는 것. {여 잎이 작고 저 빨간 줄기 잇는 것.}

10504 # 여 나가머 여 썬어. {여기 나가면 여기 많아.}

10504 @2 그 오늘 그거 우리 그 마당에서 했던 거 그것이 비름이에요? {그 오늘 그거 우리 마당에서 했던 그것이 비름이에요?}

10504 # 그래. 그 줄거리 빨징고 이, 이퍼리가 요래 요래 요매끔 해. {그래. 그 줄거리 빨징 고 이, 잎이 요래 요래 요만큼 해.}

10504 @1 작구요, 요만큼 한 것. {작고요, 요만큼 한 것.}

10504 # 맞아, 그 여 썬어. 그것도 머엇에 좋아요? {맞아, 그 여기 많아. 그것도 머엇에 좋아요?}

10504 @1 아니, 그것 말고, 나물 해먹는 비름 있지요? {아니, 그것 말고, 나물 해먹는 비름 이 있지요?}

10504 # 잇어요, 그 비름 잇어요. {잇어요, 그 비름 잇어요.}

10504 @1 그것은 무슨 비름입니까? {그것은 무슨 비름입니까?}

10504 # 머, 그거는 저기, 이거 빨건거 그거는 소비름이라 하고, {머, 그것은 저기, 이거 빨

건 것 그것은 소비름이라 하고,}

10504 @1 소비름이고, {소비름이고,}

10504 # 그 서간도 지심이라 하데. 한국에 잇일 책에 {그 서간도(백두산 부근의 만주 지방)에서 김이라 하더라. 한국에 있을 때}

10504 @1 그냥 지심. 그 지심이 잡풀이잖습니까? {그냥 김. 그 김이 잡풀이잖습니까?}

10504 # 그 서간도 풀이라고 그래데. {그 서간도 풀이라고 그러더라.}

10504 @1 서간도? {서간도?}

10504 # 그전에 옛날에 이거 서간도라 했다 하데요. 여게가. {그전에 옛날에 이곳을 서간도라 했다고 하데요. 여기가.}

10504 @1 예, 예. {예, 예.}

10504 # 만주국 그 만주는 그 두 번째고 서간도 기슭이라 그래데. {만주국 그 만주는 그 두 번째고 서간도 김이라 그러더라.}

10504 @1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요?}

10504 # 그케 한국에서 그째 그걸 가 서간도 기슭이라 하데. {그러게 한국에서 글썽 그것을 서간도 김이라 하더라.}

10504 @1 예, 예. {예, 예.}

10504 # 서간도 기슭. 그거는 머 해 썰어 디치 무쳐나도 아무 잔 맛도 없고 그래. {서간도 김. 그것은 머 삶아서 데쳐 무쳐나도 아무 잔 맛도 없고 그래.}

10504 # 저 문이 와 덜 열렸노? 더 열었부라. 하나 더 열었부라 이거. {저 문이 왜 덜 열렸나? 더 열어라. 하나 더 열어라 이거. (단힌 창문을 보고 하시는 말씀)}

10504 @1, 2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고 올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고 올게요.}

10504 # 아니 여게서, 안에 방안에서 이거 말이야. {아니 여기서, 안에 방안에서 이것 말 이야.}

10504 @1 방안의 것? {방안의 것?}

10504 # 야, 이거 이래 제끼낫부리. {야, 이것을 이렇게 젓혀 놓아라.}

1.4.3. 나물 캐는 도구

10506 @2 할머니 나물 캐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예요? 달리는 뭐로 캐요? {할머니 나물 캐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예요? 달래는 무엇으로 캐요?}

10506 # 달리? 호미가 캐지. {달래? 호미로 캐지.}

10506 @2 호미? {호미?}

10506 # 응, 호미가 캐지. {응, 호미로 캐지.}

10506 @2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10506 # 더 광초(중국말-삽), 수군포라 해. 그거 그 한국에서는 그 일본말이고 한국 사람은 수군포라 하지 머. {저 광초, 수군포라 해. 그것은 그 한국에서는 그 일본말이고 한국 사람은 수군포라 하지 머.}

10506 @1 네. {네.}

10506 # 그거 까도 캐고, {그거 가지고도 캐고,}

10506 @2 네, 달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민들레 할 때는요? {네, 달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민들레 할 때는요?}

10506 # 민들레 할 제게는 칼 가지고 우리 했어. {민들레 할 적에는 칼 가지고 우리 했어.}

10506 @2 다 칼로 했어요? {다 칼로 했어요?}

10506 # 뿌래이 멀라머 캐야 대지 머. {뿌리 먹으려면 캐야 되지 머.}

10506 @2 그러네요. 예, 어디에다 담아 와요? {그러네요. 예, 어디에다 담아 와요?}

10506 # 머 아무께나 그 머 하나 가주가가 시킨 캐가 오지. {머 아무테나 그 머 하나 가지고 가서 실컷 캐서 오지.}

10506 @2 음, 바구니 들고, 바구니에다 담아 와요? 이전에는 뭐 소쿠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소쿠리예요? {음, 바구니 들고, 바구니에다 담아 와요? 이전에는 뭐 소쿠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소쿠리예요?}

10506 # 대나무 가지고 요렇게 맨들어가 그 사가 썬는 거, 그걸 소쿠리라, 대소구리라 그래. {대나무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그 사서 썬는 것, 그것을 소쿠리라, 대소구리라 그래.}

10506 @2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10506 # 있어. {있어.}

10506 @2 아직도 있어요? 할머니 지금도 달리 캐러 다니시고 하세요? {아직도 있어요? 할머니 지금도 달래 캐러 다니시고 하세요?}

10506 # 내가 달리 캐로 가네? 내가 그 웅결(인명)레 집에 가는데도 그으커리 힘이 드는데 달리 캐로 가네나? 못 가지. {내가 달래 캐러 가네나? 내가 그 웅결이네 집에 가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달래 캐러 가네나? 못 가지.}

1.4.4. 나물 캐던 추억

10507 @2 그럼, 이제 가지 마세요. 그래 먼데까지, 전화로 하세요. {그럼, 이제 가지 마세요. 그래 먼데까지, 전화로 하세요.}

10507 # 머, 누구를? {머, 누구를?}

10507 @2 웅결이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오라고 하세요. 웅결이 아버지한테. {웅결이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오라고 하세요. 웅결이 아버지한테.}

10507 # 머어 할라고? {머 하려고?}

10507 @2 아니, 이제 흑시라도 일 있으면 {아니, 이제 흑시라도 일 있으면}

10507 #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전하 호마(중-번호) 옛날 꺼라서 지금 새로 핸드폰 전하 호마로 해야지 머.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전화번호 옛날 것이라서 지금 새로 핸드폰 전화번호로 해야지 머.}

10507 @2 핸드폰. {핸드폰.}

10507 # 그걸 전하 호말 적어 나아야지. {그것을 전화번호를 적어 놓아야지.}

10507 @2 할머니 예전에 나물을 캘 때 흑시 짐승이나 뭐 뱀이나 그런 것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할머니 예전에 나물을 캘 때 흑시 짐승이나 뭐 뱀이나 그런 것을 만난 적이 없어요?}

10507 # 와 없어, 뱀이가 썰지. {왜 없어, 뱀이 많지.}

10507 @2 어디에 있을 때요? {어디에 있을 때요?}

10507 # 산에 {산에}

10507 @2 상가자 있을 때요? {상가자 있을 때요?}

10507 # 여기는 그런 거 없어. 뱀 없어.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 뱀 없어.}

10507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507 # 그 달아나지. 피해가야지. {그 달아나지. 피해서 가야지.}

10507 @2 뱀이 있을 때 할머니가 곧바로 뛰어가면 뱀이 따라가잖아요? {뱀이 있을 때 할머니가 곧바로 뛰어가면 뱀이 따라가잖아요?}

10507 # 아이라, 곧바로 떠머 안 대, 옆으로 비끼야지, 옆으로 비끼야 대. {아니라, 곧바로 뛰면 안 돼, 옆으로 비켜야지, 옆으로 비켜야 돼.}

10507 @2 뱀을 따돌리는 거예요? {뱀을 따돌리는 거예요?}

10507 # 그래, 뱀 그 놈이 쪽바로 잘 가거등. {그래, 뱀 그 놈이 곧바로 잘 가거등.}

10507 # 그래 쪽바로 가며 그 뱀이 그 쪽 따러 오며 어떻게? 옆으로 갓부리야지. {그래 곧바로 가면 그 뱀이 그 쪽 따라 오면 어떻게? 옆으로 가야지.}

10507 @2 거기 그때는 독사도 있었어요? {거기 그때는 독사도 있었어요?}

10507 # 도옥사도 잊지, 그래가주고 한분은 우리 종시땡에가 저어 쓰태자로 이사 갓거등. {독사도 잊지,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종시땡이 저기 쓰태자로 이사 갓거등.}

10507 # 갓는 사램이 막 우리 집창 같이 올라고 그래 애를 써도. {갓는 사람이 막 우리 집이랑 같이 오려고 그래 애를 써도.}

10507 # 그 아들이 그 집 아하고 싸워가 일을 저지러부리가주고 그래 모 오고, 우리한테로 모 오고, {그 아들이 그 집 애하고 싸워서 일을 저질러서 그래 못 오고, 우리한테로 못 오고,}

10507 # 인제 그리로 갔다. 그 그 어마이가 콩발에, 강내이를 내가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갔다. 그 그 엄마가 콩발에, 옥수수를 내가 이렇게}

10507 # 우리 저 경희 뒤발매로 강내이 줄강내이를 여났더이. {우리 저 경희네 뒷발처럼 옥수수, 찰옥수수를 싱어 놓았더니.}

10507 # 그거 꺾으루 드갓다 독새한테 물리가 왔대. {그것을 꺾으러 들어갔다가 독새한테 물려서 왔더라.}

10507 @2 예. {예.}

10507 # 독새한테 물리가 왔는데 온 식구가 보이 막 기가 찬다 말이야. {독새한테 물려서 왔는데 온 식구가 보니 막 기가 찬다 말이야.}

10507 # 이 발이 말이야, 시이킴해져서 막 썬애카망게 막 돌디걸이 붓지 머 예. {이 발이 말이야, 시커멓게 되어 막 시커멓게 막 돌덩이같이 붓지 머.}

10507 @1 그 정도면 큰일인데. {그 정도면 큰일인데.}

10507 # 그럼요, 그래가 아이구 자꾸 막 걱정하다가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대노? 날 불러. {그럼요, 그래서 아이고 자꾸 막 걱정하다가,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불렀어.}

10507 @1 예. {예.}

10507 # 나를 부리께 내 가야만 생각했어, 생각하이 양재물이라고 잊잖아. {나를 부르니까

내가 가만 생각했어, 생각하니 양재물이라고 있잖아.}

10507 @2, 3 예, 예. {예, 예.}

10507 # 재물 저님이 독을 빼는데 싫어가, 아아들보고 너 물 약간 미지근하게 뜨사가 세
숫대 한 세숫대 담어오라. {재물 저 것이 독을 빼는데 싫어서, 애들보고 물 약간 미지
근하게 덥혀서 세숫대에 한 세숫대 담아오라.}

10507 # 그레이, 담아왔대. 그 내가 막 양재물을 듬뿍 마이 깨었어, 깨여가. {그러니 담아왔
더라. 그래 내가 막 양재물을 듬뿍 많이 깨어 넣었어, 깨 넣고.}

10507 # 그 녀를 풀어가주고 다 썬어, 풀어가 그래 '형님 여 당과요. 양재물에 당과요.' {그
거를 풀어가지고 다 썬고, 풀어서 그래 '형님 여기 담가요. 양재물에 담가요.}

10507 # 그래 여 높은 거 갖다 얹혀놓고 여 양재물에 당과가 한나절 내애 그녀를 당과가
주무리고 그래하이. {그래서 여기 높은 것을 갖다 얹혀놓고 여기 양재물에 담가서 한
나절 내애 그 녀를 담가서 주무르고 그렇게 하니.}

10507 # 막 씨꺼먼기 쫘 덜해지고 그 뽕뽕하던기 쫘 물러졌어. {막 시커멓던 것이 쫘 덜해
지고 그 뽕뽕하던 것이 쫘 물러졌어.}

10507 # 그래가 그 이튿날 또 그래고 또 그래고 그래가 내가 곤췌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곤췌다.}

10507 # 그 독새한테 물렌 거. {그 독새한테 물린 것.}

10507 @1 근데 그거 오래 놔두면 죽거든요. {근데 그거 오래 놔두면 죽거든요.}

10507 # 그럼요, 마구 온 전체가 막 독이 올라가 크일 나지. 죽췌. {그럼요, 마구 온 전체가
막 독이 올라서 크일 나지. 죽췌.}

10507 @1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10507 # 병원에 가도 얼럭 그거 모은그래요. {병원에 가도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해요.}

10507 @1 병원에 가면 이제 독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독 해독제가 있
어야 되는데,}

10507 # 예, 글췌, 그때는 그런 것도 잘 없었어. {예, 그렇췌, 그때는 그런 것도 잘 없었어.}

10507 # 마구 막 부우가주고 저 독새한테 물레노이께 부우가주고, {마구 막 부어 가지고 저
독새한테 물리니까 부어 가지고,}

10507 # 췌애카만기 돌띠겜이 부었어. 그래가 집에다 얹혀 놓고 걱정하다가 하다가 날 부리
데. {시커먼 것이 돌덩이같이 부었어. 그래서 집에다 얹혀 놓고 걱정하다가 하다가 날
부르더라.}

10507 # 그래 불러가, 내 가만 생각해보이 재물이 독을 빼는데 그 생각이 나가. {그래 불
러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재물이 독을 빼는데 그 생각이 나서.}

10507 # 아아들보고 물 쫘 민거하이 뜨사래해가 그래 막 양재물 그 녀를 내가 마이 여가 막.
{애들보고 물 쫘 미지근하게 덥혀서 그래 막 양재물 그거를 내가 많이 넣어서 막.}

10507 # 풀어가 녹췌어. 녹과가 '형님, 여 발 여 쫘 잠깐 담가 보래요.' {풀어서 녹췌어. 녹
여서 '형님, 여기 발 여기 쫘 잠깐 담가 보래요.}

10507 # 그래 담구이께네 대반 쫘 하마 많이 시원한 감이 드더라 기래. {그래 담그니까 바
로 쫘 많이 시원한 감이 들더라 그래.}

10507 # 그래가 자꾸 췌고 주무리고 자아꾸 한나절 내애 그레이께 지녁 때 대이께 이기 쫘
실룩해졌어. {그래서 자꾸 췌고 주무르고 자꾸 한나절 내애 그러니까 저녁 때 되니까

이것이 좀 내려갔어.}

10507 # 실룩해지, 그 이튿날 또 그래고 또 그래고 그걸가 낫앗엇구마, 양재물가주고 {내려가지, 그 이튿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나왔엇지, 양젯물 가지고}

10507 @2 할머니, 명의를시네요. 명의, 그런 유명한 의사시네요. {할머니, 명의를시네요. 명의, 그런 유명한 의사시네요.}

10507 # 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저기 독을 빼는데 그 생각이 나가. {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저기 독을 빼는데 그 생각이 나서.}

10507 @1 예, 가만히 있으면 죽죠. {예, 가만히 있으면 죽죠.}

10507 # 예, 그 놔두면 크일 나죠. 대번에. {예, 그 놔두면 큰일 나죠. 바로}

10507 @1 큰일 아니라 죽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죽습니다.}

10507 # 죽어요. {죽어요.}

10507 @1 예, 이 심장까지 가면은 죽지요. {예, 이 심장까지 가면은 죽지요.}

10507 # 예, 죽지요. {예, 죽지요.}

10507 @2 별이랑 뭐 만난 적은 없어요? 별 쏘이고 그런 적은 없어요? {별이랑 뭐 만난 적은 없어요? 별 쏘이고 그런 적은 없어요?}

10507 # 왜 그런 일이 없어. 많지. {왜 그런 일이 없어. 많지.}

10507 @2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쏘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쏘였었어요?}

10507 # 내도 한분 쏘이 봤어. 그 청초 비로 가가 그 여름에 왜요. {나도 한번 쏘여 봤어. 그 청초 배려 가서 그 여름에 왜요.}

10507 # 그, 그 거름 장만한다고. {그, 그 거름 장만한다고.}

10507 @1 예. {예.}

10507 # 사원들이 다 가가주고 그 가가주고 어예 머 여 어데 어찌게 쏘잇지 머. {사원들이 다 가서 그 가서 어떻게 여 어디에 어떻게 쏘였지 머.}

10507 # 그런 땡땡, 저 참벌 아이고, 땡땡 그 녀 독이 썰지 또. {그런 땡땡, 저 참벌 아니고, 땡땡 그 놈 독이 세지 또.}

10507 @1 그것도 예. {그것도 예.}

10507 # 그 독이 썰요. 그래가 여거데 한방 쏘잇지머. 쏘이께 머 부가주고 눈이 안보이키 붓다 말이야. {그 독이 세요. 그래서 여기어디에 한방 쏘였지 머. 쏘이니까 머 부어가지고 눈이 안보이게 부었다 말이야.}

10507 # 아, 그래가주고 집에 와가주고 비노 빨래 씻는 비노 그념을 문땃어. {아, 그래서 집에 와서 비누 빨래 씻는 비누 그거를 문땃어.}

10507 # 그 녀 막 이래 문대이께 대반에 덜 덜 따갑고야, 안 버어오르데. {그거를 막 이래 문대니까 대반에 덜 덜 따갑고, 안 부어오르더라.}

10507 # 그래가 그걸 그걸로 가 나샷어요. {그래서 그것 그것으로 나왔어요.}

10507 # 옛날에는 그 병원은 멀고 {옛날에는 그 병원은 멀고}

10507 @1 그래, 그렇죠. {그래, 그렇죠.}

10507 # 예, 그래가주고 그런 조약으로 해가주고 마이 그랫어요. {예, 그래서 그런 조약으로 해서 많이 그랫어요.}

10507 @1, 2 옛날 사람들은 참, 땡땡이 때를 지어가지고 안 다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땡땡이 때를 지어서 안 다닙니까?}

10507 # 으, 그놈 땡땡 침도 길어요. {으, 그 놈 땡땡 침도 길어요.}

10507 @1 예. {예.}

10507 # 그 한방 쏘이노마 독이 대단해 그기. {그 한 방 쏘이면 독이 대단해 그것이.}

10507 # 그래가 막 뚜웅똥 부가주고는 막 눈도 보이치도 않게 붓고 막 이랬지 머. {그래서 막 똥똥 부어 가지고 막 눈도 보이지 않게 붓고 막 이랬지 머.}

10507 # 그래고 비눌, 집에 와가 빨래비노 그념을 가지고. {그래서 비누를, 집에 와서 빨랫 비누 그거를 가지고.}

10507 # 그래 물에 적서가주고 막 이래 문대고 그래이께 줌 대번 덜 따가운 거 곁애. {그래 물에 적서가지고 막 이래 문대고 그러니까 줌 바로 덜 따가운 것 같아.}

10507 @1 예. {예.}

10507 # 그러디 그 늘 그념 바리고 그래. {그래서 그 늘 그거를 바르고 그래.}

10507 @1 알카리 산성 이렇게 중화를 시켜요. {알카리 산성 이렇게 중화를 시켜요.}

10507 # 그 그래가 나샷어. 아, 그래가주고 또 그 우리 인는 그 주동무라고 그 사램이 또. {그 그래서 나샷어. 아, 그래서 또 그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주동무라고 그 사람이 또.}

10507 # 어 청초 비러 가가 무다이 코에 피가 그래 마이 나지 머. {어 청초 베러 가서 무단 히 코에 피가 그래 많이 나지 머.}

10507 @1 무단히요? {무단히요?}

10507 # 예, 어데 다치지도 앓고 코에 피가 어얼매 흐르는지. {예, 어디 다치지도 앓고 코에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10507 # 감당도 못해요. 막 막아도 안 대고 머 피가 어얼매 흐르는지 나양주에는 막 그 보 인이 울어요. {감당도 못해요. 막 막아도 안 되고 머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나중에는 막 그 본인이 울어요.}

10507 @1 예. {예.}

10507 # 아, 그래가주고 산에 가이 머 어엘 수가 있나? {아, 그래서 산에 가니 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10507 # 아이구, 그래, 그래 생각해가 그전에 꼬무신 신고 땡깃다 말이야. {아이고, 그래, 그 래 생각해서 그전에 고무신 신고 다녔다 말이야.}

10507 @1 예, 예. {예, 예.}

10507 # 그래 내가 신짱을 벗어가 어데 온데 탁 찻이이께 물이 어데 졸졸 내려오데. {그래 내가 신짱을 벗어서 어디 도처에 탁 찻으니까 물이 어디에서 졸졸 내려오더라.}

10507 @1 예. {예.}

10507 # 꼬모신 신짱을 맨발로, 신짱을 벗어가 물을 한 신짱 담아가 와가. {고무신 신짱을 맨발로, 신짱을 벗어서 물을 한 신짱 담아 와서.}

10507 # 여다 막 찻어. 여기다 치이께 대반 피가 밋이더라고. {여기에다 막 찻어. 여기다 치 니까 바로 피가 밋더라고.}

10507 # 내가 그런 생각 더러 퍼뜩퍼뜩 나, 나던기라. 그래가 피가 밋엇어. {내가 그런 생각 이 퍼뜩퍼뜩 나, 나던 것이었어. 그래서 피가 밋엇어.}

10507 # 아이고, 내 그래가, 그래가 그 사램들이 다 윗엇다. {아이고, 내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램들이 다 웃엇다.}

10507 # 야 회안한 일이다. 아이 그전에 코에 피나게 대마 여게 물 치마 피가, 코에 피가

벗어. {야 희한한 일이다. 아니 그 전에 코에 피나게 되면 여기 물 치면 피가, 코에 피가 벗어.}

10507 @2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10507 # 여기 여 골에, 골에 물을, 물을 축축 쳐노머 피가 대반 벗어.{여기 여 골에, 골에 물을, 물을 축축 쳐놓으면 피가 바로 벗어.}

10507 # 그래 그기 의사들 하는 말이 '대반 피 너무 벗어도 안 댄다'고 그래. {그래 그곳 의사들이 하는 말이 '바로 피가 너무 벗어도 안 된다'고 그래.}

10507 # 그래도 급한데 어예노? 피 벗이도록 맨들어야지. {그래도 급하니 어떻게 하나? 피가 벗도록 만들어야지.}

10507 # 그래가 그 사램이 그래가 막 울고 그랬어. 피가 너무 나오이께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울고 그랬어. 피가 너무 나오니까.}

10507 # 그런데 그 어데 이 온데 물 찾는다고 찾이께 물 쪼오꿈 내리오데. {그런데 그 어디에 이 도처에 물 찾는다고 찾으니까 물 조금 내려오더라.}

10507 # 물을 그 산에, 가 머 그릇 씻나 머가 해요? {물을 그 산에 가서 머 그릇 씻나 머 해요?}

10507 @1 예. {예.}

10507 # 꼬무신이 맨발로, 신 벗고 맨발로 댕기면서 꼬무신에다 물 한 신짝 가와가 {고무신을 맨발로, 신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고무신에다 물 한 신짝 가지고 와서}

10507 # 여리 이래 치이께네, 첫 분에 겁이 나 마이 안 치고 이래, 이래 첫어. {여기 이렇게 치니까, 첫 번에 겁이 나서 많이 못 치고 이래, 이래 쳤어.}

10507 # 치이께 고마 피가 벗어요. {치니까 그만 피가 벗어요.}

10507 @1 예, 찬 것이니까요. {예, 찬 것이니까요.}

10507 # 예야, 너무 각중에 그래머 안 댄다 싶어가 첫 분에 요래 약간, 약간 요래 했더니. {예야, 너무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첫 번에 이렇게 약간, 약간 요렇게 했더니.}

10507 # 그 피가 벗이께 그래 울다가 대반에 고마 그치더라고. {그 피가 벗으니까 그래 울다가 바로 그만 그치더라고.}

10507 # 피가 너무 나오이 죽지 싶어가 운다 말이야. 자꾸 울었어, 젊었는데 영 젊었는데, {피가 너무 나오니까 죽지 싶어서 운다 말이야. 자꾸 울었어, 젊었는데 아주 젊었는데.}

10507 @2 할머니 병원이나 차리시지요? {할머니 병원이나 차리시지요?}

10507 @1, 2 의사를 하셔야 해요. 혹시 짐승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의사를 하셔야 해요. 혹시 짐승 만난 적은 없었어요?}

10507 # 짐승 만난 적은 없어. 한 분은 그랬어. {짐승 만난 적은 없어. 한 번은 그랬어.}

10507 @2 예. {예.}

10507 # 소대에 일이 바빠가주고 막 그때 오후에 팡짜(중국말-휴식)했다 말이야. {조합에 일이 바빠 가지고 막 그때 오후에 휴식했다 말이야.}

10507 # 오후에 여 중국말로 팡짜라. {오후에 여 중국말로 팡짜라.}

10507 @2 팡짜가 뭔데요, 팡짜? {팡짜가 뭔데요, 팡짜?}

10507 # 그래 오후에 그래 인제 팡짜해가 그 대장한테 물었어. {그래 오후에 그래 이제 휴식해서 그 대장한테 물었어.}

10507 # '놀러가, 우리 산에 나물하러 가까?' 카이 '갈라면 가라' 그래. {'놀러가, 우리 산에 나물하러 갈까?' 그렇게 말하니 '가려면 가라' 그래.}

10507 # 갈라면 가라 해가주고 그 뗏이서 인제 가는데 그날 또 공일이네. {가려면 가라 해서 그 뗏이서 이제 가는데 그날 또 주말이네.}

10507 # 공일이라서 아아들 내 혼자 가 한 주먹 꺾니, 아아들 디리구 가가 두 주먹 안 꺾겠나 싶어가. {주말이라서 애들 나 혼자 가서 한 주먹 꺾니, 애들 데리고 가서 두 주먹 안 꺾겠나 싶어서.}

10507 # 모두 인제 디리구 갔다. 아아들 다 디리구 갔다. {모두 이제 데리고 갔다. 애들 다 데리고 갔다.}

10507 # 디리구 가가주고 하다 보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대마 저어짜 건네 산 보며 또. {데리고 가서 하다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저 쪽 건너 산을 보면 또.}

10507 # 해가 마이 있는 거 겠지. 그래 해가 마이 있는 거 겠애가 우리 저 산에 한 분 건네 갔다가 집에 가며 안 대겠나? {해가 많이 있는 것 같지. 그래 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저 산에 한 번 건너갔다가 집에 가면 안 되겠나?}

10507 # 그까, 한 칸을 더 건네가가 또 나물한다. 하다나이 고마 또 해가 넘어갈라하이 산에서 고마 껌껌해진다 말이야. {그러면서 한 칸을 더 건너가서 또 나물한다. 하다나니 그만 또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 산에서 그만 껌껌해진다 말이야.}

10507 @1 네. {네.}

10507 # 껌껌해지이게 아아들은 디리구 왔지. 겁이 얼마 나노? {껌껌해지니까 애들은 데리고 왔지. 겁이 얼마나 나나?}

10507 # 막 그래가 막 그 전부 그 사람들이 한목에 막 뭉쳐가주고, {막 그래서 그 전부 그 사람들이 한곳에 막 뭉쳐가지고,}

10507 # 이제 산길을 이래 타고 내려온다. 내려온데 한 군데 내려오이게네. {이제 산길을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한 군데 내려오니까.}

10507 # 뜨신 짐이 화끈하이 나지 머요. {뜨신 짐이 화끈하게 나지 머요.}

10507 @1 응. {응.}

10507 # 뜨신 짐이 화끈하이 나는데 그때는 마다, 모두 누이 막 똥그레이해가, {뜨신 짐이 화끈하게 나는데 그때는 모두, 모두 누이 막 똥그래서,}

10507 # 막 시시마꿈 아아들 다 찾아 뿔들고 이래가 내려온다, 내려 오다나이. {막 제가꿈 아이들 다 찾아 붙들고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 오다나니.}

10507 # 그래 지내 나왔는데 막 동네에서 난리가 났네. {그래 지내 왔는데 막 동네에서 난리가 났네.}

10507 # 오후에 와가 그거 큰 산을 이산 저산 땡기났으이 얼마 저물어겠노? {오후에 와서 그 큰 산을 이산 저산 다녔으니 얼마나 저물었겠나?}

10507 # 동네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네, 산애가 아아들 디리구 산에 가디 여지껏 아왔다고 막 생 야다이 나. {동네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네, 산에 애들 데리고 산에 가더니 여태껏 안 왔다고 막 야단이 났어.}

10507 # 그래 한 집에는 막 큰 강가에꺼정 나왔고, 그 그담에 고 그 작은 강 그 아까 말 맞다나 그 보 막어난는데 그 다 와가 야단나지. {그래 한 집에는 막 큰 강가에까지 나왔고, 그 그 다음에 그, 그 작은 강 그 방금 전의 말처럼 그 보를 막아놓았는데 그 다 와서 야단하지.}

10507 # 얼라들 잇는 사람은 얼라 젓 머얼라고 울지 머. {아기들 잇는 사람은 아기들이 젓 먹으려고 울지 머.}

10507 # 어른들은 막 산에 아아들 데리구 가가주고 죽을라며 혼자 죽지 와 아아들은 왜 데리구 갔노? {어른들은 막 산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아이들은 왜 데리고 갔나?}

10507 # 막 난리가 났어. 동네 들어오이께. 그래디. 그런데 야들 할배는 안 나오지 머, 안 나왔어. {막 난리가 났어. 동네 들어오니까. 그러더라. 그런데 이 애들 할아버지는 안 나오지 머, 안 나왔어.}

10507 # 그래 내가 가이께, 그래 인제 그 또 자잘곳은 우리 동무가 하나 네살, 내보다 한살 작은 기 잊지. {그래 내가 가니까, 그래 이제 그 또 익살맞은 우리 동무가 하나 네살, 나보다 한 살 작은 것이 있지.}

10507 # 그래 인제 그 저 가아들 할배가 골목에 나와 섰이이께. {그래 이제 그 저 그 애들 할아버지가 골목에 나와 서있으니까.}

10507 # 기랜다 앞디집 산데 '이동무요, 나물보떠 편질라며 우리 마다 편지요.' {그런다. 앞 뒷집 사는데. '이동무요, 나물보따리 던지려면 우리 마당에 던져요.'}

10507 # '그거 와 편지머 그 마다 말라 편지노?' '그 그래야 내가 좌가아지요.' {'그것을 왜 던지면 그 마당에 왜 던지나?' '그 그래야 내가 주어가지요.'}

10507 # 그래 자잘곳게 윗기던기야, 그래가 집에 와가 또 어얼매 머라 하노. {그래 익살맞게 웃기던 거야, 그래 집에 와서 또 얼마나 꾸짖고 하나.}

10507 # '죽고 싶우며 혼자가 죽지 와 아아들은 말라 데리구 갖게?' 막 그래 머라 하지. {'죽고 싶으면 혼자서 죽지 왜 아이들은 데리고 갔나?' 막 그래 꾸짖지.}

10507 # 그 우리 옆집에 이 별며이 빈 양철이야, 별명이 하도 말하는 게 떠들어가. 빈 양철이지. {그 우리 옆집에 이 별명이 빈 양철이야, 별명이 너무 말하는 것이 떠들어서, 빈 양철이지.}

10507 # '땃다, 이동무, 땃다 죽을라구 갔나? 나물 해가 먹고 살라구 갖는데 땃다.' {'땃다, 이동무, 땃다 죽으려고 갔나? 나물해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땃다.}

10507 # '시끄럽다, 땃다. 이 저녁이나 얼른 먹거로 해라 해라.' 인제 그카지 머. {'시끄럽다, 땃다. 이 저녁이나 얼른 먹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지 머.}

10507 # 그카게 아아무 소리 안하고 섰더라. 우리 시어마시는 알라를 업고 이 막 그랫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섰더라. 우리 시어머니는 아기를 업고 이 막 그랫는데,}

10507 # 저녁도 해야 대지, 알라 업고, 그 녀 젓 머얼라고 울지. {저녁도 해야 되지, 아기 업고, 그 애 젓 먹으려고 울지.}

10507 # 그래 시어마시도 막 골이 나서 골이 나도 머 어예노? {그래 시어머니도 막 화가 나서 화가 나도 머 어떻게 하나?}

10507 # 인제 그 사람 말 말따나 먹고 살라고 했는데 머 어야 겠노? {이제 그 사람 말처럼 먹고 살려고 했는데 머 어떻게 하겠나?}

10507 # 그래가, 그래 '아 젓을, 알라나 받아가 젓이나 먹이라.' 그레멘서 밥을 좌 들렀구. {그래서 그래 '아기 젓을, 아기야 받아서 젓이나 먹여라.' 그러면서 밥을 들여놓고.}

10507 # 그래 한 분 호온났어, 나물하러 갔다가 그키 호이 났다. {그래 한 번 혼났어, 나물하러 갔다가 그렇게 혼이 났다.}

10507 # 막 어떤 사람은 막 뺨에 나가가 과아암을 지르고 디로 머라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뺨에 나가서 고함을 지르고 크게 꾸짖고,}

10507 # '저녁 머어도 안 들어오고 먹으로도 안 들어오고, {'저녁 먹으로도 안 들어오고, 먹으로도 안 들어오고,}

10507 # 죽을라며 혼자 죽지 와 아아들은 말라 디리구 갓노?' 하고 난리하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아이들은 왜 데리고 갔나?' 하고 난리하지.}

10507 # 아아들 디리구 가면 일찍 오든지 하지, 그 깊은 산에가 아아들 디리구 오래 잇었다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일찍 오든지 하지, 그 깊은 산에 가서 아기들 데리고 오래 있었다고,}

10507 # 막 와가 난리를 하지 머. 그래 한번 나물하러가 그래 혼났다. {막 와서 난리를 하지 머. 그래 한번 나물하러 가서 그래 혼났다.}

10507 @2 많이는 해왔어요? {많이는 해왔어요?}

10507 # 응 나물은 아아들 디리구 가구 햇이이께 마이 해왔지. {응 나물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니까 많이 해왔지.}

10507 @3 무슨 나물을 해왔어요? {무슨 나물을 해왔어요?}

10507 # 고사리 껌우루 그래 가지. 참 살아나온데 얘기가 많다. {고사리 껌으러 그래 가지. 참 살아나온데 이야기가 많다.}

10504 @2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많아서 좋네요. 그럼 그것을 다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해먹어요, 고사리 같은 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러 왔는데 많아서 좋네요. 그럼 그것을 다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해먹어요, 고사리 같은 것은?}

10504 # 그거 집에 가주 와가 그 이튿날에 그날은 저물어가 모하고 골라가주고, {그거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에 그날은 저물어서 못하고 골라서,}

10504 # 새파랗게 디치가 발에다 피서 말랐잖아. {새파랗게 데쳐서 발에다 퍼놓고 말리잖아.}

10504 # 말라가 뭉쳐, 이래 뭉쳐 낫다가 겨울에 먹고 그래잖아. {말려서 뭉쳐, 이렇게 뭉쳐 놓았다가 겨울에 먹고 그러잖아.}

10504 @2 절이거나 그러지는 안 해요? 절꾸지는 안 해요? {절이거나 그러지는 안 해요? 절이지는 안 해요?}

10504 # 이 지금 보이께 절꾸테, 디쳐가주고 찬물에 헹거가주고 단지에다 절꾸테. {이 지금 보니까 절이더라, 데쳐서 찬물에 헹귀서 단지에다 절이더라.}

10504 # 막 그 이 퍼놓고 작년에 내 시고자 가보이께 그래테. {막 그 이 퍼놓고 작년에 나 시고자에 가보니까 그러더라.}

10504 # 퍼놓고 소금 허여이 허쳐놓고 그 어얼매 짹아? 그래야 안 빈하거든. 그 절가놓고 먹더라. {퍼놓고 소금을 하얗게 쳐놓고 그 얼마나 짜나? 그래야 안 빈하거든. 그 절여놓고 먹더라.}

10504 @3 그 파란 것 그대로도 먹어요? {그 파란 것 그대로도 먹어요?}

10504 # 퍼런 거 기양 미끄러워 못 머어. 그래가 저 그 절과났다가 나앙주에 물에 올갓부고 그래 먹는데, {파란 것 그냥 미끄러워 못 먹어. 그래서 저 그 절여놓았다가 나중에 물에 우리고 그렇게 먹는데,}

1.4.5. 여러가지 음식 담그기와 만들기

10508 @2 할머니 이 마을에서 주로 해먹는 주식은 뭐 있어요? 주식은 주로 밥 먹죠? 밥하고 국수? {할머니 이 마을에서 주로 해먹는 주식은 뭐 있어요? 주식은 주로 밥 먹죠?}

밥하고 국수?}

10508 # 머 국수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래. {머 국수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래.}

10508 @2 그리고 저 설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해요? {그리고 저 설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해요?}

10508 # 설에? 설에 밥이지, 고사리도 삶아다가 볶어놓고 그때는 온갖 고기 다 사다가 놓고. {설에? 설에 밥이지, 고사리도 삶아서 볶아놓고 그때는 온갖 고기 다 사다가 놓고.}

10508 #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10508 @2 설에는 주로 그것을 하잖아요. 할머니, 여기에서 뭐야? 떠올, 떠올?(떡명-팔속이나 콩고물을 넣은 떡) {설에는 주로 그것을 하잖아요. 할머니, 여기에서 뭐야? 떠올, 떠올?}

10508 # 돌쑈? {돌쑈?}

10508 @2 떠올쑈라고 안 그래요? {떠우쑈라고 안 그래요?}

10508 # 두부? {두부?}

10508 @2 아니요, 그 떡인데 안에 팔, 콩고물 넣고. {아니요, 그 떡인데 안에 팔, 콩고물 넣고.}

10508 # 그 아, 중국사람 떡이야. 돌쑈라고 이. {그 아, 한족사람 떡이야. 돌쑈라고 이.}

10508 @2 예, 조선족들은 안 해요? {예, 조선족들은 안 해요?}

10508 # 조선족들은 쌍가자 잇을 때 우리 더러 해가 열가 놓고 먹어 봤어. {조선족들은 쌍가자 잇을 때 우리도 조금 해서 열과 놓고 먹어봤어.}

10508 @2 할머니네는 뭐해요? {할머니네는 뭐해요?}

10508 # 만날 시리떡. {계속 시루떡.}

10508 @2 아, 시리떡하고 또 무슨 떡 해요? {아, 시루떡하고 또 무슨 떡을 해요?}

10508 # 그, 그 절편이라고, 흰떡 그런거 해고 추석에는 언제나 송편이야. {그, 그 절편이라고, 흰떡 그런 것 하고 추석에는 언제나 송편이야.}

10508 @2 송편 해요? {송편 해요?}

10508 # 추석에는 송편하고. {추석에는 송편하고.}

10508 @2 송편은 안에 무엇을 넣어요? {송편은 안에 무엇을 넣어요?}

10508 # 팔고물. {팔고물.}

10508 @2 그저 팔만 넣어요? 한국의 송편은 아주 다양하고 맛있어요. {그저 팔만 넣어요? 한국의 송편은 아주 다양하고 맛있어요.}

10508 # 맛있어? {맛있어?}

10508 @2 예, 예. {예, 예.}

10508 # 그 송편에 미나리 디쳐가주고 맛있게 해가 속 여니 거기 맛있더라고. {그 송편에 미나리 데쳐서 맛있게 해서 속 넣으니 그것이 맛있더라고.}

10508 @2 미나리? 그럼 그것은 송편이 아니고 나물떡이네요? {미나리? 그럼 그것은 송편이 아니고 나물떡이네요?}

10508 # 그래, 송편식으로 고래 해가 고 속에 나물 여가 거기 맛있어, 얼마든지 먹어내. {그래, 송편 식으로 그래 해서 그 속에 나물 넣어서 그것이 맛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10508 @2 그것은 나물떡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것은 나물떡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10508 # 그래, 그때 내가 한국에 가서 오이께네 우리 시어마시는 그런거 저런거 다 옮기 모 하데. {그래, 그때 내가 한국에서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옮게 못하더라.}

10508 @2 네. {네.}

10508 # 근데 그 그 우리 그 왜 그 우리 땅 붙인데 덧주자 받아먹고 하는 그 집 딸이. {그런데 그 그 우리 그 왜 그 우리 땅 부치는데 덧주자 받아먹고 하는 그 집 딸이.}

10508 # 이름이 연존데. {이름이 연조인데.}

10508 @2 네. {네.}

10508 # '형님, 여 우리 오늘, 우리 어제께 이런 떡 해멋어.' 카머 손에다 들고 왔어. {'형님,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어제 이런 떡을 해먹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손에다 들고 왔어.}

10508 @2 예. {예.}

10508 # 어른들 다 나갓부고 없는데 손에다 들고 그넘 주는기 어얼매 맛있던지 먹어봬어. {어른들은 다 나가고 없는데 손에다 들고 왔는데 그거가 얼마나 맛있던지 먹어봬어.}

10508 @2 예. {예.}

10508 # 미나리 이 떡 했는거, 그래 나양주에, 나양주에 내가 또 미나리 해가와가 해먹어보이. {미나리 이 떡 했는 것, 그래 나중예, 나중예 내가 또 미나리 해 와서 해먹어보니.}

10508 # 가가 갖다 주는 거마이 안 맛있지. {그 아기가 갖다 주는 것만큼 맛이 없어.}

10508 @2 아무래도 얻어먹은 것이 더 맛있어요. 미나리 이거 물가에 있는 그 미나리요? {아무래도 얻어먹은 것이 더 맛있어요. 미나리 이거 물가에 있는 그 미나리요?}

10508 # 아니, 그 미나리 아이다. {아니, 그 미나리 아니다.}

10508 @2 아니면요? {아니면요?}

10508 # 요 우리 밭에 조 미나리 조 마이 잇데. {요기 우리 밭에 저 미나리 저 많이 있지.}

10508 @2 아, 아. {아, 아.}

10508 # 내가 고 왕기났어. 그 약 해 줄라고. 왕기났디 잘 살아가 고고 내 한 분 비가 단지에 하여 낫다. {내가 그것을 옮겨놓았어. 그 약 해주려고. 옮겨놔더니 잘 살아서 그것을 내가 한 번에 베서 단지에 해 넣어 놓았다.}

10508 @2 그 춘자 그것 먹고 좋아요? {그 춘자 그것 먹고 좋아요?}

10508 # 응, 그 좋아. {응, 그 좋아.}

10508 @2 아이, 할머니나 드시면 되지 무슨 손녀까지 챙기세요? {아니, 할머니나 드시면 되지 무슨 손녀까지 챙기세요?}

10508 # 그 누구가 먹어도 좋데. {그 누가 먹어도 좋데.}

10508 @3 뭐, 뭐 넣어요? 미나리 넣고 또 뭐 넣어요? {뭐, 뭐 넣어요? 미나리 넣고 또 뭐 넣어요?}

10508 # 미나리하고 탕까리. {미나리하고 설탕.}

10508 # 미나리 썬엇부고 물 빼아가 단지에 차계차계 옹고, 탕까리 허어옹게 뿌리고. {미나리 썰고 물 빼서 단지에 차례차례 넣고, 설탕 하얗게 뿌리고.}

10508 # 또 한층 옹고 탕까리 뿌리고 그래가 탕까리 마이 옹고 그래. {또 한층 넣고 설탕 뿌리고 그래서 설탕 많이 넣고 그래.}

10508 @1 매실 담그는 것이랑 같네요. {매실 담그는 것이랑 같네요.}

10508 # 그 백일요. 백일을 묻어 나. 여 적어났어. {그 백일요. 백일을 묻어 놓아, 여기에 적어 놓았어.}

10508 # 백일 만에 캔다고 내 여 딱 적어 낫어. {백일 만에 캔다고 내가 여기에 딱 적어 놓았어.}

10508 @3 물만 먹어요? {물만 먹어요?}

10508 # 물만. 건더기는 안 먹고 그래, 그래 먹어이께, 그래 춘자 겨울방학에 와가 먹어이께. {물만 먹어. 건더기는 안 먹고 그래, 그래 먹으니까, 그래 춘자 겨울방학에 와서 먹으니까.}

10508 # 저 큰엄마들이 와가 이래 씹어보고. {저 큰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씹어보고.}

10508 # '금 건더기는 우리 먹으며 안대요?' {'그러면 건더기는 우리 먹으면 안돼요?}

10508 # '너저 먹을 수 잇이며 먹어라.'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10508 # '이거 먹어보이 일없네요, 아무치도 않네요.' 그래. {'이것 먹어보니 괜찮네요.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래.}

10508 @2 아. {아.}

10508 # 그 달큰하이 괜찮애. 너저 먹을 수 잇이며 먹어라. {그 달큰한 것이 괜찮아. 너희들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10508 @2 좋은 것은 춘자 먹고 건더기는 그 큰엄마들이 먹고. {좋은 것은 춘자 먹고 건더기는 그 큰엄마들이 먹고.}

10508 # 응, 물은 춘자 믹엿코 저 큰어마이들이 먹을마 하면 머라고 내가 그래. {응, 물은 춘자 먹이고 저 큰엄마들이 건더기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내가 그래.}

10508 # 그 씹어 먹는데 그 쪼끔 먹으며 그메이지 그 먹나? 그거. {그 씹어 먹는데 그 조금 먹으면 그만이지 그 먹나? 그거.}

10508 @2 그럼 큰엄마들도 물 먹어라 그래야지요. 그때는 같이 다 먹어야죠. {그럼 큰엄마들도 물 먹어라 그래야지요 그때는 같이 다 먹어야죠.}

1.4.5.1. 고추장 담그기

10514 @2 할머니 고추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할머니 고추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10514 # 꼬장? {고추장?}

10514 @2 예, 꼬장. {예, 고추장.}

10514 # 그전에는 엿 파가주고, 엿을 쌀 가주고 밥해가 엿질금 여가. {그전에는 엿을 과서, 엿을 쌀 가지고 밥해서 엿기름 넣어서.}

10514 # 삭파가주고 그 엿을 그 찻부고, 딸이가 엿을 딸아가주고. {삭혀서 그 엿을 그 짜고 달여서 엿을 달여서.}

10514 # 엿매로 그마이 안 딸이고 그 머얼쭈루마이 딸이가주고 그래가주고 인제. {엿처럼 그만큼 달이지 않고 그 멀쭈하게 달여서 그래서 이제.}

10514 # 그 시과가주고 시과가주고 꼬치까리 후리나앗다가 또 소금 여가 젓어나앗다가. {그 식혀서, 식혀서 고춧가루를 저어 놓았다가 또 소금 넣고 저어 놓았다가.}

10514 # 나양제에는 더 맛있게 할라머 꿀도 붓코. {나중에는 더 맛있게 하려면 꿀도 붓고.}

10514 # 어 꿀 없이며 탕까릴 여도 열고 그래 하며 대. 그 안 어렵어. {어 꿀 없으면 설탕을 넣어도 넣고 그래 하면 돼. 그 어렵지 않아.}

10514 # 꼬장하는 거, 아 어렵어. {고추장하는 것, 어렵지 않아.}

10514 @2 안 어려워요? 우리는 다 몰라요, 된장은요? {안 어려워요? 우리는 다 몰라요, 된장은요?}

10514 # 댄장은 미주 그 저 미주 그것도 어 시월 동지 달에 끓이고 이. {된장은 메주 그 저 메주 그것도 어 시월 동지 달에 끓이고 이.}

10514 # 서얼달에는 안 끓이, 메주. {선달에는 안 끓여, 메주.}

10514 @2 응. {응.}

10514 # 서얼달에 안 끓이고 유월에 장 안 담고[당고], 유월 달에. {선달에 안 끓이고 유월에 장 안 담고, 유월 달에.}

10514 @2 응, 그래요? {응, 그래요?}

10514 # 응, 그래. 지금 유월 아이가? {응, 그래. 지금 유월 아니가?}

10514 @2, 3 예, 예. {예, 예.}

10514 # 음력 유월이 거등. 그 유월 달[딸] 장 안 담고 서얼달에 미주 안 끓이. {음력 유월이 거등. 그 유월 달 장 안 담고 선달에 메주 안 끓여.}

10514 # 시월, 시월 달에 끓이고 십일월 달에 끓이가, 여 구들에다 집안에다 나아가. {시월, 시월 달에 끓이고 십일월 달에 끓여서, 여기 구들에다 집안에 놓아서.}

10514 # 띄우거등. 띄야보며 요렇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보마 포나지며, 뜨는거. {띄우거등, 띄워보면 요렇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보면 포 나지 머, 뜨는 것.}

10514 @2 예. {예.}

10514 # 그래 뜬 다암에 그때는 어, 다 문지 털고 이래가주고 싸가주고 백에 내나아도. {그래 뜬 다음에 그때는 어, 다 먼지 털고 이렇게 해서 싸서 밖에 내놓아도.}

10514 # 그때는 얼어도 일없고, 안 얼어도 일없고, 그래 내나앗다가. {그때는 얼어도 괜찮고, 안 얼어도 괜찮고, 그래 내놓았다가.}

10514 # 삼월 삼진날부터 시작해 장 담어. {삼월 삼진 날부터 시작해서 장을 담아.}

10514 @2, 3 예. {예.}

10514 # 삼월 삼진날부터 장 담는데 난, 나는 언제나 식전에 담는다. {삼월 삼진 날부터 장 담는데 나는, 나는 언제나 식전에 담는다.}

10514 # 식전에 이거 퍼언(중-대야) 아이가? 편이라며 그 대소구리에다가. {식전에 이 것 대야 아니가? 대야라면 그 대소구리에다가.}

10514 # 소금을, 지금은 소금이 여영 보드랍아가 안 그래도 대. {소금을 지금은 소금이 아주 부드러워서 안 그래도 돼.}

10514 # 내 여 대소구리에다 채다리 짹 걸쳐놓고 대소구리에다가 소금을 한 서너 봉지 부우가. {나 여기 대소구리에 채다리 짹 걸쳐놓고 대소구리에다가 소금을 한 서너 봉지 붓고.}

10514 # 찰은 식전에 찰은 물이 이래이래 갇다 부우며, 소금이 슬슬 녹아. {차가운 식전에 차가운 물을 이래이래 갇다 부으면, 소금이 슬슬 녹아.}

10514 # 물이 줄줄 흐르거등, 그래머 찌끄래이 잇이며 앓화가주고. {물이 줄줄 흐르 거등, 그러면 찌꺼기 있으면 앓혀서.}

10514 @2 네. {네.}

10514 # 고래 인제 미주 다 좌영고 고래 물 쪽 딸아 붓고, {그래 이제 메주 다 넣고 그래 물 죽 따라 붓고.}

10514 # 그래머 그 장 대는대 머, 그래이 담어놓고 꼬치도 빨간 꼬치도 띄우고, {그러면 그

장 되는데 머, 그래 담아놓고 고추도 빨간 고추도 띄우고,}

10514 # 그 숯, 나무 태우는 숯 띄고, 그 넘도 몇 개 띄우고, 참깨도 몇 개 띄우고, {그 숯, 나무 태운 숯 띄우고, 그거도 몇 개 띄우고, 참깨도 몇 개 띄우고,}

10514 @2, 3 음. {음.}

10514 # 그래, 그래 낱지 머. 그 누가 아무나 못 들어다보거레이. {그래, 그래 놓지 머. 그 누가 아무나 못 들어다보게.}

10514 # 왜 새끼 그것 파가주고 이렇게 장 단지[장판지]에 금식을 딱 짜매나. {왜 새끼 그것을 파서 이렇게 장 단지에 금식을 딱 매 놓지.}

10514 @2 왜 다른 사람이 뜯어보면 안돼요? {왜 다른 사람이 뜯어보면 안돼요?}

10514 # 들야다보며 해나 안 깨끗은 사램이 들야바다 볼까 바. {들여다보면 혹시 안 깨끗한 사람이 들여다볼까 봐.}

10514 @3 아. {아.}

10514 # 그, 그래 금식 해놓지. {그, 그래 금식을 해놓지.}

10514 @2 아. {아.}

10514 # 그, 지금은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 안그래도 장맛만 있고 그래. {그, 지금은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 안 그래도 장맛만 있고 그래.}

10514 @2 아,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새끼로 해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새끼로 해놓았어요?}

10514 # 그래, 안 깨끗인 사램이 그 들야보까바. 그래, 금식을 딱 해 낱지. {그래, 안 깨끗한 사람이 그 들여다볼까 봐. 그래 금식을 딱 해 놓지.}

10514 # 그전에 몸 풀머 여 금식하잖아. {그전에 몸 풀면 여기 금식하잖아.}

10514 @2, 3 예. {예.}

10514 # 꼬치도 쪼고 숯경도 쪼고 금식하는대로 땡 그 식이야. {고추도 쪼고 숯도 쪼고 금식하는 것처럼 역시 그 식이야.}

10514 # 그 금식을 딱 그래 해 노마. {그 금식을 딱 그래 해 놓으면.}

그 안 깨끗인 사람 산모 어마이 있는데 안 들어온다 말이야. {그 안 깨끗한 사람이 산모 어머니 있는데 안 들어온다 말이야.}

@3 예. {예.}

10514 # 그래, 그 그 식이라. {그래, 그 그 식이라.}

10514 @2 응, 그렇군요. 그러면 장아찌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응, 그렇군요. 그러면 장아찌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10514 # 장에 지? {장에 지?}

10514 @2 장아찌? {장아찌?}

10514 # 그거 그램 대. 그 장에 지 열라머 이, 무시 가을에 김치 할 적에 통무시. {그것은 그러면 돼. 그 장에 지 넣으려면 이, 무 가을에 김치 할 적에 통무.}

10514 @2 예. {예.}

10514 # 썰어가 김치 판지에다 좌여 나앗다가. {썰어서 김치 단지에다 넣어 놓았다가.}

10514 @2 예. {예.}

10514 # 김치 판지 밑에 여 나앗다가 나양주에 장 그거 담어가주고 장물 뜨고 장 가르잖아. {김치 판지 밑에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장 그것을 담아서 장물 뜨고 장 가르잖아.}

10514 @3 예. {예.}
 10514 # 갈르고 새로 그 덩어리 치대가 그렇게 여얼썩에 그 밑에 좌여 노며 그거 대는대
 머. {가르고 새로 그 덩어리 치대서 그렇게 넣을 적에 그 밑에 넣어 놓으면 그것이
 되는데 머.}
 10514 @2 응. {응.}
 10514 # 장에 여 꼽아 놓으며. {장에 넣어서 꼽아 놓으면.}
 10514 @2 그래요? 그럼 할머니 그것은요? {그래요? 그럼 할머니 그것은요?}
 10513 # 머? {머?}

1.4.5.2. 젓 담그기

10515 @2 젓갈 같은 것을 혹시 만들어봤어요? {젓갈 같은 것을 혹시 만들어봤어요?}
 10515 # 젓갈? {젓갈?}
 10515 @2 예. {예.}
 10515 # 그래. {그래.}
 10515 @2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10515 # 그는 머 고길 깨끗하이 배 따가 깨끗하이 썬어가 물 쪽 빼아가. {그것은 머 고기를
 깨끗하게 뿔을 따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 죽 빼서.}
 10515 # 그거 이래, 여 소금에다 훌 치대가 단지에 꼭 여가. {그거 이래, 여기 소금에 대충
 치대서 단지에 꼭 넣어서.}
 10515 # 바람 안드가게 잘 싸매가주고 땅에 묻어나아도 대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잘 싸
 매서 땅에 묻어 놓아도 되고.}
 10515 @2 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10515 # 그래, 그래 나뭇다가 보며 먹어보마아 비린내 안 나지 머. 잘 삭은 거는. {그래, 그
 래 놔두었다가 보면 먹어보면 비린내 안 나지 머. 잘 삭은 것은.}
 10515 @2 잘 삭은 것은요? {잘 삭은 것은요?}
 10515 # 비린내 안 나지 머. {비린내 안 나지 머.}
 10515 @1 뭘 가지고 담습니까? {뭘 가지고 담습니까?}
 10515 # 그거 붕어요. {그것 붕어요.}
 10515 @1 붕어 젓갈? {붕어 젓갈?}
 10515 # 예. 그래노머 맛있어. {예. 그렇게 해 놓으면 맛있어.}
 10515 @2 그럼 붕어가 다 삭아요? {그럼 붕어가 다 삭아요?}
 10515 # 빨가이 삭아. 그럼 다 삭아. {빨갳게 삭아. 그럼 다 삭아.}
 10515 @2 그러면 그 하나도 없겠네요? 가시 같은 것은요? {그러면 그 하나도 없겠네요? 가
 시 같은 것은요?}
 10515 # 가시 곁은 거 쯔 잇지, 잇는데 고 폭 삭으마 물이 불그리이한 물이 폭 잠게 그래.
 {가시 같은 것은 쯔 잇지, 잇는데 그 폭 삭으면 물이 불그레한 물이 폭 잠겨 그래.}
 10515 # 머 그거 어 양념해가주고 머 마늘 마이 영고 어예가 주무리며, 그 녀 다 없어져.
 {머 그것 양념해서 머 마늘 많이 넣고 어떻게 주무르면, 그거 다 없어져.}
 10515 @1 빼, 빼는 싹 건져냅니까? {빼, 빼는 싹 건져냅니까?}

10515 # 안 건져내도 그 다 싹아가 있어. 예, 싹아. {안 건져내도 그 다 싹아서 있어. 예, 싹아.}

10515 @2 음. {음.}

10515 # 그래 그 저 한국 길은 데는 그 사가 먹잖아. {그래 저 한국 같은 데는 그 사서 먹잖아.}

10515 @2 다 오징어나, 그런 것같이예요. {다 오징어나, 그런 것같이예요.}

10515 @1 멸치나, 새우. {멸치나, 새우.}

10515 # 멸치 맵 그런 거 맵 그래 답아. {멸치 역시 그런 것 역시 그렇게 답아.}

10515 @1, 2 붕어 젓갈은 처음이야, 할머니 여기 와서부터 붕어 젓갈 하시기 시작했죠? {붕어 젓갈은 처음이야, 할머니 여기 와서부터 붕어 젓갈 하시기 시작했죠?}

10515 # 저 쌍가자 잇을 적에. {저 쌍가자 잇을 적에.}

10515 @2 쌍가자 잇을 때 붕어 젓갈? 여기 와서는 하셨어요? {쌍가자 잇을 때 붕어 젓갈? 여기 와서는 하셨어요?}

10515 # 여서는 여서는 그런 고기가 없더라고, 아했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런 고기가 없더라고 안했어.}

10515 @2 붕어 이런 작은 붕어요? {붕어 이런 작은 붕어요?}

10515 # 어, 작은 붕어. {어, 작은 붕어.}

10515 @2 어제 먹은 붕어 아이고? {어제 먹은 붕어 아니고?}

10515 # 고보다 작은 거. {그거보다 작은 것.}

10515 @2 응. {응.}

10515 # 그 커야 그저 올치며, 요 요런 거, 고래 요고 안 그래며, 델 수 잇으며 짝은 거. {그 커야 그저 요렇지 머, 요 요런 것, 그래 이거 안 그러면 델 수 잇으면 작은 것.}

10515 @1,2 짜잔한 것? 여기는 없어서 그랬겠어요? 다른 것이 없어서. {못난 것? 여기는 없어서 그랬겠어요? 다른 것이 없어서.}

10515 @1 의성에 있을 때도 젓갈 담았습니까? {의성에 있을 때도 젓갈 담았습니까?}

10515 # 그때도 담았어요. 담은 데는 그때는. {그때도 담았어요. 담은 데는 그때는.}

10515 @1 뭐 민물고기 가지고요? {뭐 민물고기 가지고요?}

10515 # 그때는 머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 먹지, 내가 그런 거 해보지는 못했어. {그때는 머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 먹지, 내가 그런 것 해보지는 못했어.}

10515 @3 뭐 갖고? 의성에 있을 때는 뭐 갖고 했어요? {뭐 갖고? 의성에 있을 때는 뭐 갖고 했어요?}

10515 # 맵 그 붕어 길은 거. {역시 그 붕어 같은 것.}

10515 @3 붕어 갖고? {붕어 갖고?}

10515 # 물고기 고래 짜잔한 거 그런 거. {물고기 그래 못난 것 그런 것.}

1.4.5.3. 김치 담그기

10513 @2 할머니 김치는요? {할머니 김치는요?}

10513 # 김치? {김치?}

10513 @2 예,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10513 # 그래 배추가 깨끗하이 해가. {그래 배추를 깨끗하게 해서.}

10513 @2 네. {네.}

10513 # 다 씻었잖아요, 씻었는데 소금물이 이만안 편에다가 뒤 편 해놓고 오? {다 씻었잖아요, 씻었는데 소금물이 이만큼 한 대야에다가 두 대야 해놓고 오?}

10513 @2 네. {네.}

10513 # 소금, 소금물 얼마마아한 정도로 풀어놓고 한 더 봉지씩 풀어놓고는. {소금, 소금물 얼마큼 정도로 풀어놓고 한 두 봉지씩 풀어놓고는.}

10513 # 그 배추를 크잖아, 알 채면, 칼로 따개가. {그 배추가 크잖아, 통이 차면, 칼로 짜개서.}

10513 # 소금물에다 그 한 편 담가. {소금물에다 그 한 대야 담가.}

10513 @2 네. {네.}

10513 # 한 편 담가노머 후울쭉해져. {한 대야 담가 놓으면 훌쭉해져.}

10513 @2 네. {네.}

10513 # 그 담가놔다가 그 담에 그 옆에 단지 나아도. {그 담가 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지 놔둬.}

10513 # 차례차례 좌영고 또 소금 한주먹 흐쳐놓고 또 좌영고 소금 한주먹 흐쳐놓고. {차례 차례 주어 넣고 또 소금 한주먹 흘려놓고 소금 한주먹 흘려놓고.}

10513 # 그라마, 어 그 쪽 니리간다. {그러면, 어 그 쪽 내려간다.}

10513 @2 예. {예.}

10513 # 배차가 죽어가, 쪽 내려가거등, 그래 또 오후에 아침절에 그래놔다마. {배추가 숨이 죽어서 쪽 내려가거등, 그래 또 오후에 아침쯤에 그래 놓았다면.}

10513 # 저녁 할 때 쯤 대머, 그 어범 마이 내려가. {저녁 할 때 쯤 되면 그 꽤 많이 내려가.}

10513 # 내려가거등 그 넘 죽었는 넘 쯤 여짜 다른 편에다 좌내놓고. {내려가거등 그거 숨이 죽은 것을 쯤 여기 다른 대야에 주어 내놓고.}

10513 # 또 생배차 또 소금 흐쳐가 그다 또 좌여. {또 생 배추 또 소금 흘려서 거기에다 또 주어 넣어.}

10513 @2 예. {예.}

10513 # 그 또 좌영고 소금 또 흐쳐놓고 그 꺼내난 거 그 그 위에 갖다 놀라노머 쪽 죽잖아. {그 또 주어 넣고 소금 또 흘려놓고 그 꺼낸 것은 그, 그 위에 갖다 눌러 놓으면 숨 쪽 죽잖아.}

10513 # 사흘 전에 다 해엿부리. 너무 오래 나두머 단물 빠졌부리. {사흘 전에 다 해 넣어. 너무 오래 놔두면 단물 빠지지.}

10513 @2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양념해서.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양념해서.}

10513 # 응, 양념 마늘 마이 영고, {응, 양념 마늘 많이 넣고,}

10513 @2 예. {예,}

10513 # 어, 머더라? 새우 젓갈도 쯤 영고. {어, 머더라? 새우 젓갈도 쯤 넣고.}

10513 # 새우 젓갈도 여머 더 맛있어. 그래 영고, 그래 마늘 마이 영고 그래가. {새우 젓갈도 넣으면 더 맛있어. 그래 넣고, 그래 마늘 많이 넣고 그래서.}

10513 # 꼬치까리 빠짝 말렸잖아? {고춧가루 바짝 말랐잖아?}

10513 @2 예, 예. {예, 예.}

10513 # 그 빠짝 말린 거 그 편에다가 후리 놓으며 그기 불어가주고, {그 바짝 마른 것 그 대야에다가 후려 놓으면 그것이 불어서.}

10513 @2 예. {예.}

10513 # 마않지 머. {많지 머.}

10513 @2 예. {예.}

10513 # 꼬치까리도 고버지고, {고춧가루도 고와지고,}

10513 @2 예. {예.}

10513 # 그래, 그래가 나뉘다가 그래 건져가주고 어 소금물 빼우고. {그래, 그래서 놔두었다가 그래 건져서 어 소금물 빼고.}

10513 @2 예. {예.}

10513 # 또 그 이튿날에 또 그 그거 건져내놓고 그 이튿날에 또 그다 좌여 밑에. {또 그 이튿날에 또 그 그것을 건져내놓고 그 이튿날에 또 거기에다 주어 넣고 밑에.}

10513 @2 예. {예.}

10513 # 다 좌여가주고 그 내놔는 걸, 그 위에 얹어노며 푹 죽잖아. {다 주어 넣고 그 내 놓은 것을, 그 위에 얹어놓으면 푹 죽잖아.} 10513

@2 응. {응.}

10513 # 그래 사흘만 대머 해 여야 대. 사흘 지내고 너무 그래 놔두면 단물이 빠져가 맛없어. {그래 사흘만 되면 해 넣어야 돼. 사흘 지나고 너무 그래 놔두면 단물이 빠져서 맛없어.}

10513 @2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밥물 넣고 고춧가루 맛있으라고 지금 풀 끓이가 넣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밥물 넣고 고춧가루 맛있으라고 지금 풀 끓여서 넣는다고 그래요?}

10513 # 응. {응.}

10513 @2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런 것은 안 해요?}

10513 # 그 머, 머 찹쌀 죽? {그 머, 머 찹쌀 죽?}

10513 @2 예, 예. {예, 예.}

10513 # 찹쌀 죽 끓이가주고 영고 그래 해. {찹쌀 죽 끓여서 넣고 그렇게 해.}

10513 @2 그래요? 찹쌀죽도 많이 끓이고 그래요? {그래요? 찹쌀죽도 많이 끓이고 그래요?}

10513 # 그래, 너무 뽀뽀하게 하든지, 너무 멀게[께] 하든지 하지 마고 그래 해가. {그래, 너무 뽀뽀하게 하든지, 너무 멀게 하든지 하지 말고 그래 해서.}

10513 # 여가 치대노며 갠잖아. 어떤 사람 그거이, 그 돼지고기도 삶어가주고. {넣어서 치대놓으면 갠잖아. 어떤 사람은 그 돼지고기도 삶아서.}

10513 @2 예. {예.}

10513 # 삶어가 건데기는 먹고 그 물 그거까주고 꼬추까리도 후리고. {삶아서 건더기는 먹고 그 물 그것 가지고 고춧가루도 후리고.}

10513 @2 음, 그러면 김치가 시원하지 않을 텐데요? {음, 그러면 김치가 시원하지 않을 텐데요?}

10513 # 몰라, 그래 영데. {몰라, 그렇게 넣더라.}

10513 @2 돼지기름요? {돼지기름이요?}

10513 # 닭도 삶어가주고 그 물도 붓기도 하고 그래데 우리는. {닭도 삶아서 그 물도 붓기도 하고 그러더라 우리는.}

10513 # 우린 그 그런 거, 우린 그런거 아 해. 그저 양념 잘해가. {우리는 그 그런 것, 우리는 그런 것 안 해. 그저 양념 잘해서.}

10504 @2 양념으로 했어요? 할머니 여기에 오미자 같은 것도 있죠? {양념으로 했어요? 할머니 여기에 오미자 같은 것도 있죠?}

10504 # 있어. {있어.}

1.4.5.4. 오미자차 만들기

10504 @2 그럼 오미자차나 그런 것도 해 드십니까? {그럼 오미자차나 그런 것도 해 드십니까?}

10504 # 그 그런 거 해가 먹는데 나는 안 해 먹어. {그 그런 것 해서 먹는데 나는 안 해 먹어.}

10504 @2 오미자차가 좋은데. {오미자차가 좋은데.}

10504 # 좋은데 내가 고 씨를 받아가 숨굴라고 싸아여난데. {좋은데 내가 그 씨를 받아서 심으려고 싸서 넣어 놓았는데.}

10504 # 어디다 여난지 없어가 그 앞에 고 내 꽃 숨가 낫는데 말이야. {어디에다 넣어놓았는지 없어서 그 앞에 그 내 꽃 숨겨 놓았는데 말이야.}

10504 @2 예. {예.}

10504 # 그 소나무 숨가낫는데 고 상간에 내가 숨굴라고 아암만 찾아도 못 찾아. {그 소나무 심어놓은 그 사이에 내가 심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10504 @2 이 마을에 그럼 그 오미자 따오는 사람 있어요? {이 마을에 그럼 그 오미자 따오는 사람 있어요?}

10504 # 없어, 없어. {없어, 없어.}

10504 @2 없어요? {없어요?}

10504 # 응. {응.}

10504 @2 아, 돈 주고라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아, 돈 주고라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

10504 # 그걸? {그것을?}

10504 @2 예. {예.}

10504 # 몰래, 약바아 가며 팔란가 모르지. {몰라, 약방에 가면 팔지 모르지.}

10504 @2 약방에는 다 가짜예요. 약방의 것은 좋지 않아요. {약방에는 다 가짜예요. 약방의 것은 좋지 않아요.}

10504 # 아이라, 통낫 그 오미자 고런거 있지. {아니라, 통알 그 오미자 그런 것 있지.}

10504 @2 그 어떤 사람들은 약방에 가면요, 한번 짹 삶아서 첫 물을 한번 빼고 또 말려서 판다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약방에 가면요, 한번 짹 삶아서 첫 물을 한번 빼고 또 말려서 판다고 그래요.}

10504 # 아. {아.}

10504 @2 그러니까 제 개인이 따온 것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이 따온 것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10504 # 여 개인으루 숨간 사람 없어. {여기 개인으로 심은 사람 없어.}

10504 @2 그래, 개인이 산에가 따도 돼요. {그래, 개인이 산에 가서 따도 돼요.}

1.4.5.5. 떡 만들기: 시루떡, 절편

- 10509 @2 할머니 시루떡 어떻게 해요? 시루떡? {할머니 시루떡 어떻게 해요? 시루떡?}
- 10509 # 시루떡? {시루떡?}
- 10509 @2 예. {예.}
- 10509 # 그 찹, 저 밭쌀하고 찹쌀 섞어야 대. {그 찹, 저 멍쌀하고 찹쌀 섞어야 돼.}
- 10509 @2 그래요? {그래요?}
- 10509 # 그래. {그래.}
- 10509 @2 몇 대 몇으로 섞어요? {몇 대 몇으로 섞어요?}
- 10509 # 밭쌀이 한 두 사발 넣는다 하게 대마. {멍쌀이 한 두사발 넣는다 하게 되면.}
- 10509 @2 네. {네.}
- 10509 # 찹쌀 한사발 안 대거루 여도 대. {찹쌀 한사발 안 되게 넣어도 돼.}
- 10509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 10509 # 응, 고래 고쫂 고래 영고, 여가주고 한테 섞어서 담가놔다가. {응, 그래 그쫂 넣고, 넣어서 같이 섞어서 담가 놓았다가.}
- 10509 # 푸욱 그거 불은 담에 견저놔다가는 기계가 빠아가 와요. {푹 그거 불은 다음에 견저놔다가는 기계에 빵아서 와요.}
- 10509 @2 네. {네.}
- 10509 # 팔 삶아가주고 찌이놔다가 찌이가 여 포시리하이 잘 삶아가주고 찌이놔다가 그래. {팔 삶아서 쪄어놓았다가 쪄어서 여 파근파근하게 잘 삶아서 쪄어놓았다가 그래.}
- 10509 # 덩거리지고 하잖아. {덩거리지고 하잖아.}
- 10509 @2 응. {응.}
- 10509 # 요렇게 채에다 요래 흐쳐나 양재기에다 흐쳐놔다가 고 덩거리 살살 일과가주고. {요렇게 채에다 요래 흘려나 양재기에 흘려놓았다가 그 덩어리 살살 일귀서.}
- 10509 # 시루 걸어놓고 고렇게 팔고물 이렇게 흐치고 가리 떠다 버어가. {시루 걸어놓고 그렇게 팔고물 이렇게 흘리고 가루 떠다 부어서.}
- 10509 @2 네. {네.}
- 10509 # 페엔하이 요렇게 해놓고. {평평하게 요렇게 해놓고.}
- 10509 @2 예. {예.}
- 10509 # 또 고 위에 또 팔고물 요렇게 해서가 펜하게 고래 퍼놓고. {또 그 위에 또 팔고물 요렇게 흘려서 평평하게 그래 퍼놓고.}
- 10509 @2 네. {네.}
- 10509 # 또 그담에 또 가리 부어가주고 펜하게 해놓고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가루 부어서 평평하게 해놓고 그래.}
- 10509 @2 찹쌀 많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찹쌀 많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 10509 # 너무 마이 들어도 그 이 나양주에 끝어노며 너무 야몰어. {너무 많이 들어도 그 이 나중에 굳어놓으면 너무 야몰어.}
- 10509 @2 응. {응.}
- 10509 # 절반 여도 많아, 절반 쪼끔 못대거루 여. {절반 넣어도 많아, 절반 조금 못되게 넣어.}
- 10509 @2 아, 그래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10509 # 그래, 그래. {그래, 그래.}

10509 @2 반죽은요? {반죽은요?}

10509 # 반죽 안한다. {반죽 안한다.}

10509 @2 아 그저 가루채로 넣죠? {아 그저 가루채로 넣죠?}

10509 # 그래. {그래.}

10509 @2 김으로 해서 익죠? {김으로 해서 익죠?}

10509 # 그래, 김으로 해가. {그래, 김으로 해서.}

10509 @2 음, 여기 할머니네 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 할머니네 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10509 # 응, 그런데 작년, 작년에도 안했어. {응, 그런데 작년, 작년에도 안했어.}

10509 # 작년에도 아했는데 장춘에 큰 아아가 큰 딸아가 사가 왔더라고. {작년에도 안했는데 장춘에 큰 아이가 큰딸이 사서 왔더라고.}

10509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09 # 사가와 먹었어. 그전에 차로하 여게. {사 와서 먹었어. 그전에 차로하 여기.}

10509 @2 예. {예.}

10509 # 그 떡 장사가 잇었는데, 그 사람이 떡도 잘 팔리고 찰떡도 하고 시루떡도 하고 잘 팔렸는데, {그 떡 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떡도 잘 팔리고 찰떡도 하고 시루떡도 하고 잘 팔렸는데,}

10509 # 한국을 갔다가 죽었בות. {한국을 갔다가 죽었어.}

10509 @2 그래요? {그래요?}

10509 # 응, 그래노이 여 떡 장사가 없어. {응, 그렇게 되니 여기 떡 장사가 없어.}

10509 @2 아. {아.}

10509 # 그래 작년에 {그래 작년에}

10509 @2 예. {예.}

10509 # 그 우리 큰딸 가아 동무가 한국 갔다와가 날 보로 온다고 왔어. {그 우리 큰딸 그 애 동무가 한국 갔다 와서 날 보러 온다고 왔어.}

10509 @2 예. {예.}

10509 # 왔는데 온갖 떡을 다 사가 왔어, 가아가. {왔는데 온갖 떡을 다 사가 왔어, 그 애가.}

10509 @2 어디에서 샀데요? {어디에서 샀데요?}

10509 # 저 길림에서. {저 길림에서.}

10509 @2 아. {아.}

10509 # 그 온갖 떡을 다 사가 왔데. {그 온갖 떡을 다 사가 왔더라.}

10509 # '이거 며할라고 그 애먹고 벌인 돈을 이래 마이 사가 왔노?' 카이. {'이거 며 하려고 그 애먹고 벌인 돈을 이래 많이 사가 왔나?' 그렇게 말하니.}

10509 # '아이구, 내 개잡게 잇었으며 한 몇번 왔을진데, 이래 오래만에 한분 만낸데, {'아이고, 내가 가깝게 있으면 한 몇 번 왔을 것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번 만나는데,}

10509 # 또 만나볼지 못 만나볼지?' 그래 내 이저것 생각해머 땡기바도. {또 만나볼지 못 만나볼지?' 그래 내 여태것 생각하면 다녀 봐도.}

10509 # 어 우리 장춘의 가아 이름을 부리메, '너 엄마매로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 {어 우리 장춘의 그 애 이름을 부르며, '너 엄마처럼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

10509 #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가, '아이구 멀 갔다 대접을 해머 잘 해겠노?'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서, '아이고 뭘 갖다 대접을 하면 잘 하겠나?'

10509 # 그래 생각이 나가 내가 떡을 갖갖추 사왔다고 그래머 사가 왔더라. {그래 생각이 나서 내가 떡을 각가지 사왔다고 그러면서 사서 왔더라.}

10509 @2 할머니, 떡 제일 좋아하세요? {할머니, 떡 제일 좋아하세요?}

10509 # 응, 떡도 좋아해 내. {응, 떡도 좋아해 내.}

10509 @2 그래요? {그래요?}

10509 # 그래 내 아무거나 다 먹을 줄 알아. 술 먹을 줄을 모르지. {그래 나 아무거나 다 먹을 줄 알아. 술 먹을 줄을 모르지.}

10509 @2 그래요? {그래요?}

10509 # 다 먹을 줄 알아. {다 먹을 줄 알아.}

10509 @2 할머니 절편은 어떻게 만들어요? 절편? {할머니 절편은 어떻게 만들어요? 절편?}

10509 # 절편은 저 그저 다 그저 밭쌀로 해가. {절편은 저 그저 다 그것 밭쌀로 해서.}

10509 @2 예. {예.}

10509 # 빵 거든, 아주 보드라운 채로 빵아. {빵 거든, 아주 보드라운 채로 빵아.}

10509 @2 예. {예.}

10509 # 기계에 빵아가 와가, 보드라운 채로 또 이래 나배지 머. {기계에 빵아서 와가, 보드라운 채로 또 이래 치지 머.}

10509 @2 예. {예.}

10509 # 나배가주고는 물 팔팔 끓이가. {치고는 물을 팔팔 끓여서.}

10509 @2 네. {네.}

10509 # 그 뜨신 물 부가 반죽을 한다. {그 뜨신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다.}

10509 @2 네. {네.}

10509 # 반죽을 해가 내내 치대가주고 그담에는 그님을 이리 뭉쳐가주고. {반죽을 해서 내내 치대서 그 다음에는 그 것을 이렇게 뭉쳐서.}

10509 #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지마 요 복판을 공기 뻐끔하이 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여기 복판에 구멍이 뻐 뚫리잖아.}

10509 @2 예. {예.}

10509 # 그걸 시루에다 갖다 얹어 놓고 김이 술술 나도록 불 때가 그 녀 익과가주고. {그것을 시루에다 갖다 얹어 놓고 김이 술술 나도록 불을 때서 그 것을 익혀서.}

10509 @2 예. {예.}

10509 # 그 녀 또 절구에 갖다 놓고 두드리. {그 것을 또 절구에 갖다 놓고 두드려.}

10509 @2 네. {네.}

10509 # 매에 두드리고 매에 주무리고 해가, 그렇게 해가주고 요렇게, 요렇게 밀어가주고. {연신 두드리고 연신 주무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밀어서.}

10509 # 그 떡살개라고 있어. {그 떡살이라고 있어.}

10509 @2 응. {응.}

10509 # 꼭꼭 눌렀는거. {꼭꼭 누르는 것.}

10509 @2 예. {예.}

10509 # 고골 가주고 짹 짹 눌러가, 끓어가 참기름에다가 소금 쯤 넣아가주고 공기에다 담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짹 눌러고, 끓어서 참기름에다가 소금 쯤 넣아서 공기에다 담아놓고.}

10509 # 고 놔를 살살 발라가, 고래 좌담아 놓지머. {그 것을 살살 발라서, 그래 주어 담아 놓지 머.}

10509 # 좌담아 노머 나양주에 그거 띠도 안 붙어. 그 참기름 넣고 핫이이께네. {주어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떼도 안 붙어. 그 참기름 넣고 했으니까.}

10509 @2 그리고 무늬도 예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무늬도 예쁘게 하는 것 있잖아요.}

10509 # 그래 그 떡살개라고 고고로 요렇게, 요렇게 놀리는 거. {그래 그 떡살이라고 그것으로 요렇게, 요렇게 누르는 것.}

10509 @2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10509 # 우리 집에 그 없다. 그거 하머 언제 해 머어보고 아해 먹은기. {우리 집에 그거 없다. 그거 벌써 언제 해 먹어보고 안 해 먹은 것이.}

10509 # 이사를 몇번 땡긴데, 그기 다 어디 갖는지?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그것이 다 어디 갖는지?}

10509 @2 젓가락으로도 하고 뭐 그러던데요. {젓가락으로도 하고 뭐 그러던데요.}

10509 # 그리 그래데. {그래 그러더라.}

10509 @1, 2 아까 그 나뻤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은 못 알아들었어요. {아까 그 나뻤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은 못 알아들었어요.}

10509 # 그 새로 치는 거, 새로 치가 보드랍게. {그 새로 치는 것, 새로 쳐서 보드랍게.}

10509 @1 가루 치는 것? {가루 치는 것?}

10509 # 예, 그거 기계에 빵아가 와가 쪼 짜다 말이라요. {예, 그거 기계에 빵아 와서 쪼 짜다 말이에요.}

10509 @1 예. {예.}

10509 # 그 보드란 채로 집에 가 와가 새로 또 치면. {그 보드란 채로 집에 가지고 와서 새로 또 치면.}

10509 @1 그럼 뭐하고 있노 그러면 뭐하고 있다 그럼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럼 뭐하고 있나 그러면 뭐하고 있다 그럼니까? 그렇게 할 때?}

10509 # 아니요, 그저 고래. {아니요, 그저 그래.}

10509 @1 요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뭘 하고 있나 물어 보면은? {요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뭘 하고 있나 물어 보면은?}

10509 # 아, 가리 나뻤다. 다시 친다. {아, 가루 나뻤다. 다시 친다.}

10509 @1 뭐? {뭐?}

10509 # 새로 친다. {새로 친다.}

10509 @1, 2 나배고 있다. 이런 말 합니까? 나배고 있다고 그럼니까? {나배고 있다. 이런 말 합니까? 나배고 있다고 그럼니까?}

10509 # 야, 그래요. 그래가 그 그 떡하기도 힘들어. {야, 그래요. 그래서 그 그 떡하기도 힘들어.}

10509 # 그 말라고 다 그래데? {그 뭘 하려고 다 그러는데?}

10509 @2 우리 어릴 때도 이래 놀 때 이래 흙 굵은 것은 위에 다 있고 아래의 것은, 아니면 굵은 모래를 할 때도 역시 나배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이래 놀 때 이래 흙 굵은 것은 위에 다 있고 아래의 것은, 아니면 굵은 모래를 할 때도 역시 나배는 거예요?}

10509 # 음. 큰 모래 친다 하지 머. {음, 큰 모래 친다 하지 머.}

10509 @2 그것은 모래 친다. 그럼 어떨 때 나베고 어떨 때 치요? 작은 것은 나베다 그래요?
{그것은 모래 친다. 그럼 어떨 때 나베고 어떨 때 치요? 작은 것은 나베다 그래요?}

10509 # 그 가로 새로 치는 거 그걸 가로 새로 나벤다. 새로 친다 그 소리야. {그 가루 새로 치는 것을 가루 새로 나벤다. 새로 친다 그 말이야.}

10509 @2 네,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10509 @2 할머니한테 그런 것이 아주 많네요. 부사나 색채어 같은 것 말이에요. '살살'도 우리는 전혀 안 쓰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런 것이 아주 많네요. 부사나 색채어 같은 것 말이에요. '살살'도 우리는 전혀 안 쓰잖아요.}

10509 @1, 2 그러니까. 아까도 뭐 하나도 못 알아 듣는데 '글머스럽하다'나 '시꺼머적적하다' 이런 것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하나도 못 알아 듣는데 '글머스럽하다'나 '시꺼머적적하다' 이런 것 다 없잖아요.}

10509 @1, 2 색깔에 대한 것, 맛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아주 많네요. {색깔에 대한 것, 맛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아주 많네요.}

10509 @2 혼자 지어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혼자 지어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10509 @1 글썄 '나벤다'는 처음 듣는다. {글썄 '나벤다'는 처음 듣는다.}

10509 # 그 우리 우리들은 그 가로 새로 치는 걸 새로 가루, 가루 나벤다. {그 우리 우리들은 그 가루 새로 치는 것을 새로 가루, 가루를 나벤다.}

10509 @1 나벤다. {나벤다.}

10509 # 새로 친다 그 말이라요. {새로 친다 그 말이라요.}

10509 @1 예, 예. {예, 예.}

10511 @2 할머니 그 다 알려주셨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머니 그 다 알려주셨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10511 # 머? {머?}

10511 @2 우리 오늘 뭐 좀 정구지로 부침개 같은 것. {우리 오늘 뭐 좀 정구지로 부침개 같은 것.}

10511 # 해무라고, 그 해 멀래? {해먹으라고, 그 해 먹을래?}

10511 @2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10511 # 그거 머 그저 머 정구지 싹 씹어다 너무 길면 쫄 여 동갈라가 소금 쫄 흐쳐났다가.
{그거 머 그저 머 정구지 싹 씻어서 너무 길면 쫄 여 갈라서 소금 쫄 흘려놓았다가.}

10511 # 그 정구지 쫄 그래 쫄 주물러가 저게 가루 여가 곱으며 대지 머. {그 정구지 쫄 그래 쫄 주물러서 저기 가루 넣어서 곱으면 되지 머.}

10511 @2 응. {응.}

10511 @2 할머니 어떨 때 동가르고 어떨 때 따개고 그래요? 따개는 것은 딱 두 쪽으로 따개는 거예요? {할머니 어떨 때 가르고 어떨 때 짜개고 그래요? 짜개는 것은 딱 두 쪽으로 짜개는 거예요?}

10511 # 그래, 따개는 거는 똑, 똑 따개는 거고, {그래, 짜개는 것은 똑, 똑 짜개는 거고,}

10511 @1 어제 붕어 같은 것을 따갠다 그럼니까? {어제 붕어 같은 것을 짜갠다 그럼니까?}

10511 # 예. 따개지. {예. 짜개지.}

10511 @1 그 다음에. 무시같은 것은 동가린다고 그럼니까? {그 다음에, 무 같은 것을 가른

다고 그러니까?}

10511 # 동가리고 머 파이겔은 거 머 우리 요래 동가리는 거 그거는 동가린다. {가르고 뭐
파 같은 것은 머 우리 요래 가르는 것 그것은 가르다.}

10511 # 썰인다, 동가린다 멍 한가지래요. {썰린다, 가르다는 다 한가지래요.}

10511 @2 아니 아까 전에 배추를 따갠다 했는데 아마 배추통이 커서 그런가요? {아니 아까
전에 배추를 짜갠다 했는데 아마 배추통이 커서 그런가요?}

10511 # 크이께네. {크니까.}

10511 @1 배추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배추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10511 # 그래. {그래.}

10511 @1, 2 그니까 따갠다. {그러니까 짜갠다.}

10511 # 따갠다. {짜갠다.}

10511 @1 그래서 요렇게 분리하는 거는 따갠다. 좀 더 작은 것은 동가린다. {그래서 요렇게
분리하는 거는 짜갠다. 좀 더 작은 것은 가르다.}

10511 @2 수박은 동가리면 안돼요? {수박은 가르면 안돼요?}

10511 # 와 안대? {왜 안 돼?}

10511 @2 수박도 동갈리서 먹죠? {수박도 갈라서 먹죠?}

10511 # 동갈라 먹지, 썰이도 먹고, 썰린다 소리나 동가린다 소리나 한가지야. {갈라 먹지,
썰려도 먹고, 썰린다는 말이나 가르다는 말이나 한가지야.}

10511 @2 따개다도요? {짜개다도요?}

10511 # 응, 그 다 한가지야. {응, 그 다 한가지야.}

10511 @1 수박도 요렇게 그저 손으로 요리면 동가린다 그러니까? 따갠다 그러니까? {수박도
요렇게 그저 손으로 요리면 가르다 그러니까? 짜갠다 그러니까?}

10511 # 짜개다. {짜개다.}

10511 @1 따개죠? {짜개죠?}

10511 # 응. 머가 자꾸 똑딱거리노? {응. 머가 자꾸 똑딱거리나?}

10511 @2 아이, 빨래망치가 똑딱거리죠. {아니, 빨래망치가 똑딱거리죠.}

10511 # 아이다, 빨래망치 아이다. {아니다, 빨래망치 아니다.}

1.4.5.6. 장떡 만들기

10511 @2 그러면 이제 정구지 가주고 내가 동가르고, 된장은 넣어요? {그러면 이제 정구지
가지고 내가 가르고, 된장은 넣어요?}

10511 # 댄장 안 넣고, 그래 조금 흐쳐나앗다가 가리 여가 그래. {된장 안 넣고, 그래 조금
흘여놓았다가 가루 넣어서 그래.}

10511 # 댄장 열고 꼬장 열고 그래 끓어노며 그 밥반찬 좋아.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그래
끓으면 그 밥반찬 좋아.}

10511 @1 그래 그것을 장떡이라 합니다. {그래 그것을 장떡이라 합니다.}

10511 # 예, 장떡, 그래 동갈라가 꼬장도 열고 댄장도 열고 해가 끓어노며. {예, 장떡, 그래
갈라서 고추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해서 끓여 놓으면.}

10511 # 그 기름도 좀 낮게 넣고 이래 끓여노며 밥반찬 좋아 그제. {그 기름도 좀 낮게 넣고 이래 끓여 놓으면 밥반찬 좋아 그것이.}

10511 @1 그 다른 것은 조개 같은 것은 안 넣습니까? {그 다른 것은 조개 같은 것은 안 넣습니까?}

10511 # 조개요? {조개요?}

10511 @1 네. {네.}

10511 @1, 2 여기 있어야 넣죠? 조개가 없으니까 안 넣지. {여기 있어야 넣죠? 조개가 없으니까 안 넣지.}

10511 # 없기도 하지만은 그런거는 할라머 따로 해야 대. {없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은 하려면 따로 해야 돼.}

10511 @2 따로 해요? 그럼 그 밀가루에다만 넣고 해요? {따로 해요? 그럼 그 밀가루에다만 넣고 해요?}

10511 # 그래, 밀가루 넣고. {그래, 밀가루 넣고.}

10511 @2 찹쌀가루는 안 넣어요? {찹쌀가루는 안 넣어요?}

10511 # 안 여. {안 넣어.}

10511 @2 안 넣어요? 옛날에는 멍쌀에다 찹쌀가루 넣었죠? {안 넣어요? 옛날에는 멍쌀에다 찹쌀가루 넣었죠?}

10511 # 응, 옛날에 그 장떡하는데 미가루하고 찰가루하고 섞어가주고 장떡 끓여노며. {응, 옛날에 그 장떡 하는데 밀가루하고 찰가루하고 섞어서 장떡 끓여 놓으면.}

10511 # 안 끓어지고 그기 괜찮아, 맛이. {안 끓어지고 그것이 괜찮아, 맛이.}

10511 @2 그래요? 밀가루라 안하고 미가루라 하네요. {그래요? 밀가루라 안하고 미가루라 하네요.}

10511 # 응, 미가루. 그래 밀가루, 지금은 그전에는 농사 짓게 찹쌀겉은 거 혼하이께네. {응, 밀가루. 그래 밀가루, 지금은 그전에는 농사 지으니까 찹쌀 같은 것은 혼하니까.}

10511 # 이래도 해먹고 저래도 해먹고 지금은 찹쌀 그거 선나 한 근 사면. {이래도 해먹고 저래도 해먹고 지금은 찹쌀 그것 조금 한 근 사면.}

10511 @2 비싸요? {비싸요?}

10511 # 영 비싸다 말이야, 그리끼 그래 혼하이 못 먹지. {아주 비싸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혼하게 못 먹지.}

10511 @2 아. {아.}

10511 # 혼하게 못 먹는다 말이야, 이전에는 막 그 녀를 막. {혼하게 못 먹는다 말이야, 이전에는 막 그 것을 막.}

10511 @2 여 개성에 가면 찹쌀가루 파는 것 따로 있죠? {여기 시내에 가면 찹쌀가루 파는 것이 따로 있죠?}

10511 # 몰라, 나는 그거 안 사파서. {몰라, 나는 그것을 안 사파서.}

10511 @1, 2 아 슈퍼에 있겠다. 슈퍼에 있겠네요. {아 슈퍼에 있겠다. 슈퍼에 있겠네요.}

10511 # 그래가 장떡 끓여노며 그거 채가 밥반찬이 좋아. {그래서 장떡 끓여 놓으면 그거 반찬이 밥반찬이 좋아.}

10511 @1, 2 좋아요? 오 장떡 찹쌀가루, 한번 드시고 싶어요? {좋아요? 오 장떡 찹쌀가루, 한번 드시고 싶어요?}

10511 # 아니다, 머 잇이머 먹고, 없이머 안 먹고 글치. {아니다, 머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렇지.}

10511 # 그거 내 막 먹고 싶어가 사러 땡기구 그거 아이다. {그거 내 막 먹고 싶어서 사러 다니고 그거 아니다.}

10511 @2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에 지금 드시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에 지금 드시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10511 # 콩기름. {콩기름.}

10511 @2 할머니 절로 짰어요? {할머니 스스로 짰어요?}

10511 # 그래. {그래.}

10511 @2 이거 짠 기름이에요? {이거 짠 기름이에요?}

10511 # 샀어. {샀어.}

10511 @2 샀어요? {샀어요?}

10511 # 그래, 콩기름 저것도 팔로 가면 쫌 좋은 기 잇고 나쁜 기 잇고. {그래, 콩기름 저것도 팔러 가면 쫌 좋은 것이 잇고 나쁜 것이 잇고.}

10511 @2 아. {아.}

10511 # 그리 이기 콩기름 좋은 걸로 산거야. {그리 이것이 콩기름 좋은 걸로 산거야.}

10511 @2 어디 개성에서 샀어요? {어디 시내에서 샀어요?}

10511 # 그래 개성에서 {그래 시내에서}

10511 @2 얼마에 한 근이에요? {얼마에 한 근이에요?}

10511 # 어, 모리겠다 아아들이 사오이께네 내가. {어, 모르겠다. 아이들이 사오니까 내가.}

10511 # 그 얼마, 너거 이거 얼마 줏노? 이소리 자꾸 물으며 딱 사램이 수다시러 보이가. {그 얼마, 너네 이것은 얼마 줏나? 이 말을 자꾸 물으면 딱 사람이 수다스러워 보여서.}

10511 @3 아하. {아하.}

10511 # 내가 아아들 사다주마 그마 '아 그래 좋은 거 샀나? 나쁜 거 샀나?' 그래. {내가 아이들 사다주면 그만 '아 그래 좋은 것 샀나? 나쁜 것 샀나?' 그래.}

10511 # 그 말이나 하지, 얼마 줏노? 머 어엿노? 이라면 너무 수다시러 보인다 말이야. {그 말이나 하지, 얼마 줏나? 머 어떻게 했나? 이러면 너무 수다스러워 보인다 말이야.}

10511 # 그래가 그거 아아들 사오며 그래. {그래서 그거 아이들이 사오면 그래.}

1.4.5.7. 국수 만들기

10508 @2 할머니 국수랑은 혼자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틀에. {할머니 국수랑은 혼자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틀에.}

10508 # 그 저, 그 틀에다 만드기 아이라 그전에는 {그 저, 그 틀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10508 @2 예. {예.}

10508 # 국시 만드는 그기 이만한 반자가 있어. {국수 만드는 그것이 이만한 반자가 있어.}

10508 @2 예. {예.}

10508 # 그 또 그 맨드는 거 여기 국시 말어가 하는 거. {그것 또 그 만드는 것 여기 국수를 말아서 하는 것.}

10508 # 그것도 깎아는 거 그런 거도 있고, {그것도 깎은 것 그런 것도 있고.}

10508 # 그래해야 맨들고, 지금은 국시 그 집에서 할라하며. {그렇게 해야 만들고, 지금은 국수 그 집에서 하려고 하면.}

10508 # 이 요런 데나 도매에나 그, 그 조자(중-만두) 맨드는 방매이. {이 요런 데나 도매에나 그, 그 만두 만드는 방망이.}

10508 # 그걸가 이래. 이래 밀어주고. {그것으로 이래, 이래 밀어서.}

10508 @2 조자라 하면 누가 알아들겠어요? {조자라 하면 누가 알아들겠어요?}

10508 # 그러머? {그러면?}

10508 @2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10508 # 여기서는. {여기서는.}

10508 @2 자오즈? {자오즈?}

10508 # 조즈. {조즈.}

10508 @1, 2, 3 중국어. 만두? 예, 만두. {중국어. 만두? 예, 만두.}

10508 # 그기 만두가? {그것이 만두니?}

10508 @2 예. {예.}

10508 # 아니지. {아니지.}

10508 @2 만두, 할머니가 생각하는 만두는 지금 북한식 만두, 두부 넣고 이렇게 큰 것이고 이것은 물만두. {만두, 할머니가 생각하는 만두는 지금 북한식 만두, 두부 넣고 이렇게 큰 것이고 이것은 물만두.}

10508 # 물만두. 그래 그런 방매이를 가지고 그저 요렇게, 요렇게 맨드가 쫌 싸리가 그래하는 기야. {물만두. 그래 그런 방망이를 가지고 그저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서 쫌 썰어서 그래 하는 거야.}

10509 @1 그 칼국수 아십니까? {그 칼국수 아십니까?}

10509 # 예, 칼국시, 그런데 그 한국 국시마이 맛이 없어. {예, 칼국수, 그런데 그 한국 국수만큼 맛이 없어.}

10509 @1 기계 국수요? {기계 국수요?}

10509 # 아니 한국에서 그 맨드는 거는요, 콩까리 아주 보드랍게, {아니, 한국에서 그 만드는 것은요, 콩가루 아주 보드랍게.}

10509 # 쫌 빵아가 준비 해 놓지 머. {쫌 빵아서 준비 해 놓지 머.}

10509 @1 예. {예.}

10509 # 준비해노머, 국시 반죽할 때 콩까리 쫌 섞어가 그래 국시해노머 국시 맛있어. {준비해놓으면, 국수 반죽할 때 콩가루 쫌 섞어서 그래 국수 해놓으면 국수 맛있어.}

10509 # 나는 그 클 적에 콩까리만 들었다하며 머리가 아파, 머 안 먹지. {나는 그 클 적에 콩가루만 들었다하면 머리가 아파, 머 안 먹지.}

10509 @1, 2 음, 왜요? {음, 왜요?}

10509 # 이제 늙으니까 다 먹데. {이제 늙으니까 다 먹더라.}

10509 @2 아. {아.}

10509 # 아아 적에는 그런 거 콩까리만 머 들었다 하게 대머, {아이 적에는 그런 것 콩가루

만 머 들었다 하게 되면,}

10509 # 먹으며 막 머리가 아프고 두부도 안 먹었어. {먹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두부도 안 먹었어.}

10509 @2 그래요? {그래요?}

10509 # 응, 응. 두부, 조포야? {응, 응. 두부, 조포야?}

10509 @1 콩나물 뭐 이런 것은 먹는데 두부는 영 안 맞아요. {콩나물 뭐 이런 것은 먹는데 두부는 아주 안 맞아요.}

10509 @1, 2 지금도 잘 안 드시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두부 드세요? {지금도 잘 안 드시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두부 드세요?}

10509 # 그케 변해져, 그전에 난 그 그런 거 콩까리 영는 거 국시도 안 먹고. {그러게 변해져, 그 전에 나는 그런 거 콩가루 넣은 것 국수도 안 먹고.}

10509 @1 미나리도 안 먹고, 미나리 드십니까? {미나리도 안 먹고, 미나리 드십니까?}

10509 # 예, 미나리도. {예, 미나리도.}

10509 @1 난 미나리도 안 먹었어, 냄새가 나서. {난 미나리도 안 먹었어, 냄새가 나서.}

10509 # 그 미나리 냄새, 그런 향내 나서. {그 미나리 냄새, 그런 향이 나서.}

10509 @1 지금은 그 향내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그 향내가 얼마나 좋아요?}

10509 # 그래, 자꾸 변해져요. 이전에는 우리 집 식구들이 {그래, 자꾸 변해져요. 이전에는 우리 집 식구들이}

10509 # 야, 추석이고 단오고 내 혼자서 저엄두룩 끓고 찌지고 떡해고 머 이래 해노마. {야, 추석이고 단오고 나 혼자서 저물도록 끓고 지지고 떡하고 머 이렇게 해놓으면.}

10509 # 맛도 안본다. 떡겉은 거 맛도 안 보지며. {맛도 안 본다. 떡 같은 것을 맛도 안 보지 머.}

10509 # 똑 그 밥 가주고 오라 하지 머. 그래가 그래가주고 저엄두룩 해나도 맛도 안 보고 그래. {꼭 그 밥 가지고 오라 하지 머. 그래서, 그래서 저물도록 해놓아도 맛도 안 보고 그래.}

10509 @2 할배가요? {할배가요?}

10509 # 온 집 식구가 다 그래. 아이들이 다 하나도 떡도 맛도 안 보디. {온 집 식구가 다 그래. 애들이 다 하나도 떡도 맛도 안 보지.}

10509 # 지금은 떡 다 잘 먹데. 또 그래 변해지더라고. {지금은 떡 다 잘 먹더라. 또 그래 변해지더라고.}

10509 @1 나이 드니까 떡이 또 맛있더라구요. {나이 드니까 떡이 또 맛있더라고요.}

10509 # 그렇게 말이, 우리 큰아도 맛도 안 보디마 인제 떡 겉은 거 얼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이, 우리 큰아들도 맛도 안 보더니만 이제 떡 같은 것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1.4.5.8. 깍두기 담그기

10513 @2 음. 할머니 그 깍두기도 해 드셨어요? {음. 할머니 그 깍두기도 해 드셨어요?}

10513 # 응. {응.}

10513 @2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10513 # 그거 어 무시 참하게 찢이가. {그것은 어 무를 참하게 찢어서.}

10513 @2 예. {예.}

10513 # 참하게 찢이가주고 그거 소금물에 절여놔다가 물 부마. {참하게 찢어서 그것을 소금물에 절여놓았다가 물 부으면.}

10513 @2 응. {응.}

10513 # 그기 동동 잘 안 떠. {그것이 동동 잘 안 떠.}

10513 @2 예. {예.}

10513 # 찢이가주고 단지에다 그거 준비 다 해가 여 여가주고, {찢어서 단지에 그것을 준비 다 해서 넣고.}

10513 # 그걸 이제 소금하고 물하고 한목 부. {그것을 이제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부어.}

10513 @2 예. {예.}

10513 # 한목 부가주고 국자로 자꾸 젓어가며 맛 보거등. {같이 부어서 국자로 자꾸 저어가며 맛을 보 거든.}

10513 @2 예. {예.}

10513 # 맛보며, 그 아이 무시에 물이 잔뜩 안 배시끼 맛을 모른다 말이야. {맛보면 그 아직 무에 물이 잔뜩 안 배어서 맛을 모른다 말이야.}

10513 @2 예. {예.}

10513 # 메칠을 그념을 맛을 본다. {머칠을 그것을 맛을 본다.}

10513 @2 네. {네.}

10513 # 맛을 보고 짬으며 여 물 더 붓고. {맛을 보고 짜면 여기 물을 더 붓고.}

10513 @2 네. {네.}

10513 # 안 짬으며 고래 나뭇다가 나양주에 먹을 때 대가 파를 마이 찢이여야 대. {안 짜면 그래 나뭇다가 나중에 먹을 때 되어서 파를 많이 찢어 넣어야 돼.}

10513 @2 예. {예.}

10513 # 파를 마이 찢이 여야 그게 그기 맛있어. {파를 많이 찢어 넣어야 그게 그것이 맛있어.}

10513 # 물, 물, 그기 물김치래야. {물, 물, 그것이 물김치라야.}

10513 # 깍두기. {깍두기.}

10513 @1 이제 말 한 것은 깍두기가 아니지요. {이제 말 한 것은 깍두기가 아니지요.}

10513 # 깍두기 그거는 고고는 멍 또 그렇게 찢이가, 그 소금 흐쳐놔다가 고래. {깍두기 그거는 그거는 역시 또 그렇게 찢어서, 그 소금 흘려놓았다가 그래.}

10513 @2 할머니 지금 물김치 말씀하셨죠? 물김치. {할머니 지금 물김치 말씀하셨죠? 물김치.}

10513 # 그 물김치. {그 물김치.}

10513 @1 물이 없이 배차 가지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물이 없이 배추 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10513 # 그, 그저, {그, 그저,}

10513 @1 가을에? {가을에?}

10513 # 막김치, 막김치. {덤불김치, 덤불김치.}

10513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0513 # 예, 그 많은 김치요? {예, 그 많은 김치요?}

10513 @1 예, 예. {예, 예.}

10513 # 예, 그 김치한다 하지. {예, 그 김치를 한다 하지.}

10513 @1 그 김치한다 그럼니까? 지 담는다 그럼니까? {그 김치를 한다고 그럼니까? 지 담근다고 그럼니까?}

10513 # 김치 담는다 그러지. {김치 담근다고 그러지.}

10513 @1 김치 담는다. {김치 담근다.}

10513 # 예. {예.}

10513 @1, 2 김장한다 하지요? 김장, 아 찐지? {김장한다 하지요? 김장, 아 찐지?}

10513 # 음, 찐지. {음, 찐지.}

10513 @1 찐지라 그럼니까? {찐지라 그럼니까?}

10513 # 예, 찐지라고도 하고 김치라고도 하고. {예, 찐지라고도 하고 김치라고도 하고.}

10513 @1 예, 예. {예, 예.}

10513 @2 할머니 그 갓김치 같은 것도 하는 것이 같아요? 갓김치? {할머니 그 갓김치 같은 것도 하는 것이 같아요? 갓김치?}

10513 # 그래, 갓김치도 그도 맹 절이 나았다가, {그래 갓김치도 그것도 역시 절여놓았다가,}

10513 @2 예. {예.}

10513 # 그리 양념 썰어가 그 주물리 맹 그러지 머. {그렇게 양념 섞어서 그 버무려 역시 그렇게 하지 머.}

10513 @2 다 같어요? {다 같아요?}

10513 # 그래, 다 같애. {그래, 다 같아.}

10513 @2 응. {응.}

10513 # 영채김치도 맹 같애. {영채김치도 역시 같아.}

10513 @2 응, 영채, 영채는 한국에는 없어요. {응, 영채, 영채는 한국에는 없어요.}

10513 # 없어? {없어?}

10513 @2 예, 예. {예, 예.}

10513 # 응, 나도 한국의 영채 생각이 안나. {응, 나도 한국의 영채 생각이 안나.}

1.4.5.9. 청국장 만들기

10514 @2 할머니 그 청국장 알아요? 청국장? {할머니 그 청국장 알아요? 청국장?}

10514 # 청국장, 응. 거기 잘 띄우기 힘들어. {청국장, 응. 그것 잘 띄우기 힘들어.}

10514 @2 잘 띄우기 힘들어요? 드세요, 할머니는? {잘 띄우기 힘들어요? 드세요, 할머니는?}

10514 # 아이, 나는 그거 잘 안 먹어. {아니, 나는 그것은 잘 안 먹어.}

10514 @1 충청도 사람은... ... {충청도 사람은... ...}

10514 # 우리 숙, 우리 식구들이 그 장 해가 상우에 못 갖다 놓게 해. 꾸른 내 난다고 이. {우리 식, 우리 식구들이 그 장을 해서 상우에 못 갖다 놓게 해. 구린내 난다고 이.}

10514 @2 꾸른 내 나요? {구린내 나요?}

10514 # 꾸린 내 난다 하면서 못 갖다 놓게 했어. {구린내 난다고 하면서 못 갖다 놓게 했어.}

10514 @1 예, 예. {예, 예.}

10514 # 그래 지금은 거기 거기 건강에 그리 좋다메. {그래 지금은 그 것이, 그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며.}

10514 @1 예. {예.}

10514 # 그걸 폭 삶거든. 물기있게 푸욱 삶어가주고. {그것을 폭 삶거든. 물기가 있게 폭 삶아서.}

10514 # 뜨끈뜨끈할 쟁에 그, 그 큰 양재기다. {뜨끈뜨끈할 적에 그, 그 큰 양재기에다.}

10514 # 한 양재기 담아가주고 뜨끈뜨끈할 때 담아가주고. {한 양재기에 담아서 뜨끈뜨끈할 때 담아서.}

10514 # 여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가 뜨신데다 놓고 푸욱 덮어가주고 잘 띄우마. {여기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뜨신 곳에 놓고 폭 덮어서 잘 띄우면.}

10514 # 지르르하게 그랜기라야 그기 잘 떴다 그래. {지르르하게 그렇게 된 것이라야 그것이 잘 떴다 그래.}

10514 # 말라가 퍼시력하이 떴는 거, 그는 잘 뜯기 아이라. {말라서 푸석푸석하게 뜯는 것, 그것은 잘 뜯는 것이 아니라.}

10514 @1 그렇쥬, 지르르하이. {그렇쥬, 지르르하게.}

10514 # 지르르하이 흐리는기 그기 잘 떴다 그래. {지르르하게 흐르는 것이 그것이 잘 떴다 그래.}

10514 @1 일본에서는 그기 낫도야. {일본에서는 그것이 낫도야.}

10514 # 예, 그기 그 건강에 {예, 그것이 그 건강에}

10514 @2 지르르? {지르르?}

10514 # 음. 물이 지르르하게, 진이 지르르하게 나게. {음. 물이 지르르하게, 진이 지르르하게 나게.}

10514 @1 지르르, 지르르하게. {지르르, 지르르하게.}

10514 # 예. {예.}

10514 @2 음, 그러면은 껍썩하게 뜨면요? {음, 그러면은 푸석푸석하게 뜨면요?}

10514 # 껍썩하게 뜨는 그거는 잘 못 뜯는 거야. {푸석푸석하게 뜨는 그것은 잘 못 뜯는 것이야.}

10514 @1, 2 음, 그래요? 그 물기 없는 것. 푸석푸석한 것. {음, 그래요? 그 물기 없는 것. 푸석푸석한 것.}

10514 @2 그기 일본에서 얼마 비싼지 몰라요. 명희한테 물어봐요. 먹나 안 먹나? 명희 꼭 먹을 거예요. {그것이 일본에서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명희한테 물어봐요. 먹나 안 먹나? 명희는 꼭 먹을 거예요.}

10514 # 그기? {그것이?}

10514 @2 예. 그거 아주 비싸요. {예. 그거 아주 비싸요.}

10514 @1 된장 담는 것은 했어요? {된장 담는 것은 했어요?}

1.4.5.10. 막걸리 담그기

10516 @2 예, 예. 할머니 그 이전에 막걸리 담았다고 했쥬? {예, 예. 할머니 그 이전에 막걸리 담았다고 했쥬?}

10516 # 응, 그래. {응, 그래.}

10516 @2 막걸리 어떻게 담아요? {막걸리를 어떻게 담아요?}

10516 # 막걸리? 막걸리 누룩, 누룩만 잊어 내 지금도 해내. {막걸리? 막걸리 누룩, 누룩만 있으면 나 지금도 해내.}

10516 # 찹쌀을 푸욱 담가놔다가 꼬두밥을 찌거든, 시루에. {찹쌀을 폭 담가놓았다가 술밥을 찌거든, 시루에.}

10516 @2 예. {예.}

10516 # 꼬두밥을 찌고, 찌면서 그 누룩을 칼로 쫓아가주고. {술밥을 찌고, 찌면서 그 누룩을 칼로 쫓아서.}

10516 @2 네. {네.}

10516 # 응, 요마끔 요마끔 대헌 덩거리 잊어도 돼. {응, 요만큼, 요만큼한 덩어리 잊어도 돼.}

10516 # 칼로 쫓아가 물에다 푸욱 양재기다 담과 붓과. {칼로 쫓아서 물에다 폭 양재기에다 담가 불려.}

10516 # 붓과가주고 꼬두밥 찢는 거 퍼가주고 식화가주고 다 식기 해가. {불려서 술밥 찢것을 퍼서 식혀서 다 식게 해서.}

10516 # 그담에는 편에다가 누룩, 밥 놓고 누룩 그 옹고 해가 치대가주고. {그 다음에는 대야에다가 누룩, 밥 놓고 누룩 그 넣고 해서 저어서}

10516 # 단지에 부가 여 바 나두면 대는거야. {단지에 부어서 여기 방에 놔두면 되는 거야.}

10516 @2 예. {예.}

10516 # 바 나두며 부글부글 기여 올라. {방에 놔두면 부글부글 기여 올라.}

10516 @1 물을 좀 붓습니까? {물을 좀 붓습니까?}

10516 # 예, 물 버가, 그래가는. {예, 물 부어서, 그래서는.}

10516 @1 물 좀 부면. {물 좀 부면.}

10516 # 그 딱 다 해놓고 нама, 이래 손 여머 물이 여겨정 오지. 물이 여겨정 오며 물 대는 거야. {그 딱 다 해놓고 나면, 이렇게 손 넣으면 물이 여기까지 오지. 물이 여기까지 오면 물이 되는 거야.}

10516 @1 예. {예.}

10516 # 그래 노오며 그 술이 참 좋다. {그래 놓으면 그 술이 참 좋다.}

10516 @1 따실 때에 그 여서 부글부글 올라올 때 술을 {따뜻할 때에 그 여기서 부글부글 올라올 때 술을}

10516 # 예, 그 술이 꺾는 거예요. {예, 그 술이 꺾는 거예요.}

10516 @1 쾨다 그러쥬? {쾨다 그러쥬?}

10516 # 예. 술이 맛있어. 그 여자들도 그다 탕까리를 쥬 여노마, 한사발씩 먹어네. {예. 술이 맛있어. 그 여자들도 그것에 설탕을 쥬 넣으면, 한 사발씩 먹어.}

10516 # 예전 여자들도. {예전 여자들도.}

10516 @1 그렇쥬. {그렇쥬.}

10516 # 그거 맛있어. {그것이 맛있어.}

10516 @2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도 드세요?}

10516 # 내도 글썽는 먹었어. {나도 그때는 먹었어.}

10516 @1 그럼 그걸로 갔다가 막걸리를 어썸니까? 그 안에 막 술찌개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로 갔다가 막걸리를 어쩡니까? 그 안에 막 술 찌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10516 # 예, 채로. {예, 채로.}

10516 @1 아, 채에다 글러냅니까? {아, 채에다 글러냅니까?}

10516 # 그으 이렇게 채 다리[따리] 걸쳐놓고 여다 채를 우에 얹어놓고 {그 이렇게 채 다리 걸쳐놓고 여기에다 채를 우에 얹어놓고}

10516 # 채로 그르지 머. 글러가 그래 어얼매 좋아하노? 남자들은 이전에 막걸리라 하게 대머. {채로 그르지 머. 글러서 그래 얼마 좋아하나? 남자들은 이전에 막걸리라 하게 되면.}

10516 # 중국에서도 뎌쓰에 보니까네 막걸리라하이 여영 좋아하데. {중국에서도 TV에 보니까 막걸리라 하면 아주 좋아하더라.}

10516 @1 요즘 막걸리가 마춤 유행입니다. {요즘 막걸리가 마침 유행입니다.}

10516 # 아, 그래. 거기 사람한테 아 해라반가 바요. 그기요. {아, 그래. 그것이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가 봐요. 그것이요.}

10516 @1 사람한테 그리 좋지요. 유산균에다가 그 양분이 많고요, 옛날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습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좋지요. 유산균에다가 그 양분이 많고요, 옛날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습니까?}

10516 # 야, 얼굴이 불그리이하이 해가주고 {야,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해서}

10516 # 그 막 일하다만 일하다 힘들어도 막 한 사발 마시노마 힘이 별떡 나고 막 그래. {그 막 일하다가 일하다 힘들어도 막 한 사발 마시면 힘이 별떡 나고 막 그래.}

10516 @1 일본 사람도 막 한국 막걸리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도 막 한국 막걸리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10516 # 예, 맞아요. 거기 다 좋아요. {예, 맞아요. 그것이 다 좋아요.}

10516 @2 할머니 혹시 다른 뭐 소주 같은 것은 만들어봤어요? 청주? {할머니 혹시 다른 뭐 소주 같은 것은 만들어봤어요? 청주?}

10516 # 쏘주? 쏘주 걸은 거는 아 해봤어. {소주? 소주 같은 것은 안 해봤어.}

10516 @1 아랑주? {아랑주?}

10516 # 아랑주, 아해봤어. {아랑주, 안 해봤어.}

10516 @2 음. {음.}

10516 # 쏘주 그거 그래데, 그 사람들 보이께. {소주 그것은 그러더라, 그 사람들 보니까.}

10516 # 막걸리 담아놔잖아요. {막걸리 담아 놓았잖아요.}

10516 @1 예. {예.}

10516 # 똑 지금 보며 머라하겠노, 딱 물병에 그전 대나무 얹었엇는거이. 이만한 거 잇거 등. {딱 지금 보면 머라 하겠나, 딱 물병에 그전에 대나무 얹은 것이. 이만한 것이 잇거든.}

10516 # 그다 떡 꼽어놓더라고 술 단지 가운데 떡 꼽어나. {거기에다 떡 꽂아놓더라고 술 단지 가운데 떡 꽂아나.}

10516 # 술 다 뎌담에 이 꼽아놔는데, 그래 그거 이제 다 먹고 이. {술이 다 된 다음에 이 꽂아놓았는데 그래 그거 이제 다 먹고 이.}

10516 # 그래 이래 짜먹고는 그 술을 술에 꼬오더라고. {그래 이렇게 짜먹고는 그 술을 술에 과더라고.}

10516 @2 예. {예.}

10516 # 내 자시는 몰라도 술에다 막 불을 때가 꼬오마. {내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술에다 막 불을 때서 과면.}

10516 # 그 술집이 올라가주고 김이 툭툭 널찌는 거기 소주라. {그 술집이 올라와서 김이 툭툭 떨어지는 그것이 소주라.}

10516 # 그걸 그걸 소주라 해. 거기 힘들어, 그거 하는거이. {그것을, 그것을 소주라 해. 그것이 힘들어 그것 하는 것이.}

10516 @2 힘들어요? {힘들어요?}

10516 # 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있는데 그 막 장이 잇거든요. {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있는데 그 막 장이 있거든요.}

10516 @1 예. {예.}

10516 # 장날이 있는데, 모두 장아 간다고 그래는데 이 사람이 장아 가고 싶어 그래. {장날이 있는데, 모두 장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장에 가고 싶어 그래.}

10516 # 장에 가고 싶어, 어른들이 '야, 그 장에 머 할러 갈래? 다른 사람 장아 가이 거름 지고 장 간다하디. {장에 가고 싶어 어른들이 '야, 그 장에 머 하러 갈래? 다른 사람은 장에 가니 거름 지고 장에 간다하디니.}

10516 # 니가 딱 글래, 무슨 장에 무슨 불일이 잇겠노?' 카머 그래. {네가 딱 그렇구나, 무슨 장에 무슨 불일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10516 # 주막을 나갔지머. {주막을 나갔지 머.}

10516 @1 네. {네.}

10516 # 술 파는 주막집을 나가이께. {술을 파는 주막집을 나가니까.}

10516 # 어떤 친구가 하나 '오늘 머 장에나 세나 니하고 내하고 술내기하자.' 그랬거등. {어떤 친구가 하나 '오늘 머 장에는 가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술내기하자.' 그랬거든.}

10516 @1 예. {예.}

10516 # 술내기를 하자, 그전에 그 노인들 밥 옥식기 얼마나 오막하이 커요. {술내기를 하자. 그전에 그 노인들 밥 오목주발 얼마나 오목한 것이 커요.}

10516 @1 네. {네.}

10516 # 술내기를 하자 한테 소주라고 예, 소주를 갖다 놓고 내기를 한테. {술내기를 하자 하는데 소주라고 예, 소주를 갖다 놓고 내기를 하는데.}

10516 # 그 한옥식기 가뜩 담아가 '니 먹겠나 못 먹겠나?' 그래. {그 한 오목주발 가뜩 담아서 '너 먹겠니 못 먹겠니?' 그래.}

10516 # 그카이께, 그 사람이 '내 먹어낸다.' 그카거등.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내 먹어낸다.' 그렇게 말하거든.}

10516 @1 네. {네.}

10516 # 그럼 내기하자, '니 그거 다 머어마 술값 내가 내 내고, {그럼 내기하자, '너 그것을 다 먹으면 술값을 내가, 내가 내고,}

10516 # 니 그거 먹다 못 다 머으면 술값 니 내야 댄다.' {너 그것을 먹다 못 다 먹으면 술값 네가 내야 된다.}

10516 # 장아도 안가고 앉어가 그런 장난을 하고 잇었지 잇다가. {장에도 가지 않고 앉아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었지 있다가.}

10516 # 그 사람 막 지 돈 안넬라고 그랬겠지. {그 사람이 막 자기가 돈을 내지 않으려고

그랬겠지.}

10516 # 그 옥식기 큰 옥식기에 소주를 한옥식 다 먹었다. {그 오목주발 큰 오목주발에 소주를 한 오목주발 다 먹었다.}

10516 # 다 먹고 나서는 막 죽는다. 죽는다고 야다이라고요. {다 먹고 나서는 막 죽는다, 죽는다고 야단이라고요.}

10516 @1 예. {예.}

10516 # 죽는다고, 그 그래 찢는기 또 독해요. {죽는다고, 그 그래 고은 것이 또 독해요.}

10516 @1 예, 예. {예, 예.}

10516 # 죽는다고 야다이께, 이 사람들은 머 거얼또 술 먹고 죽겠나, 그 생각했겠지. {죽는다고 야단이니까, 이 사람들은 머 그거 머 술 먹고 죽겠나, 그 생각했겠지.}

10516 # 그래가주고 그래 죽는다고 야단하다가 막. {그래서 그래 죽는다고 야단하다가 막.}

10516 # 막 고만 머 마당에 나가가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도꾸코 야단인데. {막 그만 머 마당에 나가서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토하고 야단인데.}

10516 # 나양주에는 시꺼먼 걸 막 도꾸치. {나중에는 시꺼먼 것을 막 토하지.}

10516 # 시킴하머 속에 불이 붙었어야. {시커머면 속에 불이 붙었어야.}

10516 @1 그렇지. {그렇지.}

10516 # 시커먼 걸 막 도꾸는데 결국은 어찌이대노, 저거 집에 실어다 주야 대잖아야. {시커먼 것을 막 토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 집에 실어다 주어야 되잖아.}

10516 @1 예. {예.}

10516 # 저거 집에 다리다 노이께 바아 못잇고 막 마당 가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방에 있지도 못하고 막 마당에 가서}

10516 @1 불 속에 불이 나는데 밖에 나가야지요. {불 속에 불이 나는데 밖에 나가야지요.}

10516 # 엎어지고 잡빠지고 막 그란데, 막 시꺼먼 걸 도꾸코 그래.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란데 막 시꺼먼 것을 토하고 그래.}

10516 @1 아. {아.}

10516 # 죽었어요. 음식내기 할 것 절대로 아이래요. {죽었어요. 음식내기 할 것 절대로 아니래요.}

10516 @1 그렇지요. {그렇지요.}

10516 # 그래가 그 사램이 고만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 죽었어.}

10516 # 그 독한 소주를 그만한 옥식기에다가 한 옥식기 먹고. {그 독한 소주를 그만한 오목주발에다가 한 오목주발 먹고.}

10516 # 아이구. {아이고.}

10516 @2 옥식기가 무슨 말이에요? {오목주발이 무슨 말이에요?}

10516 # 옥식기라고 옛날에 머 상어른들 밥그릇이야 그게 놋그릇. {오목주발이라고 옛날에 머 상어른들 밥그릇이야 그것이 놋그릇.}

10516 # 녹으로 맨든 놋그릇으로 맨들어가 밥 옥식기. {녹으로 만든 놋그릇으로 만들어서 밥 오목주발.}

10516 # 제사 지내도 딱 그런 {제사 지내도 딱 그런}

10516 @1, 2 녹그릇, 아 옥식기를 그러군요. {놋그릇, 아 오목주발을 그러군요.}

10516 # 그 그런 일도 잇어. {그 그런 일도 잇어.}

10517 @2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서 있잖아요, 저 다른 마을은 크게 안 해먹는데 고유한 전

통 음식같은 것 있어요?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서 있잖아요, 저 다른 마을은 크게 안
해먹는데 고유한 전통 음식 같은 것 있어요?}

10517 # 무슨 음식? {무슨 음식?}

10517 @2 뭐 특별히 해먹는 음식? {뭐 특별히 해먹는 음식?}

10517 # 없어. {없어.}

10517 @2 이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10517 # 그래 사람들이 다 어데 갔부고. {그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10517 @2 옛날에? {옛날에?}

10517 # 그 그런기 없어. 특별하게 할 줄 아는 거 머 있나? {그 그런 것이 없어. 특별하게
할 줄 아는 것 머 있나?}

10517 @1 의성에 있을 때는요? {의성에 있을 때는요?}

10517 # 으성에 잇을 때는 머 나이 열매 안대서이게 우리 춘자마끔한 거. {의성에 있을 때
는 머 나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춘자만 한 것.}

10517 # 그거 머 알겠어요? {그것 머 알겠어요?}

10517 @1 그래도 다 컸는데요. {그래도 다 컸는데요.}

10517 # 예이, 다 커도 그거 엄마 해주는기나 먹지, 그런거. {예이, 다 커도 그것 엄마 해준
것이나 먹지, 그런 것.}

10517 @1 그러게요, 그 엄마 해주는 것 중에서 특히 맛이 있었다든지, 특별나다든지. {그러
게요, 그 엄마 해주는 것 중에서 특히 맛이 있었다든지, 특별나다든지.}

10517 # 그저 한국에서도 그저 인제 얘기하던 시리떡도 해먹고 찰떡도 해먹고. {그저 한국
에서도 그저 이제 이야기하던 시루떡도 해먹고 찰떡도 해먹고.}

10517 # 흰떡도 해먹고 그렇지요. {흰떡도 해먹고 그렇지요.}

1.4.5.11. 감자 장조림 만들기

10517 @2 할머니 여기에서 하는 감자 장조림 어릴 때부터 정말 맛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
요? 감자 장조림. {할머니 여기에서 하는 감자 장조림 어릴 때부터 정말 맛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감자 장조림.}

10517 # 감자 장조림? {감자 장조림?}

10517 @2 예. {예.}

10517 # 해먹고 싶어? {해먹고 싶어?}

10517 @2 예, 그거 제일 맛있어요. {예, 그것이 제일 맛있어요.}

10517 # 맛있거등, 해머어라. {맛있거든, 해먹어라.}

10517 @2 아니,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야 제가 하죠. {아니,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야 제가
하죠.}

10517 # 그거 간장 넣고 샐는 간장이 우리 그 인제 쪼끔 붙엇어. {그것 간장 넣고 산 간장
이 우리 그 이제 조금 남았어.}

10517 @2 아, 어제 사왔어요. {아, 어제 사왔어요.}

10517 # 간장을? {간장을?}

10517 @2 예, 어제 간장 사왔어요. {예, 어제 간장 사왔어요.}

10517 # 간장을 다 사왔나? {간장을 다 사왔나?}

10517 @2 예. {예.}

10517 # 소금 쯤 넣고 그 간장 쯤 붓고. {소금 쯤 넣고 그 간장 쯤 붓고.}

10517 @2 그 다음에 뭐뭐 넣어요? {그 다음에 뭐뭐 넣어요?}

10517 # 그래가주고 머 또 그거 저게 생강도 쯤 넣고, 마늘도 더러 넣고. {그래서 머 또 그
것 저기 생강도 쯤 넣고, 마늘도 쯤 넣고.}

10517 @1, 2 네, 설탕은요? 탕? {네, 설탕은요? 탕?}

10517 # 탕까리는 안 었어. 안 여어도 그리 맛있어. {설탕은 안 넣었어. 안 넣어도 그렇게
맛있어.}

10517 @1 음. {음.}

10517 # 그리 고기도 쯤 넣고. {그렇게 고기도 쯤 넣고.}

10517 @2 무슨 고기 넣어요? {무슨 고기 넣어요?}

10517 # 소고기나 머 대지고기나 쯤 넣고, 고래가 하며 대지. {소고기나 머 돼지고기 쯤 넣
고, 그래서 하면 되지.}

10517 # 대지고기 저 잇어, 썰어 여. {돼지고기 저기 잇어, 썰어 넣어.}

10517 @2 그리고 돼지고기, 그 다음에는 작은 감자, 또 고구마? {그리고 돼지고기, 그 다음
에는 작은 감자, 또 고구마?}

10517 # 고구마는 없어. {고구마는 없어.}

10517 @2 고구마 녀줄? 넣어요? {고구마 덩굴? 넣어요?}

10517 # 아니, 고구마 녀줄걸은 거는 디치가 말리앗는거라야 대지. {아니, 고구마 덩굴 같은
것은 데쳐서 말려 놓은 거라야 되지.}

10517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17 # 민들레 그거 말란 거 쯤 잇을께라. {민들레 그것 말린 것은 쯤 있을거라.}

10517 @2 음. {음.}

10517 # 그거 잇어꺼라, 내가 아아들한테 다 보냈는지 한 분 찾아보자. {그것 있을거라, 내
가 아이들한테 다 보냈는지 한 번 찾아보자.}

10517 # 고고 쯤썸 썬어가 넣고, {그그 조금 썬어서 넣고,}

10517 @2 또 뭐 넣어요? 고추? {또 뭐 넣어요? 고추?}

10517 # 응, 꼬추 쯤 넣고, 고래가 쫄아가 머어먼 대. {응, 고추 쯤 넣고, 그래서 줄여서 먹
으면 되.}

10517 # 여 메치(중-가스)에다가 해라. {여기 가스에다가 해라.}

10517 @2 네, 할머니 이전에 뭐 하면 애들이 뭐를 제일 잘 먹었어요? {네, 할머니 이전에
뭐 하면 애들이 뭐를 제일 잘 먹었어요?}

10517 # 애들이? {애들이?}

10517 @2 예, 춘자오면 할머니가 이전에 해줬던 뭐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예, 춘자가 오
면 할머니가 이전에 해줬던 뭐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10517 # 그 고구마 쫄거리, 그거 해주머이 장조리에 여주머 그거 아아들 좋다 그래. {그 고
구마 덩굴, 그것을 해주면 장조림에 넣어주면 그것 애들이 좋다 그래.}

10517 # 그기 하나도 없을기라. {그것이 하나도 없을거라.}

10517 @2 음, 그럼 명희랑 오면 할머니 해준 것 무엇을 제일 먹고 싶데요? 그런 것 한번 말

습해보세요. {음, 그럼 명희랑 오면 할머니 해준 것 무엇을 제일 먹고 싶데요? 그런 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10517 # 그 가아들은 머 트웁별하게 어 그 맛있다고 머 그카지도 아해. {그 아이들은 머 특별하게 그 맛있다고 머 그렇게 말하지 않아.}

10517 # 그카지도 안하고 '어, 할매한 거 영 좋다.'고 그래지머. {그렇게 말하지도 안하고 '어, 할머니가 한 것 아주 좋다.'고 그러지머.}

10517 @2 음, 그래요? {음, 그래요?}

10517 # 아아들이 머 트웁별하게 머 하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카지도 않고 그래. {아이들이 머 특별하게 머 이것 좋고 저것 좋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

10517 # 그저 우리 저 저어기 큰 손자는 오마, 만날 영채 찾아. {그저 우리 저 저기 큰 손자는 오면 매번 영채 찾아.}

10517 @2 영채요? {영채요?}

10517 # 작년에 영채를 내가 안 솜갓어. {작년에 영채를 내가 안 심었어.}

10517 @2 할머니 여기 더덕 있죠? {할머니 여기 더덕 있죠?}

10517 # 더덕 산에 가머 잇는가바. {더덕 산에 가면 잇는가봐.}

10517 @1 네. {네.}

1.4.5.12. 그 외의 반찬 만들기: 더덕, 영채, 당근

10517 @2 더덕은 어떻게 해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더덕은 어떻게 해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10517 # 더덕? {더덕?}

10517 @2 예. {예.}

10517 # 찻부고 저기 저 물에 썬엇부고 툭툭 요 납주웁하이 툭툭 뚜드리가. {까서 저기 저 물에 썬고 툭툭 요 납작하게 툭툭 두드려서.}

10517 # 꼬오장하고 던장하고 썬어서 여 발라가. {고추장하고 된장에 섞어서 바르고.}

10517 # 그 위이쑤(중-아지나모도)도 썬 옹고 머 다시다도 썬 옹고 그래. {그 미음도 썬 옹고 머 다시다도 썬 옹고 그래.}

10517 # 양념해가, 마늘도 옹고 해가, 고르고 젓어가 곱으머 대지머. {양념해서, 마늘도 옹고 해서 고르게 저어서 곱으면 되지머.}

10517 @2 전에는 그 더덕을 고추장에도 옹고 했죠? {전에는 그 더덕을 고추장에도 옹고 했죠?}

10517 # 응 꼬오장에 더덕지 옻어. {응 고추장에 더덕지 옻었어.}

10517 # 자꾸 그런거 장에 자꾸 옻기 대머 장 베리. {자꾸 그런 것 장에 자꾸 옻게 되면 장 못쓰게 되.}

10517 @2 음. {음.}

10517 # 장에 그런 거 마이 여머 장 베리. {장에 그런 것 많이 옻으면 장 못쓰게 되.}

10517 @2 근데 맛있죠? 그것? {근데 맛있죠? 그것?}

10517 # 응? 음, 머 벨라게 맛있겟노? 맹 꼬오장 맛있고 더덕 맛있지. 그저 글치. {응? 음, 머 특별하게 맛있겟나? 역시 고추장 맛있고 더덕 맛있지.}

10517 @2 음, 그래요? 그것도 꼬장. 할머니 영채 옻해는 많이 심었어요? {음, 그래요? 그것

도 고추장. 할머니 영채 올해는 많이 심었어요?

10517 # 올해 안주 숨굴 때 안땀어, 백노에 숨가, 영채를. {올해 아직 심을 때 안땀어, 백노에 심어, 영채를.}

10517 @2 응, 그래요? 영채김치는 맹 같죠? 어떻게 띄워요? {응, 그래요? 영채김치는 역시 같죠? 어떻게 띄워요?}

10517 # 그거 띄울 적에 내는 그래 띄와. {그것 띄울 적에 나는 그렇게 띄워.}

10517 # 그거, 우리 집 편로라기 요맨한 거 하나 있어. {그것, 우리 집 편로라기 요맨한 것 하나 있어.}

10517 # 거기다 내 저어 동쪽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내 저 동쪽 방에다 갖다 놓고}

10517 @2 편로? {편로?}

10517 # 음, 편로. {음, 편로.}

10517 @2 아, 아. {아, 아.}

10517 # 동쪽 방에다 갖다 놓고 비가주고 깨끗하이 골리아가주고. {동쪽 방에다 갖다 놓고 배여서 깨끗하게 골라서}

10517 @2 응. {응.}

10517 # 골리아가주고는 고래 살살 갖다 요렇게 요래 띄우고. {골라서 그래 살살 갖다 요렇게 요렇게 띄우고.}

10517 # 어 층층이 고래가 갖다 놓고는 너벌 갖다 띄어. {어 층층이 그래서 갖다 놓고는 너벌 갖다 띄어.}

10517 # 보재기, 머 뜨끈, 뜨시도록 텅 갖다 띄어놓지머. {보자기, 머 따뜻, 따뜻하도록 텅 갖다 띄어놓지머.}

10517 # 띄어놓고 그 이튿날 또 가가 또 더적거리 놓고. {띄어놓고 그 이튿날 또 가서 또 뒤적거리 놓고.}

10517 # 또 그 이튿날 가가 더적거리 놓고 한분에 손 안대마, 꼬떡하머 물러부리. {또 그 이튿날 가서 뒤적거리 놓고 한 번에 손 안대면 잘못하면 무르지.}

10517 # 더적거리 놓고 고래 착착 띄어놓고 띄어놓고 그래다 나머 노릿노리하이 뜰 적이 있지머. {뒤적거리 놓고 그래 착착 띄어놓고 띄어놓고 그래다 나면 노르스름하게 뜰 적이 있지머.}

10517 # 그래 인지는 다 안대엿겄나 싫어가 들치보머 고리 노리하이. {그래 이제는 다 되지 않았나 싫어서 들춰보면 그렇게 노르스름하게.}

10517 # 뜨마, 그걸 갖다 그랑에 가서 싸악 썬부고 대소구리에 담아가 썬 썬부고. {뜨면 그것을 갖다 시냇물에 가서 싹 씻고 대소구리에 담아서 싹 씻고.}

10517 # 그래 인제 또 집에 와가 또 헹것부고 그래 또 편에다 편에나 쪼맨 단지나. {그래 이제 또 집에 와서 또 헹구고 그래 또 대야에다 대야나 작은 단지나.}

10517 # 그 소금에다 절가가주고 절가가 단지에 뽕뽕 여 나두머 폭 죽거등. {그 소금에다 절이고 절여서 단지에 뽕뽕 넣어두면 폭 죽거등.}

10517 # 고래 폭 죽거루 나뒸다 나양주에 많은 김장할 때 갖인 양념하잖아. {그래 폭 죽도록 나뒸다 나중에 많은 김장할 때 갖은 양념하잖아.}

10517 # 그거 가주고 썬어가 머먼 대. {그것 가지고 썰어서 먹으면 되.}

10517 @2 이제 방금 어디에다 갖다 씻는다구요? 대소구리? {이제 방금 어디에다 갖다 씻는

다구요? 대소구리?}

10517 # 대소구리 그 담아가 썬어야 대지. {대소구리 그 담아서 썬어야 되지.}

10517 @2 아, 썬어야 돼요? {아 썬어야 돼요?}

10517 # 예, 그랑에 삭삭 썬어야 대. {예. 시냇물에 삭삭 썬어야 되.}

10517 @2 그럼 그 양념할 때는 그 김치 양념하고 같아요? {그럼 그 양념할 때는 그 김치 양념하고 같아요?}

10517 # 같애, 그래. 그래가 더 쪼끔 더 더 맛있게 할라머 그 다시다겔은 거, {같아, 그래. 그래서 더 조금 더 더 맛있게 하려면 그 다시다 같은 것.}

10517 # 위이쑤(중-미음), 저 저 위이쑤겔은 거 쫘 폭폭 마이 영고 그래 해머 대. {미음, 저 저 미음 같은 것 쫘 폭폭 많이 넣고 그래 하면 돼.}

10517 @2 전에는 다시다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전에는 다시다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10517 # 응, 그래. 다시 이전에는 다시다도 없었지머. {응, 그래. 다시 이전에는 다시다도 없었지머.}

10517 @2 응. {응.}

10517 # 그 지금은 그런 거 안여머 맛없어. {그 지금은 그런 것 안 넣으면 맛없어.}

10517 @2 그래요? 남경에서 먹고 싶어서 파는 것은 있어요. 청도에서 만든 것인데 그거 사 먹고 있어요. {그래요? 남경에서 먹고 싶어서 파는 것은 있어요. 청도에서 만든 것인데 그거 사먹고 있어요.}

10517 @2 응, 영채가 맛있어요. {응, 영채가 맛있어요.}

10517 @1 영채는 식물? {영채는 식물?}

10517 @2 식물이에요. 그 갓김치하고 비슷한데 갓김치보다 작은 것 두고 말해요. {식물이에요. 그 갓김치하고 비슷한데 갓김치보다 작은 것 두고 말해요.}

10517 @2 할머니 그 홍당무우 어떻게 먹어요? {할머니 그 당근 어떻게 먹어요?}

10517 # 홍당무우? {당근?}

10517 @2 아니, 단뿌래기라 그랬어요? 아까는 셋째네 집에 가서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단뿌래기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셋째네 집에 가서 알려주셨잖아요.}

10517 # 아, 그거.{아, 그거.}

10517 @2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10517 # 홀루패라 하데, 중국말로. {홀루패라 하더라, 중국말로.}

10517 @2 예. 조선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예. 조선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10517 # 저기 그기 조선말로 그기 머더라? {저기 그것이 조선말로 그것이 뭐더라?}

10517 @2 단뿌래기 아니예요? {단뿌래기 아니예요?}

10517 # 단, 단뿌래기? {단, 단뿌래기?}

10517 @2 예, 단뿌래기, 단뿌래기. {예, 단뿌래기, 단뿌래기.}

10517 # 아니다, 그기 조선말로 그기 머더라? {아니다, 그것이 조선말로 그것이 머더라?}

10517 @2 홍당무우? {홍당무우?}

10517 # 어, 홍당무우 그 맞으꺼야. 그래가 그. {어 당근 그 맞을 거야. 그래서 그.}

10517 @1 당근도 아니고? {당근도 아니고?}

10517 @3 닌징이라고 안 해요? 닌징? {닌징이라고 안 해요? 닌징?}

10517 # 닌징 그 일본말이야. {닌징 그 일본말이야.}

10517 @1 그 당근이잖아요. {그 당근이잖아요.}

10517 # 응, 당근. {응, 당근.}

10517 @3 홍당무우가 당근. {홍당무우가 당근.}

10517 # 닌징은 일본말이야, 그게. 그래 그 그거 그거 머 나는 겨얼에 이렇게 안 얼거루 낫 두고 겨얼에 깎아 먹어. {닌징은 일본말이야, 그게. 그래 그 그것은 그것은 머 나는 겨얼에 이렇게 얼리지 않고 놔두고 겨얼에 깎아 먹어.}

10517 @2 그저? {그저?}

10517 # 응, 깎아 먹고 그담에는 어, 그거 음식한테 그걸 채칼로 쪼끔씩 밀어 옆데. {응, 깎아 먹고 그 다음에는 어, 그것 음식한테 그것을 채칼로 조금씩 밀어 놓더라.}

10517 # 거기 사램에게 좋다메. {그것이 사람에게 좋다며.}

10517 @1 예. {예.}

10517 # 예, 그래가, 그래가 여 먹고 그렇지머. {예, 그래서, 그래서 넣어 먹고 그렇지머.}

10517 # 저거 안주 굶자머 멀었어. 무시 뽕을 적부터 {저것이 아직 굶으려면 멀었어. 무 뽕을 적부터}

10517 @1, 2 이 선생 당근 맞지? 예, 맞아요. {이 선생 당근 맞지? 예, 맞아요.}

10517 # 당근 맞아. {당근 맞아.}

10517 @2 저기 심었어요. 오늘 아침 가서 봤어요. {저기 심었어요. 오늘 아침 가서 봤어요.}

10517 # 아, 그 내가 숨겨놔어. {아, 그 내가 심었어.}

10517 @2 한번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뽕아줄까 굶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뽕아줄까 굶지 않아서 그런데.}

10517 @2 근데 그 나는 어릴 때 분명히 큰엄마랑 말할 때 단뿌래기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나는 어릴 때 분명히 큰엄마랑 말할 때 단뿌래기라고 배웠어요.}

10517 # 단뿌래기를? {단뿌래기를?}

10517 @2 예. 단뿌러지, 단뿌래기. {예. 단뿌러지, 단뿌래기.}

10517 # 그 이 저 사람 말하는 대로이 우린 클 적에 그 닌징이라 했어. {그 이 저 사람 말하는 대로 우리는 클 적에 그 닌징이라 했어.}

10517 @2 그래요? {그래요?}

10517 # 그 닌징이 그 일본말이야. {그 닌징이 그 일본말이야.}

10517 @1 당근이라 그래요. {당근이라 그래요.}

10517 # 당근이 그이 조선말이라고 야. {당근이 그것이 조선말이라고 야.}

10517 @1 예. {예.}

10517 # 여는 중국말로 홀루패라 하데. {여기는 중국말로 홀루패가 하더라.}

10517 @1 저, 저 말을 말 먹이고 그랬잖습니까? {저, 저 말을 말 먹이고 그랬잖습니까?}

10517 # 저걸요? {저것을요?}

10517 @1 예, 서양에서는 말, 말 먹입니다. 잘 먹지요 예. {예, 서양에서는 말, 말 먹입니다.}

10517 @2 그, 그거 당나귀. {그, 그거 당나귀.}

10517 @1 예. {예.}

10517 # 당나구? {당나귀?}

10517 @2 그 사자성어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자성어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10517 @1 당근. {당근.}

10517 @1, 2 당근주고, 당근과 채찍이. 당근과 채찍이. {당근주고, 당근과 채찍이. 당근과 채찍이.}

10517 # 아. {아.}

10517 @2 콰이마썸.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콰이마썸.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10517 @2 할머니한테 오늘 많은 음식을 배웠는데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할머니한테 오늘 많은 음식을 배웠는데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0517 @2 오늘 먼저, 오늘이든 내일이든 전 부쳐 봅시다. {오늘 먼저, 오늘이든 내일이든 전 부쳐 봅시다.}

10517 # 응, 그래 해바. 그거 해 해 머어. 그 정구지 얼마 좋노. {응, 그래 해바. 그거 해 해 먹어. 그 정구지가 얼마나 좋나.}

10517 # 그 뿌이가, 저 가들 밭에도 있어 정구지. {그것 뿌이가, 저 그 아이들 밭에도 있어 정구지.}

10517 @2 응, 봤어요. {응, 봤어요.}

10517 # 그래 파이도 많애. {그래 파도 많아.}

10517 @2 예. {예.}

10517 # 파이고 영고 해가, 맛있게 한 분 해바라. {파도 넣고 해서, 맛있게 한 번 해봐라.}

10517 @1 전 부치면 맛있지. {전 부치면 맛있지.}

10517 # 응, 해바. 여 그 부치는데 홀로패 거기 굽으마. {응, 해바. 여기 그 부치는데 당근 그것이 굽으면.}

10517 @2 예. {예.}

10517 # 그 녀도 썸 밀어 여고 곱고 이. {그것도 썸 밀어 넣고 곱고 이.}

10517 @2 색깔이 고와요. {색깔이 고와요.}

10517 # 색깔 곱고 그런데. {색깔 곱고 그런데.}

10517 @2 네. {네.}

10517 # 거기 아이 찐찐해. {그것이 아직 잘아.}

10517 @2 요마이 해요? {요만큼 해요?}

10517 # 그만은 몰래 그만도 안할거야. 안주 안 굽었어. {그만은 몰라 그만도 안 할거야. 아직 안 굽었어.}

10517 @3 그럼 안 굽지 않습니까? {그럼 안 굽지 않습니까?}

10517 # 숨근지 얼마 대지도 안해. {심은지 얼마 되지도 안 해.}

10517 @2 그래요? 마지막에 조금만 더 있으면 그 팍팍 굽어지는가 봐요. {그래요? 마지막에 조금만 더 있으면 그 팍팍 굽어지는가 봐요.}

10517 # 굽어지지 그래, 어떤 거는 어법 이만큼 굽데. 이만큼 굽데. {굽어지지 그래, 어떤 것은 꽤 이만큼 굽더라. 이만큼 굽더라.}

10517 @2 그보다 더 굽은 것 많이 나와요. 시장에 것은 근데 맛도 없어요. {그보다 더 굽은 것 많이 나와요. 시장에 것은 그런데 맛도 없어요.}

10517 # 시장에는 지금도 있어 꺼야. {시장에는 지금도 있을 거야.}

10517 @2 예, 근데 맛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맛이 없어요.}

10517 # 지금 맛있지. {지금 맛있지.}

10517 @2 다 맛있어요. 여기 밭에서 나는게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여기 밭에서 나는게 제일 맛있어요.}

10517 # 밭에서 이거 그 저기 비료같은 거 안주고 {밭에서 이것 그 저기 비료 같은 것 안주고}

10517 @2 네. {네.}

10517 # 마음 놓고 먹잖아. 지가 숨근 거는. {마음 놓고 먹잖아. 자기가 심은 것은.}

10517 @2 예, 할머니네 집의 것이 제일 맛있어요. {예, 할머니네 집의 것이 제일 맛있어요.}

10517 # 그래. {그래.}

10517 @2 할머니 방금 펠로라 했는데, 펠로가 어떤 거예요? {할머니 방금 펠로라 했는데, 펠로가 어떤 거예요?}

10517 # 펠로가 그전에, {펠로가 그전에,}

10517 @2 아. {아.}

10517 # 연자간에 바아 찢는데 씨는 거 아이가? {연자간 방아 찢는데 쓰는 것 아니가?}

10517 @2 예. {예.}

10517 # 이래 쌀 받추코하는 거. {이렇게 쌀 받들고 하는 것.}

10517 @2 예, 예. {예, 예.}

10517 # 그 그런거야. {그 그런거야.}

10517 @2 뭐로 만들었어요? 펠로? {뭐로 만들었어요? 펠로?}

10517 # 버들이지. {버들이지.}

10517 @2 아. {아.}

10517 # 보향게 깎아가 맨들은 그거지. {보향게 깎아서 만든 그것이지.}

10517 # 우리 집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우리 집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10517 @1 자리가 아니야, 자리 같은 것. {자리가 아니야, 자리 같은 것.}

10517 @2 그거 아니고, 이래 뭐 맹 역시 담아가 다니는 거 같아요. {그거 아니고, 이래 뭐 역시 담아가 다니는 거 같아요.}

10517 @2 할머니, 담아가 다니는데 무겁지 않고. {할머니, 담아가 다니는데 무겁지 않고.}

10517 # 안 무거, 해까워. {안 무거워, 가벼워.}

10517 @2 그렇죠? 그 할머니 지금 세수대야랑 쓰는 것 저런 거 큰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루떡 앉히고 할 때 쓰는 것. {그렇죠? 그 할머니 지금 세숫대야랑 쓰는 것 저런 거 큰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루떡 앉히고 할 때 쓰는 것.}

10517 # 시루. {시루.}

10517 @2 그 시루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시루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0517 # 저 양재기 큰 거. {저 양재기 큰 것.}

10517 @2 예, 예. 지금 우리 세수대야 쓰고 있는 것 역시 그런 것, 큰 것 보고는 뭐라고 해요? {예, 예. 지금 우리 세숫대야 쓰고 있는 것 역시 그런 것, 큰 것 보고는 뭐라고 해요?}

10517 # 그거 그거는 바개스 아이가? 바개스도 일본말이야. {그것 그것은 몰통 아니가? 바개스도 일본말이야.}

10517 @1, 2, 3 예, 예. 아, 지금 납양재기라 했죠? {예, 예. 아, 지금 납양재기라 했죠?}

10517 # 납양재기. {납양재기.}

10517 @2 예? {예?}

10517 # 납양재기라, 와? {납양재기라, 왜?}

10517 @2 아니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10517 # 납, 납양재기. {납, 납양재기.}

10517 @1 납양, 납양재기. {납양, 납양재기.}

10517 # 예, 납, 납으로 만든다고 {예, 납, 납으로 만든다고}

10517 @1 납, 납인데. {납, 납인데.}

10517 # 납양재기. 쓸료양재기도 큰 거 여 있어. {납양재기, 비닐양재기도 큰 것 여기 있어.}

10517 @1 납양재기에다가 죽 쓰면 완전히 사람 막. {납양재기에다가 죽 쓰면 완전히 사람 막.}

10517 @2 지금 우리 해잖아요. {지금 우리 해잖아요.}

10517 @1 그 납 아니지. {그 납 아니지.}

10517 @2 그기 납 맞아요. {그것이 납 맞아요.}

10517 # 그것도 맞아요. 그 쇠숫대. {그것도 맞아요. 그 세숫대야.}

10517 @1, 2 그 납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 납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10517 # 왜요? 나빠? {왜요? 나빠?}

10517 @1 납, 나빠가지고 할 것없이 큰일 나지요. {납, 나빠가지고 할 것 없이 큰일 나지요.}

10517 # 납, 납이? {납, 납이?}

10517 @1 납중독, 납 독이. {납중독, 납 독이.}

10517 @2 그 지금 우리 쓰는 것이 납인데요. {그 지금 우리 쓰는 것이 납인데요.}

10517 # 그기 나쁘다고? {그것이 나쁘다고?}

10517 @1 저 그 저 납 아닐건데, 그거 아니야? 알루미늄? {저 그 저 납 아닐 것인데, 그거 아니야? 알루미늄?}

10517 @2 아니에요. {아니에요.}

10517 # 그 그 그기 납보다 좀 다른 거야. {그, 그 그것이 납보다 좀 다른 거야.}

10517 @2 납성분이 많고 알루미늄 아니에요. 저거 납 많이 들어갔어요. {납성분이 많고 알루미늄 아니에요. 저거 납 많이 들어갔어요.}

10517 # 아, 납이, 납이 사람에게 나빠요? {아, 납이, 납이 사람에게 나빠요?}

10517 @1 예, 납 중독되면 죽습니다. {예, 납 중독되면 죽습니다.}

10517 # 아, {아,}

10517 @2 북한에서도 그것하면 납술 이거 할머니네 술도 여 완전히 알루미늄 술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것하면 납술 이거 할머니네 술도 여 완전히 알루미늄 술 아닌 것 같아요.}

10517 # 흰 술, 흰 여 백, 백철이라 하데. {흰 술, 흰 여 백, 백철이라 하더라.}

10517 # 납이 아니야, 그게. {납이 아니야, 그것이.}

10517 @1 나빠, 납은 안돼. {나빠, 납은 안돼.}

10517 # 납 아니야. {납 아니야.}

10517 @2 근데 납 성분은 꼭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납 성분은 꼭 들어갔을 거예요.}

10517 @1 어, 그러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안 된다고.}

10517 @2 그럼 오늘 바로 가서 그 세숫대야 샅시다. 비닐로 된 것이라도 샅시다. {그럼 오늘 바로 가서 그 세숫대야 샅시다. 비닐로 된 것이라도 샅시다.}

10517 # 검은 쇠술 저기 젤 좋다 하데. 그래가 우리 이거 뚫버텨어. {검은 쇠술 저것이 제일 좋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것이 뚫어졌어.}

10517 @1 무쇠 이것이 좋지, 납은 저거 안돼요. {무쇠 이것이 좋지, 납은 저것 안돼요.}

10517 # 무쇠 그래가 사다 놓고 지금 저래가 있어. {무쇠 그래서 사다 놓고 지금 저렇게 있어.}

10517 @1 자기도 모르게 그게 침점돼 가는데 들어가면 큰일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침점돼 가는데 들어가면 큰일이야.}

10517 @1 그래서 수은 중독, 납 중독 겁난데요. {그래서 수은 중독, 납 중독 겁난데요.}

10517 # 아, 그 쇠숯대 바까야 대겠구나. {아, 그 세숯대야 바꿔야 되겠구나.}

10517 @1, 2 저 거기 납이야? 납 성분이 꼭 있어요. {저 그것이 납이야? 납 성분이 꼭 있어요.}

10517 # 납하고 다를거야. {납하고 다를 거야.}

10517 @2 납하고 좀 다르지만 납 성분이 꼭 있을 거예요. {납하고 좀 다르지만 납 성분이 꼭 있을 거예요.}

10517 # 납하고 조금 다르겠지. {납하고 조금 다르겠지.}

10517 @1 백술 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백술 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517 @2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거 그저 납양재기라 부를 리가 없지 않겠어요?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거 그저 납양재기라 부를 리가 없지 않겠어요?}

10517 # 납, 납걸으며 그 비싸지요. 솔도. {납, 납 걸으면 그 비싸지요. 솔도.}

10517 @1 납은 아주 귀한 건데, {납은 아주 귀한 건데,}

10517 # 그래 거기 납하고 다를 거야. {그래 그것이 납하고 다를 거야.}

10517 @1 그게 아주 독합니다. 인체에. {그게 아주 독합니다. 인체에.}

10517 # 납하고는 다를 거야. {납하고는 다를 거야.}

10517 @2 내일 가서 그 하나 삼시다. 어제 저도 그 생각을 했다가. {내일 가서 그 하나 삼시다. 어제 저도 그 생각을 했다가.}

10517 # 우리 집은 지금도 그거 납양재기 큰거도 아주 창지간에 아이도 두개 있고. {우리 집은 지금도 그것 납양재기 큰 것도 아직 창고에 아직도 두개 있고.}

10517 @2 그럼 한번 가볼까요? 납양재기 어떤 것인지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납양재기 어떤 것인지요?}

10517 # 납이 아이야, 여 여기도 여기도 또 잇잖아, 짝은 거, 중간 꺼. 그거 있고 또 짝은 거도 있고. {납이 아니야, 여 여기도 여기도 또 잇잖아, 작은 것, 중간 것. 그것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10517 # 그으기 납하고 쫘 다른 거야. 거기. {그것이 납하고 쫘 다른 거야. 그것이.}

10517 # 납이며 그거 비싸지. 납이며 돈 많지. {납이면 그것 비싸지. 납이면 돈 많지.}

10517 @2 근데 그것이 완전히 관계없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를 않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관계없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를 않죠. 안 그러겠어요?}

10517 @2 거기 다년간 써온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다년간 써온 말인 것 같은데요?}

10517 # 백철이야, 백철. {백철이야, 백철.}

10517 @1 백철이겠지? {백철이겠지?}

10517 @2 알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과자 조금 드시고 계속 합시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과자 조금 드시고 계속 합시다.}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나' 라기지
20102	이삭	20102	이사' 기지
20103	별씨	20103	벼중자' 라
20104	못자리	20104	모자' 리도
20105	모판	20105	모' 파니라
20106	쟁기	20106	쟁' 기
20107	보습	20107	보오스' 비라
20108	벗	20108	*
20108-0-1	-이	20108-0-1	*
20109	극쟁이	20109	*
20110	씨레	20110	씨어' 리
20111	번지	20111	번' 지
20112	모내기	20112	모내' 기
20113	흙덩어리	20113	흙땡' 이
20114	고무래	20114	밀개'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밀개'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밀개'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밀개'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밀개'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밀개'
20115	쇠스랑	20115	소' 랭이, 쉼소' 랭이
20116	곡괭이	20116	목' 광' 이
20117	괭이	20117	광' 이'
20118	삽	20118	수굴포'
20119	호미	20119	호' 미, 호매' 이'
20120	농기구	20120	농구연장'
20121	김	20121	기' 슴
20122	김매다	20122	기' 슴맨다
20123	애벌 매다	20123	아' 이 기' 심
20123-1	두벌 매다	20123-1	두불 기' 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세불 기' 심
20124	논두둑	20124	논뚝'
20124-1	논두렁	20124-1	논뚝'
20125	밭둑	20125	밭뚜' 기지
20126	밭두둑	20126	박' 꼬리, 박' 고오리라
20127	밭고랑	20127	*
20128	밭이랑	20128	밭이' 랑이라
20128-1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20128-1	박' 꼴 만든' 다
20128-2	이랑뽕기	20128-2	*
20129	보리	20129	버리'
20129-1	가을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2	봄보리	20129-2	봄' 빠리
20130	보리쌀	20130	버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가을가' 리
20132	깜부기	20132	깜부' 기
20133	두엄	20133	거름'
20134	거름	20134	거르' 미에요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가을거둬한다, 추수추경' 한다고
20202	벼단	20202	벼' 땀
20202-1	벼단(한 줌정도)	20202-1	깨' 따' 느로, 빠' 따' 이라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20202-2	깨' 따' 나라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20202-3	*
20203	가리(積)	20203	벼까' 리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린' 다
20205	벧가리	20205	벼까' 리
20206	날가리	20206	변나까' 리
20207	타작	20207	타아' 자기나
20208	벼훅이	20208	쪽찌' 깨라
20208-1	그네	20208-1	*
20209	개상	20209	*
20209-1	자리개	20209-1	잘개'
20209-2	자리개질	20209-2	*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20210-2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20211 벧죤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폐기
 20213 쪽정이
 20214 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흉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10 도리' 깨
 20210-1 도리' 깨 자양' 치
 20210-2 도리' 깨 열'
 20210-3 도리' 깨 꼴띠' 이
 20211 벼' 찌피라
 20211-0-1 *
 20211-0-2 벼' 찌폐요
 20212 집훼에' 기라
 20213 쪽명나' 라기라
 20214 티' 가'
 20215 까끄래' 기
 20216 풍노'
 20217 원두마' 기라
 20218 허수아' 비
 20219 흉년'
 20220 머스' 른
 20221 머슴, 낚
 20221-0-1 *
 20221-1 노블 대' 애라
 20222 품가품' 한다, 품아' 시
 20223 품' 깎' 시
 20223-0-1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4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01 방아'
 20302 디' 딜방아'
 20303 방아고'
 20304 호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호박'
 20309 절구고'
 20310 절구' 질' 해

20311	겨	20311	껍띠' 기
20312	보릿겨	20312	등' 겨라
20313	왕겨	20313	왕' 겨
20314	등겨	20314	당가루'
20315	검불	20315	검' 불
20316	껍질	20316	껍' 찢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 식
20402	찹쌀	20402	찹쌀'
20403	멥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4	동버리'
20405	조	20405	서어' 속'
20406	차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7	미서어속'
20408	좁쌀	20408	좁' 쌀
20409	작다	20409	잘' 다
20410	조이삭	20410	서숙이사' 기
20411	수수	20411	수꾸'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1	*
20411-2	장목수수	20411-2	빔' 모' 기라
20411-3	찰수수	20411-3	찰수꾸' 라
20411-4	메수수	20411-4	미수꾸' 라
20412	수수깡	20412	수꾸' 때
20413	옥수수	20413	강낭'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찰강낭'
20413-2	메옥수수	20413-2	미강낭'
20414	귀리	20414	귀버리'
20415	메밀	20415	미물'
20416	콩	20416	콩' 이네요
20417	콩깍지	20417	콩깍때' 기
20418	메주	20418	미' 주
20419	매달다	20419	다' 라' 노췌
20420	떡우다	20420	떠' 우지

20421 곱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21 곱배' 이
 20422 당콩' 이네
 20423 콩기' 림
 20424 깨'
 20424-1 참' 깨'
 20424-2 들' 깨'
 20425 꼬소해' 다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깡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01 채애' 소' 라
 20502 산나무' 리라
 20502-1 무시' 배차'
 20502-2 *
 20502-3 달' 리, 나' 이, 나새' 이
 20502-4
 20502-5 고사' 리, 나물' 취, 새고사' 리, 두' 루비
 20502-6 *
 20503 *
 20504 따듬는' 다
 20505 채애' 라, 반' 찬
 20506 무시'
 20507 싸아' 린' 다
 20508 무시싸' 기
 20509 씨래' 기
 20510 무시오가' 리
 20511 무시짱' 지
 20512 배애' 추'
 20513 소옥' 꼬배' 이
 20514 오' 이
 20515 오' 이지
 20516 *
 20517 가지'
 20518 호오박'
 20519 고오구' 마

20520	감자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0-1	*
20521	우엉	20521	우병'
20522	파	20522	파'
20523	고추	20523	꼬치' 라
20524	시금치	20524	시금' 치
20525	미나리	20525	미나' 리
20526	부추	20526	정구' 지
20527	상추	20527	상' 추
20528	마늘	20528	마' 늘
20529	생강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0	나' 이네
20531	달래	20531	달' 리
20532	도라지	20532	돌개'
20533	더덕	20533	더' 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 바' 비지요
20602	찬밥	20602	시' 근밥
20602-1	더운밥	20602-1	뜨신' 밥
20603	조밥	20603	조' 바비라
20604	누룽지	20604	누룽' 지
20605	눌은밥	20605	물루룽' 지
20606	송늡	20606	송' 냥
20607	뜨물	20607	뜨물'
20608	김(蒸氣)	20608	지임'
20609	갱죽(羹粥)	20609	국' 쪽
20610	싱겁다	20610	싱겁' 따
20611	국수	20611	국' 시
20612	칼국수	20612	칼국' 시
20612-1	<u>기계국수/틀국수</u>	20612-1	눌' 린국시
20613	전더기	20613	전데' 기

20613-1 국물	20613-1 궁' 물
20614 고명	20614 꾸' 미'
20615 꾸미	20615 꾸' 미' 라
20616 미역	20616 미' 역
20617 김(海苔)	20617 기임'
20618 수제비	20618 수지' 비
20619 끼니	20619 끼' 니'
20620 미음	20620 미임'
20620-1 (미음을) <u>끓이다/쭈다/삶다</u>	20620-1 끼' 리 (가지고)
20621 엿기름	20621 절금'
20622 식혜(食飮)	20622 단술'
20623 식해(食醃)	20623 시' 케'
20624 달다(甘)	20624 달' 다
20625 가루	20625 (밀)까리'
20625-0-1 -에	20625-0-1 밀까리' 에다
20625-0-2 -을	20625-0-2 밀까리' 를
20625-0-3 -도	20625-0-3 밀까리' 도
20626 밀가루	20626 밀까리'
20627 밀기울	20627 밀지' 울
20628 미숫가루	20628 미스까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자양' 물'
20702 된장	20702 테엔' 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꼬치까리'
20704 고추장	20704 꼬오' 장
20705 소금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6 김' 치
20707 김장	20707 김장' 한' 대요
20708 깍두기	20708 깍때' 기
20709 나박김치	20709 물' 김' 치
20710 담그다	20710 김장' 한' 다
20710-0-1 -고	20710-0-1 *
20710-0-2 -어라	20710-0-2 *

20711	양념	20711	양' 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무' 린다
20713	버섯	20713	버' 섯
20713-0-1	-이	20713-0-1	버' 서시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띠나물'
20715	두부	20715	조오' 푸'
20716	비지	20716	드부찌깨' 이
20716-1	비지떡	20716-1	*
20717	달걀	20717	달가' 알
20718	가래떡	20718	떡골' 미
20719	시루떡	20719	시리' 떡
20720	송편	20720	송' 편떡
20721	빳다	20721	만든' 다
20722	흰떡	20722	힌' 떡'
20723	고물	20723	떡고' 물
20724	팔죽	20724	파죽'
20725	새알심	20725	새알'
20726	백설기	20726	백' 찜
20727	튀밥	20727	티' 바비라 해
20728	술	20728	술' 또
20729	막걸리	20729	막걸' 리
20730	소주	20730	소' 주
20731	부침개	20731	적'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	밥소' 치고
20802-0-1	-을	20802-0-1	*
20802-0-2	-에	20802-0-2	밥소' 테
20803	아궁이	20803	부서' 기라
20803-0-1	-이	20803-0-1	부서기
20804	그을음	20804	끄시럼'

20805	불쏘시개	20805	불살' 개
20806	연기	20806	영' 기
20806-1	내(煙氣)	20806-1	영' 기
20807	그을리다	20807	끄시러' 따
20808	부지깽이	20808	부지' 깨이
20809	부삽	20809	불' 광초
20810	넙다	20810	따갑' 따
20811	넙비	20811	넙비'
20812	그릇	20812	그' 르기
20812-0-1	-을	20812-0-1	그' 르게
20813	뚜껑	20813	떠깨' 이라 해두
20814	주발 뚜껑	20814	떠깨' 이
20815	사발 뚜껑	20815	*
20816	술뚜껑	20816	손떠깨' 이
20817	밥주걱	20817	주개'
20818	숟가락	20818	숙칼'
20819	젓가락	20819	저' 붐
20820	종지	20820	중' 지
20821	보시기	20821	중' 발
20822	뚝배기	20822	투꾸바' 리
20823	접시	20823	접' 씨
20824	조리	20824	조오' 리
20825	이남박	20825	쌀함' 지
20826	바가지	20826	바가' 치
20827	행주	20827	행' 주
20828	행구다	20828	형' 구지 마라
20829	설거지	20829	설거' 지
20830	개숫물	20830	기명' 물
20831	찌꺼기	20831	찌꺼레' 기
20832	화로	20832	화아루'
20833	화롯불	20833	화아루' 불'
20834	부젓가락	20834	불' 술'
20834-0-1	-이	20834-0-1	불' 소리라
20834-1	불숟가락	20834	*
20835	다리쇠	20835	*
20836	석쇠	20836	적' 수'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37 도시라' 기
 20838 바구' 이
 20839 쌀' 귀이
 20840 *
 20841 *
 20842 도' 리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짚
 20907-2 수짚
 20908 미닫이
 20909 여닫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간히다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7 구멍
 20917-1 쥐구멍
 20918 찢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1 흙손

20901 암' 땡'
 20902 벽'
 20903 우' 성기
 20904 벽' 짱'
 20905 감추' 코 이따
 20906 흙' 이따
 20907 도'올' 짝'
 20907-1 *
 20907-2 *
 20908 미'일' 창'
 20909 뻐' 다' 지
 20910 덧'문'
 20911 여' 러라
 20912 문'꼬' 리
 20913 자'물' 쇠
 20914 가'치'이' 따
 20915 여'열' 쇠'
 20916 장'구'치' 마' 라
 20917 구'멍' 을
 20917-1 쥐'구'멍'
 20918 찢' 앤다
 20919 방'꾸'들'
 20920 흙' 손
 20921 *

20922	흙칼	20922	흙' 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
20923	바르다	20923	바른다
20924	장판	20924	장' 판
20925	종이	20925	종' 이
20926	도배	20926	도배' 한다
20927	구석	20927	구서' 게
20928	굽도리	20928	*
20929	깨끗하다	20929	깨끗다' 다
20930	문지방	20930	문터' 기
20930-0-1	-에	20930-0-1	문터' 게
20931	틈	20931	트' 므' 로
20932	가장자리	20932	가
20933	가운데	20933	가운' 데
20934	시렁	20934	시' 령
20935	살강	20935	선바' 이라
20936	선반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7	빠' 따' 지
20938	경대	20938	겨영' 대'
20939	거울	20939	체경'
20940	걸다	20940	거' 러 나' 아따
20941	호룽	20941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	지붕' 이지
21001-0-1	-에	21001-0-1	지붕' 예
21002	기와	21002	기와' 래
21003	기와집	21003	기와지' 비지
21004	수키와	21004	*
21005	암키와	21005	*
21006	대들보	21006	대들뿐'
21007	서까래	21007	서까' 래
21008	추녀	21008	*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영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뗏돌
 21019-1 섬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툇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09 처' 막
 21010 오두막집'
 21011 초' 가집
 21012 영' 개 영는' 다
 21012-0-1 *
 21013 용마람'
 21014 처' 막
 21015 처' 망물
 21015-1 처' 망무리라
 21016 사다리'
 21017 용마람'
 21018 *
 21019 *
 21019-1 *
 21020 청마루'
 21020-1 청마루' 에 안' 저라
 21021 *
 21022 기둥' 이라 해요
 21023 주' 추' 뜰
 21023-0-1 *
 21024 꾸울' 떡'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01 트라' 게
 21102 마당' 에
 21103 널' 따
 21103-0-1 널' 러서
 21104 널쿠차
 21105 고까' 네
 21106 소마구칸'
 21107 마구칸'
 21108 창' 꼬
 21109 허칸'
 21110 쓰레' 기
 21111 자양' 꼬' 방'

21112	장독 뚜껑	21112	자앙' 똑' 떠깨' 이
21113	변소	21113	변' 소에
21113-1	똥장군	21113-1	똥' 통
21114	울타리	21114	울따리'
21115	담	21115	다' 미라
21115-0-1	-에	21115-0-1	*
21115-0-2	-도	21115-0-2	담' 도'
21116	사립문	21116	삼작'
21117	뒤결	21117	뒤뜨락'
21117-0-1	-에	21117-0-1	뒤뜨라' 게서
21118	바깥	21118	배' 끼지
21118-0-1	-에	21118-0-1	배' 께
21119	모퉁이	21119	모텅' 이
21120	모서리	21120	모사' 리에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2	우' 예마을
21203	이웃	21203	이' 운
21203-0-1	-이	21203-0-1	이' 우시고
21203-0-2	-에	21203-0-2	이' 우제
21204	마을가다	21204	이' 우제 노을' 로' 가자
21205	우물	21205	새애' 미'
21206	두레박	21206	드럼' 박
21207	샘(泉)	21207	새애' 미' 지
21208	가(邊)	21208	물까에'
21208-0-1	-을	21208-0-1	가아' 로
21208-0-2	-에	21208-0-2	가에'
21209	물지게	21209	물찌' 게네
21210	가게	20210	*
21211	싸다	21211	싸' 다'
21212	비싸다	21212	비' 사다
21213	홍정	20213	*
21214	중매인(거간꾼)	20214	*

21215	잔돈	21215	잔' 도느로
21216	에누리	21216	어느' 리하자
21217	거스름돈	21217	거시름' 돈
21218	거스르다	20218	*
21219	꾸다(借)	21219	취' 에취요
21219-0-1	-어야	20219-0-1	*
21220	구두쇠	21220	깍쟁' 이라 해
21221	말기다	21221	마' 끼구
21222	나머지	21222	나머' 지
21223	덤	20223	*
21224	몫	21224	모가' 치
21224-0-1	-을	20224-0-1	*
21225	빚	21225	비' 시
21225-0-1	-을	21225-0-1	비' 즐
21225-0-2	-에	21225-0-2	비' 제
21226	이자(利子)	21226	이이' 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바람'
21228	두름	21228	두름'
21228-1	축	21228-1	*
21228-2	꽤	21228-2	*
21228-3	접	21228-3	*
21228-4	쌈	21228-4	쌈'
21228-5	두름	21228-5	몽테' 기
21228-6	단/몫(작은 묶음)	21228-6	한 단'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21228-7	한 단'
21228-8	툇	21228-8	몽테' 기
21228-9	모습	21228-9	한 줌
21229	컬레	21229	커' 리
21230	마지기	21230	한 마지V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0-1	*
21231	꾸러미	21231	무께' 미
21232	그루	21232	나무'
21233	포기	21233	포' 기
21234	저울	21234	정' 월
21235	자루(包袋)	21235	자루'
21235-0-1	-을	21235-0-1	*

21235-0-2 -에	21235-0-2 자루' 에다
21236 하나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1 항' 개
21236-2 한-되	21236-2 한' 데
21236-3 한-말	21236-3 함말
21237 둘	21237 두울'
21237-1 두-개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2 두데
21237-3 두-말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 세엘'
21238-1 세-개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2 서데
21238-3 세-말	21238-3 서말
21239 넷	21239 네엘'
21239-1 네-개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2 너데
21239-3 네-말	21239-3 너말
21240 다섯	21240 다' 서
21240-1 다섯-개	21240-1 다석개
21240-2 다섯-되	21240-2 다서데
21240-3 다섯-말	21240-3 다섬말
21241 여섯	21241 여' 서
21241-1 여섯-개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2 여서데
21241-3 여섯-말	21241-3 여섬말
21242 일곱	21242 일' 고
21242-1 일곱-개	21242-1 일' 곡개
21242-2 일곱-되	21242-2 일곱데
21242-3 일곱-말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 여' 덜'
21243-1 여덟-개	21243-1 야' 덜개
21243-2 여덟-되	21243-2 여덜데
21243-3 여덟-말	21243-3 여덜말
21244 아홉	21244 아' 호
21244-1 아홉-개	21244-1 아' 혹개
21244-2 아홉-되	21244-2 아홉데

21244-3	아홉-말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2	열데
21245-3	열-말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	시물
21246-1	스무-개	21246-1	시무개
21246-2	스무-되	21246-2	시무데
21246-3	스무-말	21246-3	시무말
21247	서른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2	서른데
21247-3	서른-말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1	사십개
21248-2	마흔-되	21248-2	사십데
21248-3	마흔-말	21248-3	사십말
21249	쉰	21249	오오십
21249-1	쉰-개	21249-1	오오십개
21249-2	쉰-되	21249-2	오십데
21249-3	쉰-말	21249-3	오십말
21250	예순	21250	육십
21250-1	예순-개	21250-1	육십개
21250-2	예순-되	21250-2	육십데
21250-3	예순-말	21250-3	육십말
21251	일흔	21251	칠십
21251-1	일흔-개	21251-1	칠십개
21251-2	일흔-되	21251-2	칠십데
21251-3	일흔-말	21251-3	칠십말
21252	여든	21252	팔십
21252-1	여든-개	21252-1	팔십개
21252-2	여든-되	21252-2	팔십데
21252-3	여든-말	21252-3	팔십말
21253	아흔	21253	구십
21253-1	아흔-개	21253-1	구십개
21253-2	아흔-되	21253-2	구십데

21253-3	아흔-말	21253-3	구심말
21254	백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2	백데
21254-3	백-말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5	이이'백
21256	한들		
21256-1	한두-개	21256-1	한두어개
21256-2	한두-되	21256-2	한두데
21256-3	한두-말	21256-3	한두어말
21257	두셋	21257	*
21257-1	두세-개	21257-1	*
21257-2	두세-되	21257-2	두서너데
21257-3	두세-말	21257-3	두서너말
21258	두서넛	21258	*
21258-1	두서너-개	21258-1	뒤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21258-2	*
21258-3	두서너-말	21258-3	*
21259	서넛	21259	*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너너더개
21259-2	서너-되	21259-2	서너너더데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너너덤말
21260	네댓	21260	*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더대애개
21260-2	네댓-되	21260-2	너더더애데
21260-3	네댓-말	21260-3	너더대앸' 말
21261	대여섯	21261	*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 서개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여서데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여섬말
21262	예닐곱	21262	*
21262-1	예닐곱-개	21262-1	여일고개
21262-2	예닐곱-되	21262-2	여일곱데
21262-3	예닐곱-말	21262-3	여일곱말
21263	일여덟	21263	*
21263-1	일여덟-개	21263-1	일고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3-2 이려덜테
21263-3 이려덜말
21264 *
21264-1 *
21264-2 *
21264-3 *
21265 *
21265-1 여나' 무개
21265-2 여나무테
21265-3 여나무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2	기리'
21303	저고리	21303	저구' 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 저구' 리
21305	두렁이	21305	*
21306	무늬	21306	무내'
21307	고쟁이	21307	꼬장주' 우
21308	바지	21308	바' 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막'
21310	의복	21310	이' 보기라고
21311	구겨지다	21311	꾸개' 애저따
21312	옷고름	21312	고' 림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 전
21315	겉	21315	거치라고
21315-0-1	-에	21315-0-1	거테
21315-0-2	-을	21315-0-2	거' 틀
21316	홀옷	21316	호' 도' 슬
21317	겹옷	21317	겨' 봇'
21318	잠방이	21318	*
21319	누더기	21319	누더' 기
21320	거지	21320	거레' 이
21321	구걸	21321	동냥'
21322	조끼	21322	조끼'
21323	내의	21323	내애복'
21324	껴입다	21324	찌이' 버라
21325	소매	21325	소' 매'
21326	주머니	21326	주머' 이
21327	호주머니	21327	개쭈머' 이
21328	허리띠	21328	허리' 띠
21329	댕기	21329	댕' 기
21330	도포	21330	도오' 포'

21331	삿갓	21331	삭' 갓
21331-0-1	-에	21331-0-1	삭' 가슬
21332	고깔	21332	꼬' 깔
21333	사모	21333	사아' 모'
21334	유건	21334	*
21335	대님	21335	대' 님
21336	감발	21336	각' 뻔
21337	짚신	21337	집신'
21338	미투리	21338	미트' 리
21338-1	(짚신을) <u>삼다/만들다/트다/결다</u>	21338-1	*
21339	나막신	21339	사암' 는다
21340	설피	21340	나막' 신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 주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 실
21402	목화	21402	모' 콰'
21402-1	목화다래	21402-1	다' 래'
21403	무명	21403	무명'
21403-1	무명실	21403-1	며영' 실'
21404	씨아	21404	쉐에' 기
21405	자새	21405	*
21406	물레	21406	무울' 레'
21407	베	21407	베' 찐다
21408	길쌈	21408	길' 쌈한다
21409	골무	21409	골' 미'
21410	반질고리	21410	반질당새' 기
21411	가위	21411	가시' 개
21411-0-1	-을	21411-0-1	*
21411-0-2	-에	21411-0-2	*
21412	마르다(裁)	21412	마른' 다
21412-0-1	-고	21412-0-1	마르' 고
21412-0-2	-어라	21412-0-2	말V러라
21413	형짚	21413	허영' 겁'

21413-0-1 -을	21413-0-1 허엿' 거'피
21413-0-2 -에	21413-0-2 허엿' 거페
21414 바늘	21414 바' 늘
21415 꿰다	21415 꿰' 인다
21415-0-1 -고	21415-0-1 꿰' 이고 이따
21415-0-2 -어라	21415-0-2 꿰' 이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7 자방' 틀
21418 끈	21418 끄네' 끼
21419 노끈	21419 노' 끈
21420 참바	21420 바' 쭈리지
21421 매듭	21421 매집'
21421-1 (매듭을) <u>맷다/짓다/워다/뭉다</u>	21421-1 흘치' 이따
21422 보자기	21422 보재' 기
21423 이불	21423이' 불
21424 솜	21424 소' 개'
21425 포근하다	21425 폭시인' 하지
21426 홑이불	21426 혼니' 불
21427 겹이불	21427 점' 니불
21427-1 솜이불	21427-1 *
21428 누비이불	21428 누에이' 불
21429 베개	21429 비이' 개'
21430 베갯잇	21430 비개호청'
21430-0-1 -에	21430-0-1 *
21431 목침	21431 몽' 침'
21432 퇴침	21432 티이' 침'
21433 방석	21433 방석'
21434 담요	21434 다암' 뇨
21435 빨래하다	21435 빨래하' 러 간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6 빨래 방매' 이
21437 빨래터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8 빨래줄'
21439 다리미	21439 대리' 비
21439-1 다림질	21439-1 다리' 비질
21440 인두	21440 윤' 도'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따듬방마' 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42 따디' 미도올'
21443 따딤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선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옷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옷놀이
21508 옷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옷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21509-4 녀동무니
21509-5 막동

21501 서얼' 랄'
21502 서얼'
21503 그' 뭉' 날
21504 *
21505 올' 개
21505-0-1 *
21505-1 장' 녀' 네
21505-2 저장' 년
21505-3 멍녀' 네
21505-4 저냉' 년
21505-5 자근' 설
21506 *
21507 읍, 노오자
21507-0-1 유틸
21507-0-2 *
21507-1 윤노' 리
21508 유까' 치
21508-1 또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윤
21508-5 모
21509 윤말
21509-1 단동'
21509-2 두우' 동
21509-3 석똥'
21509-4 녀똥'
21509-5 막똥' 이야

21509-6 단동무니	21509-6 *
21510 보름	21510 보' 룬
21510-1 삭망	21510-1 *
21511 추석	21511 추' 석
21512 망월	21512 *
21513 쥐불놀이	21513 *
21514 자치기	21514 자' 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1 *
21514-2 긴막대	21514-2 *
21515 수수께끼	21515 수' 지적' 끼
21516 호미씻이	21516 *
21517 팽과리	21517 팽매' 이 께
21518 장구	215108 장' 구
21519 결두리	21519 새' 애참
21520 무당	21520 무우당'
21520-1 박수	21520-1 무우당'
21521 고수레	21521 고' 시네
21521-1 고수레!	21521-1 고' 시네
21522 점쟁이	21522 점재' 이
21523 상여(喪輿)	21523 행상' 이네
21524 굴건	21524 굴' 관'
21525 제사	21525 제예' 사'
21526 제기	21526 제예' 기'
21527 귀신	21527 구우' 신'
21528 도깨비	21528 도깨' 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1 고' 뻐
21602 굴레	
21603 명에	21603 명' 에
21604 길마	21604 질매'
21605 부리망	
21606 구유	21606 구' 이
21607 작두	21607 짝' 뚜

21608	꼴	21608	꼴
21609	여물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0	소' 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소죽바가' 치
21612	수레	21612	소구루' 마
21613	끌다	21613	끄' 은다
21613-0-1	-고	21613-0-1	끌' 고'
21614	바퀴	21614	바' 쿠
21615	새끼(繩)	21615	새' 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 끼
21616	망태기	21616	망' 태
21617	떡동구미	21617	봉새' 기
21618	거적	21618	꺼지' 기
21619	가마니	21619	가' 마이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 마이틀
21620	돛자리	21620	초석자' 리
21621	자리틀	21621	초석틀'
21621-1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결다</u>	21621-1	친' 다'
21622	왕골	21622	왕' 글
21623	삼태기	21623	소구' 리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소구' 리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소구' 리
21624	명석	21624	명석'
21625	어레미	21625	얼기' 미
21625-1	고운채	21625-1	채'
21625-2	굵은채	21625-2	시인' 채'
21626	대장장이	21626	대장재V이
21627	대장간	21627	대장칸'
21628	풀무	21628	풍구'
21629	모루	21629	*
21630	모루채	21630	*
21631	갈퀴	21631	까꾸' 리
21632	집계	21632	찍' 계
21633	장도리	21633	망' 치
21633-1	노루발	21633-1	*
21634	툽	21634	툽'

21634-0-1 -에	21634-0-1 토' 비
21635 도끼	21635 도오' 끼'
21636 자루(柄)	21636 자루'
21636-0-1 -을	21636-0-1 *
21636-0-2 -에	21636-0-2 자루' 에
21637 갈고리	21637 꼬끄래' 이
21638 썰기	21638 썰애' 기
21639 송곳	21639 소웅' 곳
21639-0-1 -에	21639-0-1 소웅' 고' 시
21640 뽕죽하다	21640 뽕애쪽' 하' 지
21641 솟돌	21641 솟돌'
21641-0-1 -에	21641-0-1 솟또' 레
21642 맷돌	21642 망돌'
21642-1 수쇠	21642-1 중' 췌'
21642-1 암쇠	21642-2 중' 췌'
21643 지게	21643 지' 개
21644 발채	21644 바아' 지' 개
21645 지게 작대기	21645 지기작때' 이
21646 막대기	21646 짹때' 기
21647 몽둥이	21647 몽디' 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1 비짜' 루
21702 광주리	21702 광주' 리
21703 소쿠리	21703 대바구' 리
21704 함지	21704 함' 지
21705 풀비	21705 풀비짜' 루
21705-1 귀얄	21705-1 풀비짜' 루
21706 독	21706 독
21706-0-1 -에	21706-0-1 도' 게
21707 물독	21707 물딴' 지
21708 항아리	21708 단' 지
21709 단지	21709 단' 지
21710 물동이	21710 물똥' 이

21711	파리	21711	파배' 이
21712	웅기	21712	오웅' 기'
21713	표주박	21713	*
21714	키(箕)	21714	채' 이'
21715	떡살	21715	떡쌀' 개
21716	다식판	21716	다석' 파이라
21717	시루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1	*
21717-0-2	-에	21717-0-2	시루' 에
21718	시룻밑	21718	시리망구' 지
21718-0-1	-에	21718-0-1	*
21719	시룻변	21719	시리뿐'
21720	부싯돌	21720	부싯' 돌
21720-0-1	-을	21720-0-1	부싯' 또리
21721	부시	21721	*
21722	부싯깃	21722	*
21723	담배	21723	다암배'
21724	담뱃대	21724	담배' 때
21725	담배설대	21725	설' 때
21726	담배통	21726	대꼭' 찌
21727	물부리	21727	무쫄' 기
21728	담배쌈지	21728	담배쌈' 지
21729	부채	21729	부' 채
21730	토시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1	비' 로
21732	가락지	21732	가락' 찌
21733	비녀	21733	비내'
21734	참빗	21734	참' 빗
21734-0-1	-을	21734-0-1	*
21734-0-2	-에	21734-0-2	참비세
21735	얼레빗	21735	얼김' 빗
21736	세숫대야	21736	세수때'
21737	비누	21737	비' 노
21738	도투마리	21738	도투마' 리
21739	활대	21739	*
21740	잉앗대	21740	이' 애때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41 부우' 테'
21742 우우' 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01 이' 마
21802 이망빼' 기'
21803 눈도옹자'
21804 꺼' 문창'
21805 흰' 창'
21806 눈까죽'
21807 꺼정V눈
21808 눈섭V
21808-0-1 눈서' 비
21809 소옹V눈' 섭
21809-0-1 소옹' 눈' 서비
21810 눈떠버' 리
21811 아앙' 경'
21812 아앙' 경쩍
21813 뚝빼' 기
21814 주름' 사리
21814-0-1 *
21815 *
21816 췌에' 미
21817 구' 리췌에' 미
21817-0-1 *
21818 코'
21818-0-1 코' 가' 크다
21819 코췌' 에미
21820 코따까' 리
21821 코꾸멍'
21821-0-1 코꾸멍' 을
21821-0-2 코꾸멍;에

21822	콧물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	입서' 울
21823-0-1	-에	21823-0-1	입서' 우레
21824	다물다	21824	다물' 고
21825	어금니	21825	어금' 니
21826	덜니	21826	덜언' 니'
21827	휘파람	21827	휘빠' 람
21828	침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29	생' 키고
21830	가래(痰)	21830	가' 래'
21831	빨다	21831	페반는' 다
21832	혀	21832	혀'
21833	혓바늘	21833	혀빠' 늘
21834	꿇볼	21834	귀뻘'
21835	귀고리	21835	귀거' 리
21835-1	귀걸이	21835-1	귀거' 리
21836	귀지	21836	귀창'
21837	귀이개	21837	귀히비' 개
21838	소리	21838	소' 리
21839	엮들다	21839	여뜰' 는다
21840	귀청	21840	귀고오' 막
21841	귀밑	21841	귀미' 치지요
21841-0-1	-을	21841-0-1	귀미' 테
21842	관자놀이	21842	관' 자
21843	기미	21843	기' 미
21844	주근깨	21844	주' 군깨
21845	턱	21845	태' 기'
21846	턱수염	21846	쉐예' 미
21847	뺨	21847	빠' 틀'
21847-1	볼	21847-1	연지' 볼
21848	가름하다	21848	겔소옥' 하' 다
21849	보조개	21849	*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 락
21851	비듬	21851	지금'
21852	기계총	21852	기' 계' 창
21853	정수리	21853	*

21854	대머리	21854	무네대가' 리
21855	고수머리	21855	고시네머' 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림' 패
21856-1	가르마 <u>타다/가르다/하다</u>	21856-1	가림' 패 탄다
21857	가마	21857	가' 매
21857-1	가마(鼎)	21857-1	가' 매
21857-2	가마(轎)	21857-2	가아' 매'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오옹' 기 구울'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 마이
21858	뒤통수	21858	다이' 꼭' 찌
21859	뒗덜미	21859	목쭈' 기
21860	목	21860	모' 기
21861	먹살	21861	멕' 사를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어' 깨
21902	밀치다	21902	밀치' 노
21903	겨드랑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4	등' 을
21905	가슴	21905	가' 슴
21906	결리다	21906	절리' 인다
21907	갈비뼈	21907	갈' 비
21908	허파	21908	허' 패'
21909	쓸개	21909	씨' 레'
21910	콩팔	21910	콩V파치
21910-0-1	-에	21910-0-1	콩' 파테
21910-0-2	-을	21910-0-2	콩' 파틀
21911	팔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2	팔' 꿈
21913	팔짱끼다	21913	팔' 째 찢다
21914	손톱	21914	손터' 비
21915	오른손	21915	오' 른손
21916	왼손	21916	웨엔' 손
21917	다르다	21917	다르' 다

21917-0-1 -아서	21917-0-1 달' 러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 리서요
21918 왼손잡이	21918 왼손재' 비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까' 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0 *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1 *
21922 약손가락	21922 *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앵기송까' 락
21924 생인손	21924 생' 손
21925 사마귀	21925 사아' 마' 구
21926 손아귀	21926 손아' 구
21927 손목	21927 숨목'
21928 뺨	21928 뺨
21929 허리	21929 허' 리
21930 지팡이	21930 지패' 이
21931 옆구리	21931 역꾸' 리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랍' 지
21933 간지럼	21933 간지라' 물
21934 잔허리	21934 *
21935 근육	21935 그으뉴' 기라
21936 배꼽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7 등' 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1 복사' 시
22002 발가락	22002 발꼬' 락
22003 발바닥	22003 발바' 닥
22004 발톱	22004 발텃'
22005 냄새	22005 내앰' 새' 나지
22006 고린내	22006 꾸렁' 내가
22007 굳은살	22007 꾸덕' 살
22008 정강이	22008 초' 때' 빼라 하지요
22009 종아리	22009 *
22010 장딴지	22010 자앙판' 지

22011	회초리	22011	훼차' 리
22012	무릎	22012	무릅'
22012-0-1	-을	22012-0-1	무루' 블
22012-0-2	-에	22012-0-2	무루' 베
22013	오금	22013	오' 금
22014	엉덩이	22014	어엉치'
22015	궁둥이	22015	구웅' 디' 이
22016	볼기	22016	보을' 기
22017	명	22017	머영' 이
22018	명울	22018	망아' 리
22019	가랑이	22019	가래' 이가
22020	사이	22020	새' 애
22021	살	22021	사타' 리
22021-0-1	-이	22021-0-1	*
22021-0-2	-을	22021-0-2	*
22022	사타구니	22022	*
22023	가래툰	22023	가래토' 시
22023-0-1	-을	22023-0-1	가래토' 시가
22024	허벅다리	22024	신다' 리
22025	넓적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책상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u>	22026-1	책상다리' 하' 고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가앙' 기'
22102	기침	22102	기' 침
22103	재채기	22103	재치' 기
22104	사레	22104	*
22104-1	(사레)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22104-1	*
22105	팔꿈질	22105	칼뜨래' 기
22106	트림	22106	트' 림'
22107	곰보	22107	곰보'
22108	천연두	22108	손' 니미
22109	여드름	22109	이' 드름

22110	학질	22110	*
22110-1	하루거리	22110-1	*
22110-2	이틀거리	22110-2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
22111	홍역	22111	홍지' 니
22112	불거리	22112	불' 치기
22113	땀띠	22113	땀' 때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드레' 기
22115	버짐	22115	버' 짐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 짐
22115-2	진버짐	22115-2	진버' 짐
22115-3	도장 버짐	22115-3	소버' 짐
22116	문둥이	22116	무운' 디' 이라
22116-1	문둥병	22116-1	무운' 디' 이 병이라
22117	부스럼	22117	허언' 디' 이
22117-1	종기	22117-1	조웅' 점'
22118	고름	22118	고' 림'
22119	곰기다	22119	곰' 긴다
22120	난쟁이	22120	나안' 재' 이
22121	사팔뜨기	22121	*
22122	언청이	22122	째애' 보'
22123	소경	22123	보웅' 사'
22123-1	당달봉사	22123-1	당' 달봉사
22124	애꾸	22124	*
22125	눈곱	22125	눔' 폼
22126	다래끼	22126	대래' 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1	꺼지' 기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6-2	대래' 끼
22127	절름발이	22127	절룩바' 리
22128	곱사등이	22128	곱새'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머거' 리
22130	말더듬이	22130	밤버버' 리
22131	병어리	22131	버버' 리
22132	잠꾸러기	22132	잠' 층' 이
22133	줄리다	22133	자부랍' 다
22134	하품	22134	하' 품

22135 졸음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22135 자부라러' 미
22135-0-1 *
22135-0-2 *
22136 장꼬' 대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5 눕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5 뉘다(排便)
22216 방귀
22216-1 똥다
22217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22221 거짓말
22222 남부끄럽다

22201 입서' 리
22201-0-1 입서' 리를
22202 까놀라'
22203 얼라'
22204 경풍' 한다, 정' 끼한다
22205 누' 피라
22206 따라' 아
22207 이뿌' 다
22208 아들아
22209 아이탄' 다
22209-1 아이보는갑따
22209-2 *
22210 여' 빈노
22211 쌍두' 이
22212 오줌'
22213 똥' 두
22214 기저' 기
22215 누인' 다
22216 바앙' 구'
22216-1 똥인' 다'
22217 꾸런' 내
22218 꾸' 리다
22219 포대' 기
22220 지이' 지' 개
22220-1 쓴' 다'
22221 거어' 진' 말
22222 남사' 시럽다

22223	겹쟁이	22223	겹째' 이
22224	불쌍하다	22224	불' 상' 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5	쫓막' 쫓막'
22226	곤지곤지	22226	진' 진'
22227	따로따로	22227	섬바' 섬바'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 도리'
22229	짹짹	22229	짹' 짹
22230	부라부라	22230	불매' 불매'
22231	걸음마	22231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장' 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3	너' 머진다
22234	곤두박질	22234	곤두박' 찢
22235	안기다	22235	양기' 치
22236	바람개비	22236	팔랑개' 비
22237	호드기	22237	홀때' 기
22238	숨바꼭질	22238	숨바꼬옥' 찢'
22239	소꿉놀이	22239	방덕' 깨
22240	사금파리	22240	새금파' 리
22241	연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1	*
22241-2	가오리연	22241-2	*
22242	걸리다	22242	걸리' 이뿌머
22243	고누	22243	*
22244	땅뺨기	22244	땅따먹' 끼
22245	팽이	22245	팽' 이
22246	딱지치기	22246	딱' 찢
22247	구슬	22247	다마'
22248	그네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8-1	똥' 다
22249	밑신개	22249	까알' 끼'
22250	굴렁쇠	22250	*
22251	굴리다	22251	구불' 다
22251-0-1	-고	22251-0-1	구불' 고 이따
22251-0-2	-어야	22251-0-2	구불' 러
22252	자전거	22252	자정' 거
22253	목말	22253	*

22254	말타기	22254	말' 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5	쫓추바' 리
22256	썰매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u>지치다/타다</u>	22256-1	*
22256-2	송곳	22256-2	송고' 시
22257	엄살	22257	엥구력'
22257-1	(엄살) <u>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u>	22257-1	지' 긴다
22258	부아	22258	부애' 가 난다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	아부' 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1-1	아부' 지요
22302	어머니	22302	엄' 마'
22302-1	어머니(호칭)	22302-1	엄' 마'
22303	할아버지	22303	할' 배'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3-1	할' 배' 요
22304	할머니	22304	할' 매' 가
22304-1	할머니(호칭)	22304-1	할' 매'
22305	남편	22305	남' 펴이
22305-1	남편(호칭)	22305-1	*
22306	아내	22306	지' 베서
22306-1	아내(호칭)	22306-1	
22307	형	22307	형이
22307-1	형(호칭)	22307-1	형
22308	아우	22308	동생' 이
22308-1	아우(호칭)	22308-1	이름(상구나)!
22309	누나	22309	누이' 지
22309-1	누나(호칭)	22309-1	누이'
22310	누이	22310	여' 동' 새이
22310-1	누이(호칭)	22310-1	이름
22311	자식	22311	자' 서' 기
22312	만아들	22312	마다' 들
22313	만딸	22313	큰' 딸'

22314	막내	22314	망내' 이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4-1	*
22315	오빠	22315	오' 빠'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 빠'
22316	언니	22316	형이라 하지
22316-1	언니(호칭)	22316-1	형'
22317	아비	22317	춘자 아' 비, 이름(상구나!)
22317-1	아비(호칭)	22317-1	*
22318	어미	22318	새' 미' 느리
22318-1	어미(호칭)	22318-1	야아' 야!
22319	손자	22319	손' 자
22320	손녀	22320	손' 녀
22321	사위	22321	사' 우
22321-1	사위(호칭)	22321-1	김서방!
22322	외손자	22322	위손' 자
22323	외손녀	22323	위손' 녀
22324	꾸짖다	22324	꾸지럼' 헨다
22324-0-1	-고	22324-0-1	꾸지럼하' 고 이따
22324-1	나무라다	22324-1	나무램 받는' 다
22325	충각	22325	초웅' 각
22326	쳐녀	22326	쳐어' 녀
22327	혼인	22327	혼닌'
22327-1	혼인식	22327-1	홀' 레식
22328	혼인 잔치	22328	혼닌' 잔체
22329	장가가다	22329	자양' 개' 간다
22329-1	시집가다	22329-1	시이' 집' 간다
22330	혼숫감	22330	혼수까' 암
22331	함	22331	혼수하암'
22332	겹사돈	22332	접' 사돈'
22333	새색시	22333	새' 떼' 느리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
22334	시아버지	22334	시아' 번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 번님'
22335	시아머니	22335	시아' 머님
22335-1	시아머니(호칭)	22335-1	어머' 님
22336	비우	22336	비우

22337	아주버니	22337	시이' 숙'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지반' 님
22338	서방님	22338	시동' 생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아지배' 앰
22339	도련님	22339	시동' 생이라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대' 럼
22340	형님	22340	동' 서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 님
22341	시누이	22341	시' 누' 이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형' 님
22341-2	아가씨	22341-2	시' 누' 이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엑씨야, 아가
22342	올케	22342	동사' 아대기라
22342-1	올케(호칭)	22342-1	동사' 아댁'
22343	매형	22343	자형'
22343-1	매형(호칭)	22343-1	자형' 요'
22344	매제	22344	매' 부
22344-1	매제(호칭)	22344-1	매' 부
22345	큰아버지	22345	크나부' 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부' 지요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두째 크나부' 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세째 크나부' 지
22346	큰어머니	22346	큰엄' 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큰엄' 마요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
22347	큰집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삼초이라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삼촌요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승' 모'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승' 모'요
22350	삼촌	22350	삼촌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촌요, 아' 재요
22351	아저씨	22351	아' 재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
22352	아주머니	22352	아' 지매가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아' 지매요
22353	조카	22353	조' 카'
22354	조카딸	22354	질' 려
22355	고모	22355	고' 모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 모요
22356	고모부	22356	고' 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고' 모부요
22357	고종	22357	고' 종사아' 촌'
22358	이모	22358	이' 모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 모요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이' 모부요
22360	이종	22360	이' 종사아' 촌
22361	외삼촌	22361	웨삼' 촌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웨삼' 촌요
22362	외숙모	22362	웨승' 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웨승' 모요
22363	외종	22363	웨사' 촌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웨할' 배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웨할' 배요
22365	외할머니	22365	웨할' 매가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웨할' 매요
22366	장인	22366	자인' 어르이지
22366-1	장인(호칭)	22366-1	자인' 어른요
22367	장모	22367	자양' 모' 님
22367-1	장모(호칭)	22367-1	자양' 모' 님요
22368	처남	22368	처나미라
22368-1	처남(호칭)	22368-1	형님요(손위), 이름(상구나)(손아래)
22369	처남댁	22369	처나' 암' 댁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처나' 암' 댕요
22370	홀아버	22370	호부래' 비
22371	홀어미	22371	과아' 부'
22372	계모	22372	후덤' 마
22372-1	계부	22372-1	후다' 부지
22373	아저씨	22373	아' 재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아' 재요

22374	아주머니	22374	아' 지매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1	아' 지매요
22375	사나이	22375	*
22376	영감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22376-1	노친' 네
22377	나이	22377	나' 이' 가
22377-0-1	-를	22377-0-1	*
22378	환갑	22378	하양' 갑'
22378-1	환갑 잔치	22378-1	하양' 갑' 잔치
22379	사투리	22379	사토' 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 꼬' 기
22402	민물고기	22402	*
22403	피라미	22403	피' 리
22404	지느러미	22404	고기날' 개'
22405	아가미	22405	*
22406	창자	22406	창' 자'
22407	송사리	22407	*
22408	헤엄	22408	헤엄' 친다
22409	메기	22409	미이' 기
22410	자라	22410	자래'
22411	거북	22411	거부' 기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꼬래' 지
22413	개구리	22413	개구' 리
22414	올챙이	22414	올챙' 이
22415	두꺼비	22415	두꺼' 비
22416	거머리	22416	거어' 머' 리
22417	다슬기	22417	사골배' 이
22418	우렁이	22418	목골' 배이
22419	고둥	22419	골배' 이
22420	달팽이	22420	구웁' 배이

22421	새우	22421	새' 우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징기' 미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징기' 미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대와'
22421-4	새우(바다 소)	22421-4	*
22422	새우젓	22422	새' 우젓
22422-0-1	-이	22422-0-1	새' 우저시
22423	가재	22423	까' 아' 재
22424	갈치	22424	칼' 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등' 어
22426	가오리	22426	가' 우리
22427	가자미	22427	가재' 미
22428	멸치	22428	메리' 치
22429	명태	22429	명' 태
22429-1	동태	22429-1	도웅' 태'
22429-2	황태	22429-2	마른 명' 태
22429-3	노가리	22429-3	*
22429-4	복어	22429-4	*
22429-5	생태	22429-5	*
22430	조기	22430	조' 구
22431	도미	22430	*
22432	뱀장어	22432	뱀자' 우
22433	낙시	22433	낙' 시' 로
22434	미끼	22434	고' 기바' 비라
22435	낙싯대	22435	낙' 시' 때
22436	얼레	22436	자새'
22437	조개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8	소래고디' 이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 기
22502	날벌레	22502	날벌' 기
22503	파리	22503	파' 리'
22503-1	쉬파리	22503-1	쉬이' 파' 리
22504	쉬슬다	22504	쉬이' 썸' 다
22505	가시	22505	구우' 디' 기가
22506	진딧물	22506	*
22506-1	(진딧물이) <u>끼다/얹다/생기다</u>	22506-1	*
22507	잠자리	22507	잠자' 리
22508	방아깨비	22508	여언' 치'
22508-1	암컷	22508-1	*
22508-2	수컷	22508-2	*
22509	메뚜기	22509	메띠' 기
22510	여치	22510	찌' 리' 기
22511	사마귀	22511	범항걸' 레
22512	벌	22512	꿀버' 리지, 버얼'
22512-1	(벌을) <u>치다/기르다/키우다</u>	22512-1	키운다
22513	땅벌	22513	땅' 빼'
22514	나비	22514	나' 비
22515	하루살이	22515	하리사' 리
22516	풍뎅이	22516	*
22517	모기	22517	모오' 기'
22518	장구벌레	22518	*
22519	매미	22519	매애' 미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 레
22521	반딧불	22521	*
22522	거미	22522	거' 무
22523	굼벵이	22523	구웁' 배' 이
22524	구더기	22524	구우' 디' 기
22525	노래기	22525	고동각' 시
22526	그리마	22526	도움벌' 기라 하데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애' 미
22529	바구미	22529	바아' 기' 미

22530	진드기	22530	비던' 지
22531	벼룩	22531	비' 루기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써가' 리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22534	귀뚜라미	22534	기뜨라' 미
22535	누에	22535	누' 에
22536	고치	22536	꼰' 치
22537	번데기	22537	꼰디' 기
22538	지렁이	22538	지' 레이
22539	회충(蛔蟲)	22539	훼충'
22540	소금쟁이	22540	*
22541	방개	22541	양푸' 이까아' 재'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가' 추기라
22602	암소	22602	암' 소'
22603	송아지	22603	송아' 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
22605	황소	22605	화양' 소'
22606	길들이다	22606	질' 디' 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워' 어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물' 러
22607	쇠고기	22607	소고' 기
22608	고기(肉)	22608	고' 기
22609	돌치	22609	*
22610	꼬리	22610	꽁' 지
22611	망아지	22611	망아' 지
22612	당나귀	22612	당나' 구
22613	갈기	22613	*

22614	돼지	22614	대애' 지
22614-1	멧돼지	22614-1	산때' 애' 지
22615	주둥이	22615	주디' 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돼지대가' 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대지우' 리
22617-1	오래오래	22617-1	똥똥똥
22618	개(犬)	22618	개애'
22618-1	수캐	22618-1	썩' 깨'
22618-2	암캐	22618-2	암' 깨
22619	강아지	22619	강아' 지
22620	염소	22620	염' 소'
22621	고양이	22621	고오' 내' 기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숙꼬' 내기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앙꼬' 내기
22622	토끼	22622	토' 끼'
22623	거위(鵞)	22623	기' 우라 해
22624	암탉	22624	암' 딸'
22625	병아리	22625	병아' 리
22626	모으다	22626	모' 온다
22627	수탉	22627	장딸'
22627-0-1	-이	22627-0-1	장따' 리
22628	벼슬(鷄冠)	22628	벼' 슬
22629	부리	22629	입'
22630	모이	22630	모시'
22630-0-1	-을	22630-0-1	*
22630-1	모이다	22630-1	모이오지
22631	닭털	22631	달터' 레' 기
22632	닭똥	22632	달똥'
22633	어리	22633	병아리통'
22634	닭장	22634	닥우' 리
22635	둥우리	22635	알' 통'
22636	날개	22636	날' 개'
22637	깃	22637	날' 개' 털
22637-0-1	-을	22637-0-1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1	버엄'
22702	살쾡이	22702	살개' 이
22703	여우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4	원숭' 이
22705	사슴	22705	사' 슴
22706	노루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1	*
22706-0-2	-를	22706-0-2	*
22707	고슴도치	22707	고심도' 치
22708	두더지	22708	떠' 지기
22709	족제비	22709	쪽찌' 비
22710	뱀	22710	배앰'
22711	도마뱀	22711	도' 마배애' 미
22712	구렁이	22712	구우' 리'
22713	살모사	22713	독새'
22714	생쥐	22714	새앵' 쥐'
22715	박쥐	22715	박' 쥐'
22716	거꾸로	22716	꺼꿀' 로
22717	다람쥐	22717	돌따래' 미
22718	새(鳥)	22718	새애' 드리
22719	꿩지	22719	꿩' 지
22720	솔개	22720	소리' 기
22721	독수리	22721	독수' 리
22722	제비(燕)	22722	제에' 비'
22723	두루미	22723	두루' 미
22724	소쩍새	22724	소 짹' 새
22725	꿩	22725	꿩'
22726	장끼	22726	장꿩'
22727	까투리	22727	까토' 리
22727-1	꺼병이	22727-1	꿩뽕아' 리
22728	종달새	22728	종달' 새
22729	빠꾸기	22729	빠꾸' 기
22730	기러기	22730	기러' 기
22731	뜸부기	22731	무' 닷'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뎛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32 오' 빼미
22733 까아' 치
22734 딱따구' 리
22735 *
22735-0-1 *
22736 *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습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01 창꼬' 치
22802 *
22803 민들' 레
22804 달구베' 슬꼬치라
22805 보웅' 송' 화
22806 파아' 리
22807 해바래' 기
22808 끈몽오' 리
22809 시드' 러진다
22810 뽕짜' 이
22810-1 뽕짜' 이
22810-2 뽕짜' 이
22811 빼빼'
22812 비' 림
22813 소' 비름
22814 사라' 구
22815 고들빼' 기
22815-1 *
22815-2 *
22816 고사' 리
22817 새고비'
22818 *
22819 도' 꾸마리
22820 속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덩불
22828 잔디

22821 갈' 때'
22822 바' 우오시래요
22823 피마' 지
22824 담' 오' 시라 그래
22825 *
22826 덩불'
22827 *
22827-1 *
22828 띠딴재' 미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러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0-1 -으로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0-1 -을
22915-0-2 -에
22916 시원하다
22917 짙레
22918 칙
22918-0-1 -에

22901 소나무'
22902 솔방' 울
22903 솔고배' 이
22904 갈' 비
22905 꼬' 러' 온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두'
22908 꿀' 밤
22909 참나무'
22910 *
22911 온낭' 기
22911-0-1 오' 치라능거
22912 버드나무'
22913 정' 자나무
22914 그늘' 지
22914-1 그늘'
22915 수' 피'
22915-0-1 *
22915-0-2 *
22916 시원해' 죠
22917 짙래'
22918 칠' 기'
22918-0-1 *

22919	가지(枝)	22919	가' 지'
22920	끝	22920	꼬' 테
22920-0-1	-이	22920-0-1	꼬' 치' 다
22920-0-2	-에	22920-0-2	*
22920-0-3	-을	22920-0-3	*
22921	삭정이	22921	*
22921-1	삭정이를 <u>따다/꺾다/하다</u>	22921-1	*
22922	나무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1	나무' 를
22922-0-2	-에	22922-0-2	나무' 에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한' 다'
22924	그루터기	22924	끝따' 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끝따' 기
22925	등걸	22925	등거' 리
22926	장작	22926	장' 작
22927	패다	22927	팬' 다'
22928	부스러기	22928	뿌시레' 기
22929	숯	22929	수경'
22929-0-1	-이	22929-0-1	수경' 이
22929-0-2	-을	22929-0-2	수경' 을
22929-0-3	-에	22929-0-3	수경' 에
22930	불잉걸	22930	*
22931	썩	22931	싸' 기
22932	잎	22932	이' 페
22932-0-1	-을	22932-0-1	*
22932-1	잎사귀	22932-1	이퍼' 리
22933	가랑잎	22933	가랑' 니피라
22934	뿌리	22934	뿌레' 기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2	돌' 배'
23003	복숭아	23003	복상'
23004	곶감	23004	꼬옥' 감'

23005	홍시	23005	홍' 시
23006	고욤	23006	고오' 미라
23007	살구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09	웨에' 기
23010	오얏	23010	웨에' 기라
23010-0-1	-을	23010-0-1	*
23011	석류	23011	성' 노'
23012	모과	23012	모오' 개'
23013	과일	23013	과이' 리라
23014	꼭지	23014	꼭' 찌
23015	밤	23015	바암'
23015-1	밤송이	23015-1	밤송' 이
23015-2	풋밤	23015-2	*
23015-3	알밤	23015-3	알' 밤'
23015-4	쌍동밤	23015-4	*
23016	보늬	23016	보니'
23017	호두	23017	*
23018	가래(楸子)	23018	가래추' 자
23019	개암	23019	깨끔'
23020	머루	23020	멀구'
23021	다래	23021	다' 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2	*
23023	으름	23023	*
23024	참외	23024	차' 뤼
23025	딸기	23025	따알'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5	*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
23026	뱀딸기	23026	배애' 미딸
23027	마름(菱)	23027	말' 밤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산꼭때' 기
23102	기슭	23102	기' 스리
23102-0-1	-에	23102-0-1	*
23103	골짜기	23103	상폴'
23104	메아리	23104	메아' 리
23105	고함	23105	과' 암
23105-1	(고함) <u>치다/지르다/하다</u>	23105-1	친다
23106	묘	23106	묘오'
23107	뗏자리	23107	미이' 터' 보러
23107-1	광중	23107-1	굿' 판'다
23108	구덩이	23108	구디' 이
23109	비탈	23109	빈' 달
23110	가파르다	23110	까폴막' 지' 다
23111	언덕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2	절' 벽'
23113	들(野)	23113	드으' 리
23113-0-1	-에	23113-0-1	드으' 레
23114	별	23114	별' 판'
23115	갈림길	23115	갈림' 길'
23116	헤어지다	23116	헤' 에진다
23117	바위	23117	바' 우
23117-0-1	-을	23117-0-1	방' 구를
23117-0-2	-에	23117-0-2	바' 우에
23118	돌(石)	23118	도올' 기' 지
23118-0-1	-을	23118-0-1	도올' 글'
23118-0-2	-에	23118-0-2	도올' 게'
23119	자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	모새' 라
23120-0-1	-를	23120-0-1	모새' 를
23121	진흙	23121	진흙' 기
23121-1	찰흙	23121-1	쫘오' 대' 흘기다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물'
23202	거품	23202	거' 품
23203	개운하다	23203	깨우운하' 다
23204	도랑	23204	거랑'
23204-1	붓도랑	23204-1	보또랑'
23205	둑	23205	뚜' 글 망는다
23206	잠기다	23206	장게' 뿌리지
23207	개울	23207	*
23208	내(川)	23208	내
23209	미역 감다	23209	목' 감' 지
23210	발가숭이	23210	발가두' 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모' 욕'
23212	수채	23212	수' 채'
23213	개골창	23213	수' 채' 도랑
23214	시궁창	23214	*
23215	웅덩이	23215	웅' 디이
23216	수렁	23216	*
23217	늪	23217	*
23217-0-1	-에	23217-0-1	*
23218	배(船)	23218	배' 가'
23219	나루터	23219	*
23220	돛	23220	*
23220-0-1	-에	23220-0-1	*
23221	돛대	23221	돈' 때를
23222	돛배	23222	*
23223	돛 줄	23223	*
23224	돛 줄	23224	*
23225	거루	23225	*
23226	상앗대	23226	*
23227	개(펄)	23227	*
23228	물	23228	*
23228-0-1	-으로	23228-0-1	*
23229	밀물	23229	*
23230	썰물	23230	*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1 *
23232 *
23233 *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01 새벽' 계
23302 새벽' 뺨
23303 아침'
23304 아침' 뺨
23305 저엿' 심'
23306 저녁'
23307 설푸우' 타먼
23308 뽕' 새
23308-0-1 *
23309 버얼'개애'
23310 해그느르'메
23311 *
23312 봄
23313 여' 림
23314 더' 위
23315 추' 위' 림
23316 가으' 리라
23316-0-1 가으' 레
23317 겨' 울
23317-0-1 겨' 우레
23318 어' 림
23319 오' 늘
23320 내' 일
23321 모' 레'
23322 저' 모' 레
23323 *
23324 어' 제
23325 아아' 레'
23326 저아아' 레'

23327	훗날	23327	후운나' 레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로'
23329	이튿날	23329	초이' 틀
23330	사흘날	23330	초사' 할
23331	나흘날	23331	초나' 알
23332	닷셋날	23332	초다' 쉐
23333	엿셋날	23333	초여' 쉐
23334	이렛날	23334	초이' 레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여' 드레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 흐레
23337	열흘날	23337	초여' 를
23338	하루	23338	하로'
23339	이틀	23339	이' 틀
23340	사흘	23340	사' 할
23341	나흘	23341	나' 알
23342	닷새	23342	단' 쉐
23343	엿새	23343	연' 쉐
23344	이레	23344	이' 레
23345	여드레	23345	여' 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 흐레
23347	열흘	23347	여' 를
23348	한나절	23348	한나' 절
23348-1	반나절	23348-1	*
23349	그믐	23349	바안' 나' 저리라, 그' 뭍' 날
23349-1	그믐께	23349-1	그' 무' 깨
23350	지금	23350	지' 그' 뜰
23351	아직	23351	안' 주근
23352	이제	23352	이제' 는
23353	이미	23353	하' 마
23354	요즈음	23354	요즈' 음'
23355	금방	23355	금' 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	해' 빼' 테
23401-0-1	-이	23401-0-1	해' 빼' 치
23401-0-2	-을	23401-0-2	해' 빼' 틀
23402	따스하다	23402	따시' 지
23403	아지랑이	23403	아지랑' 이
23404	응달	23404	음달'
23405	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6	비' 가'
23407	가랑비	23407	가랑' 비
23408	이슬비	23408	이슬' 비
23409	안개	23409	아양' 개'
23410	논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1	무' 지' 개
23412	소나기	23412	소낙' 빼
23413	갑자기	23413	갑째' 기
23414	홍수	23414	큰' 물'
23415	번개	23415	병' 개'
23416	천둥	23416	천' 동
23417	벼락	23417	베' 락'
23418	무섭다	23418	무섭' 지요
23419	함박눈	23419	함방' 눈
23420	싸락눈	23420	싸래' 기눈
23421	발자국	23421	발짜죽'
23422	진눈깨비	23422	징갈' 눈
23423	우박	23423	우우' 박'
23424	고드름	23424	고' 드' 림
23425	햇무리	23425	햄' 물'
23426	달무리	23426	달' 물'
23427	둥글다	23427	둥' 굴다
23428	은하수	23428	으나' 수
23429	금성	23429	왕' 별
23430	가뭄	23430	가' 무' 리
23431	마르다	23431	마르' 지
23431-0-1	-어서	23431-0-1	말' 러따

23432	위	23432	우' 에 나라
23433	아래	23433	아' 래
23434	왼쪽	23434	웨엔' 쪽'
23435	오른쪽	23435	오' 른' 쪽
23436	결	23436	잘'
23436-0-1	-에	23436-0-1	자' 테
23437	회오리바람	23437	돌' 개' 바' 람
23438	북풍	23438	북' 풍'
23439	남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41	서풍'

제 3 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0-1 태(輪)-이/가

31001-0-2 태(輪)-보다

31001-0-1 안경태'

31001-0-2 *

31002-0-1 태(胎)-이/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1 애기태'

31002-0-2 *

31003-0-1 때(群)-이/가

31003-0-2 때(群)-보다

31003-0-1 때' 를 지어가

31003-0-2 *

31004-0-1 때(時)-이/가

31004-0-2 때(時)-보다

31004-0-1 때'

31004-0-2 *

31005-0-1 틀(機)-이/가

31005-0-2 틀(機)-보다

31005-0-1 새끼틀'

31005-0-2 *

31006-0-1 털(毛)-이/가

31006-0-2 털(毛)-보다

31006-0-1 터' 리 만타

31006-0-2 *

31007-0-1 글(文)-이/가

31007-0-2 글(文)-보다

31007-0-1 글'

31007-0-2 *

31008-0-1 걸(옷)-이/가

31008-0-2 걸(옷)-보다

31008-0-1 걸'

31008-0-2 *

31009-0-1 기(旗)-이/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1 기' 라 하지

31009-0-2 *

31010-0-1 귀(耳)-이/가

31010-0-2 귀(耳)-보다

31010-0-1 귀'

31010-0-2 *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세시 사비보분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쉬' 이' 찐다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췌' 지요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웨에' 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웨' 국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
31016-0-1	쉬:다(休)-이/가	31016-0-1	쉬' 야 뉘지
31016-0-2	쉬:다(休)-보다	31016-0-2	*
31017-0-1	쇠:다(설을~)-이/가	31017-0-1	쉬' 인다
31017-0-2	쇠:다(설을~)-보다	31017-0-2	*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배' 찐다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배'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배'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땡매'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매'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

31023-0-1	매:다(擔)-이/가	31023-0-1	매애' 라
31023-0-2	매:다(擔)-보다	31023-0-2	*
31024-0-1	매:다(繫)-이/가	31024-0-1	미인' 다'
31024-0-2	매:다(繫)-보다	31024-0-2	*
31025-0-1	떼:다(分離)-이/가	31025-0-1	띠' 이라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5-0-2	*
31026-0-1	때:다(炊)-이/가	31026-0-1	때' 애라
31026-0-2	때:다(炊)-보다	31026-0-2	*
31027-0-1	베:다(切斷)-이/가	31027-0-1	비일' 라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7-0-2	*
31028-0-1	배:다(孕胎)-이/가	31028-0-1	배' 애타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8-0-2	*
31029-0-1	세:다(算)-이/가	31029-0-1	시아' 린다
31029-0-2	세:다(算)-보다	31029-0-2	*
31030-0-1	새:다(漏泄)-이/가	31030-0-1	쇄앤' 다
31030-0-2	새:다(漏泄)-보다	31030-0-2	*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뒤이'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돼애'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
31033-0-1	게:(蟹)-이/가	31033-0-1	기이'
31033-0-2	게:(蟹)-보다	31033-0-2	*
31034-0-1	개:(犬)-이/가	31034-0-1	개애'
31034-0-2	개:(犬)-보다	31034-0-2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 러 사례미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결 친다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예' 저' 리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계획' 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1	규' 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3	*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휴' 시기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 통도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1	효오' 자'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웨엔' 니' 리고

31043-0-2	웬 일(何事)-보다	31043-0-2 *
31043-0-3	웬 일(何事)-을/를	31043-0-3 *
31044-0-1	궤:(絜)(櫃)-이/가	31044-0-1 궤이'
31044-0-2	궤:(絜)(櫃)-보다	31044-0-2 *
31044-0-3	궤:(絜)(櫃)-을/를	31044-0-3 *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
31046-0-1	햇대(鷄架)-이/가	31046-0-1 해때
31046-0-2	햇대(鷄架)-보다	31046-0-2 *
31046-0-3	햇대(鷄架)-을/를	31046-0-3 *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위언' 망' 하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곤토'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이이' 논해야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무내'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3 *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왕'
31051-0-2	왕(王)-보다	31051-0-2 *
31051-0-3	왕(王)-을/를	31051-0-3 *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1 과' 자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2 *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3 *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1 이' 리다
31053-0-2	일(一)-보다	31053-0-2 *
31054-0-1	일:(事)-이/가	31054-0-1 이일' 한다
31054-0-2	일:(事)-보다	31054-0-2 *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매' 틀'
31055-0-2	매(鞭)-보다	31055-0-2 *
31056-0-1	매:(驚)-이/가	31056-0-1 매애'
31056-0-2	매:(驚)-보다	31056-0-2 *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 미' 죠
31057-0-2	밤(夜)-보다	31057-0-2 *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바암'
31058-0-2	밤:(栗)-보다	31058-0-2 *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눈'
31059-0-2	눈(眼)-보다	31059-0-2 *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운'
31060-0-2	눈:(雪)-보다	31060-0-2 *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 리
31061-0-2	말(馬)-보다	31061-0-2 *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마' 리'
31062-0-2	말(斗)-보다	31062-0-2 *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아' 리'
31063-0-2	말:(言)-보다	31063-0-2	*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 니
31064-0-2	손(客)-보다	31064-0-1	*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 니'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오' 니'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 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애' 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 를'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얼'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 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울'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 리' 라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울'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울'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담'
31076-0-2	담(牆)-보다	31076-0-2	*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아' 미'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드으' 리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
31079-0-1	달-(懸)-고	31079-0-1	*
31079-0-1	달-(懸)-더라	31079-0-2	다' 더' 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
31080-0-2	달-(甘)-더라	31080-0-2	다더' 라
31081-0-1	달:-(熱)-고	31081-0-2	*
31081-0-2	달:-(熱)-더라	31081-0-1	다아' 더' 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 고
31082-0-2	갈-(換)-더라	31082-0-2	*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 고'
31083-0-2	갈-(磨)-더라	31083-0-2	*
31084-0-1	갈:-(耕)-고	31084-0-1	가알' 고'
31084-0-2	갈:-(耕)-더라	31084-0-2	*
31085-0-1	겉-(收)-고	31085-0-1	걱' 꼬
31085-0-2	겉-(收)-더라	31085-0-2	*
31086-0-1	걸:-(步)-고	31086-0-1	*
31086-0-2	걸:-(步)-더라	31086-0-2	거얼' 떠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적' 꼬'
31087-0-2	적-(書)-더라	31087-0-2	*

31088-0-1	적:-(小)-고	31088-0-1	저억' 꼬
31088-0-2	적:-(小)-더라	31088-0-2	*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 꼬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 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 이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 가도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흐르' 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흐르더' 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흐르' 이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 러도

32003-0-1	오-(來)[ㅓ]-지	32003-0-1	*
32003-0-2	오-(來)[ㅓ]-고	32003-0-2	오' 고
32003-0-3	오-(來)[ㅓ]-더라	32003-0-3	오' 더' 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32003-0-4	오' 이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32003-0-5	와' 도'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듣' 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듣떠' 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 마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 러도

32005-0-1	많:-(多)[ᄇ]-지	32005-0-1 *
32005-0-2	많:-(多)[ᄇ]-고	32005-0-2 마양' 코
32005-0-3	많:-(多)[ᄇ]-더라	32005-0-3 마안' 터' 라
32005-0-4	많:-(多)[ᄇ]-으니까	32005-0-4 마아' 느' 마
32005-0-5	많:-(多)[ᄇ]-아/어(왔/었다)	32005-0-5 마아' 내' 도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막꼬'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3 말떠' 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4 마' 트머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32006-0-5 마' 터도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아알' 고'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아알' 더' 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알' 문'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아' 라도
32008-0-1	감:-(閉眼)[ㄹ]-지	32008-0-1 *
32008-0-2	감:-(閉眼)[ㄹ]-고	32008-0-2 갱' 고'
32008-0-3	감:-(閉眼)[ㄹ]-더라	32008-0-3 감더' 라
32008-0-4	감:-(閉眼)[ㄹ]-으니까	32008-0-4 까' 무' 마
32008-0-5	감:-(閉眼)[ㄹ]-아/어(왔/었다)	32008-0-5 까' 머' 도
32009-0-1	벗:-(脫)[ㅅ]-지	32009-0-1 *
32009-0-2	벗:-(脫)[ㅅ]-고	32009-0-2 벅' 고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3 벌떠' 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4 버' 스마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32009-0-5 버' 서도
32010-0-1	옴:-(可)[ㄹ]-지	32010-0-1 *
32010-0-2	옴:-(可)[ㄹ]-고	32010-0-2 올' 코'
32010-0-3	옴:-(可)[ㄹ]-더라	32010-0-3 올' 터' 라
32010-0-4	옴:-(可)[ㄹ]-으니까	32010-0-4 오' 르' 문
32010-0-5	옴:-(可)[ㄹ]-아/어(왔/었다)	32010-0-5 오' 래' 도

32011-0-1	입-(着衣)[ㅅ]-지	32011-0-1 *
32011-0-2	입-(着衣)[ㅅ]-고	32011-0-2 익' 꼬
32011-0-3	입-(着衣)[ㅅ]-더라	32011-0-3 입떠' 라
32011-0-4	입-(着衣)[ㅅ]-으니까	32011-0-4 이' 부머
32011-0-5	입-(着衣)[ㅅ]-아/어(왔/었다)	32011-0-5 이' 버도
32012-0-1	바꾸-(換)[ㄷ]-지	32012-0-1 *
32012-0-2	바꾸-(換)[ㄷ]-고	32012-0-2 바꾸' 코
32012-0-3	바꾸-(換)[ㄷ]-더라	32012-0-3 바꾸터' 라
32012-0-4	바꾸-(換)[ㄷ]-으니까	32012-0-4 바꾸' 우문
32012-0-5	바꾸-(換)[ㄷ]-아/어(왔/었다)	32012-0-5 바짜' 아도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덕' 꼬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덮떠' 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 푸마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32013-0-5 더' 퍼도
32014-0-1	묻:-(問)[ㄷ 변]-지	32014-0-1 *
32014-0-2	묻:-(問)[ㄷ 변]-고	32014-0-2 무욱' 꼬'
32014-0-3	묻:-(問)[ㄷ 변]-더라	32014-0-3 묻떠' 라
32014-0-4	묻:-(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 러마
32014-0-5	묻:-(問)[ㄷ 변]-아/어(왔/었다)	32014-0-5 무' 러두
32015-0-1	낫:-(癒)[ㅅ 변]-지	32015-0-1 *
32015-0-2	낫:-(癒)[ㅅ 변]-고	32015-0-2 나악' 꼬'
32015-0-3	낫:-(癒)[ㅅ 변]-더라	32015-0-3 나알' 떠'라
32015-0-4	낫:-(癒)[ㅅ 변]-으니까	32015-0-4 나' 스문
32015-0-5	낫:-(癒)[ㅅ 변]-아/어(왔/었다)	32015-0-5 나' 사도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닷' 꼬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닫' 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 드문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32016-0-5 다' 더도

32017-0-1	쫓-(追)[ㄷ]-지	32017-0-1 *
32017-0-2	쫓-(追)[ㄷ]-고	32017-0-2 쫓' 꼬
32017-0-3	쫓-(追)[ㄷ]-더라	32017-0-3 쫓떠' 라
32017-0-4	쫓-(追)[ㄷ]-으니까	32017-0-4 쫓' 치문
32017-0-5	쫓-(追)[ㄷ]-아/어(왔/었다)	32017-0-5 쫓' 처도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비이' 고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비이' 더' 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비' 이마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32018-0-5 비' 이도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 고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더' 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 머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32019-0-5 깨' 애도
32020-0-1	피:-(伸)[피]-지	32020-0-1 *
32020-0-2	피:-(伸)[피]-고	32020-0-2 피' 고
32020-0-3	피:-(伸)[피]-더라	32020-0-3 피더' 라
32020-0-4	피:-(伸)[피]-으니까	32020-0-4 피' 마
32020-0-5	피:-(伸)[피]-아/어(왔/었다)	32020-0-5 피' 이도
32021-0-1	발:-(明)[발]-지	32021-0-1 *
32021-0-2	발:-(明)[발]-고	32021-0-2 발' 꼬
32021-0-3	발:-(明)[발]-더라	32021-0-3 발떠' 라
32021-0-4	발:-(明)[발]-으니까	32021-0-4 발' 그마
32021-0-5	발:-(明)[발]-아/어(왔/었다)	32021-0-5 발' 거도
32022-0-1	쌈:-(烹)[쌈]-지	32022-0-1 *
32022-0-2	쌈:-(烹)[쌈]-고	32022-0-2 싸양' 고'
32022-0-3	쌈:-(烹)[쌈]-더라	32022-0-3 싸암더' 라
32022-0-4	쌈:-(烹)[쌈]-으니까	32022-0-4 쌀' 무무
32022-0-5	쌈:-(烹)[쌈]-아/어(왔/었다)	32022-0-5 쌀' 머도

32023-0-1	음-(吟)[ㄹ]~지	32023-0-1 *
32023-0-2	음-(吟)[ㄹ]~고	32023-0-2 *
32023-0-3	음-(吟)[ㄹ]~더라	32023-0-3 *
32023-0-4	음-(吟)[ㄹ]~으니까	32023-0-4 *
32023-0-5	음-(吟)[ㄹ]~아/어(왔/었다)	32023-0-5 *
32024-0-1	밟:-(踏)[ㅁ]~지	32024-0-1 *
32024-0-2	밟:-(踏)[ㅁ]~고	32024-0-2 바알' 꼬'
32024-0-3	밟:-(踏)[ㅁ]~더라	32024-0-3 바알' 떠' 라
32024-0-4	밟:-(踏)[ㅁ]~으니까	32024-0-4 발' 부마
32024-0-5	밟:-(踏)[ㅁ]~아/어(왔/었다)	32024-0-5 발' 버도
32025-0-1	하-(爲)[ㅈ 변]~지	32025-0-1 *
32025-0-2	하-(爲)[ㅈ 변]~고	32025-0-2 하' 고
32025-0-3	하-(爲)[ㅈ 변]~더라	32025-0-3 하더' 라
32025-0-4	하-(爲)[ㅈ 변]~으니까	32025-0-4 하' 문
32025-0-5	하-(爲)[ㅈ 변]~아/어(왔/었다)	32025-0-5 해애' 도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맥' 꼬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매떠' 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매' 지마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매' 저도
32027-0-1	없:-(無)[ㅁ]~지	32027-0-1 *
32027-0-2	없:-(無)[ㅁ]~고	32027-0-2 어억' 꼬'
32027-0-3	없:-(無)[ㅁ]~더라	32027-0-3 어업' 떠' 라
32027-0-4	없:-(無)[ㅁ]~으니까	32027-0-4 어업' 스' 문
32027-0-5	없:-(無)[ㅁ]~아/어(왔/었다)	32027-0-5 어업' 서' 도
32028-0-1	앉-(坐)[ㅈ]~지	32028-0-1 *
32028-0-2	앉-(坐)[ㅈ]~고	32028-0-2 양' 꼬
32028-0-3	앉-(坐)[ㅈ]~더라	32028-0-3 안떠' 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32028-0-4 안' 지마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32028-0-5 안' 저도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 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 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 비머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32029-0-5 비' 비도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 고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 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끄' 마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32030-0-5 꺼' 도
32031-0-1	꺾-(折)[ㅍ]-지	32031-0-1 *
32031-0-2	꺾-(折)[ㅍ]-고	32031-0-2 꺾' 꼬
32031-0-3	꺾-(折)[ㅍ]-더라	32031-0-3 꺾떼' 라
32031-0-4	꺾-(折)[ㅍ]-으니까	32031-0-4 꺾' 꼬마
32031-0-5	꺾-(折)[ㅍ]-아/어(왔/었다)	32031-0-5 꺾' 꺾도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시잉' 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시인' 떼' 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 느문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시' 너도
32033-0-1	보-(視)[ㅇ]-지	32033-0-1 *
32033-0-2	보-(視)[ㅇ]-고	32033-0-2 보' 고
32033-0-3	보-(視)[ㅇ]-더라	32033-0-3 보' 더' 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32033-0-4 보' 문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32033-0-5 보아' 도'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 고'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 더' 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추' 마'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춰' 어' 도

32035-0-1	피우--(吸煙)[ㅌ]-지	32035-0-1 *
32035-0-2	피우--(吸煙)[ㅌ]-고	32035-0-2 푸' 코
32035-0-3	피우--(吸煙)[ㅌ]-더라	32035-0-3 푸터' 라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32035-0-4 푸' 우마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었다)	32035-0-5 푸' 우도
32036-0-1	서-(立)[ㄷ]-지	32036-0-1 *
32036-0-2	서-(立)[ㄷ]-고	32036-0-2 서' 고
32036-0-3	서-(立)[ㄷ]-더라	32036-0-3 서터' 라
32036-0-4	서-(立)[ㄷ]-으니까	32036-0-4 서' 무
32036-0-5	서-(立)[ㄷ]-아/어(왔/었다)	32036-0-5 서' 도'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 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 더' 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 마'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7-0-5 기이' 도'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 고'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터' 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이' 마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여' 도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이' 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이터' 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이' 문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아이' 라' 도
32040-0-1	되-(升)[ㅊ]-지	32040-0-1 *
32040-0-2	되-(升)[ㅊ]-고	32040-0-2 뒹' 고'
32040-0-3	되-(升)[ㅊ]-더라	32040-0-3 뒹' 더' 라
32040-0-4	되-(升)[ㅊ]-으니까	32040-0-4 뒹' 머'
32040-0-5	되-(升)[ㅊ]-아/어(왔/었다)	32040-0-5 뒹에' 도'

32041-0-1	있-(有)[ㅅ]-지	32041-0-1 *
32041-0-2	있-(有)[ㅅ]-고	32041-0-2 익' 꼬
32041-0-3	있-(有)[ㅅ]-더라	32041-0-3 이떠' 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32041-0-4 이스' 마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32041-0-5 이' 서도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 코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 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 오마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놔' 아도
32043-0-1	흔-(扱)[ㄹ]-지	32043-0-1 *
32043-0-2	흔-(扱)[ㄹ]-고	32043-0-2 흘' 꼬
32043-0-3	흔-(扱)[ㄹ]-더라	32043-0-3 흘' 떠라
32043-0-4	흔-(扱)[ㄹ]-으니까	32043-0-4 흘' 트먼
32043-0-5	흔-(扱)[ㄹ]-아/어(왔/었다)	32043-0-5 흘' 터도
32044-0-1	굽:-(麗)[ㄷ 변]-지	32044-0-1 *
32044-0-2	굽:-(麗)[ㄷ 변]-고	32044-0-2 고옥' 꼬'
32044-0-3	굽:-(麗)[ㄷ 변]-더라	32044-0-3 고옴' 떠' 라
32044-0-4	굽:-(麗)[ㄷ 변]-으니까	32044-0-4 고부' 마
32044-0-5	굽:-(麗)[ㄷ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고버' 도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이' 고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쥐이' 더' 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쥐이' 마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쥐' 이도
32046-0-1	가-(去)[ㅈ]-지	32046-0-1 *
32046-0-2	가-(去)[ㅈ]-고	32046-0-2 가' 고
32046-0-3	가-(去)[ㅈ]-더라	32046-0-3 가' 더' 라
32046-0-4	가-(去)[ㅈ]-으니까	32046-0-4 가' 마
32046-0-5	가-(去)[ㅈ]-아/어(왔/었다)	32046-0-5 가' 도'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CY	32047-0-1	먹떠' 라
32047-0-2	먹-(食)-아Y	32047-0-2	머' 거도
32048-0-1	뜯-(摘)-CY	32048-0-1	뜯떠' 라
32048-0-2	뜯-(摘)-아Y	32048-0-2	뜨' 더도
32049-0-1	갈-(如)-CY	32049-0-1	간' 떠' 라
32049-0-2	갈-(如)-아Y	32049-0-2	가' 태' 애도
32050-0-1	얕-(淺)-CY	32050-0-1	얕떠' 라
32050-0-2	얕-(淺)-아Y	32050-0-2	야' 터도
32051-0-1	흩-(散)-CY	32051-0-1	호' 치더라
32051-0-2	흩-(散)-아Y	32051-0-2	호' 처' 도
32052-0-1	날:-(飛)-CY	32052-0-1	날더' 라
32052-0-2	날:-(飛)-아Y	32052-0-2	나' 라도
32053-0-1	울:-(泣)-CY	32053-0-1	우울' 더' 라
32053-0-2	울:-(泣)-아Y	32053-0-2	우' 러도
32054-0-1	일:-(洵)-CY	32054-0-1	이' 리더라
32054-0-2	일:-(洵)-아Y	32054-0-2	이' 리도
32055-0-1	얼:-(凍)-CY	32055-0-1	어얼' 더라
32055-0-2	얼:-(凍)-아Y	32055-0-2	어' 러도
32056-0-1	넘:-(越)-CY	32056-0-1	너엄' 더' 라
32056-0-2	넘:-(越)-아Y	32056-0-2	너' 머도
32057-0-1	숨:-(隱)-CY	32057-0-1	숨떠' 라
32057-0-2	숨:-(隱)-아Y	32057-0-2	수' 머도

32058-0-1	쉽:-(易)-CY	32058-0-1	수웁' 떠' 라
32058-0-2	쉽:-(易)-아Y	32058-0-2	수' 버도
32059-0-1	눅:-(臥)-CY	32059-0-1	눅떠' 라
32059-0-2	눅:-(臥)-아Y	32059-0-2	누' 버도
32060-0-1	깁:-(縫)-CY	32060-0-1	지입' 떠' 라
32060-0-2	깁:-(縫)-아Y	32060-0-2	지' 버도
32061-0-1	밋:-(憎)-CY	32061-0-1	밋떠' 라
32061-0-2	밋:-(憎)-아Y	32061-0-2	미' 버도
32062-0-1	눅:-(高)-CY	32062-0-1	노푸더' 라
32062-0-2	눅:-(高)-아Y	32062-0-2	노' 퍼도
32063-0-1	짚:-(作)-CY	32063-0-1	지이' 떠' 라
32063-0-2	짚:-(作)-아Y	32063-0-2	지' 이도
32064-0-1	붓:-(腫)-CY	32064-0-1	분떠' 라
32064-0-2	붓:-(腫)-아Y	32064-0-2	부' 우도
32065-0-1	웃:-(笑)-CY	32065-0-1	위이' 떠라
32065-0-2	웃:-(笑)-아Y	32065-0-2	위' 서도
32066-0-1	짚:-(吠)-CY	32066-0-1	지이' 떠라
32066-0-2	짚:-(吠)-아Y	32066-0-2	지' 서도
32067-0-1	꽃:-(插)-CY	32067-0-1	폼' 떠라
32067-0-2	꽃:-(插)-아Y	32067-0-2	꼬' 버도
32068-0-1	낱:-(産)-CY	32068-0-1	노터' 라
32068-0-2	낱:-(産)-아Y	32068-0-2	나' 아도
32069-0-1	땅:-(辯)-CY	32069-0-1	땅터' 라
32069-0-2	땅:-(辯)-아Y	32069-0-2	땅' 어도

32070-0-1	끊-(切)-CY	32070-0-1	끈터' 라
32070-0-2	끊-(切)-아Y	32070-0-2	끄' 너도
32071-0-1	괜찮-(無妨)-CY	32071-0-1	괜찬터' 라
32071-0-2	괜찮-(無妨)-아Y	32071-0-2	괜차' 네서
32072-0-1	읽-(讀)-CY	32072-0-1	이리더' 라
32072-0-2	읽-(讀)-아Y	32072-0-2	일' 러도
32073-0-1	떨-(漈)-CY	32073-0-1	떠얼' 떠' 라
32073-0-2	떨-(漈)-아Y	32073-0-2	떠얼' 버' 도
32074-0-1	옮-(遷)-CY	32074-0-1	오르더' 라
32074-0-2	옮-(遷)-아Y	32074-0-2	올' 러도
32075-0-1	떨-(貫)-CY	32075-0-1	떠얼' 떠' 라
32075-0-2	떨-(貫)-아Y	32075-0-2	떨' 버도
32076-0-1	꿔-(跪)-CY	32076-0-1	꾸' 리' 더라
32076-0-2	꿔-(跪)-아Y	32076-0-2	꾸' 리' 도
32077-0-1	닿-(抗심이)-CY	32077-0-1	딸터' 라
32077-0-2	닿-(抗,심이)-아Y	32077-0-2	따' 러도
32078-0-1	닿-(煎)-CY	32078-0-1	딸터' 라
32078-0-2	닿-(煎)-아Y	32078-0-2	따' 러도
32079-0-1	짜-(鹽)-CY	32079-0-1	짹' 떠' 라
32079-0-2	짜-(鹽)-아Y	32079-0-2	짜' 버' 도
32080-0-1	말-(捲)-CY	32080-0-1	말더' 라
32080-0-2	말-(捲)-아Y	32080-0-2	마' 라도
32081-0-1	쓰-(書)-CY	32081-0-1	쓰' 더라
32081-0-2	쓰-(書)-아Y	32081-0-2	써' 도'

32082-0-1	오르-(登)-CY	32082-0-1 오르더' 라
32082-0-2	오르-(登)-아Y	32082-0-2 올' 러도
32083-0-1	바쁘-(忙)-CY	32083-0-1 바쁘더' 라
32083-0-2	바쁘-(忙)-아Y	32083-0-2 바' 빠도
32084-0-1	고프-(餓)-CY	32084-0-1 고푸더' 라
32084-0-2	고프-(餓)-아Y	32084-0-2 고' 퍼도
32085-0-1	쏘-(射)-CY	32085-0-1 쏘' 더' 라
32085-0-2	쏘-(射)-아Y	32085-0-2 쏘아' 도'
32086-0-1	꾸-(夢)-CY	32086-0-1 꾸' 더' 라
32086-0-2	꾸-(夢)-아Y	32086-0-2 꿇' 어' 도
32087-0-1	머무르-(留)-CY	32087-0-1 머' 물더라
32087-0-2	머무르-(留)-아Y	32087-0-2 머' 무러도
32088-0-1	다듬-(整)-CY	32088-0-1 따듬더' 라
32088-0-2	다듬-(整)-아Y	32088-0-2 따드' 머도
32089-0-1	견디-(忍)-CY	32089-0-1 견' 디더라
32089-0-2	견디-(忍)-아Y	32089-0-2 견' 디도
32090-0-1	말리-(裁)-CY	32090-0-1 말리더' 라
32090-0-2	말리-(裁)-아Y	32090-0-2 말' 리도
32091-0-1	끼-(烟鎖, 안개가)-CY	32091-0-1 끼' 이더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Y	32091-0-2 끼' 이도
32092-0-1	마시-(飲)-CY	32092-0-1 마' 시더라
32092-0-2	마시-(飲)-아Y	32092-0-2 마' 시도
32093-0-1	세:-(强)-CY	32093-0-1 세에' 더라
32093-0-2	세:-(强)-아Y	32093-0-2 세' 예도

32094-0-1	포개-(重疊)-CY	32094-0-1	동개더' 라
32094-0-2	포개-(重疊)-아Y	32094-0-2	동개' 애도
32095-0-1	두드리-(敲)-CY	32095-0-1	뚜디' 리더라
32095-0-2	두드리-(敲)-아Y	32095-0-2	뚜디' 리도
32096-0-1	켜-(點燈)-CY	32096-0-1	키더' 라
32096-0-2	켜-(點燈)-아Y	32096-0-2	키' 도'
32097-0-1	썰:-(바람을)-CY	32097-0-1	쉬' 이더라
32097-0-2	썰:-(바람을)-아Y	32097-0-2	쉬' 이도
32098-0-1	쇠-(老)-CY	32098-0-1	쉬이' 더' 라
32098-0-2	쇠-(老)-아Y	32098-0-2	쉬' 이도
32099-0-1	쉬:-(鯉)-CY	32099-0-1	쉬이' 더' 라
32099-0-2	쉬:-(鯉)-아Y	32099-0-2	쉬' 이도
32100-0-1	희-(白)-CY	32100-0-1	히' 더' 라
32100-0-2	희-(白)-아Y	32100-0-2	히이' 도
32101-0-1	볶-(炒)-CY	32101-0-1	볶떠' 라
32101-0-2	볶-(炒)-아Y	32101-0-2	볶' 꺼도
32102-0-1	안:-(抱)-CY	32102-0-1	아안' 떠' 라
32102-0-2	안:-(抱)-아Y	32102-0-2	아' 너도
32103-0-1	묻-(埋)-CY	32103-0-1	묻떠' 라
32103-0-2	묻-(埋)-아Y	32103-0-2	무' 더도
32104-0-1	불:-(吹)-CY	32104-0-1	부울' 더' 라
32104-0-2	불:-(吹)-아Y	32104-0-2	부' 러도
32105-0-1	빨-(洗濯)-CY	32105-0-1	빠알' 더' 라
32105-0-2	빨-(洗濯)-아Y	32105-0-2	빠' 라' 도

32106-0-1	죽-(死)-CY	32106-0-1 죽더' 라
32106-0-2	죽-(死)-아Y	32106-0-2 주' 거도
32107-0-1	걸:-(步)-CY	32107-0-1 거얼' 떠' 라
32107-0-2	걸:-(步)-아Y	32107-0-2 거' 러도
32108-0-1	가물-(旱)-CY	32108-0-1 가' 물' 더라
32108-0-2	가물-(旱)-아Y	32108-0-2 가' 무' 러도
32109-0-1	졸:-(睡)-CY	32109-0-1 자불더' 라
32109-0-2	졸:-(睡)-아Y	32109-0-2 자부' 러도
32110-0-1	쓸-(掃)-CY	32110-0-1 쓸' 더라
32110-0-2	쓸-(掃)-아Y	32110-0-2 씨' 러' 도
32111-0-1	감:-(捲)-CY	32111-0-1 가얌' 더' 라
32111-0-2	감:-(捲)-아Y	32111-0-2 가' 머도
32112-0-1	더듬-(摸)-CY	32112-0-1 더' 듬더라
32112-0-2	더듬-(摸)-아Y	32112-0-2 더' 드머도
32113-0-1	굽:-(炙)-CY	32113-0-1 꾸웁' 떠라
32113-0-2	굽:-(炙)-아Y	32113-0-2 꾸' 버도
32114-0-1	무겁-(重)-CY	32114-0-1 무겁떠' 라
32114-0-2	무겁-(重)-아Y	32114-0-2 무거' 버도
32115-0-1	잇:-(連)-CY	32115-0-1 이수터' 라
32115-0-2	잇:-(連)-아Y	32115-0-2 이좌' 아도
32116-0-1	빗-(梳)-CY	32116-0-1 빼떠' 라
32116-0-2	빗-(梳)-아Y	32116-0-2 빼' 서도
32117-0-1	까맣-(黑)-CY	32117-0-1 꺼커터' 라
32117-0-2	까맣-(黑)-아Y	32117-0-2 꺼' 머도

32118-0-1	넣-(入)-CY	32118-0-1	여터' 라
32118-0-2	넣-(入)-아Y	32118-0-2	여' 어도
32119-0-1	고:-(煮)-CY	32119-0-1	꼬' 오더라
32119-0-2	고:-(煮)-아Y	32119-0-2	꼬아' 도
32120-0-1	엎-(載)-CY	32120-0-1	언떠' 라
32120-0-2	엎-(載)-아Y	32120-0-2	언' 저도
32121-0-1	귀찮-(囁)-CY	32121-0-1	귀' 찬' 터라
32121-0-2	귀찮-(囁)-아Y	32121-0-2	귀차' 내' 도
32122-0-1	바르-(剔, 빠를)-CY	32122-0-1	발떠' 라
32122-0-2	바르-(剔, 빠를)-아Y	32122-0-2	발' 거도
32123-0-1	맑-(淸)-CY	32123-0-1	말떠' 라
32123-0-2	맑-(淸)-아Y	32123-0-2	말' 거도
32124-0-1	굶:-(餓)-CY	32124-0-1	공' 기더라
32124-0-2	굶:-(餓)-아Y	32124-0-2	공' 기도
32125-0-1	굶:-(太)-CY	32125-0-1	구울' 떠' 라
32125-0-2	굶:-(太)-아Y	32125-0-2	굴거' 도
32126-0-1	얇:-(薄)-CY	32126-0-1	야알' 떠' 라
32126-0-2	얇:-(薄)-아Y	32126-0-2	얇' 버도
32127-0-1	쑤-(春)-CY	32127-0-1	썰터' 라
32127-0-2	쑤-(春)-아Y	32127-0-2	씨' 러도
32128-0-1	잃-(失)-CY	32128-0-1	일터' 라
32128-0-2	잃-(失)-아Y	32128-0-2	이' 러도
32129-0-1	핥-(舐)-CY	32129-0-1	활떠' 라
32129-0-2	핥-(舐)-아Y	32129-0-2	활' 타도

32130-0-1	짧-(短)-CY	32130-0-1	짜르더' 라
32130-0-2	짧-(短)-아Y	32130-0-2	짧' 라도
32131-0-1	놀라-(驚)-CY	32131-0-1	노을' 래' 더라
32131-0-2	놀라-(驚)-아Y	32131-0-2	노을' 래' 도
32132-0-1	자-(宿)-CY	32132-0-1	자' 더' 라
32132-0-2	자-(宿)-아Y	32132-0-2	자' 도'
32133-0-1	못:하-(不爲)-CY	32133-0-1	모하' 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Y	32133-0-2	모해' 도
32134-0-1	모르-(不知)-CY	32134-0-1	모리더' 라
32134-0-2	모르-(不知) -아Y	32134-0-2	모을' 래'
32135-0-1	아프-(痛)-CY	32135-0-1	아푸더'라
32135-0-2	아프-(痛)-아Y	32135-0-2	아'퍼도
32136-0-1	크-(大)-CY	32136-0-1	크' 더' 라
32136-0-2	크-(大)-아Y	32136-0-2	커' 도'
32137-0-1	꼬-(索, 새끼를)-CY	32137-0-1	꼬' 더' 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Y	32137-0-2	짜' 도
32138-0-1	쭈-(造粥)-CY	32138-0-1	쭈' 더' 라
32138-0-2	쭈-(造粥)-아Y	32138-0-2	쭈' 도'
32139-0-1	맞추-(組合)-CY	32139-0-1	마추터' 라
32139-0-2	맞추-(組合)-아Y	32139-0-2	마촐' 아도
32140-0-1	테우-(梧)-CY	32140-0-1	디' 우더라
32140-0-2	테우-(梧)-아Y	32140-0-2	디' 와도
32141-0-1	이:-(盖, 지붕을)-CY	32141-0-1	이' 이더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Y	32141-0-2	이' 이도

32142-0-1	갈기-(打)-CY	32142-0-1 갈기' 더라
32142-0-2	갈기-(打)-아Y	32142-0-2 갈기' 도
32143-0-1	기다리-(待)-CY	32143-0-1 기다' 리더라
32143-0-2	기다리-(待)-아Y	32143-0-2 기' 다리도
32144-0-1	세:-(算)-CY	32144-0-1 시아' 리더라
32144-0-2	세:-(算)-아Y	32144-0-2 시아' 리도
32145-0-1	빼-(拔)-CY	32145-0-1 빼' 더' 라
32145-0-2	빼-(拔)-아Y	32145-0-2 빼애' 도'
32146-0-1	켜-(툼을)-CY	32146-0-1 키더' 라
32146-0-2	켜-(툼을)-아Y	32146-0-2 키'도
32147-0-1	되:-(硬)-CY	32147-0-1 뒤이' 더' 라
32147-0-2	되:-(硬)-아Y	32147-0-2 뒤' 이도
32148-0-1	쉬:-(休)-CY	32148-0-1 쉬이' 더' 라
32148-0-2	쉬:-(休)-아Y	32148-0-2 쉬' 이도
32149-0-1	할퀴-(擻)-CY	32149-0-1 허' 비더라
32149-0-2	할퀴-(擻)-아Y	32149-0-2 허' 비도
32150-0-1	눈:-(焦)-CY	32150-0-1 누운' 떠' 라
32150-0-2	눈:-(焦)-아Y	32150-0-2 누' 러도
32151-0-1	깨닫-(覺)-CY	32151-0-1 깨달터' 라
32151-0-2	깨닫-(覺)-아Y	32151-0-2 깨' 다' 라도
32152-0-1	마렵-(오줌이)-CY	32152-0-1 매랍떠' 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Y	32152-0-2 매라' 바도
32153-0-1	부끄럽-(恥)-CY	32153-0-1 부끄럽떠' 라
32153-0-2	부끄럽-(恥)-아Y	32153-0-2 부끄러' 버도

32154-0-1	가깝-(近)-CY	32154-0-1	개작떠떠' 라
32154-0-2	가깝-(近)-아Y	32154-0-2	개자' 거도
32155-0-1	깊-(深)-CY	32155-0-1	기푸더' 라
32155-0-2	깊-(深)-아Y	32155-0-2	기' 퍼도
32156-0-1	긋:-(劃)-CY	32156-0-1	끄' 으더라
32156-0-2	긋:-(劃)-아Y	32156-0-2	꺼' 어도
32157-0-1	씻-(洗)-CY	32157-0-1	씨터' 라
32157-0-2	씻-(洗)-아Y	32157-0-2	씨' 이도
32158-0-1	쪼-(搗)-CY	32158-0-1	찌터' 라
32158-0-2	쪼-(搗)-아Y	32158-0-2	찌' 이도
32159-0-1	잡-(搔)-CY	32159-0-1	끌터'라
32159-0-2	잡-(搔)-아Y	32159-0-2	끌'거도
32160-0-1	굶:-(飢)-CY	32160-0-1	구웁' 떠' 라
32160-0-2	굶:-(飢)-아Y	32160-0-2	굴' 머도
32161-0-1	닢:-(似)-CY	32161-0-1	다암' 떠' 라
32161-0-2	닢:-(似)-아Y	32161-0-2	달' 머도
32162-0-1	싫-(厭)-CY	32162-0-1	실' 터' 라
32162-0-2	싫-(厭)-아Y	32162-0-2	시' 레' 도
32163-0-1	끓-(𪗇)-CY	32163-0-1	꼴터' 라
32163-0-2	끓-(𪗇)-아Y	32163-0-2	고' 러도
32164-0-1	붓:-(注)-CY	32164-0-1	부떠' 라
32164-0-2	붓:-(注)-아Y	32164-0-2	부' 어도
32165-0-1	타-(乘)-CY	32165-0-1	타' 더' 라
32165-0-2	타-(乘)-아Y	32165-0-2	타' 도'

32166-0-1	마르-(乾)-CY	32166-0-1	마르더' 라
32166-0-2	마르-(乾)-아Y	32166-0-2	말' 라도
32167-0-1	쓰-(苦)-CY	32167-0-1	씹' 떠' 라
32167-0-2	쓰-(苦)-아Y	32167-0-2	씨' 버' 도
32168-0-1	슬프-(哀)-CY	32168-0-1	슬푸더' 라
32168-0-2	슬프-(哀)-아Y	32168-0-2	슬'퍼도
32169-0-1	기쁘-(喜)-CY	32169-0-1	기뿌더' 라
32169-0-2	기쁘-(喜)-아Y	32169-0-2	기' 빠도
32170-0-1	쏘-(蜚, 벌이)-CY	32170-0-1	쏘' 더' 라
32170-0-2	쏘-(蜚, 벌이)-아Y	32170-0-2	썩'도'
32171-0-1	주-(與)-CY	32171-0-1	주' 더' 라
32171-0-2	주-(與)-아Y	32171-0-2	쥐' 어'도
32172-0-1	키우-(飼育)-CY	32172-0-1	키' 우더라
32172-0-2	키우-(飼育)-아Y	32172-0-2	키' 와도
32173-0-1	가두-(囚)-CY	32173-0-1	가두터' 라
32173-0-2	가두-(囚)-아Y	32173-0-2	가돼' 아도
32174-0-1	부수-(碎)-CY	32174-0-1	뿌수터' 라
32174-0-2	부수-(碎)-아Y	32174-0-2	뿌좌' 아도
32175-0-1	나누-(分)-CY	32175-0-1	노' 누더라
32175-0-2	나누-(分)-아Y	32175-0-2	노' 너도
32176-0-1	속이-(欺)-CY	32176-0-1	쏘' 기더라
32176-0-2	속이-(欺)-아Y	32176-0-2	쏘' 게도
32177-0-1	끼-(插)-CY	32177-0-1	찌' 더' 라
32177-0-2	끼-(插)-아Y	32177-0-2	찌' 도'

32178-0-1	튀-(跳)-CY	32178-0-1 튀더' 라
32178-0-2	튀-(跳)-아Y	32178-0-2 튀' 이도
32179-0-1	괴:-(滄)-CY	32179-0-1 고이' 더라
32179-0-2	괴:-(滄)-아Y	32179-0-2 고이' 도
32180-0-1	여위-(癯)-CY	32180-0-1 여' 비더라
32180-0-2	여위-(癯)-아Y	32180-0-2 여' 비도
32181-0-1	맵-(辛)-CY	32181-0-1 맵떠' 라
32181-0-2	맵-(辛)-아Y	32181-0-2 맵' 버도
32182-0-1	뀌:-(屍)-CY	32182-0-1 꺾이' 더' 라
32182-0-2	뀌:-(屍)-아Y	32182-0-2 꺾' 이도
32183-0-1	고치-(改)-CY	32183-0-1 곤' 치더라
32183-0-2	고치-(改)-아Y	32183-0-2 곤' 처도
32184-0-1	싣:-(載)-CY	32184-0-1 시일' 떠' 라
32184-0-2	싣:-(載)-아Y	32184-0-2 시' 러도
32185-0-1	얻:-(得)-CY	32185-0-1 어얻' 떠' 라
32185-0-2	얻:-(得)-아Y	32185-0-2 어더' 도
32186-0-1	빻-(粉碎)-CY	32186-0-1 빠터' 라
32186-0-2	빻-(粉碎)-아Y	32186-0-2 빠' 아도
32187-0-1	파랑-(碧)-CY	32187-0-1 파라터' 라
32187-0-2	파랑-(碧)-아Y	32187-0-2 파래' 애도
32188-0-1	다르-(異)-CY	32188-0-1 다르더' 라
32188-0-2	다르-(異)-아Y	32188-0-2 달' 러도
32189-0-1	푸-(汲)-CY	32189-0-1 푸' 더' 라
32189-0-2	푸-(汲)-아Y	32189-0-2 퍼' 도'

32190-0-1	누-(尿)-CY	32190-0-1 누' 더' 라
32190-0-2	누-(尿)-아Y	32190-0-2 노' 도'
32191-0-1	더:럽-(汚)-CY	32191-0-1 더어' 럽' 떠라
32191-0-2	더:럽-(汚)-아Y	32191-0-2 더러' 버도
32192-0-1	거두-(收)-CY	32192-0-1 거두터' 라
32192-0-2	거두-(收)-아Y	32192-0-2 거뒀' 아도
32193-0-1	끓-(沸)-CY	32193-0-1 끓터' 라
32193-0-2	끓-(沸)-아Y	32193-0-2 꼬' 러도
32194-0-1	이기-(勝)-CY	32194-0-1 이' 기더라
32194-0-2	이기-(勝)-아Y	32194-0-2 이' 기도
32195-0-1	부시-(照)-CY	32195-0-1 바시' 이더라
32195-0-2	부시-(照)-아Y	32195-0-2 바' 시이도
32196-0-1	자빠지-(後倒)-CY	32196-0-1 자' 빠지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Y	32196-0-2 자' 빠저도
32197-0-1	일으키-(使起)-CY	32197-0-1 일바' 치더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Y	32198-0-2 일바' 치도
32198-0-1	당기-(引)-CY	32198-0-1 땡' 기더라
32198-0-2	당기-(引)-아Y	32199-0-2 땡' 기도
32199-0-1	버리-(捨)-CY	32199-0-1 버' 리더라
32199-0-2	버리-(捨)-아Y	32199-0-2 버' 리도
32200-0-1	훔치-(盜)-CY	32200-0-1 훔' 치더라
32200-0-2	훔치-(盜)-아Y	32200-0-2 훔' 치도
32201-0-1	지-(負)-CY	32201-0-1 지더' 라
32201-0-2	지-(負)-아Y	32201-0-2 저' 도'

32202-0-1	외:-(暗誦)-CY	32202-0-1	에' 우더라
32202-0-2	외:-(暗誦)-아Y	32202-0-2	에' 워도
32203-0-1	사귀-(交際)-CY	32203-0-1	사' 기다라
32203-0-2	사귀-(交際)-아Y	32203-0-2	사' 기도
32204-0-1	씩-(腐)-CY	32204-0-1	씩떠' 라
32204-0-2	씩-(腐)-아Y	32204-0-2	씩' 거도
32205-0-1	질-(泥)-CY	32205-0-1	질더' 라
32205-0-2	질-(泥)-아Y	32205-0-2	지' 러도
32206-0-1	까불-(箕)-CY	32206-0-1	까불더' 라
32206-0-2	까불-(箕)-아Y	32206-0-2	까부' 러도
32207-0-1	드물-(稀)-CY	32207-0-1	드' 물' 더라
32207-0-2	드물-(稀)-아Y	32207-0-2	드' 무' 러도
32208-0-1	줄:-(縮)-CY	32208-0-1	주울' 더' 라
32208-0-2	줄:-(縮)-아Y	32208-0-2	주' 러' 도
32209-0-1	심:-(植)-CY	32209-0-1	숭구터' 라
32209-0-2	심:-(植)-아Y	32209-0-2	숭과' 아도
32210-0-1	쓰다듬-(撫)-CY	32210-0-1	씨' 담' 더라
32210-0-2	쓰다듬-(撫)-아Y	32210-0-2	씨' 다' 머도
32211-0-1	사:납-(猛)-CY	32211-0-1	사' 납떠라
32211-0-2	사:납-(猛)-아Y	32211-0-2	사' 나버도
32212-0-1	가볍-(輕)-CY	32212-0-1	개잡떠' 라
32212-0-2	가볍-(輕)-아Y	32212-0-2	개가' 버도
32213-0-1	젓:-(撈)-CY	32213-0-1	저어' 떠라
32213-0-2	젓:-(撈)-아Y	32213-0-2	저' 서도

32214-0-1	두껍-(厚)-CY	32214-0-1 두껍떠' 라
32214-0-2	두껍-(厚)-아Y	32214-0-2 두꺼' 버도
32215-0-1	무르-(軟)-CY	32215-0-1 무르더' 라
32215-0-2	무르-(軟)-아Y	32215-0-2 물' 러도
32216-0-1	분지르-(折)-CY	32216-0-1 뿌지' 리더라
32216-0-2	분지르-(折)-아Y	32216-0-2 뿌지' 리도
32217-0-1	배우-(學)-CY	32217-0-1 배' 우더라
32217-0-2	배우-(學)-아Y	32217-0-2 배' 와도
32218-0-1	다리-(慰)-CY	32218-0-1 다' 리더라
32218-0-2	다리-(慰)-아Y	32218-0-2 다' 리도
32219-0-1	후비-(沍, 귀를)-CY	32219-0-1 후' 비더라
32219-0-2	후비-(沍, 귀를)-아/어	32219-0-2 후' 비도
32220-0-1	아리-(痛)-CY	32220-0-1 애리' 이더라
32220-0-2	아리-(痛)-아Y	32220-0-2 애리' 이도
32221-0-1	그리-(畫)-CY	32221-0-1 기' 리' 더라
32221-0-2	그리-(畫)-아Y	32221-0-2 기' 리' 도
32222-0-1	저리-(癡)-CY	32222-0-1 제' 리더라
32222-0-2	저리-(癡)-아Y	32221-0-2 제' 리도
32223-0-1	불리-(增)-CY	32223-0-1 부루터' 라
32223-0-2	불리-(增)-아Y	32223-0-2 부라' 아도
32224-0-1	뜨시-(溫)-CY	32224-0-1 뜨시더' 라
32224-0-2	뜨시-(溫)-아Y	32224-0-2 뜨세' 예도
32225-0-1	끓이-(使沸)-CY	32225-0-1 끼' 리더라
32225-0-2	끓이-(使沸)-아Y	32225-0-2 끼' 리도

32226-0-1	누비-(縫)-CY	32226-0-1 누' 이더라
32226-0-2	누비-(縫)-아Y	32226-0-2 누' 이도
32227-0-1	구기-(皺)-CY	32227-0-1 꾸개더' 라
32227-0-2	구기-(皺)-아Y	32227-0-2 꾸개' 애도
32228-0-1	비:-(空)-CY	32228-0-1 비이' 더' 라
32228-0-2	비:-(空)-아Y	32228-0-2 비' 이도
32229-0-1	식히-(使冷)-CY	32229-0-1 시쿠타' 라
32229-0-2	식히-(使冷)-아Y	32229-0-2 시콰' 아도
32230-0-1	매-(除草)-CY	32230-0-1 매' 더' 라
32230-0-2	매-(除草)-아Y	32230-0-2 매' 애' 도
32231-0-1	매:-(結)-CY	32231-0-1 매' 더' 라
32231-0-2	매:-(結)-아Y	32231-0-2 매' 애' 도
32232-0-1	뛰-(走)-CY	32232-0-1 뛰더' 라
32232-0-2	뛰-(走)-아Y	32232-0-2 뛰' 이도
32233-0-1	담:-(盛)-CY	32233-0-1 다암'더'라
32233-0-2	담:-(盛)-아Y	32233-0-2 다'머도
32234-0-1	가렵-(癢)-CY	32234-0-1 개랍떠' 라
32234-0-2	가렵-(癢)-아Y	32234-0-2 개라' 버도
32235-0-1	때리-(打)-CY	32235-0-1 때' 리더라
32235-0-2	때리-(打)-아Y	32235-0-2 때' 레도
32236-0-1	어둡-(暗)-CY	32236-0-1 어둡떠' 라
32236-0-2	어둡-(暗)-아Y	32236-0-2 어드' 버' 도
32237-0-1	잡-(執)-CY	32237-0-1 잡떠' 라
32237-0-2	잡-(執)-아Y	32237-0-2 자' 버도

32238-0-1	차-(蹴)-CY	32238-0-1 차' 더' 라
32238-0-2	차-(蹴)-아Y	32238-0-2 차' 도'
32239-0-1	모자라-(不足)-CY	32239-0-1 모자리' 이더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Y	32239-0-2 모자리' 이도
32240-0-1	부르-(呼)-CY	32240-0-1 부르더' 라
32240-0-2	부르-(呼)-아Y	32240-0-2 불' 러도
32241-0-1	따르-(注)-CY	32241-0-1 따루터' 라
32241-0-2	따르-(注)-아Y	32241-0-2 따라' 아도
32242-0-1	쫓:- (啄)-CY	32242-0-1 쫓오' 떠' 라
32242-0-2	쫓:- (啄)-아Y	32242-0-2 쫓' 서' 도
32243-0-1	두-(置)-CY	32243-0-1 두' 더' 라
32243-0-2	두-(置)-아Y	32243-0-2 뒤' 도'
32244-0-1	시키-(使)-CY	32244-0-1 시' 기더라
32244-0-2	시키-(使)-아Y	32244-0-2 시' 기도
32245-0-1	지리-(漏)-CY	32245-0-1 찢' 기더라
32245-0-2	지리-(漏)-아Y	32245-0-2 찢' 기도
32246-0-1	던지-(投)-CY	32246-0-1 떼' 지더라
32246-0-2	던지-(投)-아Y	32246-0-2 떼' 저도
32247-0-1	모이-(集)-CY	32247-0-1 모이더' 라
32247-0-2	모이-(集)-아Y	32247-0-2 모이' 도
32248-0-1	만지-(搯)-CY	32248-0-1 만' 지더라
32248-0-2	만지-(搯)-아Y	32248-0-2 만' 저도
32249-0-1	쫌:- (曬)-CY	32249-0-1 쫌' 오더라
32249-0-2	쫌:- (曬)-아Y	32249-0-2 쫌' 아도

32250-0-1	비틀-(捻)-CY	32250-0-1 비틀' 더라
32250-0-2	비틀-(捻)-아Y	32250-0-2 비트' 러도
32251-0-1	돕:-(助)-CY	32251-0-1 도' 오더라
32251-0-2	돕:-(助)-아Y	32251-0-2 도' 와도
32252-0-1	씹-(咀)-CY	32252-0-1 씹입' 떠' 더라
32252-0-2	씹-(咀)-아Y	32252-0-2 씹' 버도
32253-0-1	미끄럽-(滑)-CY	32253-0-1 미끄럽떠' 라
32253-0-2	미끄럽-(滑)-아Y	32253-0-2 미끄러' 버도
32254-0-1	닿-(接)-CY	32254-0-1 대이' 더라
32254-0-2	닿-(接)-아Y	32254-0-2 대이' 도
32255-0-1	누르-(壓)-CY	32255-0-1 눌' 리더라
32255-0-2	누르-(壓)-아Y	32255-0-2 눌' 러도
32256-0-1	주무르-(揉)-CY	32256-0-1 주무' 리더라
32256-0-2	주무르-(揉)-아Y	32256-0-2 주무' 러도
32257-0-1	메우-(填)-CY	32257-0-1 미꾸터' 라
32257-0-2	메우-(填)-아Y	32257-0-2 미짜' 아도
32258-0-1	꼬시-(香味)-CY	32258-0-1 꼬시더' 라
32258-0-2	꼬시-(香味)-아Y	32258-0-2 꼬시' 이도
32259-0-1	내리-(降)-CY	32259-0-1 내' 리더라
32259-0-2	내리-(降)-아Y	32259-0-2 내' 리도
32260-0-1	구르-(轉)-CY	32260-0-1 구불더' 라
32260-0-2	구르-(轉)-아Y	32260-0-2 구부' 러도
32261-0-1	만들-(作)-CY	32261-0-1 만들더' 라
32261-0-2	만들-(作)-아Y	32261-0-2 만드' 러도

32262-0-1	늡-(老)-CY	32262-0-1 늡떠' 라
32262-0-2	늡-(老)-아Y	32262-0-2 늡' 거도
32263-0-1	앳-(痛)-CY	32263-0-1 앳터' 라
32263-0-2	앳-(痛)-아Y	32263-0-2 아' 라도
32264-0-1	따르-(隨)-CY	32264-0-1 딸터' 라
32264-0-2	따르-(隨)-아Y	32264-0-2 따' 라도
32265-0-1	사-(賈)-CY	32265-0-1 사터' 라
32265-0-2	사-(賈)-아Y	32265-0-2 사' 도'
32266-0-1	치우-(除)-CY	32266-0-1 치' 우더라
32266-0-2	치우-(除)-아Y	32266-0-2 치' 와도
32267-0-1	부러지-(被折)-CY	32267-0-1 뿌' 러지더라
32267-0-2	부러지-(被折)-아Y	32267-0-2 뿌' 러저도
32268-0-1	다치-(傷)-CY	32268-0-1 다' 치터' 라
32268-0-2	다치-(傷)-아Y	32268-0-2 다' 처도
32269-0-1	느리-(緩)-CY	32269-0-1 느' 리더라
32269-0-2	느리-(緩)-아Y	32269-0-2 느' 리도
32270-0-1	무치-(和,나물을)-CY	32270-0-1 무' 치더라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Y	32270-0-2 무' 치도
32271-0-1	죄:-(締)-CY	32271-0-1 조' 오더라
32271-0-2	죄:-(締)-아Y	32271-0-2 조' 아도
32272-0-1	팔-(賣)-CY	32272-0-1 팔' 더라
32272-0-2	팔-(賣)-아Y	32272-0-2 파' 러' 도
32273-0-1	뽑-(選)-CY	32273-0-1 뽑' 떠' 라
32273-0-2	뽑-(選)-아Y	32273-0-2 뽑' 버' 도

32274-0-1	뒤지-(索)-CY	32274-0-1 디배더' 라
32274-0-2	뒤지-(索)-아Y	32274-0-2 디배' 애도
32275-0-1	마치-(終)-CY	32275-0-1 마' 치더라
32275-0-2	마치-(終)-아Y	32275-0-2 마' 처도
32276-0-1	절이-(鹽)-CY	32276-0-1 저' 리더라
32276-0-2	절이-(鹽)-아Y	32276-0-2 저' 리도
32277-0-1	휘-(曲)-CY	32277-0-1 후' 우더라
32277-0-2	휘-(曲)-아Y	32277-0-2 후' 워도
32278-0-1	줍:-(拾)-CY	32278-0-1 주우' 떠' 라
32278-0-2	줍:-(拾)-아Y	32278-0-2 주' 우도
32279-0-1	빼앗-(奪)-CY	32279-0-1 빼떠' 라
32279-0-2	빼앗-(奪)-아Y	32279-0-2 빼' 서도
32280-0-1	기울-(傾)-CY	32280-0-1 찌' 부더라
32280-0-2	기울-(傾)-아Y	32280-0-2 찌' 부러도
32281-0-1	아깝-(惜)-CY	32281-0-1 아깝떠' 라
32281-0-2	아깝-(惜)-아Y	32281-0-2 아까' 바도
32282-0-1	반갑-(歡)-CY	32282-0-1 방' 갑' 떠라
32282-0-2	반갑-(歡)-아Y	32282-0-2 방' 가' 바도
32283-0-1	찌-(蒸)-CY	32283-0-1 찌' 더' 라
32283-0-2	찌-(蒸)-아Y	32283-0-2 찌' 도'
32284-0-1	노랑-(黃)-CY	32284-0-1 노라터' 라
32284-0-2	노랑-(黃)-아Y	32284-0-2 노래' 애도
32285-0-1	푸르-(靑)-CY	32285-0-1 푸' 르더라
32285-0-2	푸르-(靑)-아Y	32285-0-2 푸' 러도

32286-0-1	서두르-(忙)-CY	32286-0-1	서' 둘' 더라
32286-0-2	서두르-(忙)-아Y	32286-0-2	서' 두' 러도
32287-0-1	서투르-(不熟)-CY	32287-0-1	서어' 툴' 더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Y	32287-0-2	서어' 투' 러도
32288-0-1	게으르-(怠)-CY	32288-0-1	기그르더' 라
32288-0-2	게으르-(怠)-아Y	32288-0-2	기글' 러도
32289-0-1	따뜻하-(溫)-CY	32289-0-1	따뜻하더' 라
32289-0-2	따뜻하-(溫)-아Y	32289-0-2	따뜻해' 애도
32290-0-1	춡-(寒)-CY	32290-0-1	*
32290-0-2	춡-(寒)-아Y	32290-0-2	*
32291-0-1	뜨겁-(極熱)-CY	32291-0-1	뜨겁떠' 라
32291-0-2	뜨겁-(極熱)-아Y	32291-0-2	뜨거' 버도
32292-0-1	미지근하-(微溫)-CY,	32292-0-1	미지근하더' 라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Y	32292-0-2	미지근해' 애' 도
32293-0-1	차갑-(寒)-CY	32293-0-1	참' 떠라
32293-0-2	차갑-(寒)-아Y	32293-0-2	차' 바' 도
32294-0-1	부럽-(羨)-CY	32294-0-1	부' 립' 떠라
32294-0-2	부럽-(羨)-아Y	32294-0-2	부' 러' 버도
32295-0-1	얕밋-(憎)-CY	32295-0-1	밋떠' 라
32295-0-2	얕밋-(憎)-아Y	32295-0-2	미' 버도
32296-0-1	비슷하-(類似)-CY	32296-0-1	비슷하더' 라
32296-0-2	비슷하-(類似)-아Y	32296-0-2	비슷해' 애' 도
32297-0-1	새롭-(新)-CY	32297-0-1	*
32297-0-2	새롭-(新)-아Y	32297-0-2	*

32298-0-1	서:럽-(悲痛)-CY	32298-0-1 서어' 럽' 떠라
32298-0-2	서:럽-(悲痛)-아Y	32298-0-2 서러' 버도
32299-0-1	까다롭-(難)-CY	32299-0-1 까드랍떠' 라
32299-0-2	까다롭-(難)-아Y	32299-0-2 까드라' 버도
32300-0-1	외롭-(孤)-CY	32300-0-1 웨' 럽떠라
32300-0-2	외롭-(孤)-아Y	32300-0-2 웨' 러' 버도
32301-0-1	아쉽-(不滿)-CY	32301-0-1 아' 습떠라
32301-0-2	아쉽-(不滿)-아Y	32301-0-2 아' 스버도
32302-0-1	단단하-(固)-CY	32302-0-1 단단하더' 라
32302-0-2	단단하-(固)-아Y	32302-0-2 단단해' 애' 도
32303-0-1	늦-(晚)-CY	32303-0-1 느떠' 라
32303-0-2	늦-(晚)-아Y	32303-0-2 느' 저도
32304-0-1	남:-(餘)-CY	32304-0-1 나암' 떠' 라
32304-0-2	남:-(餘)-아Y	32304-0-2 나' 머도
32305-0-1	남기-(使餘)-CY	32305-0-1 낭' 기더라
32305-0-2	남기-(使餘)-아Y	32305-0-2 낭' 기도
32306-0-1	넘어뜨리-(使倒)-CY,	32306-0-1 녕구터' 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Y	32306-0-2 녕과' 아도
32307-0-1	꾸그러뜨리-(使凹)-CY	32307-0-1 우굴추' 우더라
32307-0-2	꾸그러뜨리-(使凹)-아Y	32307-0-2 우굴추' 어도
32308-0-1	견주-(比)-CY	32308-0-1 전주터' 라
32308-0-2	견주-(比)-아Y	32308-0-2 전좌' 아도
32309-0-1	외우-(誦)-CY	32309-0-1 *
32309-0-2	외우-(誦)-아Y	32309-0-2 *

32310-0-1	문지르-(摩)-CY	32310-0-1 문대' 애더라
32310-0-2	문지르-(摩) -아Y	32310-0-2 문대' 애' 도
32311-0-1	가리키-(指)-CY	32311-0-1 갈치' 이더라
32311-0-2	가리키-(指)-아Y	32311-0-2 갈치' 이도
32312-0-1	가르치-(敎)-CY	32312-0-1 갈치' 이더라
32312-0-2	가르치-(敎)-아Y	32312-0-2 갈치' 이도
32313-0-1	겨누-(照準)-CY	32313-0-1 전주터' 라
32313-0-2	겨누-(照準)-아Y	32313-0-2 전좌' 아도
32314-0-1	겨루-(競)-CY	32314-0-1 *
32314-0-2	겨루-(競)-아Y	32314-0-2 *
32315-0-1	달래-(慰撫)-CY	32315-0-1 달개' 애더라
32315-0-2	달래-(慰撫)-아Y	32315-0-2 달개' 애도
32316-0-1	본받-(效)-CY	32316-0-1 뽀바떠' 라
32316-0-2	본받-(效) -아Y	32316-0-2 뽀바' 더도
32317-0-1	어지르-(散)-CY	32317-0-1 어' 지' 리더라
32317-0-2	어지르-(散)-아Y	32317-0-2 어' 지' 려도
32318-0-1	달리-(走)-CY	32318-0-1 쪼' 차가' 더' 라
32318-0-2	달리-(走)-아Y	32318-0-2 쪼' 차가' 도
32319-0-1	우기-(拗)-CY	32319-0-1 씨' 우더라
32319-0-2	우기-(拗)-아Y	32319-0-2 씨' 와도
32320-0-1	중얼거리-(獨言)-CY,	32320-0-1 중얼거' 리더라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Y	32320-0-2 중얼거' 레도
32321-0-1	지결이-(騷)-CY	32321-0-1 쥐' 끼더라
32321-0-2	지결이-(騷)-아Y	32321-0-2 쥐' 끼도

32322-0-1	다니-(行)-CY	32322-0-1	댕' 기더라
32322-0-2	다니-(行)-아Y	32322-0-2	댕' 겨도
32323-0-1	떨어뜨리-(使落)-CY,	32323-0-1	넬쭈터' 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Y	32323-0-2	넬쭈' 아도
32324-0-1	깨-(覺)-CY	32324-0-1	깨' 더' 라
32324-0-2	깨-(覺)-아Y	32324-0-2	깨' 애' 도
32325-0-1	시-(酸)-CY	32325-0-1	새그랍떠' 라
32325-0-2	시-(酸)-아Y	32325-0-2	새그라' 바도
32326-0-1	숫-(湧)-CY	32326-0-1	소떠' 라
32326-0-2	숫-(湧)-아Y	32326-0-2	서' 서도
32327-0-1	좋:-(好)-CY	32327-0-1	조오' 터' 라
32327-0-2	좋:-(好)-아Y	32327-0-2	조와' 도
32328-0-1	빨강-(赤)-CY	32328-0-1	빨가터' 라
32328-0-2	빨강-(赤)-아Y	32328-0-2	빨개' 애' 도
32329-0-1	끌:-(曳)-CY	32329-0-1	끄' 으더라
32329-0-2	끌:-(曳)-아Y	32329-0-2	끄' 어도
32330-0-1	얇:-(薄)-CY	32330-0-1	*
32330-0-2	얇:-(薄)-아Y	32330-0-2	*
32331-0-1	하얗-(白)-CY	32331-0-1	하야터' 라
32331-0-2	하얗-(白)-아Y	32331-0-2	하애' 애도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 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 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 게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 또
32333-0-1	논(沍)-이/가	32333-0-1	노' 니
32333-0-2	논(沍)-을/를	32333-0-2	노' 늘'
32333-0-3	논(沍)-에(서)	32333-0-3	노' 네
32333-0-4	논(沍)-으로	32333-0-4	*
32333-0-5	논(沍)-도	32333-0-5	논' 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 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 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 레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 또'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 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 물'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 메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 도'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 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 불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 베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 또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 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3	오' 세
32337-0-3	옷(衣)-에(서)	32337-0-2	오' 슬'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

32337-0-5	옷(衣)-도	32337-0-5	오' 또'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방' 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 을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 에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 도
32339-0-1	낫(晝)-이/가	32339-0-1	나' 지'
32339-0-2	낫(晝)-을/를	32339-0-2	나' 즐'
32339-0-3	낫(晝)-에(서)	32339-0-3	나' 제
32339-0-4	낫(晝)-으로	32339-0-4	*
32339-0-5	낫(晝)-도	32339-0-5	나' 또'
32340-0-1	낫(顔)-이/가	32340-0-1	나' 치'
32340-0-2	낫(顔)-을/를	32340-0-2	나' 틀'
32340-0-3	낫(顔)-에(서)	32340-0-3	나' 테
32340-0-4	낫(顔)-으로	32340-0-4	*
32340-0-5	낫(顔)-도	32340-0-5	나' 또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부서' 기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부서' 글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부서' 계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부석' 또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 치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 틀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 테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 또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 피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 풀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 폐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 또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넋' 시가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넋' 시를
32344-0-3	넋(魂)-에(서)	32344-0-3	*
32344-0-4	넋(魂)-으로	32344-0-4	*
32344-0-5	넋(魂)-도	32344-0-5	넋' 시도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흙' 기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흙' 글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흙' 게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
32345-0-5	흙(土)-도	32345-0-5	흙' 또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여' 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여' 더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여' 더레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여' 덜도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도' 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도' 레'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또'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갑' 시'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갑' 슬'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갑' 세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
32348-0-5	값(價)-도	32348-0-5	갑' 또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오' 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오' 글'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오' 게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

32349-0-5	속:(內)-도	32349-0-5	소옥' 또'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오' 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오' 늘'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오' 네'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
32350-0-5	돈:(錢)-도	32350-0-5	도온' 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 리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 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 레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 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 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 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 메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 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 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 불'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 베'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 또'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 시'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 슬'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 세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
32354-0-5	낫(鎌)-도	32354-0-5	낫' 또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 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 을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 예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 도'
32356-0-1	젓(乳)-이/가	32356-0-1 저' 지'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저' 즐'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저' 제
32356-0-4	젓(乳)-으로	32356-0-4 *
32356-0-5	젓(乳)-도	32356-0-5 저' 또'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 치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 틀'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 테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 또'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 치'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 틀'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 테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 또'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여' 피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 풀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 폐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
32359-0-5	옆(側)-도	32359-0-5 엽' 또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1 짜' 기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2 짜' 글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3 짜' 게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4 *
32360-0-5	샅(賃金)-도	32360-0-5 짹' 또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다' 기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다' 글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다' 게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

32361-0-5 닭(鷄)-도

32361-0-5 달' 또'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배' 끼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배' 끝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배' 께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

32362-0-5 밖(外)-도

32362-0-5 배' 께도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5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3 저-을/를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5 너

40105-0-1 -가

40105-0-2 -의

40105-0-3 -을/를

40105-0-4 -에게

40105-0-5 -와/과

40105-0-6 -는

40105-0-7 -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1 *

40101-0-1 내' 가'

40101-0-2 내끼' 다

40101-0-3 나' 알 도' 고

40101-0-4 내한' 테

40101-0-5 내하' 고

40101-0-6 나는, 내' 는

40101-0-7 내' 도

40102 저'

40102-0-1 저/가

40102-0-2 저' 꺼'

40102-0-3 저' 를

40102-0-4 저한' 테

40102-0-5 저하' 고

40102-0-6 저' 는

40102-0-7 저' 도

40103 우리'

40104 저' 들

40105 니

40105-0-1 니' 가'

40105-0-2 니꺼

40105-0-3 니' 를

40105-0-4 니한' 테

40105-0-5 니하' 고

40105-0-6 니' 느

40105-0-7 니' 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어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9 가' 아들
40109-1 야' 아들
40109-2 자' 아
40110 지'
40111 당신'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 라요
40112-0-1 누가'
40112-0-2 누우꺼'
40112-0-3 누구'
40112-0-4 누구'
40112-0-5 누' 구' 하고
40113 머어' 고, 머어라요'
40113-0-1 머어가'
40113-0-2 무슨'
40113-0-3 머어
40113-0-4 머하' 고

4.1.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
40115 언' 제'
40116 어능기'
40117 와
40118 얼마' 나
40119 어예'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0	이게' 예
40121	그것	40121	그게' 예
40122	저것	40122	저기' 이
40123	여기	40123	여' 기
40124	거기	40124	거' 기
40125	저기	40125	저' 기
40126	이리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7	그' 리
40128	저리	40128	저' 리'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40201	일' 련가미
40202	-이/가	40202	감자' 가
40203	-을/를	40203	감자V를
40204	-을/를	40204	일' 련가물
40205	-에게/게	40205	춘자한테
40206	-보고/더러	40206	*
40207	-보고/더러	40207	누굴보고
40208	-에	40208	지' 베
40209	-에	40209	*
40210	-에서	40210	지' 베서
40211	-에서	40211	여게서
40212	-에서	40212	여' 게서
40213	-으로	40213	참쌀로
40214	-으로	40214	지푸' 로
40215	-으로	40215	새' 끼로
40216	-으로	40216	어디로'
40217	-와/과	40217	도마도하고 감자하고
40218	-와/과	40218	내하' 고
40219	-보다	40219	상처리보' 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20 대애' 지거치'
 40221 그사람' 망큼'
 40222 머글 망큼'
 40223 상구나
 40224 *
 40225 춘자야
 40226 누부야
 40226-1 *
 40227 할배요
 40227-1 *
 40228 술하' 고 고' 기하고 떡하' 고
 40229 마뉘는' 카' 이도

4.2.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커피는 마시지만 수른 안 머거
 40231 하나만
 40232 키도 크고 인물또 잘 생기고 성격도
 좋고 도온도 망코
 40233 날마' 다
 40234 오' 늘부' 터
 40235 내일꺼' 정
 40236 머글물조차
 40236-1 *
 40237 마아'리사
 40238 소릴랑
 40239 부우자라도
 40240 하나빼께
 40241 싸가지고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나를 오라꼬 손질한다
 40243 아' 라서요
 40244 누가 승가' 아서요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안' 저라
40302 양께
40303 안저요
40304 안즈' 소
40305 안즈' 소

4.3.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오
40310 -세요

40306 가' 자
40307 가' 세
40308 가' 요
40309 감시' 다
40310 감시' 다

4.3.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습니까
40320 -세요

40311 오' 나
40312 오능' 가
40313 와' 요'
40314 읊니' 까
40315 읊니' 까
40316 어디로 가노
40317 어디로 가능고
40318 어디로 가요
40319 어디로 감니까
40320 어디로 감니까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밥 멩는다
40322	-네	40322	밥 멩네
40323	-오	40323	밥 머거요
40324	-습니다	40324	밥 먹습니다
40325	-네요	40325	밥 먹습니다
40326	-다	40326	자악' 따
40327	-네	40327	자앙' 네
40328	-소	40328	자아' 가' 요
40329	-으십니다	40329	자악' 슴' 니다
40330	-으세요	40330	자악' 슴' 니다

4.3.5. 반말

40331	-아	40331	아퍼' 요
40332	-지	40332	가지

4.3.6. -이다

40333	-이다	40333	연피리다
40334	-이니	40334	연피리가
40335	-이네	40335	연피리네
40336	-인가	40336	연피린가
40337	-이오	40337	연피리라요
40338	-이오	40338	연피리라요
40339	-입니다.	40339	연피립니다
40340	-입니다	40340	연피립니다
40341	-이지지요	40341	*
40342	-이지지요	40342	수거너지요
40343	-이냐?	40343	머어' 고'
40344	-인가?	40344	머' 언고
40345	-이오?	40345	머이라요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46 머입니까
40347 머엄니까
40348 머어고
40349 머어라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0 만' 습니다
40351 마안습떠다
40352 멍는구나
40353 *
40354 오랜마일세
40355 가프꾸마
40356 갑겐네
40357 다' 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밥 먹꼬
40402 머그면서
40403 더' 워서
40404 배고푸' 이
40405 무슨 일로
40406 오다' 가
40407 만' 나거등'
40408 이떠' 라도
40409 밥 머' 글라꼬
40410 빠가 빠지도록
40411 여물수록
40412 물 씨든 하고
40413 마시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1	*
40502	-셨소	40502	*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웃' 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2	간다'
40603	크다	40603	크' 다
40604	생일이다	40604	칠성나리' 다
40605	오고 있다	40605	오고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머' 건나 / 잡사알' 셔요?
40607	왔었다	40607	*
40608	먹더라	40608	먹떠' 라
40609	먹더냐	40609	먹떠' 나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만' 내는 칭구
40611	만난 친구	40611	어제 온 하라버지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만넨는 손님
40613	만날 친구	40613	만넨 친구
40614	큰 아이	40614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6	켰던 아이	40616	켰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안 먹개따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오개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안 머거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 조아요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40703	안 깨끄타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안 가써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40705	몸 만내바써 / 안 만내바써. /*

만나 안 보았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1 먹도 않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6 밥또 안 먹꼬 잠만 자네
 40706-1 드찌도 보지도 모태따
 40707 몸 마십니다
 40708 마짤나 / 내 마리 안 만나

4.8. 피동과 사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40802 늘리다
 40803 말리다1
 40804 말리다2
 40805 얼리다
 40806 녹이다
 40807 신기다
 40808 보이다
 40809 알리다
 40810 입히다
 40811 앉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찌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돌우다

40801 살' 린다
 40802 늘군느' 다
 40803 말룬느' 다
 40804 말' 린다
 40805 얼군느' 다
 40806 녹군느' 다
 40807 싱개' 앤다
 40808 보이' 인다
 40809 알리' 인다
 40810 이피' 인다
 40811 안치' 인다
 40812 비끼' 인다
 40813 위' 낀다
 40814 찌꾸' 운다
 40815 숨' 킨다
 40816 굶' 긴다
 40817 깨' 운다
 40818 도둔느' 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20 깎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40819 자피' 인다
 40820 까끼' 인다
 40821 끼엔' 다
 40822 띠엔' 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엇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끊기다
 40834 굵히다

40823 차이' 따
 40824 다끼' 인다
 40825 드끼' 인다
 40826 어피' 인다
 40827 바뀌' 인다
 40828 씨피인' 다
 40829 언치인' 다
 40830 찌키인' 다
 40831 놀리인' 다
 40832 실리' 인다
 40833 끊키인' 다
 40834 끝키인' 다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1 보고지퍼도
 40902 *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3 이버봐요
 40904 다 머거 뿌렌노
 40905 우리싼노
 40906 올랑갑따
 40907 자능갑따
 40908 추봉갑따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1 시퀸
 41002 마' 이'
 41003 너무
 41004 쪼꿈마'
 41005 자' 주'
 41006 빨' 리

41007	얼른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8	기이코'
41009	가꿈	41009	가' 꿈'
41010	먼저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1	나주' 에
41012	가득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3	모웅땅'
41014	모조리	41014	모조' 리
41015	혼자	41015	혼' 자
41016	항상	41016	항' 상'
41017	똑똑히	41017	똑또' 기
41018	겨우	41018	기와'
41019	늘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0	제절' 로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3	조곰해슴
41024	함께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5	거친하면
41026	공연히	41026	고여' 이
41027	그냥	41027	그' 양
41028	매우	41028	매' 우
41029	곧장	41029	바로'
41030	벌써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1	기중'
41032	가만히	41032	가마' 이
41033	미리	41033	미' 리
41034	이따금	41034	어쩌다' 아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41102	여보세요	41102	여' 보' 소
41103	들어가세요	41103	잘 이스' 소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수고하' 소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오랜마' 이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아침 잡좌' 알서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펴난하설습니까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돈 바' 드소
41109	예	41109	예
41110	아니	41110	아니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아무치도 아내요
41112	내버려 뒀	41112	나아 도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취나 개나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밑빠진 도게 물 부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도기 소도둑 텐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불 안 땐 굴떠게 영기가 나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